YOU'RE INCHEON

2011 1119 sat -1218 sun

2011 인천젊은작가 기획프로젝트

유어 인천

遊於仁川

YOU'RE INCHEON

인천에서 노닐다

주최 인천문화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주관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

후원 CHEVROLET CAMF 주한미군방송네트워크

2011 인천젊은작가 기획프로젝트
유어인천 You're Incheon 遊於仁川 ; 인천에서 노닐다
2011.11.19–12.18
인천아트플랫폼 A동, B동, C동, D동, H동, 야외 및 한국근대문학관 건립예정지

이 책은 인천의 젊은 작가에 대한 자료집임과 동시에 〈유어인천 You're Incheon 遊於仁川 ; 인천에서 노닐다〉전의 전시도록으로써, 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작업 노트 및 인천에서의 작업활동에 대한 작가들의 발언을 고루 담고자 하였습니다.

2011 1119 sat -1218 sun

2011 인천젊은작가 기획프로젝트

유어 인천 遊於仁川 YOU'RE INCHEON

인천에서 노닐다

주최 인천문화재단
주관 인천아트플랫폼
후원 쉐보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관장 이승미
전시자문 및 운영위원 민운기, 박석태, 오석근, 유광식, 윤종필, 이종구, 이탈, 채은영, 김용건
전시총괄 한재섭
전시진행 김민경
전시지원 오병석, 오혜미, 조은주, 박우철
홍보 지영철
연계교육프로그램 신민영, 김정현, 함재민

발행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이승미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발행일 2011. 12. 2
발행처 인천아트플랫폼
(우:400-021) 인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Tel. 032)760-1000 Fax. 032)760-1010
www.inartplatform.kr
디자인 다인아트 www.dainarts.com
번역 박선영, 박지혜
ISBN 978-89-92678-31-5

Hosted by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Organised by Incheon Art Platform
Supported by Chevrolet, Juan Media Center

Director LEE Seungmi
Advisor MIN Woongi, PARK Seoktae, OH Sukkuhn, YOO Gwangsig, YOON Jongpil, LEE Jonggu, LEE Tal, CHA Eunyounug, KIM Youngjin
Organization HAN Jae-sup
Coordination KIM Minkyung
Management and Support O Byoung Suk, OH Hye-mi, CHO Eunjoo, PAK Ucheol
Public Relations JI Young-Cheol
Educator SHIN Minyoung, KIM Junghyun, HAM Jaemin

Publisher SONG Young-gil, Mayor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Editor LEE Seungmi, Director of Incheon Art Platform
Date of publication 2011. 12. 2
Contact Incheon Art Platform
218-3 Jemulryang-ro, Jung-gu, Incheon (400-021)
Tel. 032)760-1000 Fax. 032)760-1010
www.inartplatform.kr
Design Dainart www.dainarts.com
Translation PARK Sun-young, PARK Ji-ha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individual copyright holders and the Incheon Art Platform.

This catalogue is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200 Incheon Young Artist Project - 'You're Incheon'

인천문화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

Contents

인사말	8
나이가 젊은 작가, 나이도 젊은 작가 _민운기	12
자유롭게 노닐다가 스스로 인천이 되다 _박석태	20
강혁	28
고병선	32
곽이브	36
곽지영	40
구본아	44
길다래	48
김기민	52
김문선	56
김수환	60
김아리따	64
김윤아	68
김진석	72
김진기	76
나광호	80
노소영	84
랑	88
류성환	92
문상원	96
문창화	100
민병권	104
박우철	108
박정현	112
박진영	116
방혜린	120
백다하미	124
백승기	128
백승섭	132
백인태	136
서건원	140
서재헌	144
손승범	148
안우동	152
연미	156
오민수	160
오상석	164
오석근	168
오은미	172
오종은	176
옥경래	180
윱쓰양	184
유광식	188
유목연	192
윤대희	196
윤종필	200
이미현	204
이상아	208
이상휘	212
이선미	216
이정우	220
이종규	224
이지선	228
이해룡	232
이향경	236
장경애	240
전승용	244
전태수	248
정윤희	252
정지혜	256
조대희	260
주은희	264
주희란	268
최경운	272
현용안	276
홍화선	280
홍효숙	284
나는 미완의, 불확실한 작가이다 _오석근	289
산술(算術)하다 _유광식	293
인천, 흔적을 고스란히 기억하다 _윤종필	295
추진경과	301
전시자문 및 운영위원 회의록	303
참여작가 집담회	328
작품배치도	333
전시장 전경	334

인사말

인천문화재단이 인천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젊은 작가 기획프로젝트 〈유어 인천 遊於仁川 You're Incheon ; 인천에서 노닐다〉展을 개최합니다.

〈유어인천 遊於仁川 You're Incheon ; 인천에서 노닐다〉展은 한국근대사의 격동기와 함께해 온 원로미술인들의 작품세계를 통해 인천미술의 뿌리를 확인하고자 한 2009년 〈인천미술의 초석〉展, 1980년대 이후부터 왕성한 활동으로 인천미술의 든든한 허리역할을 해 온 중진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조망한 2010년 〈인터_뷰〉展에 이은 세 번째 연례 기획전시입니다.

〈유어인천 遊於仁川 You're Incheon ; 인천에서 노닐다〉展은 인천의 젊은 작가들에 대한 지형도를 탐색하는 전시입니다.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참여작가들은 인천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인천의 젊은 작가라 생각하는 작가들입니다. 다종다양한 작업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세계는 그것 자체만으로 지금, 현재 인천미술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작가로써의 자부심과 끊임없는 자기실험은 인천미술을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이번전시를 계기로 인천미술의 주춧돌이 될 젊은 작가들이 인천에서 마음껏 노닐며 왕성한 작품세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전시에 참여해 주신 예순 다섯 분의 젊은 작가들 모두 큰 포부를 가지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유분방한 젊은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전시의 큰 얼개를 잡아준 전시운영위원들과 인천아트플랫폼 식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강 광**

Greetings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hosts the young artist special project <You're Incheon (遊於仁川)> Exhibition to weigh the present and future of Incheon art.

<You're Incheon (遊於仁川)> Exhibition is the third annual special exhibition following the <Cornerstone of Incheon Art (2009)> that showed the roots of Incheon art through the works of veteran artists who bore witnesses to the turbulent period in modern Korean history, and <Inter_View (2010)> of acclaimed Incheon artists from the 1980s and onwards whose voracious activities have been the backbone of Incheon art.

<You're Incheon (遊於仁川)> Exhibition is an exhibition exploring Incheon's young artists. They are locally active artists between ages 25 to 40 years, who believe themselves to be the young artists of Incheon. The works of the artists show just how diverse art is and it reflects on the current status of Incheon art. Young artists, with their pride as artists and endless self-struggle, keep Incheon's art even younger and more vibrant.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hopes to create a forum where the young Incheon artists - the cornerstone of Incheon art - can freely play and experiment to complete their work.

I hope that all sixty four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is exhibition, have big aspirations and I wish them the best. I'd like to also thank the exhibition organizing committee members and our family at Incheon Art Platform for their hard work in creating a large structure so that artists could gather together without restrictions or limitations for this exhibition, despite their busy schedules.

Kang Kwang Director of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인사말

2009년 〈인천미술의 초석〉展과 2010년 〈인터_뷰〉展에 이은 2011년 〈유어인천 遊於仁川 You're Incheon ; 인천에서 노닐다〉展은 3개년 동안 이어온 기획을 마무리 짓는 전시이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전시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문화재단의 야심찬 기획사업을 개관 2년차인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주관해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2011년 초, '젊은예술가 기획전시'라는 사업명으로 인천문화재단으로부터 이관되어 출발한 〈유어인천 遊於仁川 You're Incheon ; 인천에서 노닐다〉展은 출발부터 기존의 전시와는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현재 인천의 젊은 예술가들의 지형에 밝은 젊고 의욕적인 문화예술 활동가와 큐레이터, 평론가와 작가를 전시운영위원으로 모시고 본 전시의 의미와 방향성뿐 아니라 세세한 추진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인천' · '젊음' · '작가'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천의 젊은 작가의 범주를 정하고, 작가를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을 어느 한 사람의 기획자의 역할이 아닌 인천의, 전문가 그룹의, 공동의, 합의와 기획을 통해 이끌어 낸 것입니다. 문화예술 동네에서의 '합의'란 참 생소한 사건입니다. 예술동네에서는 '합의'보다는 개성과 창의력 그리고 진보적인 정신이 훨씬 존중되는 가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과정을 거친 후의 결과는 매우 탄탄하고 건강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건강한 합의의 이면에는 기획에 참여한 운영위원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전시운영위원들의 한결같은 꿈이란 '젊은이들이 예술 하기 좋은 도시 인천' 더 나아가 '세계 미술의 젊은 아이콘, 인천'일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와 진보의 한 걸음은 언제나 이렇게 누군가의 꿈으로부터 시작되고는 했습니다.

인천의 문화예술을 가꾸는 젊은 기획자들과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준비한 〈유어인천 遊於仁川 You're Incheon, 인천에서 노닐다〉展을 여러분과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공감 하고 격려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격려는 예술가들의 꿈을 가꾸는 동력이 되어 다시 현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긴 시간 애써주신 전시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행운을 마련해 준 인천문화재단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준 '인천의, 젊은, 예술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곧 인천이며 현대미술의 새로운 아이콘입니다.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하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오기를 바랍니다.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이승미**

Greetings

Following the <Cornerstone of Incheon Art> Exhibition (2009) and <Inter_View> Exhibition (2010), the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 (遊於仁川)> Exhibition (2011) holds great meaning as it represents culmination of three months of planning, and start off to a new beginning. Moreover, I am proud that Incheon Art Platform, a second year venture of Incheon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IFAC") planned and hosted this event.

Early in 2011, under the business title of 'Special Exhibition of Young Artists,' this project was transferred from IFAC. From the beginning stages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 (遊於仁川)> Exhibition sought a different approach from the previous exhibitions. Among the young artists of Incheon, we invited those familiar with the region, bright, ambitious, and active cultural activists, curators, critics, and artists to participate as exhibition organization committee members to discuss the meaning, direction, and details of organizing the exhibition.

The deciding of prerequisites such as 'Incheon,' 'youth,' and 'artist,' the search for valid artists, and deciding of meaning was done not by one planner but by Incheon's group of specialists, jointly, through discussion and planning.
In the cultural art community, 'agreement' is an unfamiliar event. In the art community rather than 'agreement,' originality, creativity, and progressive thinking are qualities more respected and valued. However I believe that the agreement process brought sound and productive results. This could only be possible because on the other side of the agreement process,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 committee members dreamed the same dream.
The joint dreams of the committee members of this exhibition will likely be 'Incheon, a place for young artists' and moreover 'Incheon, the young icon of art worldwide.' The progressive step toward changing the world always began with one's dream.

I hope you and Incheon citizens alike will empathize and support the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 (遊於仁川)> Exhibition planned and prepared by young planners and artists that cultivate Incheon's cultural arts. Your support will energize the artists' dreams and will come alive.

I'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organization committee members for their passion and long term commitment to this project. I also would like to thank our family at the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for giving us this opportunity to achieve such a feat. Mo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Incheon's, Young, Artists' who allowed us to dream a bigger dream.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and love. You are Incheon and the new icons of modern art. I hope I am lucky enough to see you all active on a greater stage.

Seungmi Lee Director of Incheon Art Platform

나이가 젊은 작가,
나이도 젊은 작가

–

遊於仁川 기획취지 및 의도에 대하여

–

민운기 전시운영위원, 스페이스 빔 디렉터

'기획'이란?

어떠한 기획이든 이는 기획 주체의 사고와 입장을 드러낸다. 특정 시기, 특정 지역, 특정 주체들을 대상으로 미술 관련 양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할 경우에도 기획 주체가 미술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관점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그 모양새는 다르게 나타난다. 즉 기획 주체의 미술(가)에 대한 개념이나 형태, 관심사, 문제의식, 기대수준 등에 따라 참가의 대상과 범위, 형태,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기획이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불러내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기획 주체의 '호명' 내지는 '말 걸기'에 대한 해당 주체들의 응답이자 또 다른 주체들의 관심과 반응을 끌어내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번의 기획

이번의 인천 젊은 작가 기획 프로젝트는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지역의 미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앞서 개최했던 두 차례의 전시, 즉 2009년도 〈인천미술의 초석礎石〉전과 2010년도 〈인터_뷰 Inter_View〉전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비평적 리뷰에서 출발하였다. 즉 두 개의 전시가 애초의 기획 취지와 의도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인천미술의 초석〉전은 인천 미술 형성기의 충분한 자료 확보 및 연구(할 대상)가 부족한 상태에서 해당 시기에 활동했던 원로작가들의 '최근의 작품'을 소개하다 보니 무엇이 '초석'인지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인터_뷰〉전의 경우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중견작가들을 다루었는데, 개별 작가와 작품 소개에 비중을 두다 보니 '지역미술'에 대한 진단 및 이의 극복 차원의 담론 생성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기획은 이러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서 동시대 (지역)미술을 바라보는 기획 담당 주체의 관점을 투영시켜 보고자 하였다. 즉 '인천'이라고 하는 물리적 · 행정적 경계를 두고, 이와 다양한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젊은' 작가들의 '미술 관련 작업과 활동'을 '현재의 관점'에서 파악해보기 위해 "오늘의 문화적 지형과 상황은 어떠한가?", "인천 지역 미술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지역의 젊은 작가들은 어떠한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라는 자기 질문과 전제를 깔고 불러내고자 하였다.

한편으로 기존 두 차례의 전시가 '과거'와 '이미 드러난 작가'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활동을 '조명'하는 차원에서 '초대'했다면, 이번 기획은 '현재의' '활동 중인' 작가들을 참가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다 보니 기획 주체가 흔히 행사하게 되는 '선택'과 '배제'라는 방식이 자칫 섣부른 태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를 이루기 위해 공개 모집 및 추천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참여 형태도 '작품' 전시만이 아닌, 그 간의 다양한 '활동'을 적절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고, 자료집 또한 이러한 아카이브 성격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전시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기회로 이번 기획 주체가 제기하는 논점에 대해 참여 작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또한 '인천'이라는 지역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상호 소개와 어울림의 시간 또한 필요할 것 같아 토론회(집담회)를 포함한 교류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동시대 문화지형의 변화

그렇다면 이번 기획을 통해 해당 작가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불러낸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동시대 문화지형의 변화 양상과 관련하여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와 구분이 없어지고, 전통적인 예술 장르 구분이 해체되거나 장르 간의 합종연횡이 활발해지면서 이미지와 사운드, 텍스트가 뒤섞임은 물론 이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주체 및 방식, 경로가 다변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활동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프라인에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Context)이 중시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최근 SNS(Social Network System) 이용자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다자간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저자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바르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본질' 추구가 아닌, 접속과 배치, 계열화 등 '의미' 생성의 관계와 구조(들뢰즈 · 가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예술과 일상의 시 · 공간적 분절 내지는 경계가 소멸되다시피 하는 가운데 예술(가)의 정의와 형태를 재정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어쩌면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양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동시대 상황과 조건 속에서 삶과 예술을 통합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감안해야 함은 물론 또 다른 문화적 상상력을 발동하여 활성화시켜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입장에서 작가들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고 이에 직 ·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나, 이를 적극적인 예술 활동의 장 내지는 요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번 기획에서는 이를 도외시한 관행적인 미술(가) 개념과 활동 형태로 접근할 경우 그 한계가 너무도 분명히 예견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논의의 테이블로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위에서 소개한 바 있듯이 '작품' 전시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참여 형태를 제시 및 제공하기에 이른 것이다. 해당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작가란?

둘째는 '젊다'는 것에 대해서이다. 예술(가)에 있어서 '젊다'는 말이 나오면 으레 "나이가 젊은가? 작업이나 활동이 젊은가?"를 두고 이야기가 나온다. 필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즉 나이를 젊은 세대로 한정시킨 데다가 작업이나 활동 또한 '젊다'는 관점에서 따져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바로 앞에서 언급한 "동시대 문화지형의 변화"에 누구보다도 먼저 반응하고 주목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은 물론 새로운 문화적 환경을 견인해야 할 주체는 '젊은 작가'이지 않나 싶다. 즉 기성의 사고와 제도, 영역에의 맹목적 편입이 아닌, 예술 본래의 성찰적, 전복적, 상상적 능력을 복원하여 이에 대한 문제의식의 소유와 대안 마련 의지의 소유자로서 탈코드화를 통한 재코드화, 탈영토화를 통한 재영토화 등의 실천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나 싶은 것이다.

사실 '젊다'는 것은 고정된 프레임과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유연한 사고와 태도를 보이면서도 다양한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류 예술 교육과 미술 체계는 이를 보장하거나 도와주지 못하고 기성의 틀 속에 편입시켜 자기 권위를 지키고 안위를 꾀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물론 어떤 경우 도전이나 실험의식을 강조하고 유도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해당 주체가 위협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젊은' 힘없는 작가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거나, 어떤 경우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임

으로써 기존의 시스템을 재생산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며, 결국 '나이만 젊은' 작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이번 기획에 참여한 작가들은 자신을 어떤 부류로 생각하고 있는지, 진정한 '젊은 작가'로 나서기 위해 어떤 노력을 벌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지역 예술 활동이란?

마지막으로 셋째는 '지역 예술 활동'에 대해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기존의 활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사실 우리의 예술 활동은 그동안 닫힌 미술 영역 시스템 속에서 각자가 자기 유명세나 상업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 중심의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 '지역'은 사실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다가오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거주지와 예술 활동의 궁극적 관심 지점이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겉도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나름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예술 자체의 양적 확산 및 접근과 이해 편의 제공 차원의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지역 예술 활동이란 각자가 감당하고자 하는 구체적 지반(Boundary) 속에서 삶과 사회, 도시에 대한 공동 및 공공의 지향점과 전망, 비전을 가지고 예술(가)로서 그 나름의 역할을 찾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선행 내지는 병행되어야 하고, 예술 활동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가운데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할 분담과 공조를 이루고, 구체적 '맥락' 속에서 예술적 발언과 소통의 통로를 확보함은 물론,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인 '작품'만이 아닌 구체적인 도시 정책 및 사업에 구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그 성과가 자신의 이익과 부합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지역'을 강조한다고 해당 지역에 폐쇄적으로 갇힐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정주'가 바탕이 될 때 자연스레 탈 지역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공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의 '이주'는 물론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도모함에 있어 상호 협력의 제대로 된 만남과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획 프로젝트의 주제인 유어인천遊於仁川, 즉 "인천에서 노닐다"는 (참여)작가들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사고와 관심으로의 변화는 물론 또 다른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遊', 즉 '노닐다'는 기존의 관행적인 미술영역 내에서 단지 장소만을 인천으로 선택하여 자기만족적인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놀다'와는 달리,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시 · 공간적 맥락과 상황에 각자의 오감을 열어놓고 반응하도록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발동되는 미학적 판단과 결과를 적절한 형태와 수단을 빌어 드러내고 함께 나누는 여유로운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인천에서 노닐다"는 인천이라는 지역과 예술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연계 속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 지향점을 찾아나가려는 태도와 모습이 아닌가 싶다.

현재의 인천 젊은 작가들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의 젊은 작가들 성향과 활동을 필자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성향과 형태의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크게 구분해 볼 때 기존의 제도적인 영역과 욕망을 따르는 중앙 지향의 모더니즘 성향의 작가가 있고, 이를 넘어선 구체적 삶의 영역과 공간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거나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는 포스트모더니즘 성향의 작가들이 있다. 물론 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의 작가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지레 실망하기에 앞서 이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나 싶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해당 작가들만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개개인의 성향은 저 마다의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다가 우리의 대학 예술 교육, 미술계 시스템, 사회적 시선과 처우, 경제적 환원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이러한 개별 사안 및 이들 각각이 얽혀 있는 관계와 구조를 개선해나가는 방향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우리의 미술 담론이 놓여 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활동이고, 어떠한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펼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 및 확산시켜 나가면서 개별 사안들의 변화 또한 도모해나가야 한다. 중요한 점은 개별 작가들이 이러한 담론의 장에 들어와 있는가, 혹은 들어올 의지가 있는가, 이다. 개별 작가들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현재의 수준이나 성향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의지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젊은 작가들에 거는 기대

이번 기획은 이러한 의도로 '인천'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와 인연을 맺고 있는 '나이가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총 65명이 참가하게 되었지만 이들만이 '인천'의 '젊은' '작가'를 대변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필자의 앞선 논지를 염두에 둘 때 이번 기획이 가급적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담아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또 다른 주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렇게 "인천의 젊은 작가"라는 이름으로 호명되기를 꺼려하여 참여를 하지 않거나, 자신이 해당되는지 몰라 참여를 못한 '인천'의 '젊은' '작가'들 또한 적지 않게 있었다. 이는 이번 기획에 관여하게 되어 보다 많은 참가를 이루어내야 할 필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일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동시대 미술 담론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인천 젊은 작가 기획 프로젝트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고려한 이들 주체의 다양한 예술 활동 조건 및 환경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 작가들 또한 저 마다의 문제의식을 첨예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바람직한 문화도시 내지는 문화사회, 또는 열린 도시공동체 인천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The Young Artist, The Artist Even Young

—

On the intention and planning purpose of 遊於仁川

—

Min, Woon-Gi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Director of Space Beam

What is 'Planning'?

The act of planning reflects the thoughts and standpoint of the planning party. Even when looking into the aspects of art with focus on a certain time, a certain place and certain subjects, planning takes on a different form depending on what ideas and viewpoints the planner holds on art. In other words, the object, scope, form, and means of who participates cannot help differ by the planner's concept, form, interests, critical mind, and expectations on the artist or the art itself. Therefore planning is an issue of how to call out in what standpoint. It is an act of response by the relevant participators to the calling or conversation from the planner, and is the act of luring the interest and reaction of others.

This Time's Planning

This Project of Incheon's Young Artists is an extension to the two former exhibitions, <The Cornerstone of Incheon Art> of 2009 and <Inter_View> of 2010, held by IFAC(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in line with "the project to systematically research and organize the art of Incheon", and yet, was first triggered by the former critical reviews received. That is, when considering whether the two exhibitions were managed as per the initial planning purpose and intentions, <The Cornerstone of Incheon Art> made it unclear on what exactly the 'cornerstone' is by introducing the 'recent works' of senior artists while lacking sufficient material and research (or the object of research) on Incheon Art's formative period. <Inter_View> introduced veteran artists from the 1980s to today, but by placing too much emphasis on each individual artist and work, failed to diagnose and create recuperative discussions over the issue of 'regional art'.

With all this behind us, this time we tried to project how the main planning party viewed contemporary (regional) art within the given scope and as per the initial purpose. That is, we tried to answers questions like "What is the cultural topography and situation of today?", "What are the roles and assignments of Incheon's regional art?" and "For this, how and where are the young regional artists working, and with what kind of vision and prospects?" We asked such questions by first placing the physical and administrative boundaries as 'Incheon' and tried to assess the variously related 'artistic work and actions' of 'young' artists in 'today's perspective'.

If the past two exhibitions were an 'invitation' that shed light on the 'past' and the contemporary work of the 'already exposed artists', this time the 'spotlight' is set on the 'active' artists 'of today'. Therefore we chose to publicly invite or receive recommendations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common 'selection' and 'exclusion' method of the planning party could turn into a crude attempt. Likewise, participation was also designed to show the various 'works' until now in a reasonable manner instead of a simple display of 'work'. The source book was also made in such an archive style. The aim is to allow participating artists the chance to confirm or exchange opinions on how they feel about the issues raised by the planning party, and not just display works as an exhibition. We also prepared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including debates to encourage those sharing the same regional codes to mutually introduce themselves and socialize.

The Change in the Contemporary Cultural Topography

Now then, let us articulate more on why we invited the relevant artists to this project in this manner. Firstly, with regards to the changing features of the contemporary cultural topography, not only are images, sounds, and texts commingling, but their production and circulation, and the objects, means and routes of consumers are being diversified, while the line between pure art and pop culture is becoming vague, the traditional classification of art genres are dissolving, and genres are vigorously merging with one another. Amidst the effortless flow of communication offline and online, the detailed situation and context is gaining importance offline, while the online is now becoming a multilateral debating space from the rapid increase in SNS users. "Death of the Author and Birth of the Reader" (Roland Barthes) is being spoken of, and not the pursuit of the 'essence', but the relationship and structure of the creation of 'meanings' in light of connection, placement and systematization (Deleuze and Guattari) is gaining attention. Consequently, while the segments or perhaps the boundaries of time and space between art and reality are deteriorating, we are forced to re-define the definition and form of art or the artist.

Such change should not be regarded as a mere 'phenomenon', but as something worth our tolerance to integrate life and art, and to realize an actual result amidst the contemporary situation and condition. It is also an issue worth reviving by triggering another kind of cultural imagination. In such light, artists are not an exception, and are directly and indirectly connected to this change, but in some cases, the change is perceived as an active opportunity or element of artistic movement, whereas to many others it is not. In this exhibition however, if approaching this issue ignorantly and with the customary concepts and work-style, the limitations would so clearly stand out. Therefore after contemplating how to drag the issue out onto the discussion table, we chose to not only display 'works', but also suggest and offer various ways of participation, as previously mentioned. How many artists would be applicable is yet to be confirmed.

Who is the 'Young' Artist?

Secondly, the issue is on what 'youth' means. When referring to an art or artist as 'young', people wonder, "Is the artist young? Or is the work or activity young?" I believe that both should be true. In other words, I would like to ponder this matter by limiting the age factor to the younger generation and also the work or activities in the 'younger' viewpoint.

In such perspective, the 'young artists' should be the ones to take initiative in reacting to and actively embracing the "change in the contemporary cultural topography" mentioned just above, and moreover lead the way towards a new cultural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e young artists should resist being swamped in the existing thoughts, systems and territories and try to restore art's primary self-reflective, subversive, and imaginative function to arm themselves with a critical mindset and an alternative plan. Such role shall be taken on by young artists through re-coding via de-coding, and re-territorializing via de-territorializing.

'Youth' in fact refers to those who are not fit into one category or frame, but rather, can think and act flexibly with various subconscious potential within. However the mainstream of our education and system is incapable of supporting the youth, and is merely struggling to preserve its own power by incorporating them into the existing frame. Of course challenges and experimenting are, at times, emphasized and encouraged,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relevant party feels unthreatened. As such, the 'young' powerless artists cannot help but adhere to the existing power, and in some cases, even help in re-producing the existing system by actively accepting it, and are finally turned into artists that are just 'young' in terms of age. In this sense, it is worth checking how the participating artists classify themselves and what kind of efforts are being put into becoming a true 'young artist'.

What is a Regional Art Activity?

Lastly, the issue is on the 'regional art activity'. More concretely, the issue is on the meaning of performing arts in a certain region, and the difference of it with the existing activities.

In truth, our artistic activity has been within a closed system of artistic domain in which competition was a 'centered' kind, trying to preserve popularity or commercial profit. 'Region', therefore, was never actually at the center of attention. This led to the mismatch of the residential area and the art activity's ultimate area of interest. However still, the common notion of regional art was mostly centered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approach and ease of understanding of art itself.

I would define regional art activity as a series of activities in which an artist strives to find his or her own place under his or her own detailed boundaries and with his or her own joint and common aim, prospect, and vision. For this, interest towards and research on the region must be preceded or at least kept at the same pace. The spectrum of artistic activity must be widened while dividing roles and cooperating with various parties via establishing a close network. To secure an artistic voice and a channel for communication would be vital, and efforts to visualize the artistic imagination and originality not only on individual 'work' but also on detailed policy and business of the city is required. It would be ideal to have the changes in and fruits of the regional community be aligned with the artist's own interests. Emphasizing the idea of 'region' does not mean we should confine ourselves within the narrow doors of the region. With such 'domiciliation', de-regionalized interest and sympathy can naturally be obtained. 'Migration' to another region and networking with other regions will bring about the proper connections of mutual cooperation.

The theme of this project,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 (遊於仁川)>, means "slowly passing time in Incheon" and reflects the change towards such thoughts and interests as well as other expectations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The '遊' with the meaning of 'to play' is not used as in where the artist simply places Incheon as the regional background and selfishly seeks his or her own meaning and pleasure within the customary artistic domain. The '遊' is placed in the context and situation of time and space called 'Incheon' and calls for the unfiltered reaction of all five senses. The '遊' here depicts the aesthetic decision and consequences derived from this, and expresses a relaxed, sharing attitude. Therefore "playing in Incheon" is a phrase that shows how Incheon and art co-exists, moving towards a meaning, a role, and a desired direction in tight mutual liaison.

Today's Young Artists of Incheon

In this light, after pondering on the inclinations and activities of Incheon's young artists, I can see that they form a diverse spectrum of inclinations and forms. Roughly speaking, at one end there are center-oriented modernist artists that abide by the existing policies and desires, and at the other, there are post-modernist artists that exist outside of the customary areas, in more detailed domains and spaces of life, pondering on new alternatives and searching for unique roles. Of course I wish that there were more of the latter, but reality is not as such. But before being disappointed, it would be much more important to objectively view and accurately assess why. This phenomenon is not just the responsibility of the artists. Individual tendencies are the offspring of each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s commingled with the university education of art, the world of art's system, the society's attention and treatment, and the ways of economical restoration. Therefore, the remedy must be sought from such individual issues and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and structure of each element. Our discussion of art is at the center of this. We need heated discussions on what the more valuable activity is and which method is more effective. Through this, we need to extract and expand the society's sympathy towards artistic activities and strive for the changes in individual issues at the same time. The important point is, whether or not individual artists are within the boundaries of discussions, or perhaps whether they have the will to join. The best way to face individual artists is not by the current stance or inclination, but by affirming whether or not they hold such willpower.

Expectations on Young Artists

This exhibition, in such light, targets artists 'young in age', with diverse relationships with Incheon. Total 61 artists participate, but they are not the only ones that represent 'Incheon's' 'young' 'artists'. Considering my earlier arguments,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although I have tried to accept and portray every factor, there may be other parties outside the boundaries. There were actually quite a few 'young' 'artists' of 'Incheon' that dread being labeled 'Incheon's young artists' or could not participate because they were not sure whether they were the target. Being involved in the planning and having the obligation to encourage as much participation as possible, this was no doubt an inconvenience on my part. But however still, I believe that this can be an important ground to re-confirm the detailed changes in discussions of contemporary art. Therefore, this exhibition of Incheon's young artists should consider such points and be able to prepare multilateral support towards these artists, based on proper assessment of the terms and environment of their various artistic activities. Likewise, I hope that the relevant artists will sharpen their own critical minds to contribute in making a desirable city, or perhaps society, of culture and an open municipal community of Incheon.

자유롭게 노닐다가 스스로 인천이 되다

인천의 젊은 작가들과 〈유어인천〉전

박석태 전시운영위원, 미술비평

2011 인천젊은작가 기획프로젝트 〈유어인천〉전은 2009년의 〈인천미술의 초석〉, 2010년의 〈인터_뷰〉전을 잇는 마지막 연례기획전시이다. 첫 번째의 전시인 〈인천미술의 초석〉전은 인천미술의 초창기를 일구어낸 원로작가들의 활동상과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의 현재화를 지향한 전시였다. 물론 인천미술의 여명기에서 중추적 활동을 담당했던 작고작가가 배제되었고, 시대상을 보여주는 당시의 작품들이 소수를 차지한 신작 위주의 전시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지만, 그 자체로 인천미술 여명기의 존재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싶다. 두 번째의 〈인터_뷰〉전은 인천에서 활동한 이른바 중견작가들의 활동상을 조명한 전시로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인 80년대와 그 이후의 양상을 회고한 전시였다. 여기에서는 〈인천미술의 초석〉에 비해 시대와 현실이라는 화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내고자 한 기획력이 강화되었다. 80년대와 90년대를 아우르는 모더니즘과 반 모더니즘, 혹은 리얼리즘 경향의 대비를 통해, 그리고 이후의 청년세대의 가치관을 보여준 새로운 접근방식의 제시를 통해 인천미술의 역동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한 보다 섬세한 기획의 한계를 도출함과 동시에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꾸준한 인천미술사의 연구의 필요라는 과제를 남겼다.

한편 순차적이고 연대기적인 계보를 확인하는 '연례'라는 용어 속에 이미 내포해 있듯이, 〈유어인천〉전은 인천미술의 계보를 확인하는 세 번의 기획전시 중 생물학적 연령의 마지막에 위치한 인천의 젊은 작가들을 조명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동시에 인천미술의 중요한 주체로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젊은 미술인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확인하고자 하는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이 전시는 이미 활동이 멈추거나 정형화된 작고작가와 원로작가들의 활동상을 정리하는 것과 등가(等價)의 형태와 의미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 전시는 처음부터 두 가지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인천의 젊은 작가들의 지형도를 파악하는 아카이브archive적인 성격이 그것이다. 즉 현재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천의 젊은 작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인천미술계에 그 면면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앞서의 두 기획전에도 공히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열린 형식인 공모(사실은 지원 형식이 더 강하다)를 통해 모든 작가군과 활동을 포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아카이브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인다. 여기에는 미학적 담론의 차이, 장르의 상이, 활동의 다소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인천이라는 공간성과 소재성이 기준이 될 뿐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여타의 기획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번 전시에서는 애초부터 적극적인 기획의 영역이 강조되었다기보다는 작가 스스로의 기획에 의한 선택과 지원이 더욱 강조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추후 인천미술의 역동성과 변화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된다. 각각의 작가들의 지향이 모여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이 향후 어떠한 변곡점을 맞을지 확인해보는 것도 퍽 흥미롭지 않을까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시가 지향하는 두 번째의 목표는 당연하게도 다양한 작가군과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현재의 인천미술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이 전시를 위해 모인 기획자들이 애초에 상정할 수 없는 유동적인 모습이었고, 전시가 얼개를 갖춰나가고 구체화되는 상황 속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흥미로운 과정 중심의 진행방식을 보였다. '유어인천, 인천에서 노닐다'라는 전시 타이틀에 담겨 있듯이 인천이 젊은 작가들에게 작업의 흥미로운 대상으로서, 혹은 그 속에서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매력적인 탐색의 현장, 예술적 유희의 공간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현재의, 젊음을 가진 미술가들을 결과론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과정 중심의 프로젝트는 언제나 유의미성을 지닌다. 또한 지금의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가 다양한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2011년이라는 역사를 지나가고 있기에 인천을 매개로 모인 모든 작가들의 앞날에 영광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간절하다. 여기에 모인, 혹은 모이지 않았어도 젊음과 예술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는 자, 당신이 바로 인천(You're Incheon)이다.

전시 출품작들로 본 〈유어인천〉

과정 중심의 프로젝트가 갖는 가장 흥미로운 점이라면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양상들을 중층의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유어인천〉전의 준비 과정에서도 역시 오늘의 인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작가의 모습과 그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사실 젊은 작가들에 대한 선입견 중의 하나가 형식에서는 파격적인 모습, 내용에서는 사회적 시각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는 태도라고 보인다. 그러나 〈유어인천〉전에 모습을 드러낸 작품들을 분석하면 그러한 기대가 언제나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젊음에 대해 거는 기대가 기존 형식, 체제에 대한 전복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풀어냈으면 하는 것이라면, 〈유어인천〉전에서 보이는 경향이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이는 현상적 측면일 뿐,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기대라는 것부터 이미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고정관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일부의 젊은 작가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형식과 내용으로 이미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주목한 적이 없을 뿐이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이 〈유어인천〉전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표) 매체별 참여작가 현황(2011.11.01.현재)

매체	작가명	비율(%)
멀티미디어	강혁, 김진석*, 오상석*, 정윤희*	6.7
사진	고병선, 문창화, 안우동, 오석근, 유광식, 유목연*	10.0
영상	백승기	1.7
설치	곽이브, 길다래, 나광호*, 노소영*, 랑*, 박정현*, 백다하미*, 오종은*, 윤종필*, 이상휘*, 전승용*	18.3
입체	김기민, 이해룡, 조대희, 주희란*	6.7
평면	구본아, 김문선, 김수환*, 김아리따*, 김윤아, 김진기, 문상원, 박우철, 박진영, 방혜린, 백승섭, 백인태, 서건원, 서재현, 손승범, 연미*, 오민수, 오은미*, 옥경래, 웁쓰양*, 윤대희, 이미현, 이상아, 이선미, 이정우, 이지선*, 이향경, 장경애, 전태수, 정지혜, 주은희, 최경운, 현용안, 홍효숙	56.6

*표는 2가지 이상의 매체를 사용하는 작가임

각론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번 〈유어인천〉전의 출품작들은 형식면에서는 회화 작품이 가장 많았고, 내용면에서는 기존의 미학적 담론을 반영하는 작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여 기존 미술계의 양상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는 않았다(표 참조). 이러한 현상은 미술이라는 형식이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특성의 일환이라는 한계를 보임과 동시에, 우리 대학교육의 편재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라고 분석된다. 즉 매체와 장르 중심의 대학교육으로 인하여 기존의 영역과 장르가 별 다른 도전에 직면하지 않고 재생산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나름

의 형식과 문제의식으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는 경향도 존재하는 특징도 볼 수 있었다. 즉 기존의 장르에 속하지 않고, 혹은 그것들의 경계에 걸치면서 새로운 맥락을 도출해내는 경향도 발견되는데, 이를테면 회화와 영상이 동시에 제시된다든지, 사진, 설치, 입체작품이 동등한 존재의미를 지니며 제시된다든지 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여기에 그러한 장르로 설명하기 어려운 과정 중심의 프로젝트라든지, 그러한 프로젝트가 면밀하게 얽혀 작가적 가치를 일구어내는 경향까지 더한다면 젊은 미술가들의 탈구조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현재 인천의 젊은 미술은 기존의 장르 중심의 고착화된 예술형식은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문제의식을 바탕에 둔 일단의 작가들에 의해 그러한 양상에 점차적으로 균열이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해볼 점은 이른바 고착화된 형식주의처럼 보이는 일부의 작품들 속에도 기존의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감수성이 발견된다는 점인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인천미술은 풍부하고 중층적인 맥락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작품에서 간취되는 내용적 측면인데, 〈유어인천〉전에 출품된 작품들 중 사회적 문제와 그 인식의 결과물로서의 작업 경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은 그 수가 기대와 같이 많지 않았지만,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서 체득한 나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등 그 저변에 사회와 예술의 접합점을 찾는 태도가 발견되는 작품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발견된다는 것이다. 전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작가를 정윤희, 주희란, 고병선, 문창화, 연미, 유광식, 유목연 등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윤종필, 전승용 등이 거론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들은 다문화현상, 시각문화에서 발견되는 정치성, 부의 불평등한 분배 구조,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삶과 흔적, 권위적 예술이념의 타파와 같은 이슈들을 시각화해내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위의 결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소통 중에 체득한 문제의식을 기존의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넘나들면서 오브제로서의 작품 제작뿐만 아니라 예술의 개념 확대를 표방한 글쓰기, 전시기획 등의 형태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탐색하는 자유로움을 보인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은 사회적 인식에 기반을 둔 자기 인식의 결과가 신선하면서도 유쾌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작품들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결코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인 방식으로 예술에 접근하지 않으면서도 재치 있는 신세대적 감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를 반영하는 작가들로 김기민, 김수환, 백승기, 오상석, 오석근, 옵쓰양 등이 있는데, 이들은 비록 사용하는 매체와 형식은 다르지만, 개인적 감성의 표출부터 사회 인식의 담론까지 다종다양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인다. 이들의 태도는 사실 기존의 권위적인 사회에서 생산된 비장한 조형언어의 사용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후의 행보에 더욱 큰 기대를 걸게 만든다.

내용면에서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형식면에서 다소의 가벼움을 지향하는 이들과는 달리, 형식과 내용 공히 시종 존재론적 진지함을 견지하는 작가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개인적 관심사를 유려한 형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공통점을 보이는데, 강혁, 곽이브, 구본아, 김아리따, 김윤아, 김진기, 김진석, 나광호, 랑, 문상원, 박우철, 박정현, 방혜린, 백승섭, 서건원, 손승범, 안우동, 오민수, 오은미, 오종은, 옥경래, 이미현, 이상아, 이상휘, 이선미, 이정우, 이지선, 이해룡, 이향경, 장경애, 전태수, 정지혜, 최경윤, 현용안, 홍효숙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젊은 작가답게 치열한 자기 인식과 탐구의 결과물로서의 작업 경향을 보여주는 작가로는 김문선, 노소영, 박진영, 백인태, 서재현, 윤대희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또한 개인의 내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일상의 질감을 섬세하게 기록하는 성격을 지닌 경향으로는 길다래, 주은희, 백다하미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개인적, 형이상학적 관심사를 영상, 평면회화, 사진, 설치 등의 형식으로 풀어내는데, 앞서 거론했듯이 기존의 고착화된 미술형식에서 드러나는 거대담론 위주의 관심사와는 달리 각자의 신선한 방법론과 내용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작가의 많은 수만큼이나 각자의 뚜렷한 지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서술한 이들의 작업 경향을 뚜렷하게 대별하여 특정의 태도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젊은 작가들의 경향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보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양식과 문제의식을 기대하게끔 하는 대목이다.

정체성? 젊은 그들을 보라

그 동안 인천을 다룬 전시는 많았다. 또한 인천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고 해석, 분석한 시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인천은 그곳에서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인 동시에 그 부분을 이루는 예술가들에게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탐구해나가는 하나의 텍스트text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유어인천〉전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는 인천을 소재적으로 접근한 작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인다.

이미 젊은 세대들에게 지역이란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한계를 지우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그들은 지역성에 함몰되지 않는 동시에 여타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데에도 자유로운 태도를 보인다. 거기에는 지역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기존 영역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다. 그들은 스스로가 독립된 주체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세상 어느 곳,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하기를 원한다. 그런 면에서 지역 개념은 그들의 아젠다agenda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그들이 지닌 특유의 감성을 길러낸 곳으로서, 활동의 거점으로서, 삶의 총체성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을 사실이다. 젊은 작가들은 그러나 이러한 의미들을 굳이 웅변적으로 외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하나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 그들이 보는 사회에 대해 때로는 나지막하게, 때로는 유쾌한 방식으로 말을 건넨다. 이들은 구태여 지역을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굳건하게 딛고 있는 땅으로부터 온 것임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선배들의 인천과 그들의 인천이 다른 점이다. 인천의 정체성을 알려 하면 할수록 그 실체는 희미해져만 가는 역설 앞에서 젊은 작가들은 반대로 그들의 삶을 통해 총체적인 인천의 모습을 이루는 모습을 보인다. 지역이라는 거대담론을 이미 넘어선 그들의 태도는 그러므로 현재진행형이며, 그들 하나하나가 바로 인천인 것이다. 자유롭게 노닐면서 스스로 인천이 된 젊은 작가들의 삶의 행태가 앞으로 어떠한 인천과 미술계를 만들지 자못 궁금해진다. 젊은 그들의 새로운 개념의 작가살이와 정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대하며 졸고를 마친다.

Played Around Freely and Became Incheon

—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遊於仁川)] Exhibition with Incheon's Young Artists

—

Park, Suk Tae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Art critic

The 2011 Incheon's Young Artists Project Exhibition,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遊於仁川)>, is the last runner of the annual exhibitions following <The Cornerstone of Incheon Art> of 2009 and <Inter_View> of 2010. The first exhibition, <The Cornerstone of Incheon Art>, aimed to display the many works of senior artists that first cultivated the early days of Incheon art, and grant them modernized meanings. There were of course limitations to this exhibition: deceased artists that were the backbones to the dawning of Incheon art had been excluded, and the display was mainly of new works while only a minority reflected the ideas of the era. Nevertheless, it was significant in that it reflected the dawning period of Incheon art and the meaning it held, as it is. The second exhibition, the <Inter_View>, was an attempt to shed light on the so-called veteran artists that had worked in Incheon. It tried to recall the 1980s when these artists were naturally most productive and their works from then and onwards. Here, the planning party took stronger initiative to actively decipher issues like time and reality, compared to the former exhibition, <The Cornerstone of Incheon Art>. It strived to visualize the vitality of Incheon art by contrasting the 1980s' and 1990s' modernism to anti-modernism, comparing the different trends in realism, and suggesting new ways to understand the values of the youth. Still, this exhibition too revealed limitations in that it lacked intricate planning from short preparation time, and it left with us the fundamental need for steady research on the history of Incheon art.

Meanwhile, as already connoted in the sequential and chronic meaning of the word 'annual',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遊於仁川)> is to be held in the last biological year among the three exhibitions featuring the lineage of Incheon art. The exhibition targets to shed new light upon the young artists of Incheon. It also attempts to light up the various spectrums of the young artists who are important to Incheon art and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it. Therefore this exhibition does not intend to feature the works of deceased artists or senior artists, who may have stopped producing work or have become standardized.

From the beginning, this exhibition was headed in two main directions. One is to draw up the topography of Incheon's young artists in an archive-like fasion. It would not be an understatement to say that the exhibition targets to summon all of Incheon's young artists actively producing various works, and reveal each and every feature of them to the art community of Incheon. This purpose, by all means, was also applicable to the former two exhibitions. But by inviting artists in a more public fashion (in actual terms, volunteering may be a better expression) and by attempting to harmonize all artist groups and activities, it seems that the archival feature of the exhibition has become even more strengthened. Here, difference in aesthetic viewpoints, genres, and the quantity of works produced is rendered less important. Only the extensity and materiality of the theme called Incheon are considered as the basic standard. This is an extremely differential point when compared to any former exhibition. From the beginning, instead of any aggressive attempts to plan the exhibition, the artist's own planning capability was emphasized for the planning party's selection and support. This point may later come in handy when weighing the dynamics and changes of Incheon art. It would be quite interesting to watch how the individual artists have come together to form a natural flow, and how this flow will later face a turning point.

Therefore the second target of this exhibition was to obviously confirm the current direction of Incheon art through various artist groups and their activities. This second target also had no definite form which made prior planning impossible, and was later eventually unraveled in an interesting process-driven fashion as the exhibition was shaped. As embraced in the exhibition title,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遊於仁川)', I sincerely hope that Incheon becomes a place of interest to young artists or perhaps an attractive area of exploration or artistic pleasure. Because there is no way to confine the artists of today's into one final conclusion, this process-driven character of the project has significant meaning. Everything in this exhibition has various contexts. Even now we are passing through a time in history called 2011, I also sincerely wish that all artists gathered here together are promised a glorious future. If you are here, or even if you are not here, if you share the traits of youth and art, you are Incheon.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遊於仁川)> and the Works Displayed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actors of a process-driven project is that you are able to gain a neutral perspective on the various aspects revealed as you proceed. While preparing for the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遊於仁川)> exhibition, we could see the various artists of Incheon today and their attitude towards art. In fact, one of the prejudices we commonly hold against young artists is that we expect them to be exceptional in style, while representing a social perspective in content. But when assessing the works displayed in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遊於仁川)>, we can see how such expectations do not always turn out to be true. If our only expectation towards youth is to overturn the existing formality or system in their own playful way, what is shown in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遊於仁川)> may be a little disappointing. But we must bear in mind that what is shown is just an outer image. By carefully looking inside, we realize that such expectation itself is a stereotypical idea already fixed and standardized in our minds. Some young artists have already been depicting their own critical views via new styles and contents. We just never have paid enough attention. This is exactly the value we are trying to display in the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遊於仁川)> exhibition.

(table) Participating Artists by Media (as of Nov 1, 2011)

Media	Artist Name	Percentage(%)
Multi-media	Kang Hyuk, Kim Jin-Seok*, Oh Sang-Seok*, Jung Yoon-Hee*	6.7
Photography	Ko Byong-Sun, Moon Chang-Hwa, Ahn Woo-Dong, Oh Suk-Kuhn, Yoo Gwang-Sig, Yoo Mok-Yon*	10.0
Visual Art	Back Seung-Kee	1.7
Display	Eve Kwak, Gil Darae, Na Kwang-Ho*, No So-Yeong*, Lang (Kim Ji-Sun)*, Park Jung-Hyun*, Paik Dahami*, Oh Jong-Eun*, Yoon Jong-Pil*, Lee Sang-Hwi*, Jeon Seung-Yong*	18.3
3-Dimension	Kim Kimin, Lee Hae-Ryong, Cho Dae-Hee, Ju Heeran*	6.7
2-Dimension	Koo Bon-A, Kim Mun-Sun, Kim Soo-Hwan*, Kim Aritta*, Kim Yoon-Ah, Kim Jinkey, Moon Sang-Won, Bak Ucheol, Park Jin-Young, Bang Hye-Lin, Baek Seung-Seop, Baik Intae, Seo Gun-One, Seo Jaehyeon, Son Seung-Beom, Yeun-Mi*, Oh Min-Su, Oh Eun-Mi*, Oak Kyung-Lae, Woopsyang*, Yoon Dae-Hee, Lee Mihyeon, Lee Sang-A, Lee Sun-Mi, Lee Jungwoo, Lee Ji-Sun*, Lee Hyang-Kyung, Jang Kyoung-Ae, Jun Tae-Su, Jung Ji-Hye, Joo Eunhee, Choi Kyung-Woon, Hyun Yong-An, Hong Hyo-Sook	56.6

* Shows artists using more than 2 media.

Looking into detail, paintings took up the most part in terms of format, and works on aesthetic discourse was the majority in terms of content in this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遊於仁川)> exhibition. This is not large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art exhibitions (refer to the table). This phenomenon shows the limitations inevitably held within the structure of art, and at the same time, reflects the uneven university education of today. In other words, because of the university education centered on media and genres, the existing areas and genres seem to be repeatedly reproduced without facing any significant challenge. Amidst this, we can also glimpse at the tendency to explore new areas with individual style and critical views. That is, there are hints

of movement to create new context outside of existing genres or at its boundaries. Projecting paintings and visual art together, or displaying photography, displays and 3-dimensional works in equal substance are such examples. If we add process-driven projects that are not explainable under existing genres or the tendency of such projects to enhance artistic values, we can see how intensified the de-formalization of young artists has become. Although the existing genre-centered formality is still prevalent in today's young art of Incheon, certain artists of critical mind are trying to break through. What is intriguing is that even in some works that appear to have adhered to the existing formality, a totally new sense of emotion is detectable. This phenomenon is creating a rich and neutral context to the art of Incheon.

What is also interesting is the content of such works. Contrary to our expectation, there are not as many works submitted in the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遊於仁川)> exhibition that directly portray issues of the society and how they are perceived. But a minority of the works does express ideas toward the crossing point of society and art, such critical viewpoints nurtured by individual experience of social,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Artists that fall under the former are Jung Yoon-Hee, Ju Heeran, Ko Byong-Sun, Moon Chang-Hwa, Yeun-Mi, Yoo Gwang-Sig, and Yoo Mok-Yon. We may argue that artists like Yoon Jong-Pil or Jeon Seung-Yong fall under the latter. These artists have visualized issues like the expansion of multicultural codes in society, the political factors revealed in visual culture, the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the minority that have fallen out of the mainstream, and the breakdown of art's authoritative ideology. All these issues are outcomes of active communication with society. These artists freely wander between genres and explore their voices sharpened by social communication, creating new works as an objet, writing to expand the concept of art, and planning exhibitions.

Another interesting point is that there are several works that show a fresh yet joyful sense of self-perception based on social perception. These works are worthy of notice in that they are not at all authoritative or coercive, and based on witty emotions of the new generation. Artists reflecting such trend are Kim Kimin, Kim Soo-Hwan, Back Seung-Kee, Oh Sang-Seok, Oh Suk-Kuhn, and Woopsyang. Although these artists make use of different media and formality, they succeed in portraying a variety of critical views ranging from individual emotions to arguments on social perception. Their attitud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language of the existing authoritative society, and makes us expect for more in their future work.

Unlike the above artists that are earnest in content yet easy in style, there are artists that struggle to maintain throughout a sense of seriousness in both. Such artists all commonly manage to depict personal areas of interest in a smooth, slick fashion. These artists include Kang Hyuk, Eve Kwak, Koo Bon-A, Kim Aritta, Kim Yoon-Ah, Kim Jinkey, Kim Jin-Seok, Na Kwang-Ho, Lang (Kim Ji-Sun), Moon Sangwon, Bak Ucheol, Park Jung-Hyun, Bang Hye-Lin, Baek Seung-Seop, Seo Gun-One, Son Seung-Beom, Ahn Woo-Dong, Oh Min-Su, Oh Eun-Mi, Oh Jong-Eun, Oak Kyung-Lae, Lee Mihyeon, Lee Sang-A, Lee Sun-Mi, Lee Jungwoo, Lee Ji-Sun, Lee Hae-Ryong, Lee Hyang-Kyung, Jang Kyoung-Ae, Jun Tae-Su, Jung Ji-Hye, Choi Kyung-Woon, Hyun Yong-An, and Hong Hyo-Sook. There are also artists that show earnest self-perception and exploration in their work as young artists. Kim Mun-Sun, No So-Yeong, Park Jin-Young, Baik Intae, Seo Jaehyeon, and Yoon Dae-Hee fall under this category. Artists that intricately express the texture of daily life through their own inner sensitivity include Gil Darae, Joo Eunhee, and Paik Dahami. These artists unfold their personal, metaphysical interests via visual arts, 2-dimensional paintings, photography, and displays. Their method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tereotypical formality fixated on big concepts and issues. It rather focuses on each individual's fresh methodology and ponders over better content, and displays the uniqueness of each artist. Of course the inclinations described until now cannot be clearly categorized into specific classifications. Still, as young artists will continue on in exploring such inclinations, we can most definitely expect that a wider variety of richer fruits and more critical viewpoints will follow in their works.

Sense of Identity? Just Take a Look at These Young Artists.

There have been quite a few exhibitions on Incheon until now. Attempts to understand, interpret and analyze Incheon in various viewpoints will probably continue on in the future. To residents, Incheon is a base ground of living, and to artists it is a text to explore their self-identity as artists. However, one characteristic of <You're Incheon, Playing in Incheon(遊於仁川)> is that there are almost no pieces that approach Incheon as the subject matter. This has significant meaning.

Already to the younger generation, region is no longer a spatial concept that confines their lives. They are not overwhelmed by the concept of region and freely accept and apply other various values. Here we can sense a hint of rejection towards the customary ideas represented by the concept of region. The younger generation strongly believes that they exist as independent identities and long to communicate with anyone in whichever part of the world. In such sense, the concept of region is not a part of their agenda.

Yet, region still holds significant meaning as the base ground that nurtured their unique emotions, the base of their artistic activities, and the place of life overall. This is a truth that will never falter or change. Young artists feel little need to speak out such meanings, though. Each and every one of them, in their own unique way, talks of their own lives and the way they perceive society, quietly at times, playfully at others. Although they never specifically make reference to the region, they do not deny that every element of their lives has come from the land on which they stand. This is exactly how their perception of Incheon is different from their seniors. The harder you try to understand the identity of Incheon, the vaguer it becomes. Amidst this paradox, the young artists are trying to express the general image of Incheon through their own lives. They continue to deny the big concept of region, yet each and every one of them represents Incheon by themselves. I cannot help but wonder how the lives of these artists, who have loitered around Incheon and have become Incheon themselves, will affect Incheon and its artistic community. I have great expectations for their new concept as artists and how they will continue to shape their own identities. I end this essay on this note.

강혁 KANG Hyuk

25번의 상처 59.4×84.1cm_디지털프린트 사진_2011

수평선, 지평선 2 59.4×84.1cm_디지털사진_2011

13일간의 존재 디지털사진_59.4×84.1cm_2011

25번의 상처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대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을 포격했다. 이에 해병대 연평부대는 포격 직후 80여 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한다. 우리 산하는 250여발의 상처를 입었다. 본 작품은 25번의 상처를 받고 썩어가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다. 상처를 안고 사라져가는 존재의 허무와 유한성을 통해 상처-분단의 아픔과 정치적 입장 이상의 인류의 어리석음에 대한 반성적 인식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평선, 지평선 2 수년간의 여행 중에 채집된 수평선과 지평선의 풍경을 포토샵의 레이어로 모아 놓은 프로젝트 'HORIZON'의 2번째 신작으로 자연의 근원(수평선, 지평선)과 인류문명의 현장(사람, 배, 자동차 등)들을 병치시킨다. Horizen(수평선 혹은 지평선의 뜻)은 인류에게 신비와 경외 그리고 공포와 신세계의 발견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 등장한다. 인류 문명과 자연을 함께 병치시키며 이러한 신화적 메타포를 투사한다. 수평선 지평선2는 해만(海灣:육지가 움푹파여 바다를 담고 있는 지형) 형태의 항구를 찾아가며 여러장을 촬영하고 지평선과 수평선 그리고 정박해 있는 인류 문명의 상징물인 배, 사람, 차들이 함께 중첩된다.

13일간의 존재 13일간 장비꽃다발을 찍는다. 매일 1, 2장씩을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그렇게 대면했던 존재들의 합성 이미지를 얻는다.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은 어떤 예외가 없을 것이다. 거시우주 혹은 미소세계의 어떤 존재라도 우리는 그렇게 변화와 흐름을 갖는다. 찰나 또는 억겁의 시간도 인간의식의 구조 속에서 형성된 상대적 측거점일 뿐이며 모든 존재계는 거대한 움직임을 함께하고 있다.

25번의 상처 디지털프린트 사진_59.4×84.1cm_2011

학력

1972 인천 출생
2009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졸업
2000 인천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10 자연 그리고 존재, 헤이리 갤러리 이레, 파주
2010 존재 그리고 시간, 구올담 갤러리, 인천
2009 은유적 자연성,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07 경계속의 시간, 스페이스 빔 갤러리, 인천
2005 은유적 경계,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

주요 단체전

2011 플랫폼 페스티벌,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Korean Contemporary New Reasons, 엘리콧시티, 미국
제8회 부산국제비디오아트 페스티발,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부산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음악과 미술의 향연, 인천학생 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인천
Reflection, 경기대학교, 수원
기억애,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제7회 부산국제비디오 페스티발,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부산
과학과 미술, 인천평생학습관, 인천
200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및 특별전-이압, 인천
인천아트 플랫폼, 인천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아르코미술관, 서울

작품소장 부산시립미술관, 인천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인천 여성의 광장

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 파일럿(2009), 1기(2010), OCI 미술관(2011)

1972년 인천에서 출생,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2000년도 인천대학교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천대에 출강중이다. 2001년 〈제7회 신진작가 발언전〉(서울시립미술관)에서 신진작가상과 〈제12회 미술세계 대상전〉(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2005년 〈은유적 경계〉 개인전에 이어 2010년 〈자연 그리고 존재〉 초대개인전까지 인천을 중심으로 5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과 국제전으로 〈뉴비젼-디지털 아트 네트워크전〉(서울), 〈가족전〉서울시립미술관,가스가이시민재단(서울,일본), 〈서울 프린지 페스티발전〉쌈지스튜디오(서울), 〈대구 영상 미술제〉(대구), 서울-파리 교류전(프랑스 파리), 〈인천 현대미술초대전, 인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인천), 〈터키-인천 현대미술 교류전〉(인천), 서울-첼시 교류전(미국 뉴욕), 〈미디어-아트 안산〉단원미술제(안산), 〈조율전〉인천여성비엔날레(인천),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아르코미술관(서울), 〈제7회 부산국제 비디오 페스티발〉(부산) 등에 참여하였다.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부산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2009년 파일럿 레지던시를 거쳐 2010년 인천아트 플랫폼 제1기(장기) 레지던시, 2011년 OCI레지던시에 입주해 있다.

고병선 KO Byong Sun

Statement for SU-IN Line / 수인선 보고 Gelatin Silver Print_40cm×50cm_2007

Statement for SU-IN Line / 수인선 보고 Gelatin Silver Print_40cm×50cm_2006

Statement for SU-IN Line / 수인선 보고 Gelatin Silver Print_40cm×50cm_2007

Statement for SU-IN Line / 수인선 보고

수인선은 1937년 8월 개통되었으며 그 목적은 일제강점기 경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소금을 일본으로 반출하려는 목적으로 개통되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새롭게 개설된 수인산업도로와 기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1970년대 산업철도의 기능을 상실한 수인선은 유일한 경기만 지역의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이며 삶 그 자체였다.

다큐멘터리 Statement for Su – in Line / 수인선 보고는 사라져 가는 수인선을 담고 있으며, 50.8km의 주변과 선로에 방치는 수인선 그 자체가 소외와 사회로부터의 경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인선도 고도의 산업화 물결을 피해가지 못했던 빠른 경제성장만큼 우리의 시각에서 잊혀졌다. 그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우리의 망각이었고 더 이상 사람에게 이용가치가 없었던 죽은 수인선 이였으며 1970년대 이미 철도로서의 생을 마감했는지 모른다.

폐선 10년이 지난 지금 수인선 주변의 모습은 급격하게 변화했으며 나의 사진작업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수인선은 수원과 인천의 소통의 장소였고 지금의 그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추어 있다는 환각을 불러오며 혼미한 환각 속에서 수인선은 잊혀졌다.

이 작업은 협궤열차의 문화적 가치의 흔적과 소멸, 그 주변 환경의 개선, 개발이라는 범주의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을 담아, 협궤열차의 복원을 희망하는 우리들의 작은 염원을 담고 있다.

학력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전공 졸업
순천향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개인전

2008 Disappearing Occupations in Modern Life, Gallery Now, 서울
Disappearing Occupations in Modern Life, 인천문예회관 1전시실, 인천
2007 Statement for SU-IN Line, 관훈 Gallery, 서울

주요 단체전

2011 생활의 발견展, Gallery 꽃누리, 인천
2006 홍익대학교 사진과 동문展, 관훈 Gallery, 서울
2006 Post Photo, 현대미술관, 홍익대학교
2005 Post Photo, 현대미술관, 홍익대학교

기타 2008 인천문화재단 일반 공모 지원프로그램 선정

작품소장 2009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필자는 다큐멘터리형식의 사진 매체를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Realism(사실주의)이며 그것은 사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며 본질이다.

필자의 사진작업의 뿌리는 으젠느 앗제 (Eugene Atget)와 워커 에반스(Walker Evans)다. 초현실주의 (Surrealism) 으젠느 앗제 (Eugene Atget)는 19세기 말 ~ 20세기 초의 프랑스의 사진작가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와 같은 개발이라는 현실 앞에서 사라져가는 파리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시대적으로 회화를 하는 예술가들에게 그림의 자료 사진을 제공하거나 공공 기관의 의뢰를 받아 개발을 앞두고 있는 파리의 시가지 모습을 촬영했던 작가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평범한 기록 사진가로 평가받았으나, 후에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조명 받아 오늘날에는 초현실주의의 유명한 사진가라는 사진사(寫眞史)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사진작업을 하는데 있어 제일 큰 영향을 준 인물 중의 한 사람이 워커 에반스(Walker Evans)다. 그 또한 사실주의사진을 추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서정적 다큐멘터리(Lyric Documentary)로 사진 그 자체가 애잔함이 묻어나오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필자가 이렇게 두 작가의 예를 통하여 본인의 작업을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더 읽는 사람의 이해가 쉽다고 생각하여 서술해 보았다. 본인의 작업은 위의 두 작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으며 사진의 형태로는 Statement for SU-IN Line / 수인선 보고, 작업과 Disappearing Occupations in Modern Life / 사라져가는 직업들의 작업이 있다.

곽이브 Eve Kwak

배산임수 골재, 시멘트_가변설치_2011

반으로 시멘트, 우드락, 칼드로잉_84.1x118.9cm_2011

배산임수–부서지더라도 시멘트, 우드락, 순간접착제_2009
배산임수–지탱 #2 시멘트, 점토, 철사_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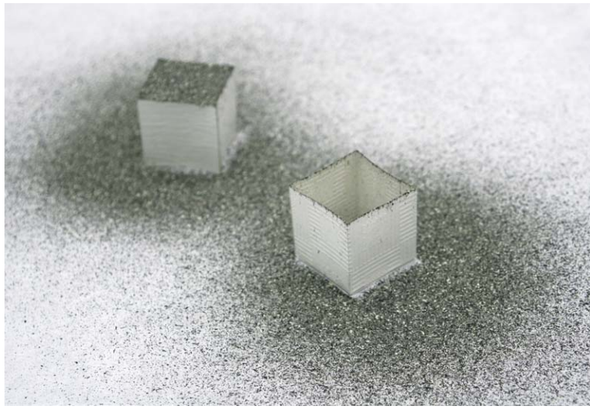
세상이 사진 속의 그것처럼, 보이는 단면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보니 모든 것은 양가성을 가진 입체였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고정되지 않는 것임에 놀랐다. 이 믿음이 얼마나 우습게 생성되어 고착되는지, 그리고 무엇이라도 믿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사는데 어느 정도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믿음을 뒤흔드는 것은 위험하면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이다. 잘 보면 우리는 갈망함으로 활기를 찾는다. 어디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에 희망을 품는 것은 버릇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부해서 과잉이 되는 도시에는 그러한 희망 또한 많이 필요하다. 갈망하는 사람도 갈망의 대상이 되길 바라는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혹은 필요이상으로 무엇이든 구축하는 것에 집중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엔 이 모든 것이 결국 갈망을 위한 갈망이 아닌가 생각들 때가 있다.

우연히, 한 나무에 이상하게도 많이 모여 있는 새집을 보았다. 그 형상의 기이함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고, 그 이유가 궁금했다. 문득든 생각으로 저 나무가 특히 살기 좋은 곳이어서 새집이 모여있나 싶었다. 저 곳이 명당인가보다! 그런데 명당이 어디일까? 대개는 엇비슷하게 금전적 가치를 지닌 곳을 떠올리지만,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혼란스러워 하곤 했다. 명당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굳이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살기 좋은 곳과 살기 위한 곳에 대한 구분도 모호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보다는 나은,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러한 곳으로의 바람이 있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선호하는 곳이 명당이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버렸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주거형태를 유심히 보게 되었다. 당연한 듯 참 기이하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바람과 더불어 애증이 가득한. 근대화의 씁쓸한 미소와 함께 고군분투하는 생의 의지를 보게 된다. 나는 이곳이 명당 같다. 건조한 곳에 생명을 부여하는, 동시에 생명에 건조함을 부여하는 양면의! 오아시스처럼. (작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염두 하지 않고도 그 형태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에게는 좋던 나쁘던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현실과 위안이 될 바람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리이기 때문에)

나 역시 아파트를 만들었다. 〈배산임수–부서지더라도〉는 아파트 형상의 높이 있는 시멘트 조각이다. 부러지더라도 자신의 높이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래야 하는 사람들을 연상했다. 구조물이 들어있지 않아 외부 충격에 쉽게 부러지게 되고, 부러지면 다시 붙여 제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 조형원리였다. 이를 기점으로 튼튼하고 가볍기 위한 조건을 조절한 조각들 〈배산임수–지탱〉〈배산임수–곧게〉가 나왔다. 만들어진 조각의 생존이 중요해지면서 자연스레 입체를 지지하고 호응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땅에 대한 〈반으로〉, 〈흙덩이(눈덩이)〉, 〈흙(바다)〉, 〈오아시스〉, 〈쌓이다〉로 작업이 이어진다.

오아시스 플라워 폼, 석고_11x23x16cm_2010

오아시스 플라워 폼, 석고_11x23x8cm_2010



쌓이다 스톤 스프레이, 종이, 벽지_2010

학력

1983 인천 출생
2009 서울산업대학교 조형예술과 대학원 졸업

주요 전시

2011 브릿지 프로젝트, 유엠 갤러리, 서울
2010 광장 모퉁이를 돌면, 팔레 드 서울, 서울
음?, 갤러리2, 서울
이해를 향한 오해, 송원아트센터, 서울
교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청주
2009 Space into the language, 스페이스 15번지, 서울
제31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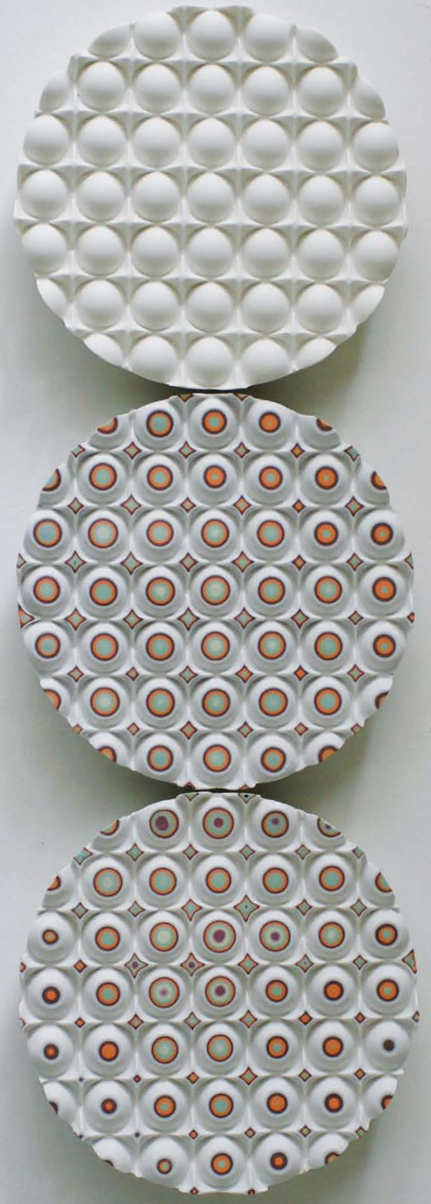
우물 밖을 뛰쳐나온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건물공간의 구축적 조형으로 삶의 방식을 이야기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도시의 건물은 낯설지 않다. 창문을 열면 보이는 것이 크고 작은 시멘트건물과 촘촘한 아파트인 곳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빽빽한 건물들에 지칠 때도 있지만 시멘트벽으로 만들어진 빈 공간에서 고요의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주거를 위해 '사는 곳'이 경제적 금전 가치가 우선되어 '사는 것'이 된 현상을 비판하다가, 풍족하게 살아내기 위한 갈망이 생을 위한 열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작업에 등장하는 건물들에 대한 내 태도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애매하다.

건축적 조형방식으로 공간 환경에 대해 고심하지만 결국은 삶의 방식과 사람을 그리는 작업이다. 고도의 기술과 치밀한 계획으로 완성을 이끌어내기보다 다소 즉흥적이며 직관적인, 가능함에 대해 연구하는 작업의 방식이 고정적이고 단호한 세계의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작업과정에서 내 동작을 의식하며, 형태와 무게, 재료의 성질, 우연 등에 유의하는데, 실제 대상과 닮아있는 재료들을 사용하다 보면 정말 그 대상과 대화하는 것 같고 현실의 존재가 되는 것 같고, 작업의 과정과 방법에서 살아가는 방식, 가능성을 발견하곤 하기 때문이다.

곽지영 Kwak Jee Young



Quiet Change 자기질_Ø24×H4cm_2011

Endless my story 자기질_Ø80×H160cm_2011

Indwell 자기질, 와인글라스_Ø8×H23cm_2011

도벽(Art Wall)

각각의 유닛(unit)은 하나의 조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관객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은 설치이다. 이것은 하나의 개체가 가지지 못하는 집중된 힘을 보여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작품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느낌은 이보다 강하다. 뿐만 아니라 설치는 다양한 공간의 해석이 가능하다. 기호학적인 패턴과 색상, 배치는 반복적이지만 변화되고 있다.

원형을 만들고 석고 틀을 제작한다. 틀에 흙물을 주입, 배출하여 기물을 뽑아낸다. 이를 성형하고 다듬어 소성한다.

학력

1983 인천 출생
2009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졸업
2006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세라믹디자인전공 졸업

개인전

2011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08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 충남 공주

주요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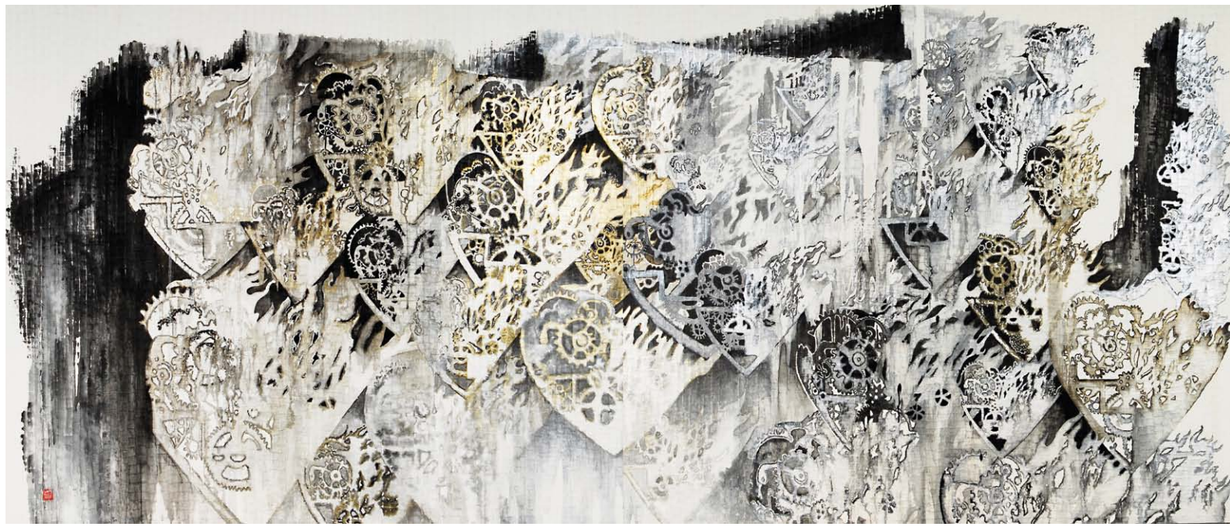
2011 문화 닮꽇 한 · 일 도자교류전, 유나이티드 갤러리, 서울
ISCAEE 국제 도예 교육 교류전, 동경예대 전시관, 일본 도쿄
5월의 외출전, 경인미술관, 서울
2010 Ceramic in Minimal Party, 정소영의 식기장 갤러리, 서울
ISCAEE Korea Symposium Staff전, 쿄 갤러리, 일본 도쿄
2009 Home & Table Deco Fair, 코엑스, 서울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세계대학생도예대회 _ISCAEE 회원전, 세계생활도자관, 경기 여주
2008 제2회 36.5°Ceramic 대학도자전, 세계생활도자관, 경기 여주
제1회 경기국제도자페어, 일산 KINTEX
2007 제1회 대학도자전 New Generation, 세계생활도자관, 경기 여주
2006 토야 테이블웨어 페스티벌, 일산 KINTEX

2010년 9월 인천아트플랫폼 아트앤디자인 스튜디오 입주를 시작으로 인천에서 작업하게 되었다. 스튜디오 운영과 작업을 병행하고 있고 외부활동도 활발해지려 노력하고 있다.

나의 작업은 디자인적 다양성을 모색하고 단순한 오브제가 아닌 공예 본연의 쓰임을 살려 기능을 갖게 한다. 슬립캐스팅(Slip Casting) 기법을 주로 하고 있고 단순화시킨 형태 위에 도자기답지 않은 색상과 무광세라믹기법을 사용한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소품 작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구본아 KOO Bon A

物09 한지꼴라쥬에 먹, 채색_140x1004cm_2009



시간의 이빨 01 한지에 먹, 금분_320x130cm_2011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천개의달이 천개의 강에비추인다 한지캐스팅 위에 먹, 금분, 은분_2009

한국화를 전공하고 설치와 평면작품을 병행하고 있는 구본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화예술위원회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등에서 개인전 및 그룹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입주작가(2기)로 작업을 하였고 .현재는 OCI미술관 레지던시 입주작가로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경인방송국내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인천 영종도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인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졌으며, 특히 역사와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는 인천의 건축물들과 도시의 문화적, 생태적 재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의 건축물들을 통하여 인천의 도시 생태계의 변화와 그 징후를 1.문화적, 2생태계적 관점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1.문화적 관점에서는 리서치형태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2.생태계적 관점에서는 화화와 설치작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추후 전시발표는 1과 2의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인천에 대한 리서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가지로 나누어 기획하고 있는데 첫번째로는 상상력 넘치는 해양문화도시의 관점에서 바다를 중심으로 한 생태와 문화의 공존을 의미하는 '해양' 두 번째로는 역사와 전통의 화두로 접근한 공간을 문화 다양성을 이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도시의 문화적 '재생'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의 생태계적 재생과 시민–예술가 네트워킹을 통한 '순환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중 인천 젊은 예술가 기획 프로젝트는 재생과 순환에 초점을 맞추어 리서치를 진행할 생각이고 이를 회화와 설치로 형상화시킬 생각입니다. 이중 순환 리서치 프로젝트는 한,중,일 3개국 작가들이 같이 하는 전시로서 1부는 작년 2010년에 상해 모간산루의 순갤러리에서 있었습니다. 한,중,일마다 컨셉이 약간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번 인천도시리서치를 기반으로 내후년에는 일본에서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인천이 문화 소비지가 아니라 문화 발신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어 가길 바래 봅니다.

物–夢遊桃源 2
한지위에 먹, 채색
100x280.5cm
2008

학력

서울예술고등학교졸업
홍익대학교미술대학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 졸업

주요 개인전

2011 시간과존재의흔적, 대우증권역삼역갤러리, 서울
시간의이빨, 그림손갤러리, 서울
2009 폐허산수, 인사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서울
기억의빛깔, 주불한국문화원 올해의주목할 작가전, 주불한국문화원, 프랑스, 파리

주요 단체전

2011 생명_구본아, 왕칭, 후에다아키 한중일 3인전, 순갤러리, 상해, 중국
핑크아트페어서울, COEX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KIAF 한국국제아트페어, COEX, 서울
2010 Inner Strength(Able Fine Art NY Gallery, 뉴욕, 미국
Comparaision 2010, 그랑팔레, 파리, 프랑스
꽃보다 그림, 봄갤러리기획, 봄갤러리, 서울
Korea and Japan which Woman see's, 주일한국대사관 갤러리미, 도쿄, 일본
아시아작가전_세상의 모든 풍경, 장흥아트파크미술관, 경기
2009 JUST.ART, 성곡미술관, 서울 외 다수

수상 및 선정경력

2011 송암문화재단 OCI 미술관레지던시 입주작가선정–OCI미술관창작스튜디오
2009 주불한국문화원 올해의주목할 작가 선정
구본아개인전 '기억의빛깔' (주불한국문화원미술관, 파리, 프랑스)
2008 서울국제아트페어 2008 아티스트프로그램작가선정
2007 뉴욕 'Hello Chelsea! 2007' 작가선정–(PS 35 gallery ,뉴욕 미국)
20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지원 시각예술분야작가선정
경기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지원작가선정

작품소장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길다래 GIL Darae

cynial paradise 혼합재료_200x200cm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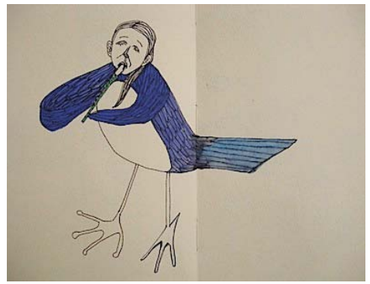
a Bird cage mixed-media_73x73x10cm_2009
전시전경 설치 mixed-media_150x70x2cm_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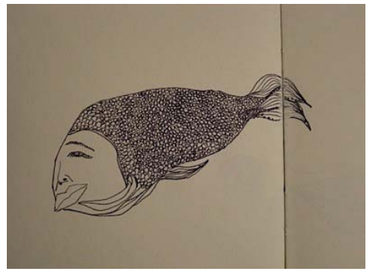
mini process exhibition 2011
'Kind of talking in blue' 2011
Blue sheet paper on glass 2011

대학 졸업 후 프랑스에서 돌아와 2009년 인천 중구에 작업실을 얻었다. 도심의 이동으로 상권이 죽어버린 구도심 에서의 작업 활동은 작가로서 다양한 시도와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인천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도시는 비워지고 채워지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한다. 도시 곳곳의 삶의 단편들은 매일매일 재구성되어 놓였다 움직이며 사라진다. 사람과 장소는 서로 교차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도시의 불규칙한 현상들과 사람들의 소소한 감정변화들은 내 작업의 모티브가 된다. 비어 있거나 작은 흔적의 조각들만이 남아있는 내 작업은 일종의 'cynical paradise' 다. 수집되거나 드로잉과 함께 재구성 되어진 작은 오브제들은 테이블 위에 놓여 설치되고 하나의 공간에 또 다른 낯선 공간으로 제시된다. 서로 다른 장소에 놓여 분리되어진 도시의 단편들, 삶의 조각들이 작가의 시선으로 모여져 하나의 장소에 재결합될 때 나는 비로소 아름다움을 느낀다.

2009년, 젊은 작가들이 모여 운영하는 '쉬필라움'에서 '수집, Omnibus'라는 제목의 첫 개인전을 갖으며 작업과 연관된 공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특히나 중구의 낮은 건물과 항구도시의 이미지는 작은 것을 관찰하고 수집하기를 즐겨하는 나에게 다양한 영감을 준다.
평소 걷기를 즐겨 하는 나는 버려진 것을 발견하여 수집하거나, 선물 받은 물건들을 모아두었다가 재 조합하여 작품화 하곤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또다시 한곳에 모아져 낯선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또 다른 공간을 연출하는 테이블 작업들은 일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바쁜 도시의 삶 속에서 고립되어있거나 분리되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 작업들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일지도 모른다.

2010년에는 전시기획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개인적으로 잡혔던 전시가 취소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예술의 역할과 작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문화의 발전과 함께 하나 둘 생겨나는 카페를 주목하며, 지리적으로 또 공간 면에서 내 작업과 연관성이 있는 카페를 찾아가 전시를 하자고 설득하였고, 필요한 것을 충족해 나가는 'mini process exhibition'을 2달간 진행하였다. 과정을 통해서 전시를 만들어가는 전체의 흐름을 바라보며 갤러리 목적이 아닌 카페로서의 기능 속에 예술이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 또 운영자와 작가의 입장차이, 작업과 관객(손님)의 관계, 작품 설치로 변화된 공간이 주는 예술적 이미지로 매출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은 문화를 갈구하고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가와 손님(관객) 운영자와의 입장차이를 곁에서 느끼면서 갤러리를 벗어난 공간에서 작가로서 또 다른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Drawings 21x15cm_2008~2009

학력

1983 인천 출생
2008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Beaux-arts de Dijon 수학
2006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 졸업

주요 활동

2011 '프로젝트 그룹 16시' 기획 및 전시참여, 안양APAP, 안양
작은 과정의 전시 'kind of talking in blue', 홍예문 커피집, 인천
2010 '너, 어디가니?' 기획참여 및 도록디자인, 스페이스 빔, 인천
2009 '수집, Omnibus' 첫번째 개인전, 갤러리 쉬필라움, 인천
2008 '템포그라피' 공모전 및 전시, 갤러리 팩토리, 서울
2006 '인천 상륙작전' 그룹전, 스페이스 빔, 인천

길다래는 1983년 인천에서 출생하여 2006년 경희대학교 한국화과를 졸업했다. 2008년 프랑스 디종 보자르에 잠시 수학하였다. 그 동안 2011년 젊은 작가 전, 프로젝트 그룹 '16시'전, '논아트 밭아트' 소심정원프로젝트, 홍예문 커피집 'mini process exhibition', 2009년 갤러리 쉬필라움 '수집,Omnibus' 개인전, 2008 갤러리 팩토리 템포 그라피 공모전, 2006년 스페이스 빔 그룹 전 등의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김기민 KIM Kimin

자연으로부터 오다 1 경석고, led, 동, 먹_400x400x900cm_2009

자연으로부터 오다 2 frp, led, 아크릴, 스텐, 한지_300x400x700cm_2010

자연으로부터 오다 3 frp, led, 아크릴, 한지_300x300x900cm_2011

자연으로부터 오다(longing) frp, 철_1500x100x1200cm_2011

어릴 적부터 미술을 좋아하고, 늘 관심이 많았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신 아버지의 권유로 1999년 인천예술고등학교 조소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2002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원광대학교 환경조각과에 진학하였다.
구상작업을 주로 했으며, 좀 더 깊이 연구하고자 2009년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주로 자연. 인간. 을 이야기하는 작업을 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자연과 인간을 이야기하려 하고있다.
현재 인천조각가협회 소속해 있으며, 2009년과 2010년 인천조각가협회전에 참여하였으며, 2010년 인천학생 교육문화회관에서 신진작가 4인전 기획전시하였고, 차이나타운 그룹전을 기획전시하였다. 다음 해 3월에 인사아트센터에서 첫 개인전이 계획되어 있다. 개인전은 '자연으로부터 오다'라는 테마로 전시 될 계획이다.

자연으로부터 오다(달을 그리다) 동, 아크릴, frp_700x250x600cm_2011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려 하고 훼손시켜 간다
그리고 보존하려고도 한다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러한 양면성을 나로 표현한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야 할 순수한 눈빛은 사라지고
무언가 비밀이 가득한 눈빛만이 따라 흐른다.
그런 그 아이는 자연이
깨끗하기만을 바라고만 있다.

모순됨을 알면서도 부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고,
바로 당신이다.

학력

1983 인천 출생
2002 인천예술고등학교 졸업
2009 원광대학교 조소과 졸업
2011 성신여대 조형대학원 5학기 재학중
현재 인천조각가협회회원

주요 전시

2011 샘표스페이스 2인 초대전
아하프
아시아프
2010 차이나타운 4인 기획전
가온갤러리 4인기획전
파주청년조각전.경기
인천조각협회전. 연수구청. 인천
개관기념전. 스카이연. 서울
신진조각전. 서울
텔레비展. 성신여대. 서울
2009 화봉갤러리 단체전. 서울
순수갤러리 그룹전. 서울
DMC 아트페어 참여작가.
텔레비展. 성신여대. 서울
기능을 갖는 조각전. 인천

김문선 KIM Mun Sun

오소소 캔버스 위에 아크릴_72.5x91cm_2011

'어' 라든지 '응' Acrylic oil on canvas_145.5x112.1cm_2009

'야' 라든지 '음' acrylic, oil on canvas_145.5x112.1cm_2009

듣다. 라든지 들렸다. acrylic, oil on canvas_46x27.5cm_2011

학력

1986 인천 출생

2010 협성대학교 조형회화학과 졸업

주요 전시

2011 ASYAAF 〈홍익대〉 2부, 홍익대미술관, 서울
플랫폼 창고세일,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색깔이 있는 공간 GalleRy
SAY I_영 아티스트 프로젝트 2, Gallery IS
I', not bubble, JH gallery

2009 Hyupsung University graduate exhibition
ASYAAF 2부, 옛 기무사 터, 서울

태어나고 자란 인천에서 지금도 거주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주로 인물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추상적인 언어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표현을 인물을 확대 시키고, 주변에 떠있는 사물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감각은 이상을 추구한다.' 감각이상(感覺理想)을 주제로 만들어 풀어나간 작업이다.
'이상'은 결과적으로 긍정적이기도 부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 속에서 본질을 지나치거나 무감각하게 되기도 한다. 틈 없는 틈 속에 끼어들고 싶었다. 본질에서 지나치는 無감각을 깨워 생각의 순환 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었다. 『'응' 라든지 '아'』, 『'아' 라든지 '음'』은 시리즈로 제작이 되었다.

김수환 KIM Soo Hwan

노가다, 시노, 어느날 어떤 것, 밤하늘 버려진 나무자재들, 창호지에 혼합재료_가변설치_2009~2011

노가다주식회사 폐자재_3700x3900x2100mm_2008

왼쪽위부터 | **이상한 발** 창호지에 연필, 아크릴 채색_131x94cm_2011 **개미, 잡초** 창호지에 잉크_92x67cm_2011 **노숙자** 창호지에 연필, 연탄_183x160cm_2009 **SINO** 종이에 유성잉크_74.2x104.5cm_2011 **잠 못 이루는 밤** 창호지에 연필 잉크 아크릴채색_110x110cm_2011 **없다, 있다** 종이에 반짝이가루, 아크릴채색_122x79cm_2011 **밤하늘** 창호지에 유성잉크_가변설치_2011

노가다맨 폐자재_2200x1350mm_2009

벌써 삼십일 년째 인천에 살고 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 나가도 논밭이 금세 눈에 띄고 미로같이 굽은 골목들이 참 많았다. 한 방송사의 '경찰청 사람들'이란 프로의 주 무대가 될 정도로 양아치들의 활약이 대단한 범죄의 도시이기도 했다. 그만큼 기억 속 인천은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도시였지만 지금은 송도신도시같이 멋진 미래형 도시가 생기고 아트플랫폼이라고 작가들을 위한 스튜디오도 들어서 있는가하면, 곳곳에 문화축제도 자주 열리고 곧 있으면 아시안게임까지 열린다고 하니 그 얼마나 눈부신 발전이 아니겠는가. 개똥으로 지뢰밭을 이루던 골목집들 다 밀어내고 길을 넓히면서 참 깨끗해지기도 했다. 그래도, 여전히 예전의 추억들이 남아있는 곳들을 만날 때마다, 해가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있는지 신기하고 정겹고 고맙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 있는 작업실도 재개발 구역이긴 하지만 서울보다 집값이 싸서 개똥 많은 골목 한켠에 나름 작업실도 있고 어쨌든 내 고향 인천에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난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나는 거리에 덩그러니 놓여 내가 스쳐갔던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다 하나 주어다가 뭔가를 궁리해 보기도 한다. 도시에 버려지는 것만큼 그 자리를 새로 채우는 것들도 많아서 그런지 뭔가 있던 자리를 기억해 보고 추억에 빠져 곧 잊혀 질 일들을 그림으로 옮겨보기도 한다. 이렇게 없어지고 생겨나는 것들을 보면, 때로는 사람 또한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잠깐 있고 없어지고 그 자리에 또 무엇이 있는 것인데 존재한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본다. 하지만 사람이 없다면 그 의미를 또 누가 생각할 것인지, 의미자체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면 나는 그저 살아있는 것을 즐기고 싶다.

학력

1981 인천 출생
2011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2007 인천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개인전

2009 어느 날, 어떤 것., 송은갤러리, 서울
2008 노가다주식회사, 벨뱃갤러리, 서울
2008 Room of SINO, N-Space, 서울
2007 TOY NOGADA, 성남아트센터, 성남
In HUGH, (구)학고재, 서울
2006 HUGH&People, 휴먼트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11 Again, 갤러리 골목, 서울
Draw-in, 복합문화공간 크링, 서울
Art Festival, 공평아트센터, 서울
2010 세상을 드로잉하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09 간판투성이, 상상마당, 서울
City-Ray, 스페이스빔, 인천
2008 국제 아트북 메이킹 페스티벌, 정독도서관, 서울
무지개다리, 쉬필라움, 인천
플레이프로젝트, 요기가갤러리, 서울
2007 어디서나, 스페이스빔, 인천
집들이 642-7, 폐공장, 인천(인천문화재단 NCE특별지원사업)
홍예문 프로젝트, 자유공원일대, 인천
2006 후고-보나진 2인전, 쌤, 서울, 외 다수

일러스트레이션

2011 아주그룹 사보, 김형윤편집회사
2010-2011 컬쳐매거진 (1/n)3호~5호, 살림출판사
2009 성공수업 표지, 씨앗을 뿌리는 사람 외 다수

협업

2011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포스터, 601비상
베리드 얼라이브 아티스트 커넥션, 휴먼트리
2009 601아트북프로젝트2009 수상작품집 / 전시 일러스트레이션, 601비상

김아리따 KIM Aritta

root n me 캔버스에 아크릴_120x120cm_2011

You tried to pin me down, but I resisted 가변설치_2011

root&route acrylic on canvas_120x120cm_2011

'root & route'

인위적인 회색빛 공간, 그 곳은 예를 들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다. 일터는 명예와 권력, 부를 쉼 없이 쫓는 집합공간으로 그 속에서 때론 무의미하고 무가치함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는 집착과 욕망으로 갑갑하지만 회색빛 틀에 갇혀있을 수 밖 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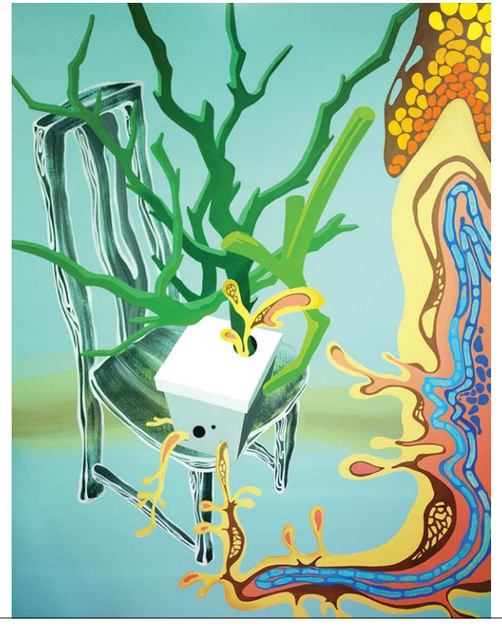
나의 작품에서 건물이나 화분으로 표현된 무채색의 도형이 바로 이를 뜻하며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작가로써의 고뇌와 시련을 겪는 공간으로 표현된다.

나는 식물원을 다녀오고 화초도 키워보며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이 나의 맘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정해진 천장높이 때문에 가지를 쳐내야하고, 사각 화분 틀 때문에 흙 위로 튀어 오르거나 작은 구멍으로 비집고 내려오는 뿌리의 모습에서 답답한 감정이 이입되었다.

동시에 역경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라나는 가지의 모습과 더 넓고 깊은 흙의 촉감을 느끼고자 겁 없이 화분 밑으로 나오는 뿌리의 모습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아등바등 사는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느꼈다.

나는 그 어떤 작은 틈이라도 거침없이 뿌리내릴 수 있을 만큼 욕구가 대단한 뿌리의 성질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욕구는 일탈을 꿈꾸고 작가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는 나의 심리상태와 동일시하여 꿈틀거리듯 표현하였다. 이렇듯 인간들이 만든 인위적인 공간에서 숨막히지만 끈질기게 자라는 생명력의 표상인 뿌리가 작업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즉, 이번 작품은 자연의 일부분인 식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내재적으로는 작가로써 겪는 고난의 길을 희망으로 승화시켜 은유적으로 나타낸 나의 자화상이다.



root&route acrylic on canvas_116.8x91.0cm_2011

학력

인천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졸업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1 제3회 'root & route' 공모초대전 (영등포타임스퀘어나무그늘, 서울)
2010 제2회 '초록, 그 찬란한 생명' 공모초대전 (강남나무그늘, 서울)
제1회 '초록, 그 찬란한 생명' 초대전 (갤러리현, 서울)

주요 단체전

2011 Draw-in, 복합문화공간 Kring, 서울
자연주의자, 식물감각, 헤이리
상상 가까운 공간, 갤러리영, 서울
2010 192-6, 갤러리더케이, 서울
내 마음속에 물감을 뿌려요, 갤러리4.서울
제1회 신진아티스트 공모 초대, 코엑스 아쿠아갤러리, 서울
IAF-차세대유망작가 공모 초대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신진작가 기획 초대展 (문화공간해시, 인천) 외 20회

작품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작가로써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고난과 인내가 필요한지를 뼈져리게 느낍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쳤을 때 그 벽은 또 얼마나 높은지 숨이 막히곤 합니다. 비단 이러한 감정은 저 뿐만 아니라 작가라면 누구나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전시를 통해 나의 작품을 알리고 싶은 열망과 만족스러운 나의 작업을 향한 끝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반드시 따라붙는 절망까지..올 해는 작가라는 나를 통해 뒤엉킨 나의 감정까지 들여다보며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작가로써 겪는 고뇌와 시련의 회색빛 공간과 '나'를 식물로 의인화 시켜 식물의 뿌리는 작가로써 꿈을 실현하고 싶은 열망을 꿈틀거리듯 표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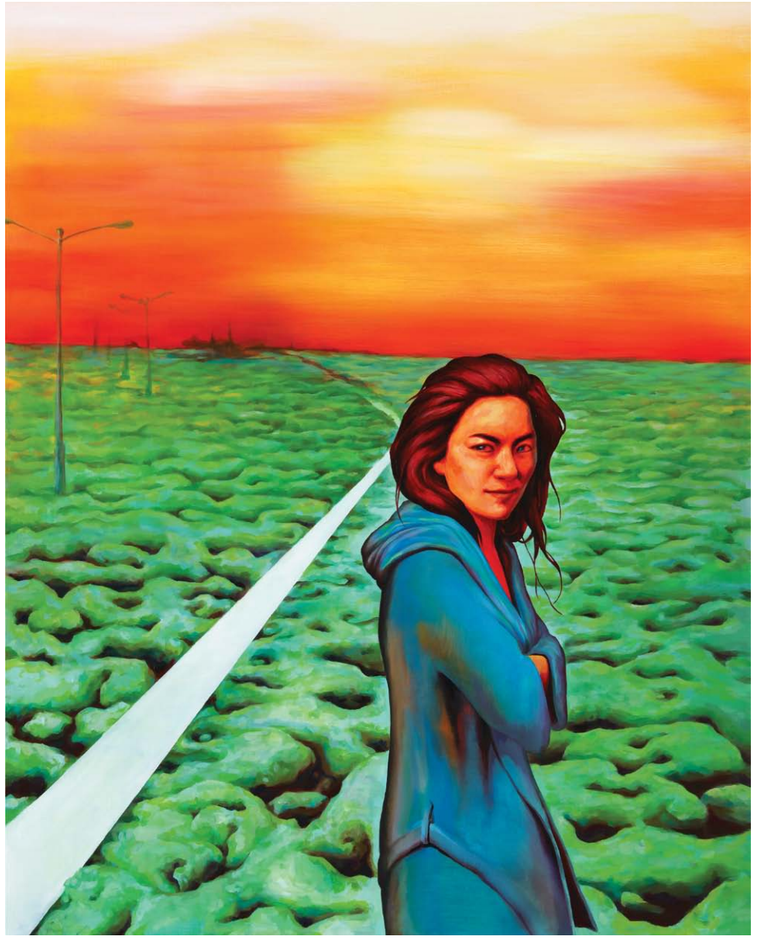
작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탐구와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이 노력의 결과물을 더 많은 곳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에는 신진작가를 위한 전시 발표 공간이 너무 열악합니다. 홍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좋은 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기가 넘치게 운영이 되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천에 젊은 작가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전시하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진작가들의 발굴과 지원이 향상된다면 인천의 지역발전도 같이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작가라는 고난의 길이 조금은 수월해지길 바랄뿐입니다.

김윤아 KIM Yoon Ah

Girl with a blue muffler Oil on canvas_100x72cm_2011



Couldn't be there #2 Oil on canvas_80x100cm_2011

우리는 해가 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벌거숭이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낮은 하늘은 안락함 이였고
밤의 장막은 비밀스럽고 따스했다.

희미한 조명하래
벌거숭이 우리가 얼싸안은 건
자기 자신 이였을지도 모른다.

멀겋게 날이 밝아오고
비가 멈추고 낮은 구름이 밀려난다.

Couldn't be there #1 Oil on canvas_100x56cm_2011

Couldn't be there #3 Oil on canvas_45x53cm_2011

Couldn't be there #2 작업모습

학력

1979 인천 출생
1995 덕원예술고등학교 입학
1996 부광여자고등학교 편입 1998년 졸업
1999 성신여자 대학교 서양화과 입학 2005년 졸업
2005 동대학원 입학 2006년 수료

활동경력

2011 평창올림픽유치기념예술축전초대. 작가상 수상
중국국제아트페어 초대작가전
인사화랑제. 신상갤러리
1th Solo Exhibition. 갤러리스카이연
하얀다락방전. 갤러리스카이연
2010 김윤아. 故남지연 2인전. JS 갤러리
난우.난원. 인사아트센타
인사아트페스티발
2005~2010 사업 및 해외체류
2005 난원전. 인사아트센타
마인드스쿠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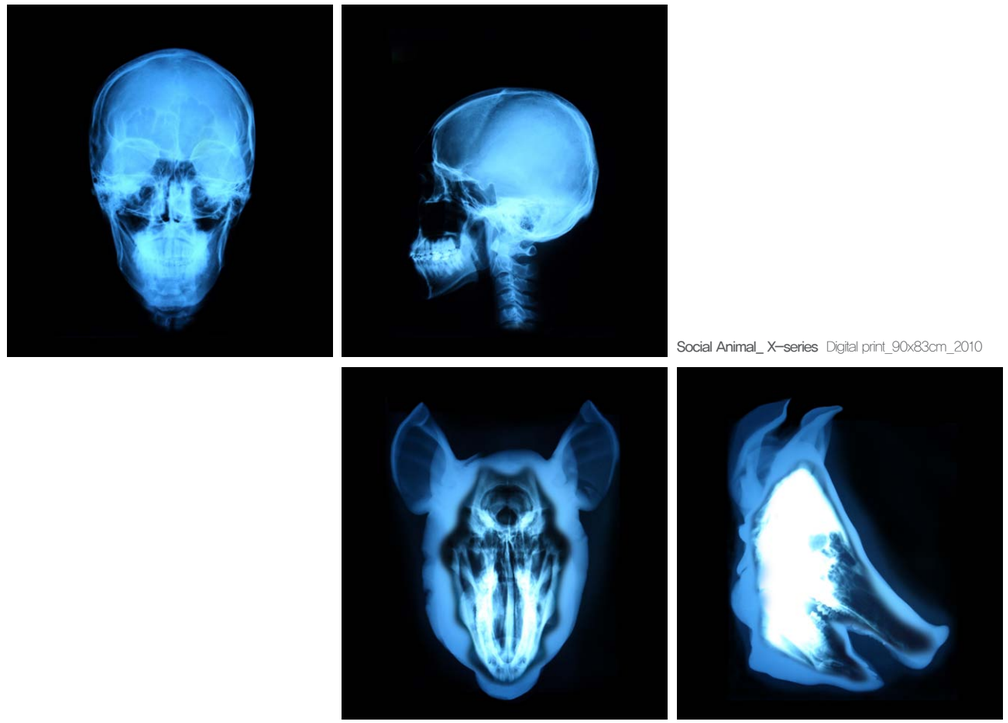
2006년 대학원을 중퇴했다.
그때엔 모든게 막막하고 겁이 났던 터.
꿈을 접어두고 두 발을 현실에 딛지 못한 채로 부유(浮遊)하던 시간이 흘러갔다.
사업을 하다가 돌연 해외로 무작정 나가버렸다.
도살장일과, 바텐더, 여러 농장일들을 오고가며 결국 난 생각이 들었다.
나의 방황은 결국 다시 그림을 시작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을 것 이란 걸.
2009년 12월 한국으로 돌아와 그 시간들을 화면에 옮기기 시작했다.
나의 작업은 '상실'에서 시작되었다.

김진석 KIM Jin Seok

5892450 receipt on canvas_162.2×130cm_2011

Social Animal_Common notion Mixed media_65x65cm 10kg_2009

Social Animal_ We lost sense of direction



Social Animal_ X-series Digital print_90x83cm_2010

사회적 동물 Social Animal

인간이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어도 그 개인이 유일적(唯一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하에 존재하고 있다.

인간[人間]: 동물의 일원이지만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고등동물

세상에는 가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천재지변 같은 자연현상이 아닌 인간에 의한 온갖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만류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이지만 우리들이 사는 이 사회는 절대 고등하지 못하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얽히고 설킨 이 사회에서 우리는 점차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TV를 틀면 온갖 쇼, 오락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 속에서는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이슈가 된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영상의 내용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하는 시위에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어린 새끼 돼지의 발을 줄로 묶어서 능지처참이라고 불리는 대역죄인들에게나 행하는 것을 퍼포먼스를 하는 것 이었다. 나는 순간 설마 했다. 하지만 나의 의심도 잠시 사람들은 네 방향에서 돼지를 갈기갈기 찢었고 돼지는 울부짖으며 그렇게 죽어갔다.

약육강식에 의한 도살이 아닌 인간의 이해관계를 위해 한 생명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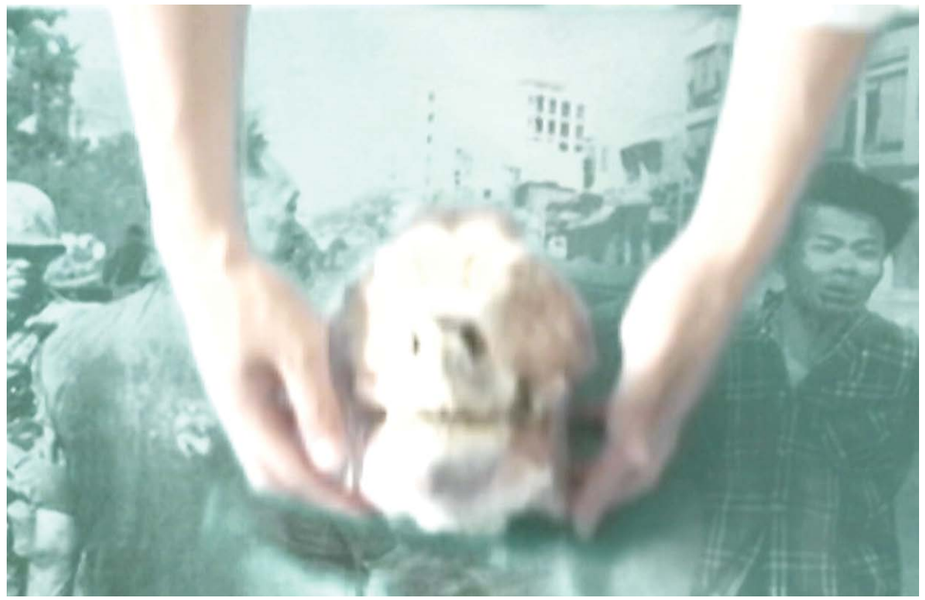
그러고 얼마 뒤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를 보게 되었다. 어느 고사 돼지머리들처럼 돼지는 병을 입에 물고 잘 삶아져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있었고, 사람들도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며 서로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있었다.

사람들은 돼지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동물, 돈의 상징, 더러움, 게으름'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지만 막상 돼지는 그냥 하나의 동물일 뿐, 의미들은 모두 허상이다. 허상이 또 다른 관념이 되었고 관념은 사회 속에 뿌리깊게 박혀 버렸다. 그런 것처럼 또 우리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돼지만도 못한 허상들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나에게 돼지는 현대인을 대변하는 또 다른 의미의 사회적 동물이 되었다.

모두 사회적 동물이다.



Social Animal_ One's true colors Runtime 5' 02" Single channel video_2010

학력

1986 인천 출생

2011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서양화전공 (신문방송학 부전공)

활동경력

2011 '감각party' 展, (JAZZY MAS, 서울)

2010 '시선의 끝' 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수상

2011 NewDiscourse 신진작가 공모전 우수작가 선정 (사이아트 갤러리, 서울)

2011 한화 내가 그리는 내일의 태양 _선정작

인천에서 태어나 줄 곳 같은 동네에서 자라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인천의 젊은 작가라는 타이틀을 받은 나에게 내 고장 인천은 어떤 존재일까?

누군가는 인천이 수도 서울 옆에 있어서 지역 안에서 직접적인 문화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오늘날까지 인천은 광역시로써 시립 미술관이 없고 갤러리도 몇 군데 없는 문화적 소외지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시의 문화적 시설과는 별개로 내 고장 인천은 어린 시절 나에게 숨겨진 보물들이 많은 미지의 땅이었다. 개발되기 전 인천교와 공단지역에서 놀았던 경험, 동인천을 넘으면 보이는 이국적인 차이나타운 풍경과 월미도에 가서 붉은 노을과 함께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다.

미림극장과 중앙극장, 피카디리극장 등 지금은 사라진 인천의 옛 극장을 학교가 끝나면 종종 부모님 몰래 갔었는데, 그 이유는 영화 포스터와 손으로 그려진 간판을 보기 위해서였다. 어린나이라 돈도 없고 그 나이에 관람할 수 없는 영화가 많아 영화를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극장 주위를 자주 서성이다가 우연히 간판을 그리는 분을 만나서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그림구경을 실컷 할 수 있었다. 아마도 그러한 이 경험이 내가 미술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 같다.

대형 미술관 전시나 문화시설적인 혜택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어린 시절 이 고장에서 겪고 보았던 다양한 경험들은 작가로써 작업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사회적 현상을 주제로 작업을 하는 나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이다.

김진기 KIM Jinkey

회식 relay-2차 Mixed media on panel_110x130.3cm_2010

회식 relay-4차 Mixed media on panel_130.3x110cm_2010

'끌리는 뒤태' 시리즈는 이러한 테이블 씬을 의도적인 공통된 시점으로 기록, 채집하는 습관에서부터 출발했다.
그 당시 각기 다른 정서를 담고 있는 남겨진 테이블을 기록적 매체인 사진과 조형, 물성의 유연성을 갖는 painting, 즉, 관능적 시각언어와 변칙적으로 혼재해 보고자 했다.

Leftover '끌리는 뒤태'
한국인의 회식이 끝난 자리는 종종 우리에게 다이나믹한 테이블 광경을 선사한다.
특정한 연결고리로 모인 사람들이 길게 늘어져 식당 안을 채우고 그들의 흔적이 테이블 위에 고스란히 남겨진다.

열정적인 회식이 휩쓸고 간 후의 테이블은 참혹하다 못해 아름답다.
수많은 이야기, 정서들이 뒤엉킨 회식이 끝난 자리는 그 당시의 기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러한 누군가가 먹고 이야기 하고 남겨진 다양한 시공간의 특정 테이블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해 제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일 수 있다.
Leftover 시리즈는 이러한 테이블 씬을 의도적인 공통된 시점으로 기록, 채집하는 습관에서부터 출발했다. 그 당시 각기 다른 정서를 담고 있는 남겨진 테이블을 기록적 매체인 사진과 조형, 물성의 유연성을 갖는 painting, 즉, 관능적 시각언어와 변칙적으로 혼재해 보고자 했다.

오빠 나 사랑해? Acrylic on canvas_105x194cm_2008

나의 관심은 장소와 사람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 발생되는 각 지역 특유의 정서, 특히 그 안에 밤의 기운을 지닌 로맨스에 관심이 많다.
로맨스의 대부분은 통속적이지만 각자의 경험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힘이 있다.

학력

1983 서울 출생
2010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수료
2008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영상학과 졸업

개인전

2010 끌리는 뒤태, OCI미술관, 서울
2009 모듬회식, 자하미술관, 서울

주요 단체전

2011 우여곡절 : 군산의 사람과 움직임, 군산 아트 레지던시 스튜디오, 군산
2인전 : 아열대의 밤, 갤러리 큐리오룩, 서울
발굴의금지,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2010 Preview, OCI미술관, 서울
중앙미술대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Lifescape in Art ,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09 주화입마 (走火入魔), 갤러리 이앙, 서울
2008 트랜스삼부작, 모란갤러리, 서울
서교육십 2008 : 취향의 전쟁, 갤러리 상상마당, 서울

레지던시 2011 OCI 창작스튜디오, 군산 아트 레지던시

회화와 영상을 전공한 김진기의 작업에는 이렇듯 모순적인 삶의 양면이 공존한다. 먹고 남긴 것, 버려진 잔여물, 폐기된 생활의 찌꺼기, 여기에 그 음식이나 물건과 함께 나눈 삶의 기억, 해소되지 않은 감정, 퇴락해가는 기억의 잔재들이 기록되고 재생된다. 불연속적인 사진 이미지와 거친 표현적 필치가 뒤범벅이된 그의 화면은 밤새 부등켜안고 씨름했던 삶의 회한, 오랜 애증 끝에 버려진 물건, 회식이 끝난 뒤 새아침이 밝은 뒤에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감정의 잔여물과 물리적인 배설의 흔적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또렷하게 되새김질한다. 비장함마저 감도는 먹고난 흔적, 악취 넘치는 쓰레기 더미는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다지 보이고 싶지 않고 그다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삶의 비천함, 욕망의 애브잭트, 불쾌한 잉여의 잔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충격을 선사한다. 김진기의 〈회식〉 연작과 〈점철합판〉 연작은 거부하고 버려진 것,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불쾌하게 남겨진 것을 낱낱이 일깨우되 짙은 회화적 되새김질로 감정의 완전연소를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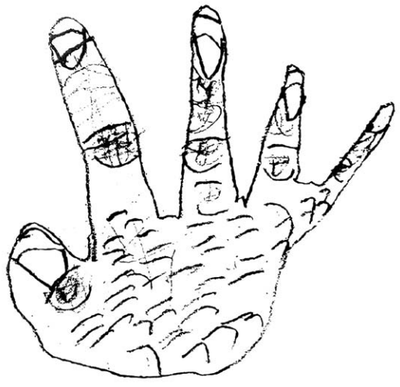
–전시서문 발췌 (권영진)

나광호 NA Kwang Ho

Filling stainless steel, steel wire_700x500x500cm_2009

Cooked and Raw acrylic acrylic board_117x85cm_2010, 2009, 2009

학부모 9B pencil on paper_230x151cm_2010
털 많은 손 9B pencil on paper_200x151cm_2010



Filling 완성된 작품이라는 개념이나 상태를 지향하기 보다는 소박하지만 원초적인 그리기의 즐거움과 관능을 안겨주던 순간을 수집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두에게 다시 돌려주려 하는 것이다. 작품은 대형의 크기를 지닌 체 벽에서 나와 허공에, 공간에 걸리기도 하고 가설되는 이유는 일상의 공간에 자연스레 그리기의 즐거운 추억의 흔적들이 공존하게 하려는 배려이다. 그 사이를 거닐고 올려다보면서 주눅 들지 않고도 미술작품, 아니 이미지란 것을 체험하고 감상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 작품은 모빌 형식으로 설치하였고 공간의 흐름을 타는 미묘한 흔들림은 신경처럼 떨리고 관객의 몸과 시신경에 호소한다.

Cooked and Raw 나는 본능적인 충동으로서의 낙서나 원초적인 행위로서의 선긋기를 추구한다. 내가 수집하는 이미지는 근원적인 그리기의 충동과 희열의 흔적이다. 유년을 회상하고 어린 시절 그리기의 즐거움을 상기한다. 아이들이 끼적거리듯 그려놓은 드로잉, 낙서는 그 자체로 너무 절묘하고 흥미롭고 기가 막히다. 모든 아이들은 사실 그림에 천재들이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지나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 눈과 손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미술은 어렵고 난해하고 두려운 그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 타인의 그리기, 손짓과 몸놀림, 가장 원초적인 선긋기, 그리기와 구체적인 대상의 묘사에 이르는 과정을 수집하고 조합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몇 겹의 재현과정을 보여주고 아울러 그 사이의 무수한 차이와 더불어 우위가 없음을 드러낸다.
미술은 선으로 이루어진 드로잉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아이들의 그림을 수집하고 커다랗게 확대했다. 이를 토대로 9B연필로 드로잉을 했다. 나의 개입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원본의 싱싱한 상태는 가능한 유지하였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것을 그렸던 어느 아이의 것이자 나의 것이기도 하다. 무수한 타인의 몸짓을 존중하고 그 몸짓위에 내 몸짓을 올려놓는다. 타인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샘표 아트팩토리 프로젝트 paint on actory_factory size_2011

학력

1979 부천 출생
2006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졸업

주요 전시

2011 샘표 아트팩토리 프로젝트, 샘표공장 & 아트인컬처, 이천
2010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5기 입주작가, 박수근미술관
2009 인천국제공항모빌아트공모전, 대상
2008 Funny Sculpture & Funny Painting, 갤러리세줄, 서울
2007 막긋기, 소마미술관, 서울
2006 Wake up Andy Warhol, 갤러리쌈지, 서울

인천의 젊은 작가, 스스로의 질문과 답변

내 스스로를 인천의 젊은 작가라고 생각한 이유는 인천이 나에게 해 준 것이 많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 한 후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미술교사로 2년간 아이들을 교육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 아이디어의 시초가 된 것이다. 인천에서 개최 된 공모전, 공공미술, 미술은행, 전시의 기회를 통해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고 활동 할 수 있었기에 인천은 나에게 각별한 곳이다.

자신에 대한 소개

회화, 드로잉, 판화, 모빌 작업을 하고 있는 청년작가이다.

작업에 대해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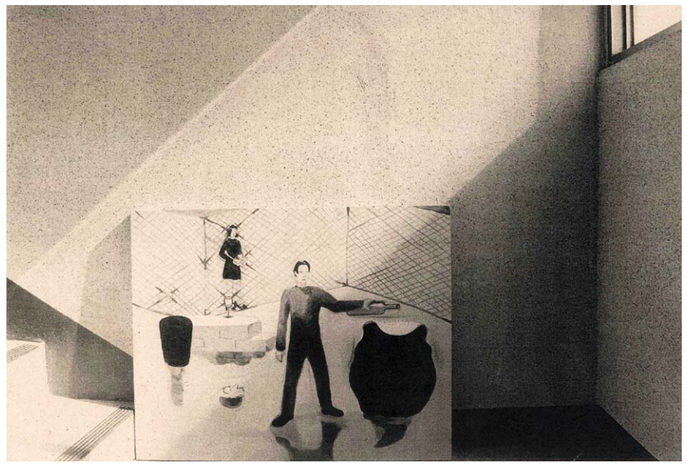
내 작업은 아이들의 낙서와 근원적인 드로잉을 토대로 작업을 하였다.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교육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생한 현장에서 얻은 느낌과 꿈틀거리는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조합하여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다.

노소영 NOH So Yeong

예술가의 감상법 설치 전경

뜻하던 뜻밖의 펼침 watercolor on paper_50X74cm_2011

이름 없는 선물 digital print_45x60㎝_2010



농담공식 대본(부분-표지) print on paper_A4size 16page book_2010

상대적 세계와 절대적 세계 watercolor on pape_50x72㎝_2011

진행 중인 프로젝트 –라이프니츠의 '한알', 2011

아는 선생님이 라이프니츠의 'Monad'를 한글로 번역(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는 번역)하는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획의 목적은 일반인들이 철학서를 접할 때 어려운 철학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선생님은 비교적 짧지만 의미가 큰 텍스트인 라이프니츠의 'Monad'를 첫 번째로 선택하였고, 앞으로 많은 서양 철학자들의 저서를 번역할 계획이다. 번역본은 모두 전자책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선생님은 출판 전에 번역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원래 목적인 쉬운 철학 교육을 시도하기 위해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은 일주일에 한번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모여 선생님과 함께 번역된 라이프니츠의 '한알'을 읽으며 진행되었는데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

그리고 나는 공부 모임에서 배운 내용을 진도에 맞게 일주일에 3개씩의 작품을 만들었다. 이 작품은 라이프니츠의 철학서에 삽입될 만한 삽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생각이 깊어지고 성장함을 표현하는 미술 작품이다. 철학에 대해 배경지식이 없는 타전공생인 내가 전문적이지만 쉽게 풀어 설명되는 철학을 배우고 받아들인 대로 표현한다. 이 작품들이 모이면 라이프니츠 철학에 대한 하나의 해설서와도 같은 책이 나올 텐데, 언어로의 해설서가 아닌 시각 언어로의 미술적 해설서가 될 것이다. 나 또한 이 작품 모음을 전자책으로 출판할 방향을 생각중이다.

위의 〈뜻하던 뜻밖의 펼침〉은 24개의 작품 중 하나인데,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 이론을 표현했다.

희비극(喜悲劇), 2010

희비극의 페인팅과 사진, 대본 작업은 모두 미술가-주제-작품이 연극의 연출가-대본-배우의 관계로 비유된 작업이다. 그림들은 내가 극작가이자 연출가로써 연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능력으로 관객과 더욱 넓게 소통하는 뛰어난 배우가 되려 한다.

전체 10개의 그림들이 배우인데, 그 중 〈이름 없는 선물〉, 〈농담공식〉, 〈방드르디〉는 무대와도 같은 배경에 놓고 사진으로 찍은 작업으로 발전했다. 공간 속 그림을 보며 관객은 보다 상상력을 자극 받을 것이다.

사진과 같은 제목의 3권의 얇은 무언극 대본(등장인물의 대사나 지시문이 없이 묘사만 있는 최소한의 대본)도 있는데, 여기에는 극적인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상상하게 하는 사진들이 막의 구분에 따라 실려 있다. 관객은 이 그림, 사진, 대본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이것들의 총체적인 내용, 즉 작가가 연출가로서 배우 역할을 하는 그림으로 표현하려 했던 주제를 상상할 수 있다.

학력

1988 인천 출생
2011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주요 전시

2011 동방의 요괴들 지역순회 화살표전
대구MBC 갤러리M, 대구
3, the great minors of Seoul전, 언오피셜프리뷰, 서울
2010 제4회 인사미술제 특별기획 Good Choice 미래의 작가전, 공아트스페이스,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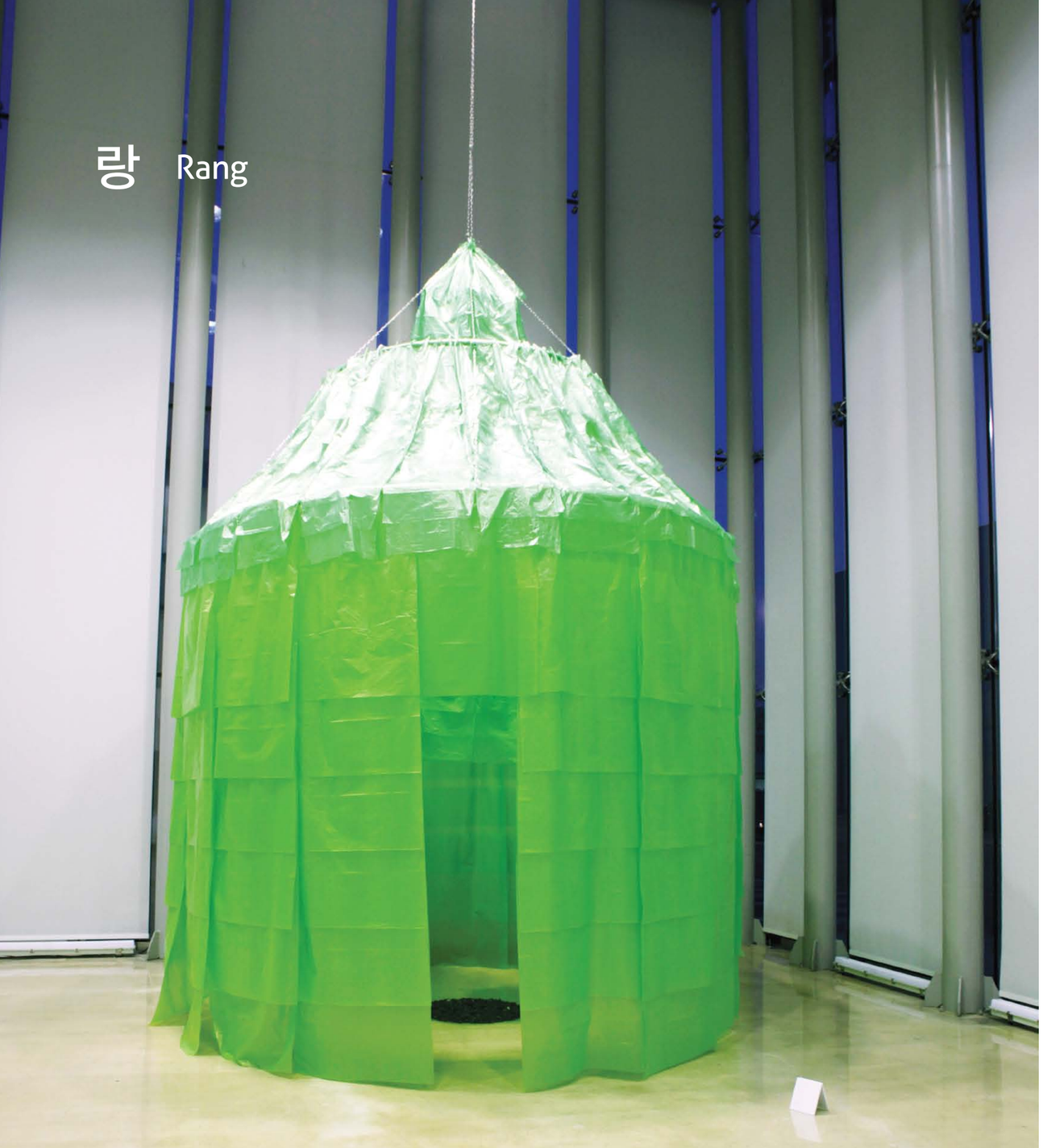
나는 부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2학년에 인천으로 이사 와서 현재까지 17년이나 인천에 살았다. 하지만 내가 인천에 산다는 것은 항상 교통비가 많이 든다는 의미뿐이었다. 고등학교 때는 홍익대학교 앞의 미술학원으로, 대학생활 내내 학교로, 졸업 후에도 서울에 월세를 내고 다니는 작업실로 꾸역꾸역 다니고 있다. 내가 졸업 후에도 굳이 오래 살아온 인천이 아닌 서울에 작업실을 얻은 이유는 뭘까? 미술을 하려고 할 때 나는 항상 서울로 가야 했다.

내가 서울로 이동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에 따른 선택이다. 매일 서울로 향했다가 인천으로 돌아오다 보면 중심과 주변이라는 극명한 대비를 느끼게 된다. 그런 대비가 가능하다면 나 개인의 삶에서도 미술이라는 활동이 중심이고 일상이라는 활동은 주변인 것일까? 나는 이미 나눠져 있는 중심과 주변 개념을 거부한다. 미술과 삶, 사회적 활동과 개인적 활동, 서울과 인천은 조화되고 일치될 수 있다.

나의 삶을 이루는 지역이라는 위치는 내 문제의식이나 사회비판, 젊은 작가로서의 책임감과 떨어져 있지 않고, 더 넓게는 나의 생활패턴, 삶 자체, 사유나 지각방식과도 밀접하다. 내가 그 많은 서울로의 이동시간에 버스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인천으로부터 서울로 바뀌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문제 삼는 것들이 나의 모든 작업에 녹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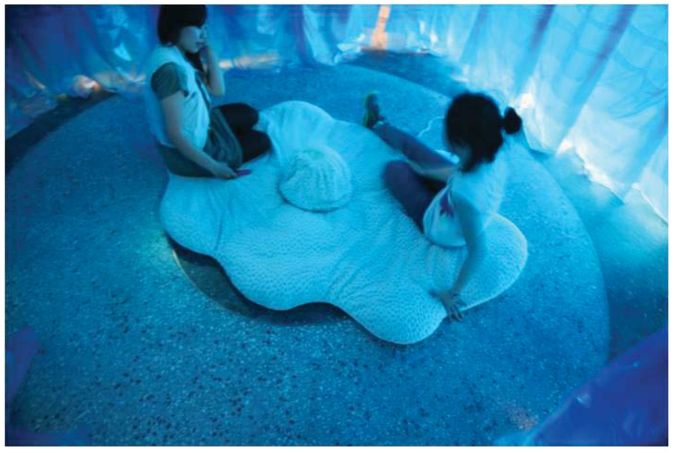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작가'로 생활한지 1년이 되어간다. 학교를 벗어나 작가로 살기로 선택하는 과정은 나 자신의 용기와 신념을 다져가는 과정이었다. 나는 무엇보다 시각적인 소통의 창조적 힘을 믿는다. 내가 관찰하고 탐구하고 사유하면서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철학, 나만의 사유체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보는 사람 또한 감상에서 더 나아간 능동적인 사유로 자신만의 창조적 힘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랑 Rang



잠시, 쉬었다 가세요 비닐봉지, 팬, 가습기, 센서_400x400x300cm_2011

설레임을 주는 통로 비닐봉지, 팬, 가습기_320x320x200cm_2011
설레임을 주는 통로(내부) 비닐봉지, 팬, 가습기_320x320x200cm_2011



설레임을 주는 통로 비닐, 센서, 팬, 가습기_320x320x200cm_2011

'설레임을 주는 통로'

파란 풍경. 그리고 바람.

파란 통로는 설레임을 주는 냄새에 관한 기억을 추적한 결과물을 보여준다.

잔잔한 바닷물처럼 수평선의 감정이 순식간에 불어 닥친 바람으로 평소와 다름없던 하루였지만 바람으로 인해 포물선으로 요동친다.

적당한 습도와 바람. 산뜻한 공기. 날아갈듯 기분 좋았던 설레이던 그 날을 재현한다.

과거 추억들의 환경이 완벽히 동일하진 않지만 적당한 습도와 바람을 후각의 감각으로 상황 연출을 통해 보여주게 된다.

파란 비닐은 중첩시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었고, 빛을 통해 공간 안에 형성되는 파란 빛들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시킨다.

센서가 관람객을 인지하여 공간 안에 있는 팬이 돌아가며 바람을 일으키고 바닥에 있는 가습기에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라벤더 향이 퍼져간다.

바닥에 폭신한 매트가 깔려 있는데 그곳에 눕거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앞으로의 작업도 관객이 직접 참여하며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한 향과 빛으로 연출 시키며 후각에 집중한 작업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작업들은 후각에 관한 기억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무의식 중 코를 통해 언제나 냄새를 맡고 금방 무뎌져 그 환경에 쉽게 적응되어 진다.

서로의 냄새에 무뎌지고.. 무의식 중 들이쉬고 내쉬는 이 행위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숨 쉬고 살아가는 동안은 항상 행해지고 있다. 후각은 다른 감각보다 상당히 민감하지만 금새 그 향에 취해버려 무감각해져 버린다. 그로 인해 순간적인 기억들이 스치듯 지나간다. 유명한 '프루스트 현상'처럼..

나만의 향을 공유하기

특정 냄새로 인해 떠오른 과거의 기억들을 채집하여 중첩된 이미지를 모티브로 작업을 시작한다.

'현실적 프루스트 되기'이 작업은 영상작업이다. 눈을 감고 향을 추적한다. 내가 거닐던 공간들이 회상하는 얼굴에 투영되어 보여진다. 향을 맡을 수 없도록 삭제되어진 코는 그저 기억 속에 저장된 향을 쫓아 기억들을 재생한다.

현실적프루스트 되기 Video_4분10초_2011

학력

1985 인천 출생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 졸업

현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재학

개인전

현실적 프루스트 되기, S101gallery

주요 단체전

2011 Innocent 'Why' 2인전, 샘표스페이스

야생동물전, 포천아트벨리

2010 Merry Jazzy M.A.S, Jazzy multi Art space

'Fly high', 한중문화관

Four Acting, 가온 갤러리

Funny Funny Funny, DMC 거리

언어놀이展, 성곡 미술관

Spring展 , S101 Gallery

Supercalifragilisticevpialidocious, S101 Gallery

2009 '호랑이 展' 경향갤러리, 유나이티드갤러리

텔레비 展, 성신여대 수정관

Synergism , 경원대학교

B&S Showroom, Gallery Gac

Preview & review 展, 대안공간 Team preview

START 2009 Exhibition, Cube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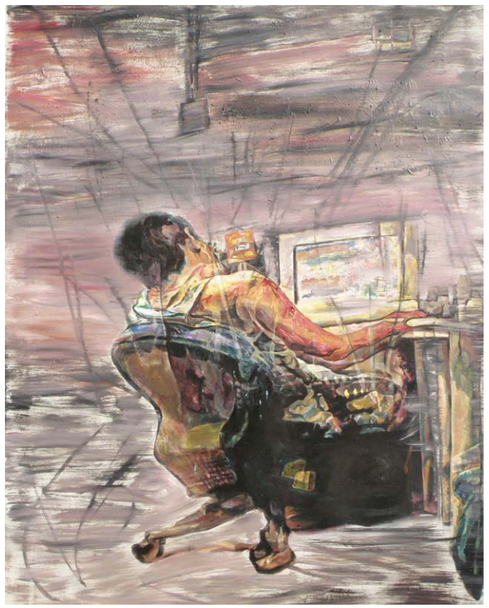
1985년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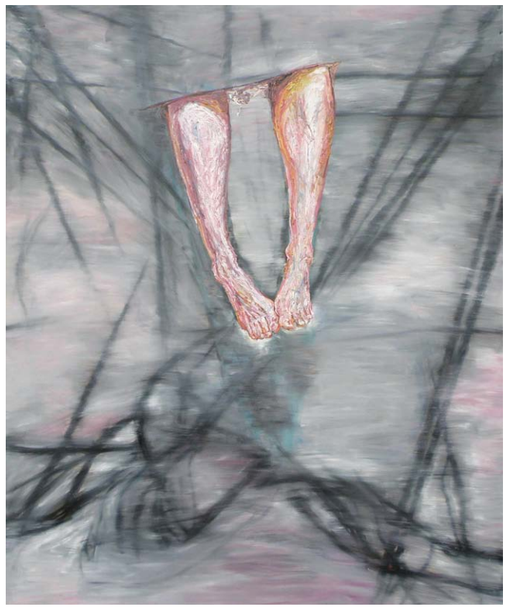
초 · 중 ·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졸업하였으며,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인천 조각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성환 RYU Seong Hwan

합병증 oil on canvas_162x130cm_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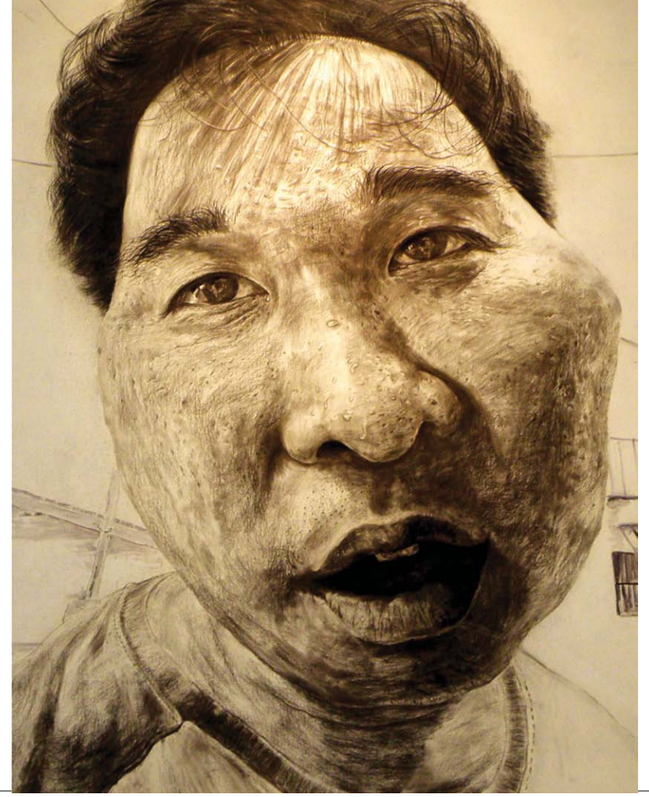
숙골로 사람들 charcoal on canvas_335x163cm_2008





청년백수 oil on canvas_162x130cm_2010

나의 작업은 삶의 순간순간의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적 이야기와 사회가 갖는
부조리의 실존적 이야기를 대상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개인적, 상대적
이해와 한계 그리고 무한한 삶의 희망에
귀결되며 그리는 창작자 자체로써
또한 자유로운 붓의 외침으로 표현된다.



늘 charcoal, acrylic on canvas_228x182cm_2008

학력

1973 서울 출생
2001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서양화 졸업
2011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기획과 과정

주요 개인전

2010 숙골로 사람들, studio R.A., 인천
2010 기울어진 삶, JHGALLERY 기획초대전, 서울
2008 삶의 터,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외 5회 개인전

주요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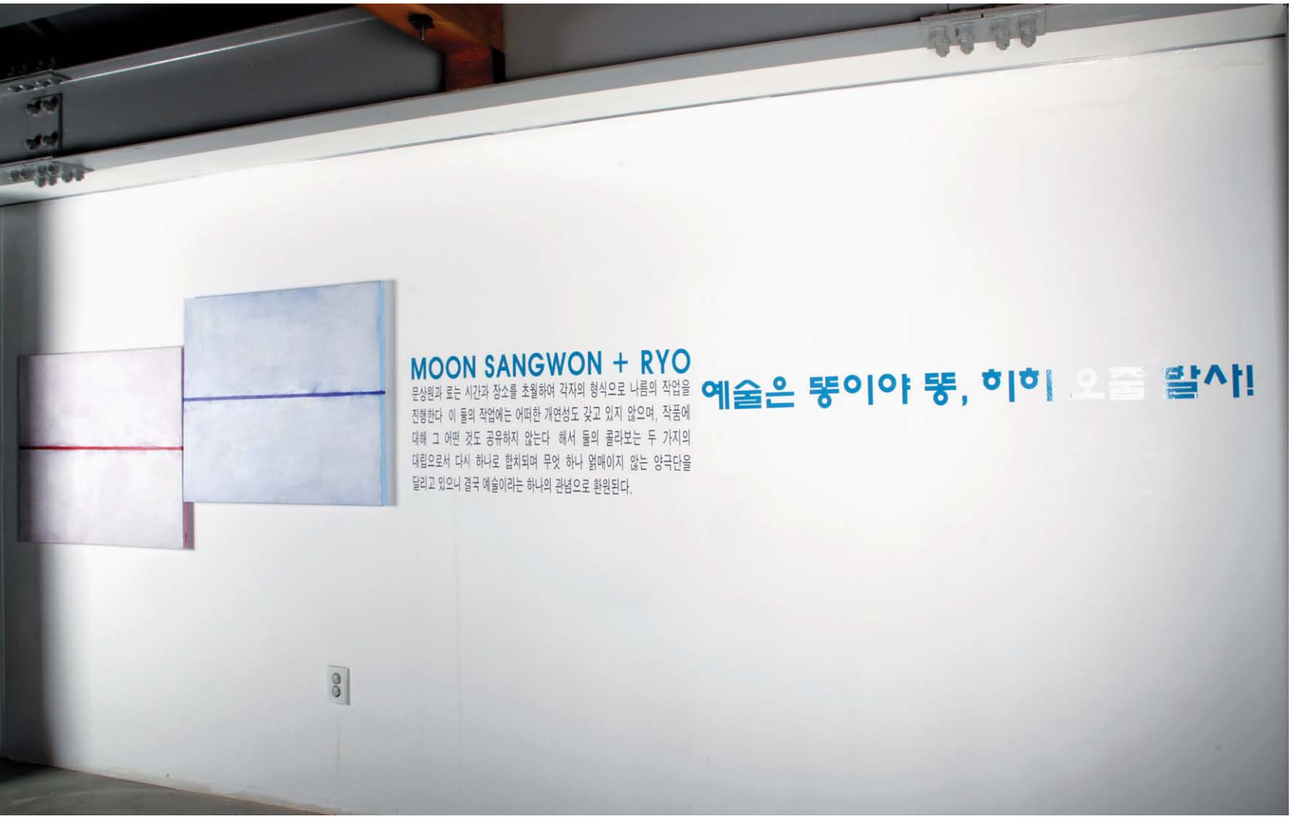
2011 제1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만화경美거리–설치미술 프로젝트, 부평문화의거리, 인천
2010 전국환경미술제, 강 – 생명의 노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2009 블루 닷 아시아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08 JALLA , 아시아 민중 東京都미술관, 도쿄, 일본
민들레, 김씨, 수달, 헤이리 마음등불, 경기
2007 황해미술제_명품도시, 스페이스빔, 인천
청년작가초대전, 서울역사전시장, 서울
2006 Down Hill Art Asian Exhibit, Top Gallery, 호주
feel 展, 서울현대갤러리, 안산단원미술관

수상

2010 인천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분과 지원선정
2009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작품매입공모 선정
2006 문화공간 海市 "젊은미술–incheon3040" 선정
1997 경향광고기획대상 우수상

작품소장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LS엠트론

문상원 MOON Sang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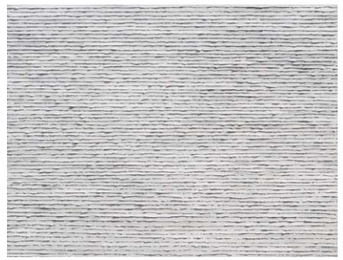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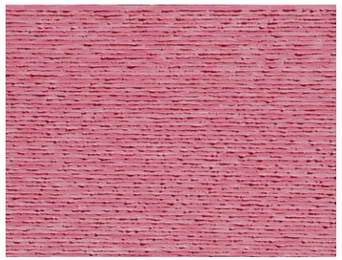
문상원&료 설치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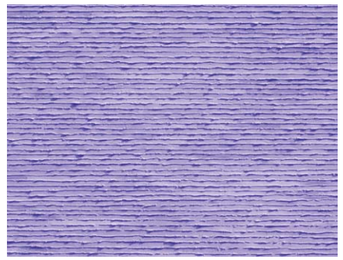
MOONSANGWON + R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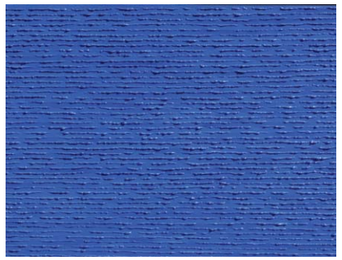
예술은 똥이야, 똥 히히 오줌 발사!

예술은 똥이다, 똥 텍스트_200x50cm_2011
문상원&료 텍스트_200x80cm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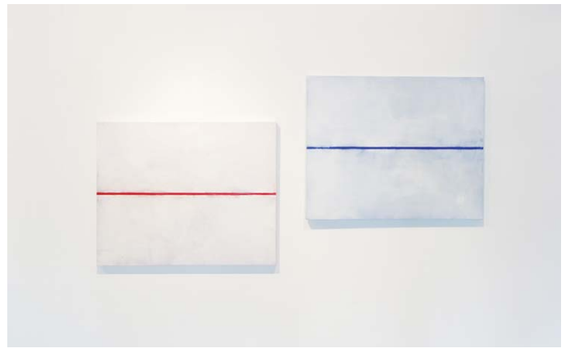
가역반응1–2 캔버스에 혼합재료_374.0x130.3cm_2010
회색 가역반응1–1 캔버스에 혼합재료_162.2x130.3cm_2010
분홍 가역반응1–6 캔버스에 혼합재료_116.8x91.0cm_2010
보라 가역반응1–4 한지에 혼합재료_116.8x91.0cm_2010
파랑 가역반응1–3 한지에 혼합재료_162.2x130.3cm_2010

문상원&료

문상원과 료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각자의 형식으로 나름의 작업을 진행한다. 이 둘의 작업에는 어떠한 개연성도 갖고 있지 않으며, 작품에 대해 그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는다. 해서 둘의 콜라보는 두 가지의 대립으로서 다시 하나로 합치되며 무엇 하나 얽매이지 않는 양극단을 달리고 있으니 결국 예술이라는 하나의 관념으로 환원된다.

끊임없는 초월 그 한계의 간극에서 선[禪]의 상태.

사유에 대립이 심해질수록 양극은 상승하며 공존하게 된다. 그 후에는 이율배반적 모순이 등장하게 되는데, 목적성이 결여된 행위의 반복으로 인해 초월을 경험할 수 있다.



가역반응2–1 한지에 혼합재료_90.7x73.7cm_2010
가역반응3–2 캔버스에 아크릴_가변설치(191.0x73.7cm)_2011

학력

1987 인천 출생

주요 전시

2011 불친절한 예술가들의 친절한 전시_가온갤러리_인천
2010 MYA_관훈갤러리_서울

문창화 MOON Chang-hwa

푸른 시간–중앙시장, 2009 디지털 피그먼트 인화_153cm×60cm_2011

푸른 시간–송림동, 2011 디지털 피그먼트 인화_153cm×60cm_2011
푸른 시간–십정동, 2010 디지털 피그먼트 인화_153cm×60cm_2011
푸른 시간–원창동, 2011 디지털 피그먼트 인화_153cm×60cm_2011

푸른 시간– 십정동, 2008 디지털 피그먼트 인화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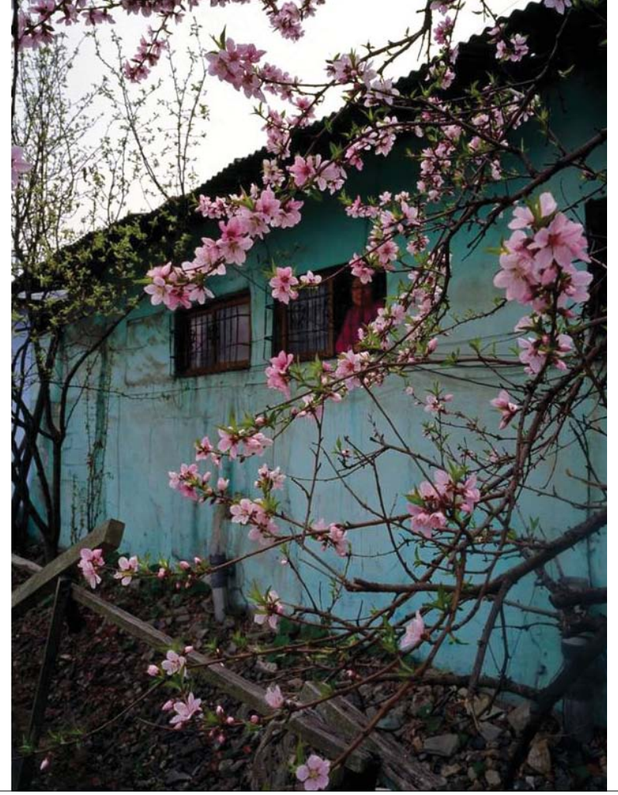
푸른시간 , 2011

다양한 시간대와 삶이 공존하고 있는 인천의 오래된 마을은 삶에 대한 애착과 같이 사는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 공간이 시간과 빛에 의해 색조를 달리 가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색조는 강한 현실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인천이 가진 독특한 역사적 기억과 그 기억을 현실로 드러내는 삶의 건축물인 집의 여러가지 형태들에 대한 흥미로 출발한 인천에 대한 작업은 점점 더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정서가 현재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도시 빈민가에서 자라난 나에게는 살아있는 풍경에 다름아니며, 내안에 원형의 풍경에 닿아있기도 하다.

주변에 덜 폭력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 곳은 적어도 자연과 의견을 나눌 여지가 있어 보이며, 그리하여 푸른 기운에 휩싸일때 더욱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다.

자연과 융화된 건축물은 공간들의 유기적 연결체가 되면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고 시간적 공간경험을 통해 자연과 인공공간을 연결시키려는 원초적인 시도를 보여준다. 이처럼 시간을 중심축으로 쌓여온 생활공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나약하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나의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하여 2003년 처음 인천을 찾기 시작한 발걸음이 계속 되어, '현존' (2004), '변두리 풍경' (2006년), '벽' (2007년), '공장지대' (2008년), '푸른시간' 등의 작업을 해왔다.



푸른시간–용현동, 2009 디지털 프린팅_2011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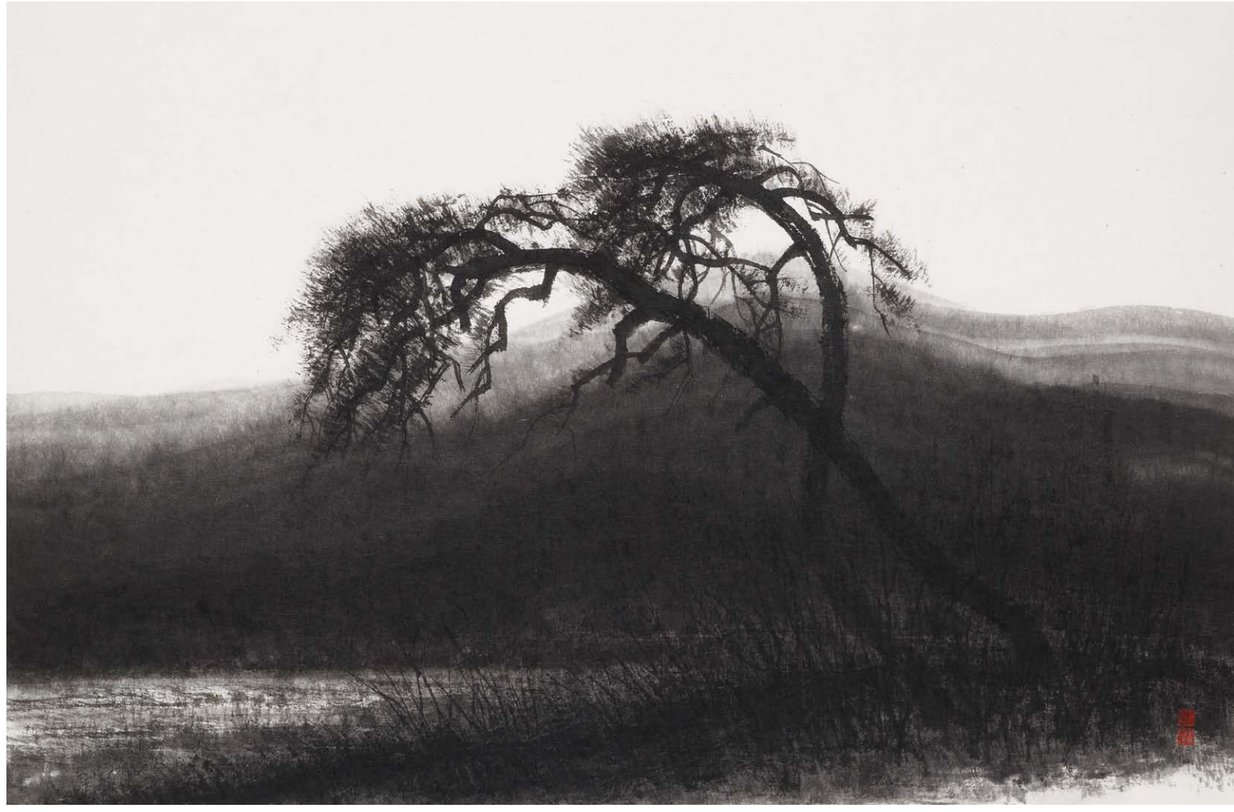
2011　푸른 시간 (부평아트센터, 인천)
2006　변두리 풍경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주요 단체전

2010　부평아트센터 개관전시 – 나의 살던 동네 (부평아트센터, 인천)
2008　한국현대사진 60년 : 1948 – 2008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감성과 시선 (갤러리 나우, 서울)
2007　도시 읽기 (토포하우스, 서울)
　　제10회 황해미술제 : 명풍도시 인천 (스페이스 빔, 인천)
2005　광복 60주년 기념 – 한국사진의 과거와 현재 (세종문화회관, 서울)
2004　도시에 머문 시선 (대안공간 풀, 서울)

민병권 MIN Byoung Gwon

a lonely path orientla ink on paper_112×82cm



at dawn oriental ink on paper_110×95cm

the winter ground ink on paper_76×50cm

a lonely path 나는 수묵화를 주된 작업으로 하는 작가로서 전통적 심미관을 토대로 인천 강화 소재의 야산 및 농로(農路), 대지(大地)를 소재로 하여 작업하여 왔다. 작품 경향으로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형상에 치우치지 않고 화면 전체에 자연이 갖는 대기감을 통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상, 즉 도시에 지친 심상을 자연에 기탁하여 정화하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인간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소나무를 넓은 대지와 수직대비를 시켜 추운 겨울 대지 속에서 피어나는 의연한 자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at dawn 추운 겨울 새벽녘의 두 그루의 소나무를 그린 작품으로써 추운 겨울을 나고 있으나 결코 외롭지 않은 형상으로 작품하여 보았다. 전체적으로는 필묵을 운용함에 있어 강함과 섬약, 발묵과 파묵, 그리고 섬세한 적묵으로 작품 전체에 대기감을 표현하여 화면에 기운생동함을 불어 넣고자 힘썼다.

reciting 홀로 대지 위에 우뚝 솟아 세상을 관망하며 혼자 독음(獨吟)하고 있음을 소나무를 통하여 은유하여 보았다.

reciting
ink on paper
85×62cm

민병권은 1972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98년 인천시립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홍익대에서 석사를 단국대에서 박사를 졸업하였으며 그동안 한국과 독일에서 8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하여왔다. 또한 서울시립미술관 young artist에 선정되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및 입선, 충남도전 대상 및 심사위원 역임 등 다양한 공모전에서 입상하였다.

학력

1972 서울 출생
1998 인천시립대학교 회화과 졸업
2001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2010 단국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개인전 8회

주요 단체전

2011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총동문회전, 홍익대 호마미술관, 서울
뮌헨 컨템포러리, 독일
칼스루헤 아트페어, 독일
kcaf, 예술의 전당, 서울
이음과 흐름, 인천 신세계 갤러리, 인천
현대 한국화 조형의 모델전, aka gallery
한벽동인전, 한벽원 갤러리
2010 천하대전, 인천교육문화회관, 인천

박우철 BAK Ucheol

바람 부는 날 한지에 먹_100x200cm_2010

바람 부는 날 한지에 먹_71x129cm_2010

바람 부는 날 한지에 먹_100x200cm_2011

오늘도 어김없이 바람이 분다.
때로는 폭풍전야의 거센 바람이기도 하고 살랑살랑 다가와 좋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바람의 강도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냐에 따라 달라진다. 언젠가부터 나는 이런 바람이 자연으로부터의 것만이 아닌 내 삶의 일부로부터 시작하여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느껴졌다.
그때는 아마도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조금은 긴 순간이었나 보다.

– 어김없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의 어느 날, 유난히도 바람이 매몰차고 강하게 불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바람에 정신없이 이리 저리 피할 곳을 찾았고, 나 또한 그랬다. 집에 도착 했을 때 이 모든 상황에서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후로 난, 나를 스치는 몇 가닥의 바람결에도 예민해져서 새삼 바람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것은 때로는 희망이기도 했고 절망이기도 했으며, 내 주변에서 언제나 늘 함께했던 온갖 걱정과 고민이기도 했고, 그것들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나를 이끌어주는 인도자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제는 내게 불어오게 될 또 다른 어떤 바람이 두렵기도 하지만, 내심 기다려지게 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시대에는 유난히도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다.
어떠한 일을 할 때면 항상 나를 시험하는 거친 바람이 분다. 그 순간 일을 시작하면서 부터 끝날 때까지 일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해야 한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바람과 함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위로와 질곡이 우리를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상황에 매번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늘 소극적으로 피할 곳만 찾을지도 모른다. 지금 바람이 불듯이 내일도 그럴 것이고 언제나 그럴 것이다.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그 바람을 따르거나 거슬러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때론 힘든 일로 좌절하고 시련을 겪을지라도 각자의 선택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는 차라리 거칠고 매몰찬 바람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 부는 생명의 힘찬 바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어차피 내게도 불어올 바람이라면 더욱 거세게 휘몰아쳐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 막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시작하는 나에게 앞으로 불 바람은 지금보다 더 강하고 거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왕 맞을 바람이라면, 거세게 불 바람이라면 차라리 시원하게 맞고 싶다. 나는 당당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풀어나갈 강한 의지를 믿고 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고 날린다.
세상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연들에 더럽혀진 '나'를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게 하고 정화시켜주는 바람이 좋다.
힘차게 부는 바람이 좋다.

바람 부는 날 한지에 먹_72x142cm_2010

학력
2009 인천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2011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개인전
2011 바람아 불어라 展, Gallery The-K, 서울

단체전
2011 제 1회 Art Festival '꿈틀' 展, 공평아트센터 서울
Draw-in 展, 크링갤러리 서울
제10회 인천한국화대제전 "思故치다" 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사랑을 품다 展, 금천예술공장
2010 소소 展, 갤러리타블로, 서울
놀이터 展, pop-con Artgallery, 인천
2009 spring 展, 갤러리순수, 성남
전통의 재발견 2인 展, 삼청갤러리, 서울
BOUNDARY_채움과 비움展, 부평역사박물관, 인천
2008 경계를 넘어서 展, 화봉갤러리, 서울

박정현 PARK Jung Hyun

검은 신(130+1) 한지_가변크기_2011

검은 신 작업과정 한지_가변크기_2011

브랜드 한지_72.7×60.6cm_2011

검은 신 한지로 만든 틀 위에 한지로 커팅한 명품브랜드 로고를 나열하고 그 위에 오브제를 얹는 작업입니다. 대부분이 서양의 대표 브랜드이자 소비의 시대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을 전통소재를 통해 재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리널과는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현대사회의 소비와 우리가 가진 문화가 어떻게 충돌, 융합, 변화하는지 등을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브랜드 모든 작업이 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후가공을 최대한 없애, 한지가 가진 물성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작업입니다. 고무신이 가지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검은색, 삶과 죽음의 긴 여행 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반복되는 종이 붙이기와 말리기 과정을 거치면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변화해 형태를 갖춰가는 과정 안에서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2009년 11월 전세가가 급등한다고 매일 tv에서 난리를 치던 시기에 살고 있던 전셋집의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는 바람에 싼 집을 찾아 인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 인천미술대전에 낸 작품이 입선이 되었습니다. 작가로서 활동하며 첫 공모전이었고 처음으로 입선을 했으며 그것이 인천이었습니다. 이때 작품을 내러 간 것이 나와 인천의 인연의 시작입니다. 공모전에 내지 않았다면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가본적도 없는 인천에 전셋집을 알아볼 생각도 안했을 것입니다. 공모전 – 인천으로 이사 – 이후 작가로서 활동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것도 인천으로 이사를 하고나서부터 입니다. 그전까지는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 싼 집을 찾아 몇 번의 이사를 반복했으니,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삶이 시작된 곳이 인천인, 나는 인천의 젊은 작가입니다.

2010년 이사를 하고 겨울이 끝나고, 동네에 익숙해지고 집 근처를 돌아다닐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 앞에 작은 다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터인가 작은 다리 아래로 땅을 깊고 넓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없던 물길이 생기고 한강에서 온 물은 인천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사로 집 앞에는 매일 흙, 돌, 각종 자재를 나르는 덤프트럭들이 지나다니고 창문을 열어 놓으면 발바닥이 까매질 정도로 먼지를 날리며 공사는 매일 계속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느새 고가도로가 생겼고 집 근처에 지하철도 개통이 되자 인근 부동산중개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공사의 이름은 경인 아라뱃길.

작업실을 따로 얻지 않아서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작업을 합니다. 혼자 있는 적막함이 익숙하지 않아 라디오와 tv에 음악채널을 주로 틀어 놓는데 tv에 쏟아져 나오는 아이돌 걸그룹 소녀들과 그들의 노래에서 영감을 얻어 이미지의 복제와 병치를 통한 첫 번째 그래픽 패턴작업 'Baroque from Heel'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2011년 집 앞의 공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슈퍼에 갔는데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집 앞에서 배타고 뱃놀이 할 수 있다며 좋아하십니다. 최근에 지나다가 보니 물길 옆에 정자를 짓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서 새로운 작업 '일상의 조각'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일상과 가끔씩 떠나는 여행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회화적인 느낌을 더한 일러스트 작업과정을 거쳐 완성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표현을 통해 관람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끌어와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서있도록 하기 위해 사진 같기도 회화 같기도 한 이 모호한 표현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처 문화의집에서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가 1인당 한 달에 1만원, 그나마 문화의집에서 세금으로 30%를 가져가고 나머지 7000원을 받습니다. 시간당 계산을 해 보니 1750원. 그런 와중에 7월 13일에 발표된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따져보니 살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계기로 한 작업이 ' 4580 '시리즈 입니다. 4,580이라는 숫자 속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 있을지, 4,580원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4,580원으로 무엇을 할(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저 자비심 없어 보이는 숫자 네 개가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바라보는 4,580과 그들을 통해 나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4,580의 적고 많음, 옳고 그름을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 4,580속에 담긴 여러 모습을 찾아가며 동시대를 살고 있는 내 이야기이자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2011년 새롭게 시작한 작업은 한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모든 작업이 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후가공을 최대한 없애 한지가 가진 물성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작업입니다. 고무신이 가지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검은색, 삶과 죽음의 긴 여행 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반복되는 종이 붙이기와 말리기 과정을 거치면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변화해 형태를 갖춰가는 과정 안에서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작업은 거의 저와 제 주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작업마다 형태나 재료등은 다르지만 상통하는 부분은 나를 둘러싼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작업 역시 형태는 좀 다른 모습이겠지만 작가로서 느끼는 삶과 생활의 밀접한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할 생각입니다.

봄의 노래 Digital-print, 84.1X59.4cm, 2011

카페 거리 Digital-print, 59.4X84.1cm, 2011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특별함을 부여하고 싶어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사진 찍어 블로그, SNS, 미니홈피 등에 전시합니다. 이는 본인이 보기 위함 보다는 남에게 보여주며 공유하고 곰감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품과 전시를 통해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작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웹 과 갤러리에 이루어지는 '전시'하는 행위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싶었으며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전시행위를 통해 나와 타인의 일상이 교묘하게 교차되어 있음을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 하고자 했습니다.

학력

1979 서울 출생
2002 건국대 공예학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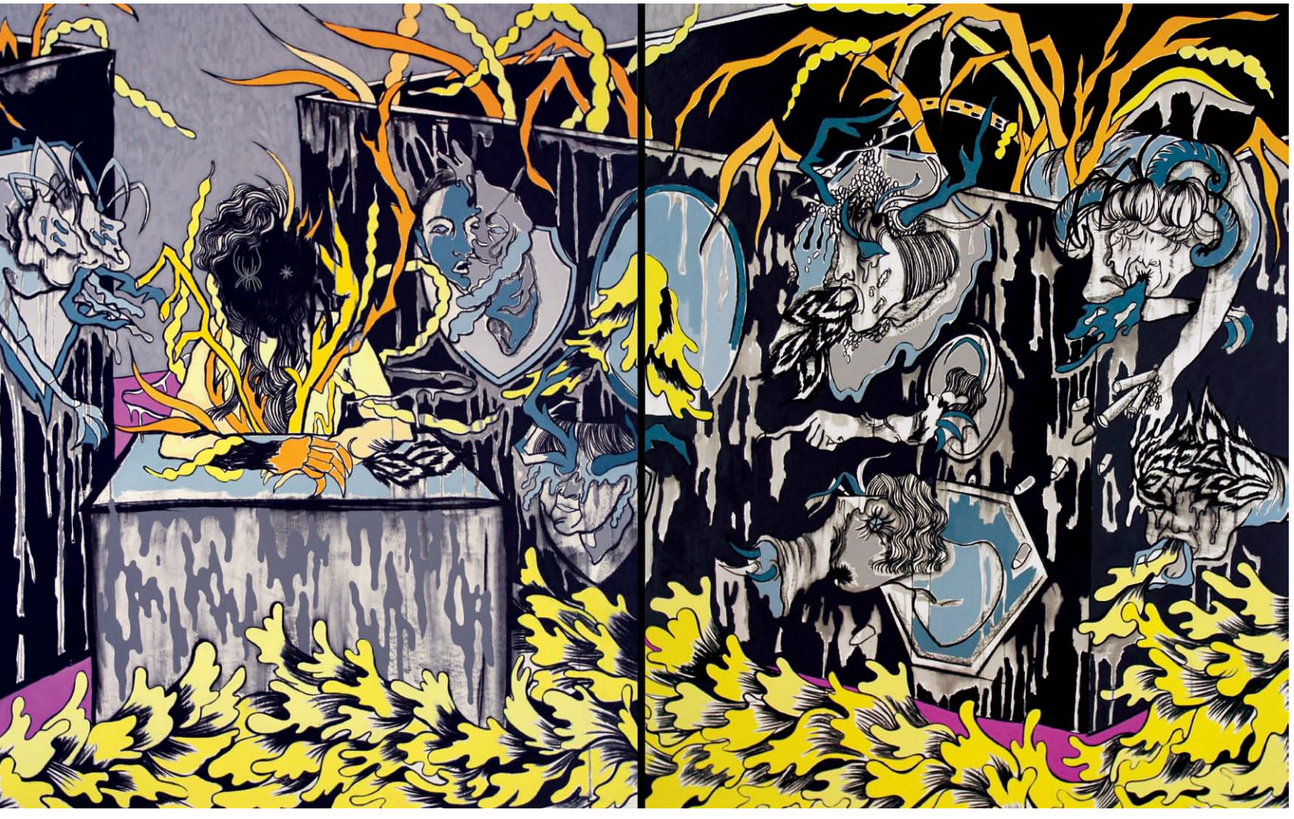
주요 전시

2011 인천세계도시미술초청 국제교류지상전, gallery wells, 인천
작가교류전, 신당창작센터, 서울
트위터 아트 페스티벌, 갤러리 숲, 서울
2009 제45회 인천미술대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
신춘기획초대전, 갤러리 라메르, 서울

수상경력

2009 제45회 인천미술대전 디자인부문 입선, 사)인천광역시 미술협회

박진영 PARK Jin-young



초상A mixed media_162x260cm_2011

초상A mixed media_116.8x91cm_2011)

초상A mixed media_130x162cm_2011

인간은 폭력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태어나 자라면서 사회에 교화되어 점점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식적으로 비폭력적으로 변모했을 뿐 그 이면에 늘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 타인을 향한 폭력성은 언제고 세어 나오고 있다.
'교화된 자'라는 단단한 껍질 아래 무궁무진한 우리의 성질은 나 스스로의 것과 타인에게서 흘러온 욕망의 충돌로 서로 융화되거나 그 표피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
흉측하고, 금방이라고 타인을 뚫어버릴 것 같이 중무장한 초상이 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은 진정한 영혼의 모습일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괴기한 모습을 하고 있다. 스스로의 모습은 지워진, 스스로의 욕망과, 타인에게서 전의 된 욕망과, 외부에서 강요당한 욕망들이 뒤엉켜진 모습으로 존재한다. 우리의 의식은 이들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진실 된 자신이 결여 된 채 내부에 채워진 욕망들을 실현시키려 좀비처럼 살아간다.
우리에게 억압되어진 욕망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이것의 표출되는 방식들 중 폭력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또 다른 억압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다.
나는 억압되어진 우리의 불편한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옥죄고 있던 굴레를 벗어나려 한다. 주체와 타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트라우마(혹은 타인이 정의 내린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초상 A〉 에서는 기존의 작품〈불편한 초상〉을 통해 말했던 타인에 대한 폭력적인 인간의 성향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무마 시키려 했던 것은 결국엔 그것이 가지고 오는 공포감 때문이었다.
작가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희생되었던 것들은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은 죄의식으로서 가슴에 담긴다. 제목 〈초상 A〉에서의 'A'는(주홍글씨에 나오는 A. 여기에선 상징적인 의미로써 작용됨)그런 죄의식을 내포한다.
〈초상 A〉에서는 몇 가지 공통된 이미지들이 있다. 초상 A의 공간 대부분은 작가의 죄의식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순간 떠나는 유배지이다. 사방의 벽에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타자들(이들은 스스로의 욕망의 다른 모습들이다) 이 있다. 바닥에는 파도가 밀려온다. 나는 어느 순간에 나의 유배지에 있다. 나는 질책하는 타자들에게서 둘러 쌓여있고, 나의 내부는 황폐한 가지를 뻗어 내지만 이 유배지에선 나를 가릴 나뭇잎들은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다. 이곳은 내가 두려워 하는것, 외면하고 싶은, 나로 인해 희생된 존재들뿐이다.
해부된 나는 나의 공포를 기록함으로써 이 유배지를 떠나려 한다.

초상A mixed media_116.8x91cm_2011

초상A mixed media_145.5x112cm_2011

학력

1983 인천 출생
2006 인천대학교 서양화전공 졸업
2011 인천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전공재학

개인전

2011 개인전 초상A, 부평아트센터, 인천
2011 초대개인전 불편한 초상, 팔레 드 서울, 서울
2010 불편한 초상, 대안공간 게이트, 대전
2009 날(날)보러와요–불편한 식사, 스페이스 빔, 인천

주요 단체전

2011 DRAW–IN展, 크링, 서울
2인전 잔혹과 매혹, 삼청갤러리, 서울
2010 천하대전(川河大展), 가온 갤러리, 인천
POP–container 스트릿마켓, 인천
인천아트페어 드로잉 왁자지껄, 인천 예술회관, 인천
Art canival with cafes, 어반아트, 서울
2009 부평 영 아티스트전
갤러리 각 신진작가전, 갤러리 각, 서울
인천 아트페어, 인천예술회관, 인천
192–6전, 갤러리 더 케이, 서울
2008 KOREAN VISUAL ARTIST SHOW–올해의 주목작가展, 이형아트센터, 서울
생선 展, 혜원갤러리, 인천
인천 아트페어, 인천예술회관, 인천
상설전시 '무지개다리', 쉬필라움, 인천
아트 울산 2008

인천이 고향이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을 인천에서 받았다.
'인천'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언급해 쓰는 것조차 어색할 정도로 나와는 이제 분리되기 힘든 단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인천의 작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 인천의 지역적 ,정치적특성을 반영한 작품을 해야 하는 것 인가에 대한 생각도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의 다양하게 전시 활동 하는 것이 그 답이 라고 생각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프로젝트를 참여 하려 노력했고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도 지원해 개인전을 꾸준히 열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의 젊은 작가들이 학교끼리 뭉치며 그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고 폭넓은 유대 관계를 통한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

방혜린 BANG Hye-lin

Chronic disease–불면증 장지에 호분 먹_190×120cm_2010

Chronic disease–노이로제 장지에 호분 먹_162.2×130.3cm_2011

builder–Mr.뽑기 장지에 혼합재료_90.0×72.7cm_2011

Chronic disease–편집증 장지에 채색_116.8×91cm_2010

반복된 구조물은 규칙적이고 안정적 이기만을 바라는 이 사회를 상징하며 그 안애서 내면에 감추고 감춰오던 자신의 진실한 감성이 떠져나오는 상황을 그림으오써 이성이로 감성을 악압해봤자 결국엔 터져 나옴을 말하고있다.

어린 시절 자주 접했던 뽑기 기계를 이용해 반복된 패턴으로 살아가는 삶을 비꼰 그림이다. 뽑기 안에는 도시의 건물들이 들어있고 동전을 넣고 돌려 뽑아내는 반복적인 행동을 함으로서 이성만 존재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듯한 상황으로 풍자 했다.

Chronic disease–어른아이
장지에 호분 먹
116.8×91cm
2010

Chronic disease–불면증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는 세탁기를 소재로 그린 작품이다. 세탁기를 녹임 으로써 반복된 행동을 이성이라 판단하고 그행동을 녹여 버림으로써 그행동에 제지를 걸려는 의도를 담았다.

Chronic disease–노이로제 이층침대는 어린아이적부터 위아래 라는 서열을 나누며 학습하게 되는 것을 말해준다. 자신이 쓰고 싶은 곳이 아닌 서열에 따라 참을 성을 기르는 즉, 이성으로 감정을 다루는 법을 학습함으로써 거짓되는 행동이 옳다 배우는 것이다. 솔직함을 죽이며 참는법을 배우는 이 상징물을 녹임으러써 진실됨을 추구한다.

누구나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말들을 한다. 하지만 얼마나 자신이 자신스스로에게도 거짓을 요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없다. 나는 어떤 것이든지 진실성에 끌린다. 설령 그 진실성이 상대방을 혹은 사회에 부흥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거짓된 행동을 하더라도 진실이 무엇인지 인정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누구든지 평생 하지 못하는 일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사회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얼간이로 만든다. 감성을 다루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대하고 있다. 때문에 마음을 감추려 머리는 스스로에게 강력한 이성으로 제어하게 된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실성이라면 그 점을 인정해 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왜 진실한 모습을 숨겨야만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림은 겉모습을 당연하게 포장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솔직해지려 노력하는 나의 이야기 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세상 이야기 이기도 하다. 항상 명확하게 제시되고 올바르다 이야기 하는 이성과 확실치 않아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감성을 기준으로 자신이 얼마나 마음에 솔직한지를 생각해 보자

전반적으로 사물의 외부의 모습을 녹임으로써 외부로 들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아이스크림이 녹아봤자 아이스크림인 것처럼 외형이 녹아져 내려봤자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본질을 바라보고 받아 들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성은 본질이 감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 나의 작업은 고풍스러운 집안에 있을 법한 가구와 소품들을 주로 그린다. 고풍스럽지 않더라도 그렇게 변화시켜 그려 넣은 다음 녹이거나 녹아져 있는 것에 파묻히는 모습들을 표현한다. 이유는 이성적인 모습들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가까워지는 상황을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전의 작업들은 이성적인 행동으로써 패턴적이고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물들을 녹임으로써 표현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작업들은 좀 더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들을 주로 그리고 있다.

학력

1987 서울 출생
2006 인천예술고등학교 한국화과 졸업
2011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한국화과 졸업
현재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재학중

주요 전시

2011 서울 컨템포러리 신세대 아트 스타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鶴山九曲, 부평아트센터 꽃누리전시장, 인천
ASYAAF,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새 형상세대의 전망, 영아트갤러리, 서울
한국화 대재전 '思故치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순수미술대전, 다보성 갤러리, 서울
Draw-in 展, 복합 문화 공간 크링, 서울
2th 퍼스널 오아시스展, 갤러리 스카이연, 서울
2010 구첩반상 展,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전통의 뿌리와 새싹의 태동 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2009 한국화 젊은 발언과 모색 展, 인천 신세계 갤러리, 인천

수상

2010 제46회 인천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백다하미 PAIK Dahami

self-preservation 'dressing table' mixmedia_149x98x45cm_2010

Tears of Venus 1 mixmedia_90.9x72.7cm_2011

Tears of Venus 2 mixmedia_87x67cm_2010

美가 하나의 자본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는 매일 화장하는 것이 생존본능이다. 보여지는 아름다움에 의해 판단되는 이 사회 풍조 때문에 여성들은 총성 없는 외모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좀 더 화려하고 더 돋보이게 나를 치장한다.
나는 외적 아름다움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 꾸밈을 위한 도구들을 패션오브제를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Weapons collection mixmedia_가변설치_2010

학력

1985 서울 출생
2003 서울예술고등학교 미술과 졸업
2008 esmod fashion school 수료
2010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환경 조각과 졸업

개인전

2011 백 다하미의 자기보호시리즈전(대안공간 눈, 수원)

주요 단체전

2011 12's artist MODERN TIMES 2인전(신세계 윈도우 갤러리, 인천)
나혜석 생가터 문화 축제 인형의 집 전(대안공간 눈, 수원)
2010 물들다 스며들다전(호연갤러리, 경기)
광명 스피돔조각전(스피돔 갤러리,광명)
일현 트래블그랜트(일현미술관, 강원) 외 다수

현재 경기조형학회 회원, 한국 국제 크리스천 학교 미술 교사 재직중

백다하미 는 인천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각 예술 작품을 하고 있는 신진작가이다. 백다하미는 현대 도시 안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인공물로 해석하여 나타낸다. 작가는 이를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로 등장시키는데, 무기는 오늘날의 이질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현상을 유희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가 대두하면서, 미(美)가 하나의 자본이 되어버렸다. 현대 사회는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에 의해 판단되는 가치관이 팽배하며, 이 때문에 여성들은 총성 없는 외모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좀 더 화려하고 더 돋보이게 나를 치장한다. 자본주의 속에서 외적모습을 극대화시켜 나타냄으로써 자신 스스로를 방어하는 모습은 현대 도시의 모습의 표본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기인하여, 작가는 외적 아름다움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수단이라고 생각해 꾸밈을 위한 도구들을 오브제로 사용해 무기로 제작했다. 인천지역에 있는 백화점을 통해 소비와 문화,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주는 사회적 메세지를 인천 지역민들을 통해 느끼고, 작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천 신세계 백화점은 전국 신세계 백화점 중 매출 1위이며, 2011년 새롭게 명품관을 조성한바 있다. 이런 패션과 소비의 문화를 통해 인천 도시의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하고자 한다. 오브제를 통한 입체와 평면과 설치작품을 하고 있는 백다하미는 레디메이드를 주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고자한다.

백승기 BACK Seung Kee

숫호구 극영화(영상)_HD(1920x1080) 123분_2011

숫호구

장르 공상과학 섹시 코미디
감독 백승기
프로듀서 성충경
조연출 함충범
주연 백승기 성충경 손이용 박지나 조한철 김선호
조연 신예주 이민옥 오현교 채휘리 오창경 마뇨 라이언 테일러 엄소라
제작지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소니코리아, 트위스터 뮤직, 스페이스빔, 나비날다, 쉬필라움, 더숲, 백억상회, FOX, 용화반점, 문화반점, 더숲, 인천집, 별빛바다 팬션, 청과물시장 포장마차, 잭슨필름, 북하우스 등

시놉시스

2011년의 인천 어느 작은 마을, 서른 살의 숫총각 원준이는 작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는 평범한 듯 하나 평범하지 않은 열혈청년이다. 일반적인 직장생활 과 결혼, 연애 등 남들 다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어려운 원준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정체불명의 생명공학 박사가 나타나 거대한 생체실험 프로젝트에 그를 실험대상으로 쓰기 위해 접근한다. 의욕충만! 욕구불만! 가련한 청춘들을 위한 공상과학섹시코미디영화! 〈숫호구〉

아무것도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미술학도가 맨땅에 헤딩하며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지 6년. 드디어 얼마 전 꿈에 그리던 장편영화(〈숫호구〉, 123분) 한편을 만들어 냈다. 물론 유명한 배우도 화려한 CG도 등장하지 않는 초저예산 영화지만 6년간 쌓아왔던 나의 모든 알짜배기 노하우들을 짜내고 짜내서 만들어낸 꾸러기식 영화의 결정판으로서 제법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영화라고 자부한다. 치열한 경쟁과 물질만능주의, 외모만능주의에 찌들어 사는 지친 청춘들이라면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을만한 영화이다. 특히 인천을 배경으로 거의 모든 장면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는 11월 12일 인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기획하는 특별상영회 '인천영화의 발견'을 시작으로 다양한 루트와 공간을 통해서 배급 및 상영 될 예정이다.

괴물 –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영상_SD(720x480) 11분 4초_2010

2010 안양에서 개최된 제1회 '만만한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을 각색하여 만든 패러디 단편영화이다. '만만한 영화제'의 참여요건이었던 [안양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 배우와 스텝들이 안양을 직접 찾아가 제작한 영화로 안양의 중요명소 중에 하나인 안양천과 석수시장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본래 다른 내용의 영화가 제작 될 예정이었으나 촬영 당일 예상치 못했던 비가오자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비오는 날에 걸맞는 분위기의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촬영을 감행. 결국 그렇게 비오는 날 안양천에서 괴물이 등장하는 내용의 영화 〈괴물 –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탄생되게 되었다.

전 세계 80여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영화창작대회 중에 하나인 '48시간 영화제'에서 2010서울대회 대상을 차지한 작품으로 귀여운 이야기와 귀여운 음악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단편영화이다. 영화제의 특성인 [주어진 시간(48시간)안에 추첨을 통해 주어진 장르의 영화를 만들기]의 조건에 따라서 제작된 작품으로 추첨을 통해 뽑은 '여성주의 영화'라는 어려운 주제 와 장르를 48시간 안에 재치있게 제작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감독의 전 제자인 실제 여고생이 깜짝 캐스팅 되어 완전체 소녀 역할로 배역을 맡았으며 감독이 평소 즐겨듣던 귀여운 왈츠풍의 인디밴드 '카스테라'의 노래 〈순정만화〉, 〈말랑말랑 촉촉촉〉등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영화의 독특한 색깔을 더해주었다. 영화 〈완전체 소녀〉는 남성 없는 세상을 꿈꾸는 두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순수여성유전자 소녀의 풋풋한 성장기를 담고 있다.

완전체 소녀 영상_HD(1920x1080) 8분 23초_2010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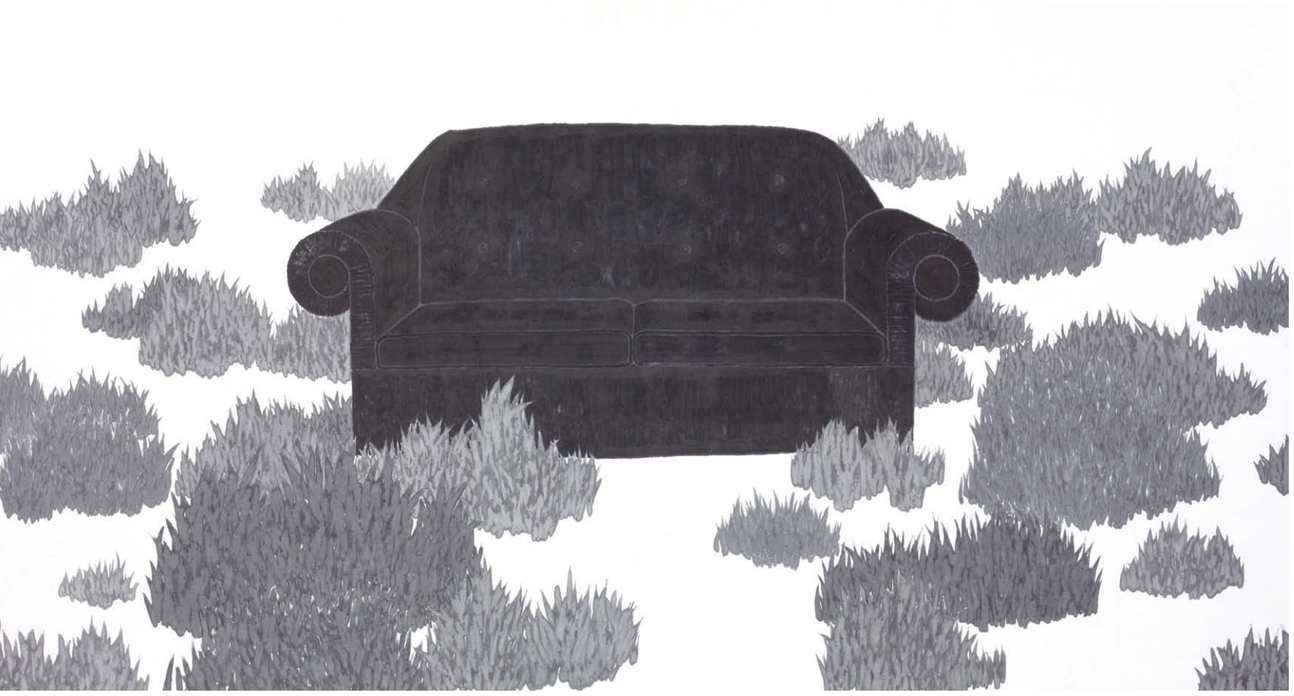
1982 충북 괴산 출생
2001 인천예술고등학교 미술과 졸업
2007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2011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교육과 수료

활동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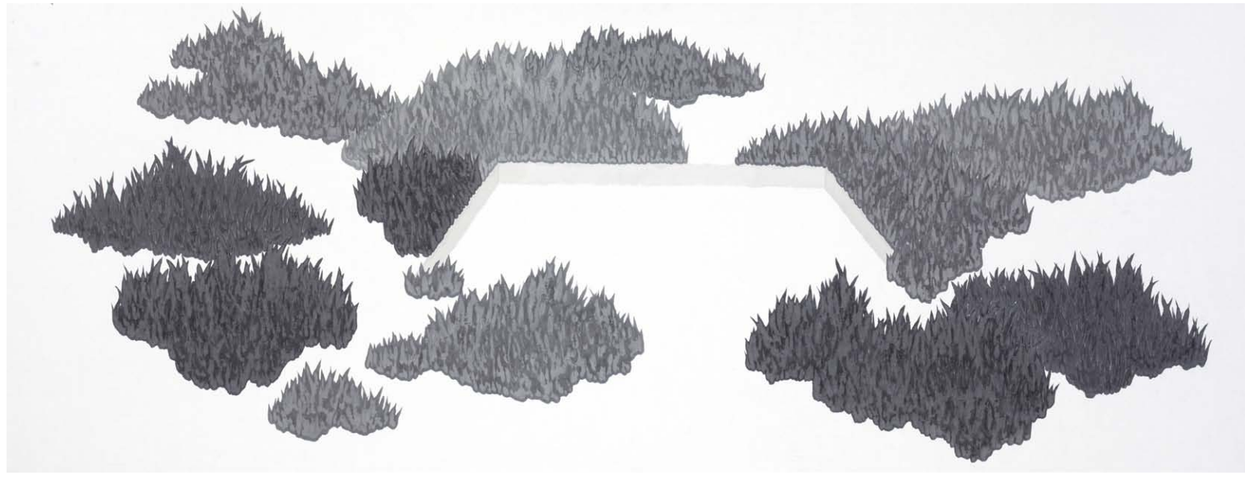
2005 스페이스 빔 옥상영화제 프로그래머
2006 영화사 꾸러기스튜디오 창단
2007 동네극장 DGV 개설
2008 장편영화 〈출동! 43호〉 연출 (e–감성 영화제 관객상 수상)
2010 저서 〈서른살에 처음 시작하영 영화만들기〉 집필
단편영화 〈괴물 –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연출 (만만한 영화제 대상 수상)
단편영화 〈완전체 소녀〉 연출 (48시간 영화제 대상 수상)
2011 단편영화 〈고마워 너구리야〉 연출 (주안 스마트폰 영화제 우수상 수상)
장편영화 〈숫호구〉 연출

1982년생. 괴산에서 나고 인천에서 자랐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나, 지금은 영화 만들기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대학시절 학교 친구들과 함께 영화사 꾸러기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졸업 후에는 살던 동네에 동네극장 DGV를 개설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다수의 영화를 온라인에서 상영하였고, 네티즌들의 열화와 같은 찬사와 질타를 한 몸에 받았다.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은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며 대부분의 시간을 교사로 할애하고 있지만, 틈틈이 영화 만들 궁리를 모색하며 꾸러기스튜디오를 세계적인 영화사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달마도코드〉, 〈망치손〉, 〈은하전철999〉, 〈학교대표〉 등과 같은 패러디물이 있으며, 〈출동! 43호〉, 〈완전체소녀〉, 〈고마워 너구리야〉 등과 같은 창작 영화들도 있다. 이 밖에도 100여 편이 넘는 다양한 영상작품들이 꾸러기스튜디오 블로그(www.curuk2.com)를 통해 상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장편영화 〈숫호구〉를 제작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주변사람들을 배우로 활용하고, 거주지인 인천을 배경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인물이나 배경을 별도로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백승섭 BAEK Seung Seop



Captured sofa 한지에 먹_92x174cm_2011



도시의 터 한지에 먹_61x164cm_2011

개인전 'Ashy Silence' 전시 전경_2011

세상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시선의 맹점으로 시끌벅적한 도시소음과 화려한 네온사인에 둘러싸인 풍경의 이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이슈 속에 대중매체를 따라 모두가 의심 없이 동화되고 비슷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혼자보다는 무리 속에서 안정을 찾는 그들의 모습은 울타리 안에서 포장되고 균일화되는 성향을 가지며 바람에 함께 흔들거리는 수풀같이 색을 잃어버리고 딱딱해진 모습과 같게 느껴집니다.
가시적 사회풍경을 불러들이고 재맥락화하여 나타내는 과정은 사회적인 여러 관계 속에 나와 연계된 소소한 것에서 추출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일상의 풍경이 주관적 관점을 거쳐 나오는 일련의 과정에서 침묵으로 개입하여 관계에 무게를 더하려는 것이다. 듬성듬성 자리를 잡고 있거나 뭉쳐있는 수풀, 여백으로 나타난 공간은 도시의 바쁜 삶 속에서 물줄기처럼 혹은 누군가가 이전에 터놓은 길처럼 흔적과 기억의 편린이고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얽히기도 풀리기도 하는 관계의 표상인 것입니다.
화선지 위에 수묵으로 나타난 작업은 전통적인 수묵의 형식에서 시점과 구도를 달리하나 먹을 도구로 인식하기 전에 寫意에 무게를 두며 하나하나의 붓질과 먹이 스며들고 번짐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우연성과 필연성을 만나 떠있는 것 같은 허황된 삶 속에서 침착하게 가라앉아 더욱 심중에 가까워지길 스스로 바라며 수묵에 대한 실험이 동시대 수묵화에 의미를 찾기를 기대합니다.

학력

1984 인천 출생
2010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2011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전공 재학중

개인전

2011 잿빛침묵_Ahsy Silence _ The K (서울)

주요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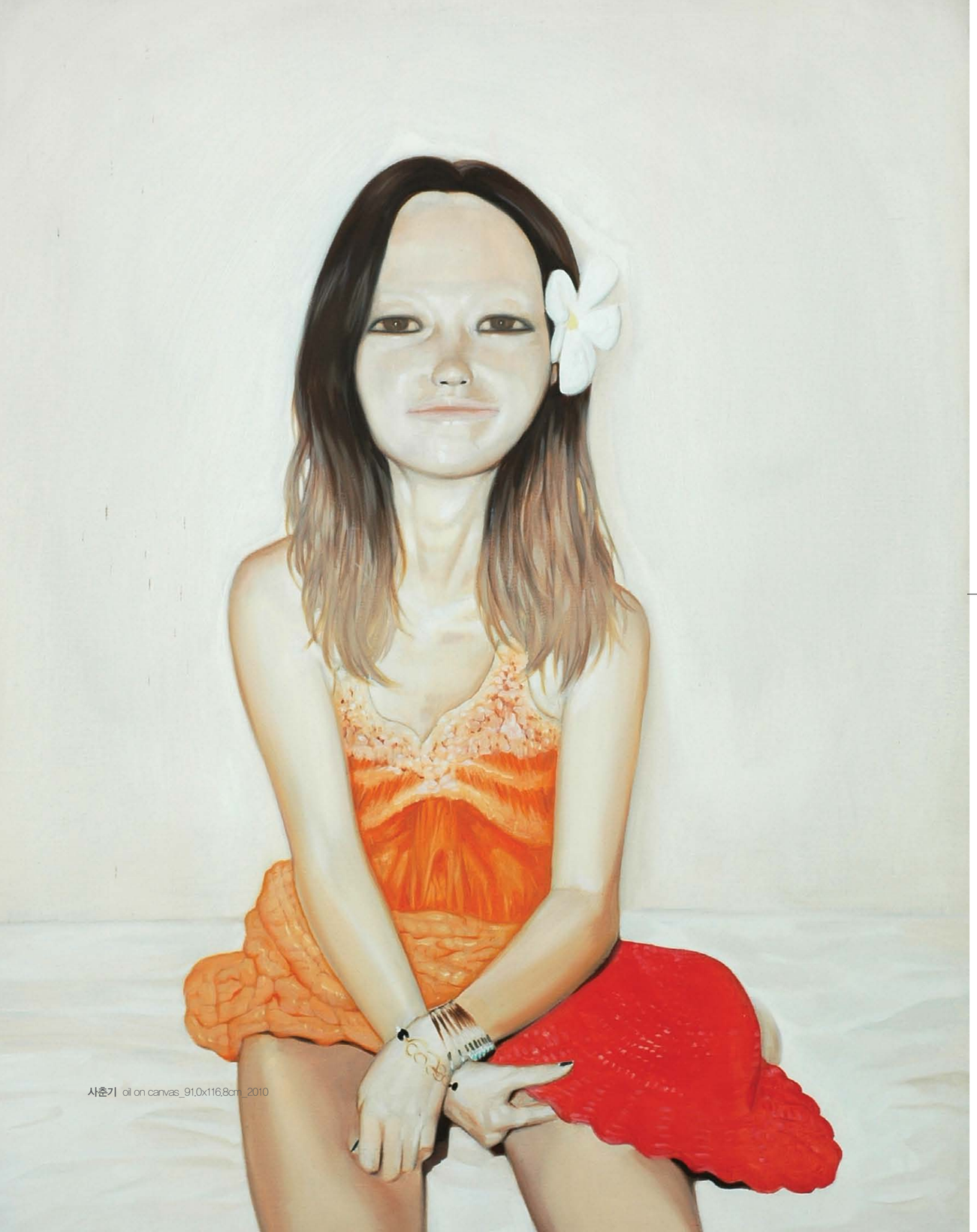
2011 새 형상세대의 전망 _ 영아트 갤러리 (서울)
"思故치다"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Draw-in _ KRING (서울)
꿈틀 _ Gongpyeong Artcenter (서울)
2010 놀이터 _ POP-CON Art gallery (인천)
현대미술과 리얼리티의 단층 _가온갤러리(인천)
2009 첫술 展 _ 서울공평아트갤러리 (서울)
時 作 2人展 _ N-space (서울)

1984년 인천에서 태어난 후로 28년의 시간 동안 한 도시 안에서 자라고 인천대학교를 나와 동대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삶의 기억을 돌아보면 동네가 바뀌고 변해가는 인천의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어린 기억에 인천의 향수가 진하게 베어 들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유년기에 배경이 되고 지금의 행동의 주 무대가 된 인천에 많은 감정을 느끼며 앞으로도 작업에 밑거름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 또한 흥미롭게 풀어나갈 생각에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백인태 BAIK Intae

로맨스 영수증뒷면 드로잉, 오브제_가변크기_2011

노력하면 된다며 외 11점 영수증에 드로잉, 오브제_가변크기_2011



사춘기 oil on canvas_91.0x116.8cm_2010

행운의 산책 oil on canvas_130.3x162.2cm_2010

학력

1982 울산 출생

2008 추계예술대학교 판화과 졸업

개인전

2009 반짝반짝, 그 문화, 서울
sse–project 9th solo show "반짝반짝" ,sse –project온라인전시

그룹전

2011 어제가 봄이에여, 그 문화, 서울

2010 The end of the world, 서교실험예술센터, 서울

2009 홍대앞다시보다–수집가 홍씨의 아카이브,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낯빛, 쌈지, 서울
작가와의 대화, 그 문화, 서울
트러블 메이커2009, CHA갤러리, 서울
미술이 과학을 만나다, 한국과학기술원 KIST, 서울
인물:징후" 갤러리 킹, 서울, 대한민국
아트인생 프로젝트2탄–의정부 부대찌개 49인분, 의정부예술의전당,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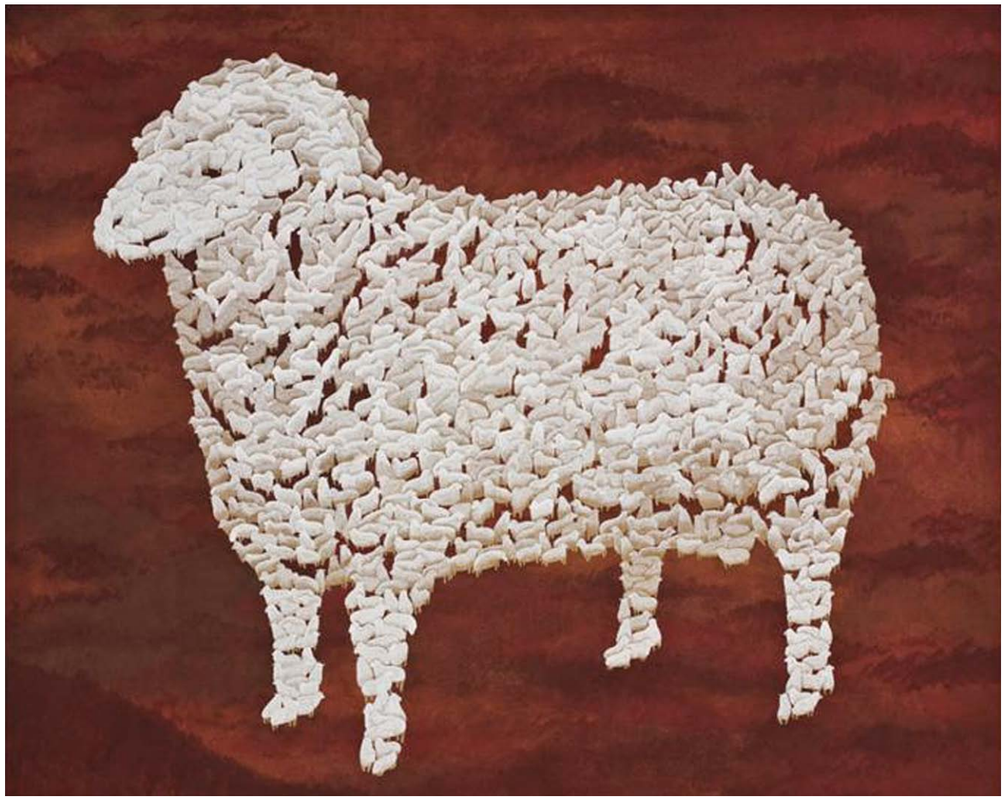
2008 서교난장 NEW GENERATION ART FAIR, 서울
Ouip Meets Christmas, lab and Gallery Delitoys, 서울
다시..."예술"을 묻다, 스페이스빔, 인천

2007 원한해결사무소, 인천시민문화센터아트홀

22년째 인천 가좌동에서 살고 있고 3년 전 서울 공동작업실에서 나와 동네에서 홀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나 밥값 월세 때문은 아닙니다. 단지 마음 편한 동네에서 내공을 쌓고자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심 좋으신 주인아저씨를 만나 싼 가격에 작업실을 임대하였고, 주인 아저씨는 저를 가족같이 대해주며 근심 걱정에 빠졌을 때 용기와 희망을 그리고 잘 될 거란 믿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주인아저씨를 믿었고 여자친구도 믿었기에 아무런 부담 없이 주인아저씨를 여자친구에게 소개해줬고, 그런 만남이 있는 후부터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빠져들고 있을 때쯤 넌지나보다 주인아저씨에게 관심을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한 던 그 어느 날...
죄송합니다. 장난쳐서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못 본 걸로 해 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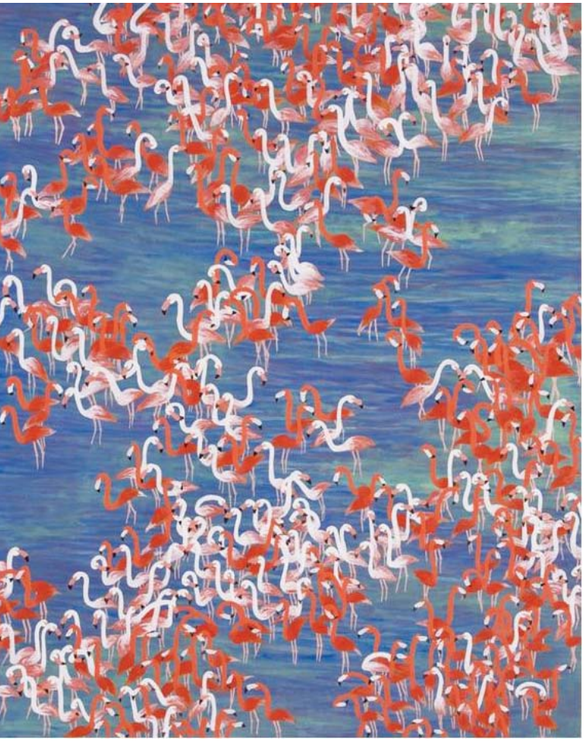
서건원 SEO Gun One

우리는…2 장지에 분채, 석채_163x130cm_2010



우리를…1 장지에 분채_163x130cm_2010

같지만, 다른 것들이 모여 있는 모습,
반복과 변화,
어울림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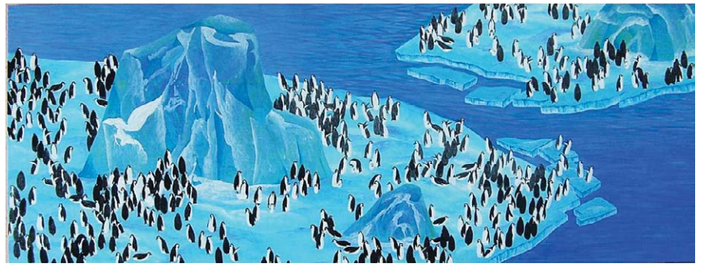
우리는…12 장지에 분채, 석채_100x80cm_2011

우리는…7 순지에 먹 분채, 석채_170x120cm_2010

한 가지 종류의 동물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은 나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었다. 같지만 각각 또 다른 것들이 모여 있는 모습은 반복과 변화, 어울림 등의 다양한 느낌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자연안의 모여 사는 무리들을 보며 그 동물들과 같이 모여 사는 인간들에 대하여 생각 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들은 인간과 동물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고 인간들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지구 안에 살아가는 한가지의 개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 속에서 오랜 시간 지구의 주인으로 살아왔다. 그로인해 많은 문제 들이 생겼다.

[우리는…]연작은 양이나 홍학, 백조 등 한 종류의 동물로 표현되었다. 한 가지 종류의 동물은 의미상 여러 종류의 각각 다른 개체를 의미하며 그것은 생명체를 넘어선 더 광범위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것은 만물의 평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등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의 '우리'는 '가족' '국가' '인간'을 넘어선 광범위한 의미의 '우리'이다. 모여 산다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마치 자연속의 동물이 무리지어 살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며 신비로운 것이다. 이런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그림 속에 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많은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 크게는 인간과 자연과 우주와의 관계에서, 작게는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등함과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그림들을 보며 잠시라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지금 보다는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모여 산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자연스러운 신비로움.

우리는…13 장지에 분채, 석채_160x60cm_2011
우리는…14 장지에 분채, 석_60x60cm_2011

학력

1982 전주 출생
2000 인천예술고등학교 한국화과 졸업
2010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활동경력

2011 제47회 인천미술대전 입상작 전시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제2회 개인전, 갤러리 도스
제10회 인천 한국화 대제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제1회 대한민국 청년작가 미술대상전 입상작 전시회, 프라임 미술관
자유공간 5월전, 중 갤러리
제 1회 개인전, 갤러리카페 미엘
2011 NEO-PAX, 우수 졸업작품 초대전, 이형아트센터
2010 인천예술고등학교 동문 전시회, 가온갤러리
제46회 인천미술대전 입상작 전시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아시아 대학생, 청년작가 미술축제 2010 ASYAAF, 성신여자대학교
신진 작가 초대, 형상과 사유전, 연정갤러리
전통의 뿌리와 새싹의 태동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졸업작품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2009 한국화 젊은 발언과 모색전, 신세계갤러리
2007 국제 인천 여성 비엔날레 특별전, 가온 갤러리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서건원 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인천은 제 모든 학창시절을 보냈고 현제 그림 작업을 하고 있는 제 고향입니다. 인천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과 좋은 전시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동양화를 전공하여 오래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졸업한지 1년 된 신인입니다. 현제 그리는 그림은 우리는... 연작입니다. 통일된 주제로 다양한 소재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며 저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재현 SEO Jaehyeon

Sad utopia 한지에 먹, 채색_117×91cm_2011

Sad utopia 한지에 먹, 채_117×91cm_2011

Paradise of paradox 전시전경 2011

'Paradise of paradox' 전시는, 변질 되어가는 인간의 욕망에 관해 냉철한 시각으로 관찰하여, 물질문명을 쫓는 현대인들의 외로운 단면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급속한 문명의 발전 뒤에 행복지수는 반비례하게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희망에 관한 환상' Paradise'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 안에서 불가능한 지향점이자 역설된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결여된 사회체계 안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과도 같은 삶의 반복은, 환상으로 포장된 현실의 비극이자 반복되는 일상의 아픔이 됩니다. 본 전시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상태에 집중하여 비현실적으로 변형된 인물상으로 다양하게 그려짐으로써, 현실에서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외로운 이면에 관해 소통하고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시리즈의 연작은, 'dystopia'에 가깝게 그려지는 환상에 대한 역설로, 불완전함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써야만 하는 인간의 나약한 이면에 관한 도피의식으로, 인지 못하는 허구적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로운 심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주로 동물의 신체 일부를 아동의 모습과 함께 조합하여, 환상 뒤의 일그러진 욕망의 괴리에 관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데, 맹수의 머리와 거대한 날개, 날카로운 발톱 등은 집단사회에서 갈망하는 힘과 권력에 관한 '오마주'이며 욕망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결여된 사회체계 안에서 사람들의 현실에 내몰린 처절함은 야생의 생존법칙과도 흡사하며 많은 사람은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한 변질된 꿈과 이상은 약육강식을 위해 감추어진 광기와 폭력성의 우울한 단면 이자, 괴수와 같은 모습으로 뒤섞인 인체의 모습은 자유의지를 향한 내면의 거친 표출과도 같습니다. 폭력성과 광기가 뒤섞인 모습으로 인간본연의 순수성과 지향점에 대해 되물음 하고, 동물이 사람인지, 사람이 동물인지 모를 모호함으로, 비판 없이 흘러가는 역사 속의 인류의 모습은 이성을 떠나 무색하게도 동물과 같다고 반문합니다.

작품은 윤리적인 차원의 인간이 갖는 아름다움과 욕망의 존재로 변질된 추악함의 간극에서 충돌하는 내면에 관해, 때론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때론 순수를 표상하는 아이의 아름다움으로 본성에 관해 선택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토피아라는 환상 뒤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집중 하여 현실과의 관계성과 본성에 대해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Sad utopia

시리즈로 보여지는 연작은, 주로 동물의 신체 일부를 아동의 모습과 함께 조합하여, 환상 뒤의 일그러진 욕망에서 오는 괴리에 관해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맹수의 머리와 거대한 날개, 날카로운 발톱 등은 집단사회에서 갈망하는 힘과 권력에 관한 '오마주'이자 욕망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문명의 진보 뒤에 가려진 인간의 만행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맹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는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나약한 환상이자 외로운 이면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의 영장 이길 부정한 채 동물과 인간의 미묘한 간극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학력

1984 서울 출생
2010 인천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2011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전공 재학중

주요 단체전

2011 Draw-in, 복합문화공간 크링, 서울
2010 ART CARNIVAL with CAFE5, 아트 맵 투어전시 어반아트 갤러리 기획, 서울
ASYAAF, 성신여대, 서울
소소, 타블로 갤러리, 서울
전통의 뿌리와 새싹의 태동, 인천예술회관
Taping, 성균갤러리, 서울
Grow out, THE K갤러리, 서울
2009 인천신진작가 기획초대전_맛보다, 대안 공간 해시, 인천
첫술, 공평갤러리, 서울
젊은이의 시선-3인, 삼청갤러리, 서울
時, 昨-2인, 대안 공간 N-Space, 서울

2003년도 인천대학교 한국화전공으로 입학한 저는 현재 인천대 대학원까지 재학중으로 총 8년이란 시간을 인천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인천이 제2의 거점이자 고향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익숙하고 친근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출생지는 인천이 아니지만 그동안의 시간 동안 인천의 사람들과 인천지역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좋은 스승을 만나 저의 예술을 꽃피워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천의 많은 부분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알아 나가고 활동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두근거리는 가슴과 예술에 대한 도전정신을 가다듬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인천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트플랫폼에서의 작품 활동 또한 기대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훗날 레지던스 프로그램에도 지원하여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작업으로 나타내길 바랍니다.

손승범 SON Seung-beom

버퍼링(Buffering) 장지에채색_91×117cm_2011

비행(Flying) 장지에채색_163×262cm_2011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지에채색_163×131cm_2011

비행(Flying) 줄타기를 하는 세 명의 서커스 단원은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다. 밧줄 한 가닥에 의지한 채 소용돌이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과 닮아있다. 소용돌이 치는 서커스 무대가 혼란스러운 사회현실을 비유한 것이라면 세 명의 인물이 의지하고 있는 한줄기 밧줄은 그들을 잠시나마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일시적인 도피처이기도 하다.
서커스 무대중앙에 주변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주변 것들은 자유의 여신상, 비너스, 세종대왕, 국회의원 뱃지 –자유의 여신상(평화), 비너스(아름다움), 세종대왕(한글), 국회의원 뱃지(청결함)– 등은 현대인들이 자각하지 못한 채 점차 잃어가는 것들의 상징을 표현한 것이다. 커튼의 일획으로 된 표현은 줄타기를 하는 인물들의 비행의 속도감과 긴장감을 더해 주었다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요즘 들어 연평도 포격사건을 비롯한 군사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추락한 군에 대한 신뢰도를 형상화 한 것으로 특히 인천은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최북단 섬들을 소지한 지역으로서 그 경계상황이 매우 중요하기에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지닌 인천의 역사성과 상징성에서 우리가 전쟁 '종결'상태가 아닌 '휴전'상태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Gallery The K 개인전 전경

학력

1985 인천 출생
2009 인천대학교 한국화전공 졸업
2011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개인전

2011 On the stage 展, 더케이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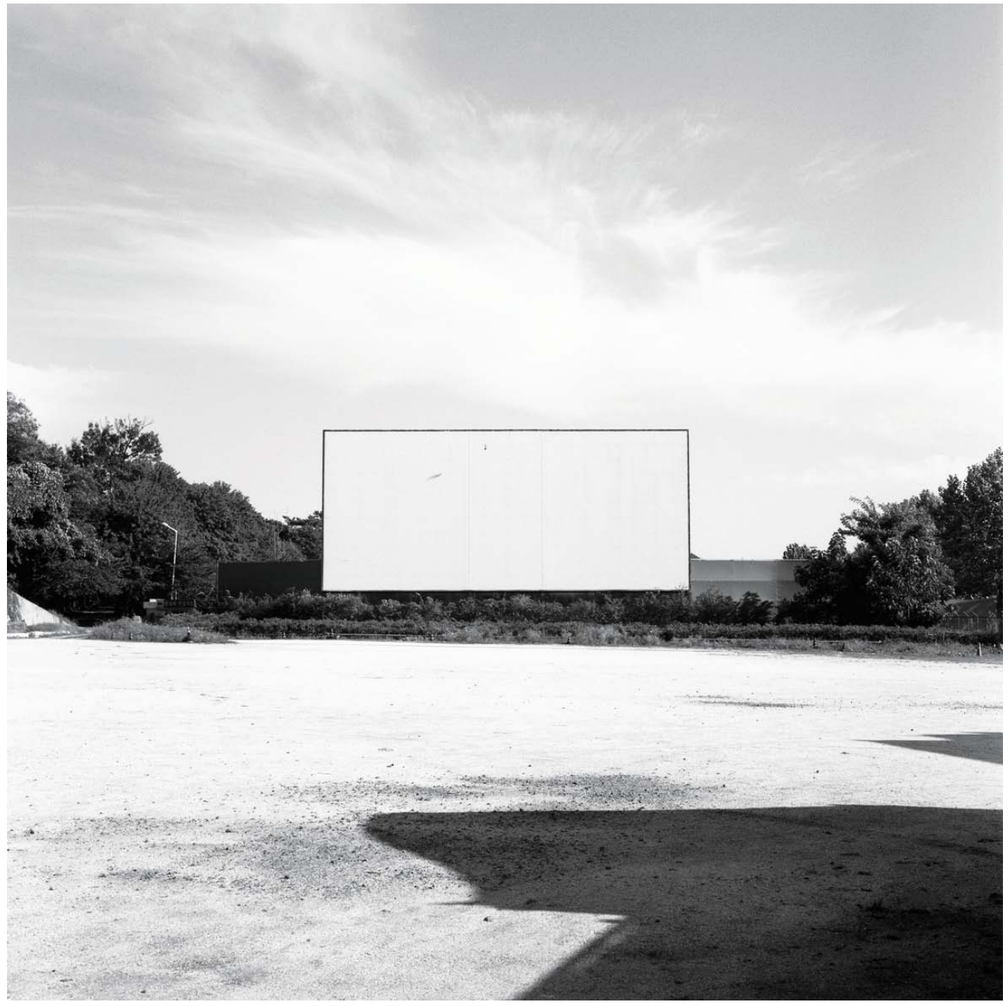
2011 학산구곡, 부평아트센터 꽃누리갤러리, 인천
A-Cube 신진작가공모전, 갤러리에이큐브, 서울
제10회 인천한국화대제전 '思故知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유쾌한 한국화, 즐거운 조각, 부평아트센터, 인천
한국화, 새로운 모색, 라메르갤러리, 서울
Kaleidoscope 거리설치미술, 부평문화의거리, 인천
사랑을품다, 금천예술공장, 서울
Draw-In, 크링갤러리, 서울
꿈틀, 공평아트센터, 서울
2010 동방의 요괴들 77-하이서울아트페어, 한강시민공원, 서울
아시아프, 성신여대 조형관, 서울
소소, 타블로갤러리, 서울
놀이터, Art gallery, 인천
전통의 뿌리와 새싹의 태동, 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2009 새 형상 세대, 영아트갤러리, 서울
BOUNDARY_채움과 비움전, 부평역사박물관, 인천
신진작가 초대전, 영아트갤러리, 서울
신진작가 초대전, 해시, 인천
2008 경계를 넘어서, 화봉갤러리, 서울
만남전, 하루갤러리, 제주

수상

2011 후소회 청년작가상 수상
제1회 JW중외 YOUNG ART AWARD 동양화부문 특선

"인생(人生)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찰리채플린의 명언인 위 문구는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나를 비롯한 현대인들이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사회의 이면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나 어떤 극적인 순간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긴장을 하거나 어설프게 실수를 하곤 한다. 나는 이렇게 극적인 순간 느껴지는 어설프고 황당한 감정들을 채색화로 표현한다.
작품속의 서커스와 마술이라는 무대는 현실사회를 대변하는 하나의 장(場)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연기하며 때로는 실수를 연발하는 어리 숙한 광대와 마술사의 모습은 현대인의 자화상으로 해석된다. 이는 본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현대인의 이야기로서 사회적인 오류나 모순으로 이슈가 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로 인해 인간들이 느끼는 가치관의 혼란, 고독, 인간성 상실, 소외 등 다양한 심리 상태를 분석해 회화로 재해석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작업의 목적을 두었다.

안우동 AHN Woo-dong



Certain Landscape #drive-in theater archival pigment print_80x80cm_2009

Certain Landscape #bathing beach archival pigment print_80x80cm_2010

Certain Landscape #tour bus archival pigment print_80x80cm_2009

어떤.. 풍경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보다 유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시킨다. 동시에 탐미적이고 쾌락적인 영유를 위해 많은 풍경을 개발하기도 한다.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시설과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유토피아적인 환경을 즐기면서 조화롭게 공간을 구성시킨다. 하지만 그 조화로운 공간들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에 의해 개조된 인위적인 공간이며, 부조화가 얽힌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풍경을 보고 난 후 인위적인 접근 때문에 공간 자체가 모호해지는 장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본인은 그 생각을 이어나가 '낮의 자동차 극장'과 '겨울의 야외 수영장', '여름의 스키장'..등의 모습을 통해 시간과 계절에 따라 풍경이 활용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었으며, '정체되어 있는 신도시'와 '광고가 없는 광고판'의 모습들을 통해 풍경이 모호해진 시점을 나타내었다.

즉, 유희적 관점과 삶의 쾌락적인 영위를 위해 개발되었던 환경이 풍경이 되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가져다주지만, 그 이면의 모습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공간들이 가공된 모습으로 탈바꿈되고, 기존의 풍경은 피폐하게 버려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인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진 부분은 그 목적이 불분명해지는 시점이다.

그리고 일련의 공통된 속성을 갖는 풍경을 전시를 통해 현대인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사진하고자 한다.

학력

1982 인천 출생
2010 홍익대학교 대학원 사진학과 수료

개인전

2010 조우한 풍경, 부평아트센터, 인천
개인전, 문신미술관, 서울

단체전

2011 시사회 展, 대안공간 팀프리뷰, 서울
생활의 발견, 부평아트센터, 인천
2010 Post Photo, 이룸갤러리, 서울
2009 Post Photo, 토포하우스 갤러리, 서울
홍익 디자인 · 아트 페스티벌,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아시아프, 옛 기무사 건물, 서울
2006 젊은 사진가전, 대구 동구 문화회관,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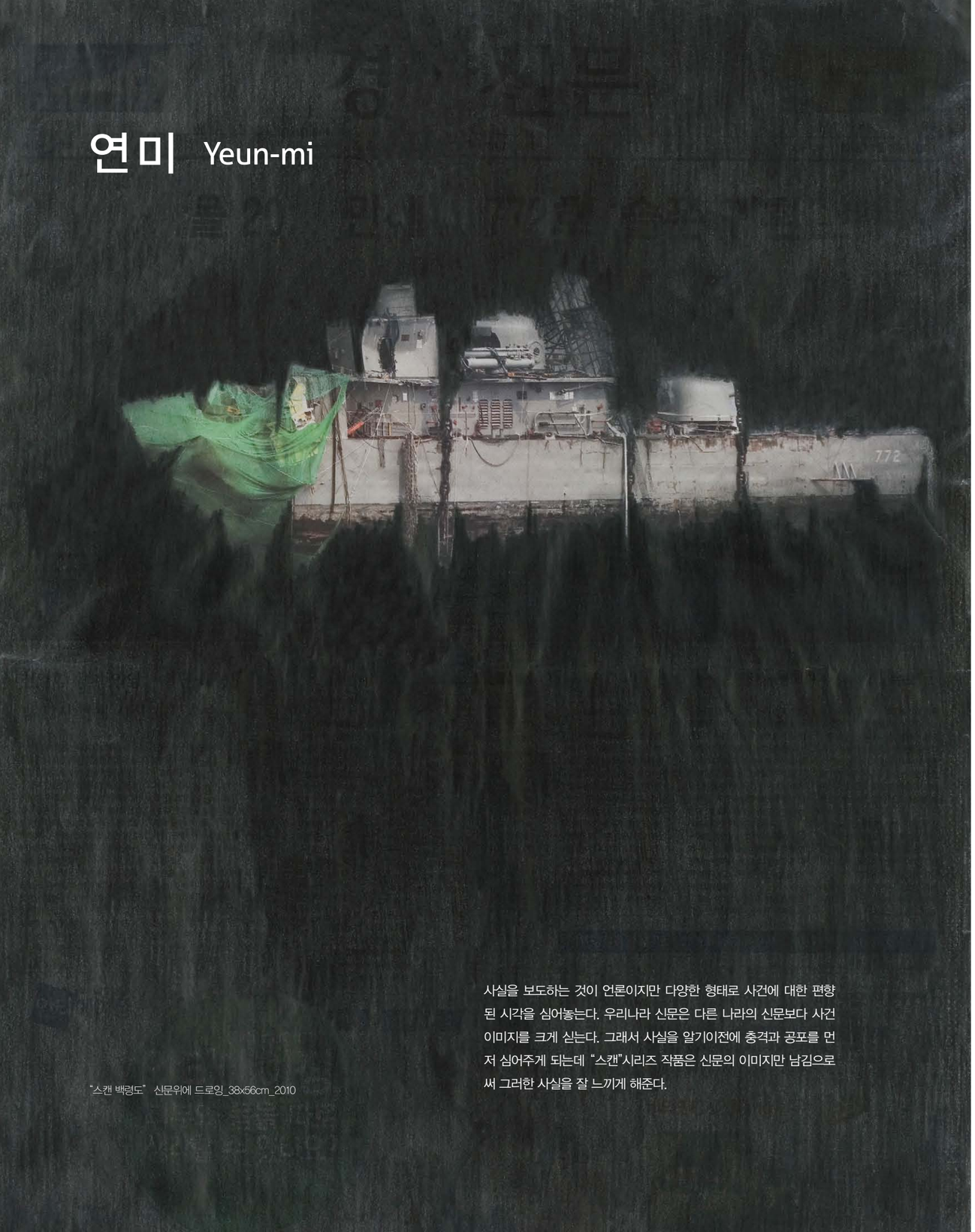
작품소장 문신미술관,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여기서 내가 보여 주고자 하는 사진들은 어쩌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너무 소소하고 작은 것 들이여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힘을 갖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바라본 대상과 그들의 공간이나 크기, 그리고 흑백에서 보여 지는 톤의 미묘함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가늠하고 그 의미를 알아간다는 것에 큰 의의를 느낀다.

그 결과, '조우한 풍경'이란 작업을 통해 거대한 지역 안에서 개인화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고, '어떤 풍경'이란 작업을 통해서는 목적이 불분명해지는 풍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사진들이 어쩌면 나의 초상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연미 Yeun-mi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사건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심어놓는다. 우리나라 신문은 다른 나라의 신문보다 사건 이미지를 크게 싣는다. 그래서 사실을 알기이전에 충격과 공포를 먼저 심어주게 되는데 "스캔"시리즈 작품은 신문의 이미지만 남김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잘 느끼게 해준다.

"스캔 백령도" 신문위에 드로잉_38x56cm_2010

"인터내셔널" 신문위에 드로잉_38x56cm_ 2011

신문의 텍스트, 사건의 배치, 편집방식, 신문재질등으로 사건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이국적인 신문에서 보인다면 훨씬 더 거리감을 느껴 사건으로부터 느끼는 거리감도 멀어진다. "인터내셔널"작품은 한국신문에 텍스트를 바꿔가며 드로잉해서 마치 제3세계신문처럼 보인다. 그 순간 전쟁과 폭력등의 사건들이 나와 상관없는 먼나라의 일처럼 느껴진다.

풀리지 않는 사건 신문위에 드로잉_가변설치_ 2011

"newsstand" 신문가판대 접이식_가변설치_2011

지금까지 작업한 신문들을 보여줄 가판대를 만들어 직접 거리로 나가 전시했다. 신문을 보고 반응을 기록하고 개인으로서 재발행해왔다면 가판대는 신문을 배포하고 유통하듯 직접 관람자를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해왔다. 서울의 강남역을 시작으로 홍대역, 인천 차이나타운, 4대강을따라 가판대를 전시를 해왔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스캔 시리즈 신문 위에 드로잉_가변설치_ 2011

학력

1973 출생
1999 인천시립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졸업

개인전

2010 News Stand, 강남역, 홍대역
2009 시시한 폭력, 꽃+인큐베이터, 서울
2008 Gray Paper, 캘러플, 서울
안전합니다, 벨벳인큐베이터, 서울
2005 모조부재, 스페이스빔,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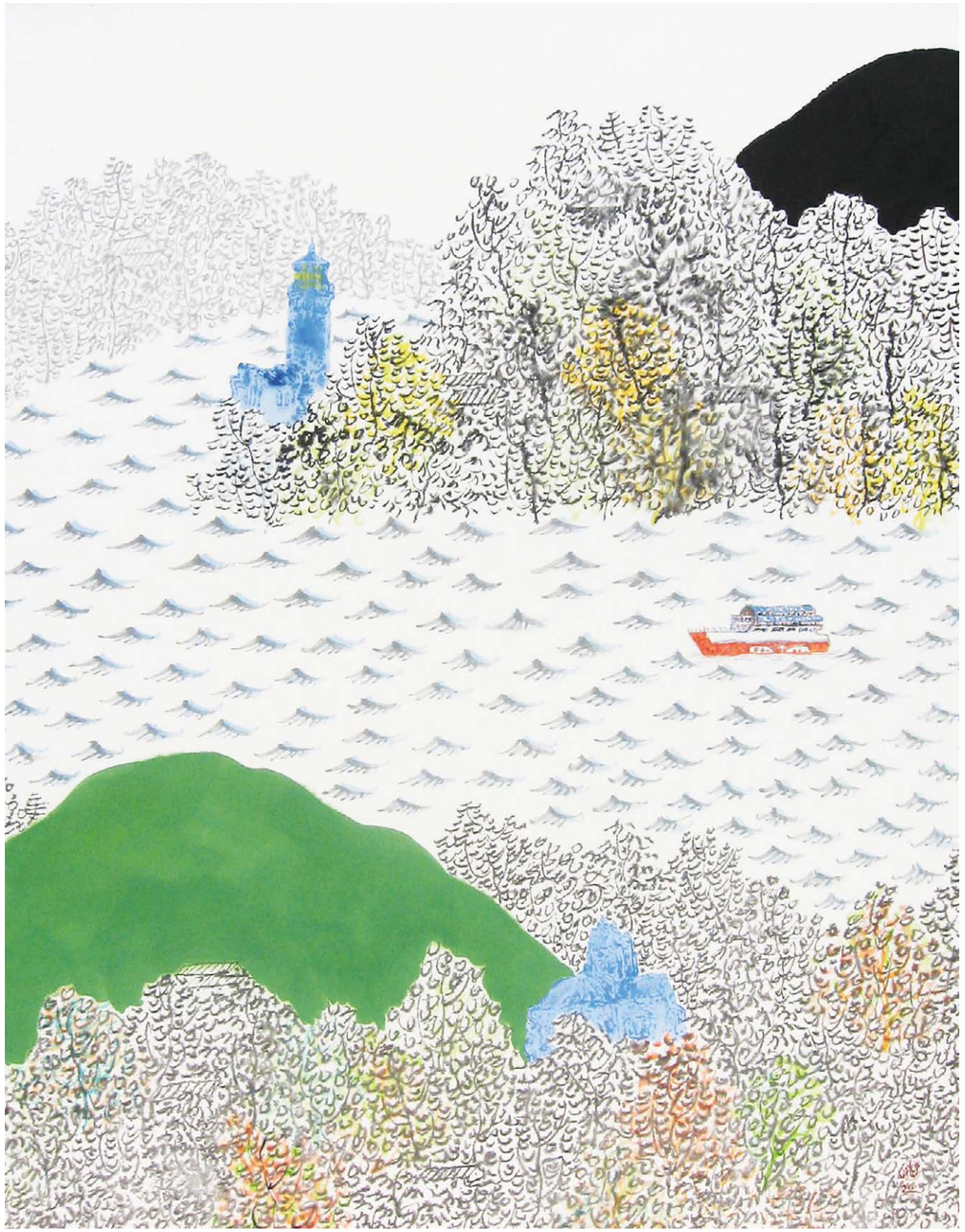
주요 단체전

2011 로드쇼:대한민국 Project, 토탈미술관
新 聞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차가운 시선, 충정각갤러리, 서울
발굴의 금지, 대안공간 풀, 서울
2010 도시수리센터 얽어~컷, 스페이스빔, 인천
은밀한 실천, 스페이스 알렙, 목포
안성맞춤, 안성창작스튜디오
2008 서교난장, 상상마당기획, 그문화 갤러리, 서울
델픽게임 디지털네트워킹, 갤러리킹 기획, 서울
2004 Way, to myself, 스페이스빔, 인천
잠시주차중,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미술스튜디오, 서울
The Time of Imaginative Power 상상의 시간, espace da vinci, 서울
포토레이트,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미술스튜디오, 서울
2003 괜찮아, 고도갤러리, 서울
2002 점.선.면, 스페이스빔, 인천
인터프로젝트 공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숨은그림찾기, 연구공간 수유+너머, 서울

'인천의 젊은 작가'라고 해야할지 고민이긴하다. '젊음'에 대한 기준이 무언지 확실치 않아서이다. 젊음이라는 단어가 '미숙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변화무쌍'의 의미가 더 크다면 본인도 젊은 작가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다.
빈곤층, 여성, 지방대학출신이 작가로서 활동한다는 건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많이 방황했고 많은 시도를 해왔고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었다. 하나의 시각으로 돌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하나의 시각만 가지고 돌진할 때, 세계의 중심이 하나인 것만 같은 신념에 매몰되기도 하기에 언제나 의심하고 다른 길들을 찾아야 하는데 다행이 나는 중심에서 시작하지 않아서 중심을 바라볼 장소가 확보되었다.
자신의 출생지가 어딘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서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작업하고 있다.

오민수 OH Min-su

산수유람2011-80-1 화선지에 수묵채색_145x112cm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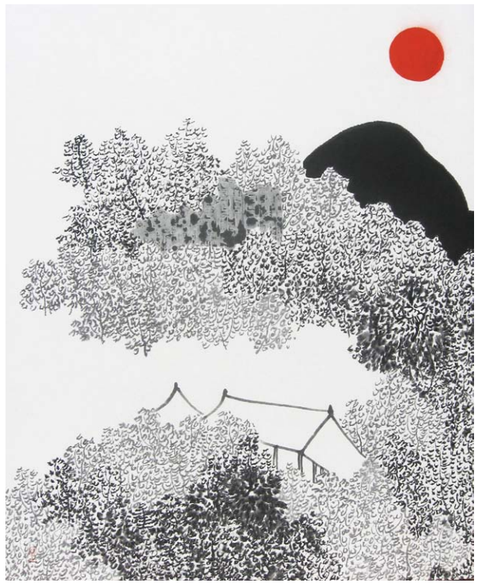
산수유람30-1 화선지 수묵채색_91x73cm_2011

산수유람-공존 화선지에 수묵채색_130x264cm_2011

하루에 우리가 보고 접하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한다. 이러한 일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없고, 때론 존재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지낸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만 움직여 주위를 살펴보면 도심 속에서 함께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존재하는 한부분을 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나의 작업은 이렇듯 일상 속에서 지나쳐가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주로 특정한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숲과 시공을 넘나드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을 한 화면에 재구성하므로서 과거와 현재의 감수성이 혼재되어 지금, 현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작품은 전통적인 산수화의 구조에 입각하여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대상에 대해 감각적인 접근 보다는 자연 속의 인간에 대해 시공간을 통하여 바라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대상의 가지고 있는 외형적 형태보다는 그 내면에 감추어진 본질을 탐구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나의 작품속의 세 가지 소재는 재현의 의미를 벗어나 일상성에 바탕을 두고 현시대의 정체성에 관하여 다각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동시에 화면에 투영된 기호적 상징물 이미지와 어우러진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형태의 구성에서 획일적이고 관념화된 산수화 양식의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형식파괴와 자유분방함으로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통과 현대를 오고가는 자유로운 시공간의 확대를 찾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산수유람30-5 화선지 수묵채색_91x73cm_2011



산수유람30-4 화선지 수묵채색_91x73cm_2011

학력

인천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1 산수유람, 갤러리 팜아, 일본 도쿄
2010 산수유람, 갤러리 이레, 경기도 파주
2009 산수유람, 갤러리 갈라, 서울
2008 혼재된 풍경_시간을 넘어서, 정갤러리, 서울
혼재된 풍경_시간을 넘어서, 혜원갤러리, 인천
2006 시간≠공간, 혜원갤러리,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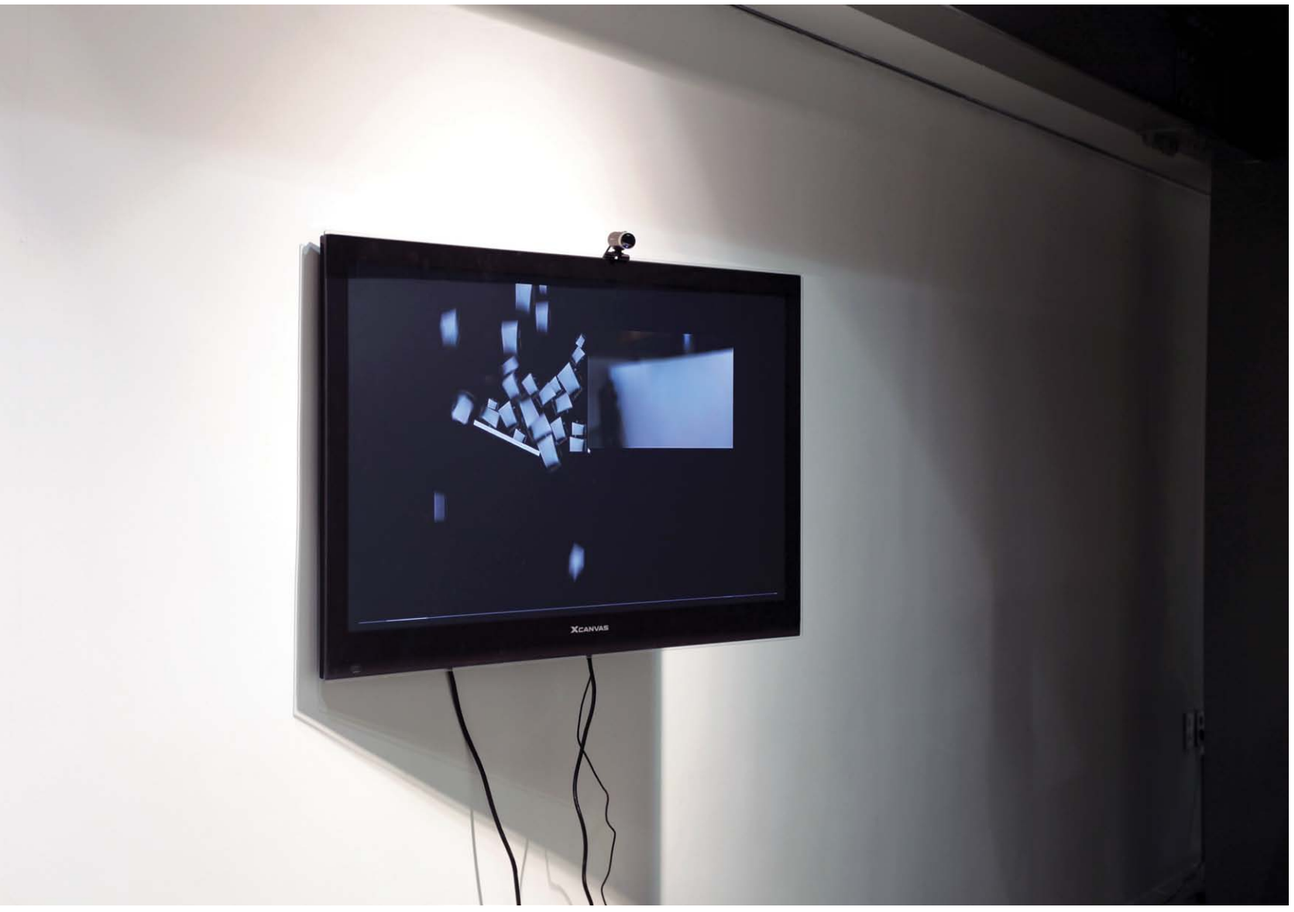
주요단체전

2011 한국화-옛 뜰에 서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인천상륙作展,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제주작가초청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강, 공간, 그림, 라우엔부르크갤러리, 독일 라우엔부르크
충칭영아트비엔날레, 충칭미술관, 중국 충칭
안견회화의 정신,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0 Focusing Local 'JEJU Island', 갤러리 더케이, 서울
전통의 뿌리와 새싹의 태동,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세상을 Drawing하다, 인천아트플랫폼
2009 EPOCHE_판단중지, 부평구청內, 인천
BOUNDARY- 채움과 비움, 부평역사박물관, 인천
제주도립미술관 개관기념_ 제주미술 어제와 오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08 五色燦爛-The Five cutting edges, 갤러리 소헌, 대구
튀는 상상력 수묵의 新언어展, 정갤러리, 서울
FANTASTY OF THE CITY, 아트센터알트, 대전
한국화 대제전_아시아드, 한국,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Difference and Coexistence, ASTO Museum of ART, U.S.A/꽃갤러리, 서울

레지던시 2011 인천아트플랫폼 2기입주작가

일상 속에서 스쳐지나가는 기억들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공 구조물의 교감이나 인공구조물간의 상호작용을 수묵 묘필과 전치법(轉置法)을 이용하여 평면 이미지로 재현해 내는 작업이다. 도시의 숲을 이루는 고층빌딩, 빠르게 진행되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스쳐지나가게 되는 것(시간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는 인공 구조물/ 문화재 구조물)들을 주의 깊게 살필수록 자연에 대한 갈증과 동경은 커져만 간다. 때문에 동경하는 자연과 관찰을 통해 포착한 인공구조물을 재구성하여, 과거와 현재의 감수성이 혼재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속의 작업이다.
볼 장소가 확보되었다.
자신의 출생지가 어딘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서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작업하고 있다.

오상석 OH Sang-seok



The Journey 인터랙티브 싱글채널 AR비디오_가변크기_2011

포트(W(e)–Port) 인터랙티브 싱글채널 AR 비디오_가변크기_2010
포트(I–Port) 인터랙티브 싱글채널 AR 비디오_가변크기_2010

명예의 전당(Homage to Maters) 인터랙티브 싱글채널 AR 비디오_가변크기_2010

이 작품은 인천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인천작가들에 대한 오마주적 성격을 띠는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켰다.
주변부로 불리는 인천에서 그 동안 작가들의 주요 활동영역은 서울이었지만 최근 예술계에서는 지역성을 강화하고 그 문화를 살리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개인 위주의 작가주의적 성향을 넘어서서 그룹이나 단체로 묶이고 시너지 효과를 얻어내는 것을 보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가까운 미래에서는 작가들이 고유 아이디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가 출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 이러한 생각을 인터랙티브 싱글채널 AR 비디오로 표현하였다.

익명의 정체성 코드 _ 마커의 시각화 (정상희 미술평론가)
마커를 기술적으로 안보이게 하고 놀라운 공연이나 영상을 만들어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증강현실과 이를 인식하게 해 주는 데이터 간의 문제와 그 안에서 인식해야 할 예술적 인문학적 요소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흰색과 검정색의 디지털 수치를 컴퓨터가 인식한 뒤 그 안에 포함된 데이터의 다양한 오마주를 시각화하는 것은 마치 익명의 아이덴티티가 모여 구체적인 커뮤니티를 형상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하 생략

구름(The Cloud) 인터랙티브 싱글채널 AR 비디오_2011

학력

1974 충남 태안 출생
2008 인천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디자인학 이학석사(M.A) 졸업
2006 한국교육개발원 시각디자인학 미술학사(B.F.A) 졸업

2011 동시대 한국의 22인 기획전, 하워드 교육청, 매릴랜드, 미국
가면 II(The Mask II), 주안미디어문화축제 공모전 선정작, 주안역, 인천
구름(The Cloud), 개인전, 한점갤러리, 인천
꽃(The Flower), 재능기부 개인전, 부평아트하우스, 인천
2011년 문화예술교육 학습모임 지원사업 선정 '다청연'
가면(The Mask), 미술+과학 단체전, 인천평생학습관, 인천
인천문화예술교육센터 연구공간 매개자 선정 입주
2011년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공모 선정
(주)OBS 경인방송 꿈꾸는U 영상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포트(I-Port/T-port/U-port/W-port), 기억애 단체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명예의 전당(Homage to Masters), 기획 단체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금(The Gold), 프로젝트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문(The Door), 프로젝트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1기 입주작가 (프로젝트 D.N.A)
2009 제발(please!!), 메타-데이터 한국영상학회원전, 구로아트밸리, 서울

선을 긋고 나누는 행위, 그 자체는 단순하나 동기와 의도는 다양한 경계선을 지니고 있다. 수도와 지방, 서울과 인천은 상반된 경계가 아닌 단순한 거리의 경계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경계선을 만들고 있다. 젊은 작가와 원로 작가, 단순한 경계선이면서 비교와 넘을 수 없는 가치들이 즐비 한다. 어쩌면 이제까지 작업했던 나의 작품들을 보면 새삼스럽지 못한 이야기다. 표면적으로 드러낸 가상과 현실의 경계선을 가늠하고자 했던 것보다 그 이면에 담겨있는 이야기의 표현과정에 경계선을 그어 열고 꺼내고 담아내었다. 결국 경계선은 쓰면 쓸수록 더 닮아가고 하나라는 전제를 반증하게 된다. 나의 작품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이며 그 안에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경계선을 그어 증강현실 미디어로 관객에게 접근했다. 관객이 밟고 내딛는 공간, 그 곳이 경계선이며 그 장소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엿보며 무수히 많이 그어진 경계선을 바라보게 됨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그동안 증강현실 싱글채널, 혹은 멀티채널 비디오를 인천이라는 장소기반형 작품을 만들게 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인천의 젊은 작가로써 새로운 경계선을 그으면서 이전의 경계선을 없애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근대화의 중추적 역사도시 인천, 감당할 수 없는 과거를 안고 신세계 첨단 도시를 꿈꾸듯 왠지 나와 닮은 모습에 더 열정이 뿜어난다.

오석근 OH Suk Kuhn

The Text Book (Chulsoo & Younghee) p277 Digital c-print_100X124cm_2008

The Text Book (Chulsoo & Younghee) p306 Digital c-print_100X124cm_2011

교과서 (철수와 영희)

교과서는 현재 어른이 된 모든 철수와 영희의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수렴하여 만든 또 다른 교과서이다. 보편적이고 때론 충격적인 이 기억들은 어른이 된 철수와 영희들의 무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숨어 있다 문뜩 솟아나 스스로에 대한 수치감과 죄책감 등 을 만들어 낸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비롯된 모멸감, 죄의식, 트라우마, 충격,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며 그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러한 기억에 지속적으로 영향 받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 쉽게 찾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감정과 행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을 찾지 못하며, 감추며 자학하는 것을 되풀이 한다. 극복의 매뉴얼, 즉 사건의 이유와 해결방법이 가까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이것의 해결책은 인간에 대한 깊은 사고와 이해가 바탕이 된 교육 (학교 교육 만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학습, 습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에 숨겨져 있는 구조적인 폭력과 편협하고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다양하고 대안적인 시선과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교과서(철수와 영희)의 모든 이미지는 한국인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경험하고, 했던 혹은 겪게 될 열병의 집합체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그 열병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분석이며 사회에 반격하는 대안이고, 뜨거운 외침이기도 하다.

2006년 부터 진행해 온 교과서(철수와 영희)는 근대의 상흔이 가득하고 한국사회의 생채기라 할 수 있는 인천을 중심으로 촬영되어 왔으며 현재 교과서 작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국의 분단현실과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서해 5도를 중심으로 꺼내려고 한다.

서해 5도 _ 연평도

우리는 무엇인가에 끌려오듯 살아왔다.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부재했으며 스스로 풀어내지 못한 많은 질문들에 둘러싸여있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그 빈자리에 남북의 강요된 가치들이 강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다. 국가에서 개인으로 전이되는 강박의 가치는 민족의 비극을 동반하며 증오를 증식시키고 그 안에서 인간성을 매몰시켜 왔다. 이렇게 국가의 트라우마가 개인의 트라우마로 전이되는 순간 역사를 경험한 개인만이 아닌 이제는 후세들의 내면에 까지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는 내면의 그 괴물들을 인식해야 한다. 인식하는 순간 깊게 내재된 수많은 강박과 트라우마는 해소될 수 있으며 새로운 가치들을 채울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From the Sea to Youth_Chapter1_01 Digital c-print_2009

한국의 교육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국 우리는 국가의 역사적인 상처를 마주하게 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상처가 발생하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 즉 근대의 시작점 부터 우리를 바라 봐야 한다.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인덱스를 찾을 수 있게 하며 새로운 대안과 우리만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

최초의 신시(근대시)인 최남선(崔南善 : 1890–1957)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근대 계몽기부터 이어져 온 청소년의 표상을 나타내는 시이다. 이 시는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물, 전근대의 조선을 넘어서(단절하고) 민족을 근대국가로 즉 새로운 세계로 열어줄 인물이 바로 소년, 소녀(청소년)라 규정한다. 또한 근대의 지식인들은 그들의 힘과 열정을 민족과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쓰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욕망은 억제하고 통제, 균일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는 21세기 한국의 현재까지도 전달된 가치와 모범이며 국가의 트라우마가 개인에게 내재되어 강박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979년 인천 태생으로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거쳤으며 동티모르 유엔 평화유지군 사진병으로 일년 동안 활동하였다. 영국 노팅엄 트랜트 대학에서 사진과를 졸업하였고 한국에 돌아와 전위적인 문화운동인 Dos A Dos 를 만들어 새로운 문화와 놀이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어린 시절의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수렴하여 만든, 한국 근 · 현대사에 대한 성찰 '교과서(철수와 영희)'를 제작하여 국립현대미술관, 휴스턴미술관 등 국내외 미술관 및 아트센터에서 활발하게 전시를 진행하였다. 현재 인천 개항장에 위치한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여 개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진계의 후진 양성과 한국의 미술교육의 대안을 찾기 위해 대안학교 및 쉼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진과 미술을 가르치고 있다. 작가의 작품은 미국의 휴스턴 미술관, 산타바바라 미술관, 포틀랜드 미술관, 한국의 일민미술관, 상상마당 등에 컬렉션 되고 있다

학력

1979 인천 출생
2005 영국, Nottingham Trent University, School of Art & Design(학사) 사진과 졸업.
1998 인하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자퇴

개인전

2011 교과서 (철수와 영희), Base Gallery, 동경
2010 교과서 (철수와 영희), 레꼴레따 문화 센터, 16th Encuentros Abiertos : Festival De la Luz,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과서 (철수와 영희), Blue Sky Gallery, 포틀랜드
2008 교과서 (철수와 영희), 아트스페이스 휴, 서울
2007 Bare Exposure (Noster Nostri), 갤러리 온, 서울
2005 Bare Exposure (Noster Nostri), Wallner Gallery, Lakeside Art Centre, 노팅엄

주요 단체전

2011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Lab DotlineTV Preview, Lab DotlineTV, 서울
국경 없는 시간,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2010 ATU (Alternative, Translate, Universe), 시네마 상상마당, 서울
Otonarisan, Gallery Artlier & Kyushu University Museum, 후쿠오카
Bibliotheque: 접힘과 펼침의 도서관, 상상마당, 서울
일민시각문화5 : 격물치지 格物致知, 일민미술관, 서울
Chaotic Harmony, Santa Barbara Museum of Art, 산타바바라
A4 Demo : Art For Democracy, 13개 도시 14개 전시공간, 한국
Double Interview :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Art Space Hue & I-MYUProjects, 서울/ 런던
Mind Games, Australian Centre for Photography, 시드니
Waseda Photojournalism Festival, 125 Memorial Gallery of Waseda University & Visual Arts Gallery, 동경
2009 상상의 재현, 재현의 상상, Gallery Now, 서울
Chaotic Harmony,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휴스턴
Showcase Reboot Vol.6, Platoon Kunsthalle, 서울
The Photograph as Contemporary Art, 두산아트센터, 서울
靑 · 少 · 年 : 일민시각문화 4, 일민미술관, 서울
2008 서교난장: NG Art Fair 아트스페이스 휴, 서울
젊은 모색 2008, I am an Artist,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Discoveries Exhibition of Fotofest, 포토페스트 비엔날레, 텍사스

수상

2010 서울문화재단 해외교류사업 지원 선정.
2007 Young Portfolio 2008 of Kiyosato Museum of Photographic Art
2006 Discoveries of Fotofest 2006, 휴스턴 미술관 사진 큐레이터 Anne Tucker 선정.
아르코 문예진흥기금 신진작가 지원 선정

오은미 OH Eun Mi

거짓소통 Acrylic on canvas_120X120㎝_2011

거짓소통 Acrylic on canvas_70X170㎝_2010

건조하고 무기력한 현대인의 시선, 그리고 관계

현시대의 인간들은 필요에 의해, 혹은 의도치 않게 수많은 사람들과 크고 작은 관계를 맺으며 지금을 살아간다. 이 무수한 관계맺음은 그것의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형식적이거나 일회성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를 경계하며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위장하게 된다. 또한 자기중심의 눈동자를 통하여 서로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동시에 의심하며 선을 긋는다. 그것은 때로는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이다. 서로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조차도 본성이나 진심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으며,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단지 무의미하게 숨기고 위장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관계를 맺을 뿐이다.

그렇게 맺은 관계는 가벼울 수밖에 없으며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보는 시선 또한 무기력하고 건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상대방 혹은 자신 스스로가 쳐놓은 벽 때문에 철저히 혼자인 채로 '거짓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거짓소통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관계 맺음'의 본질을 망각하게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진짜소통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막연한 상실감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텅 빈 관계 속의 상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무기력 Acrylic on canvas_120X120㎝_2010
무기력 Acrylic on canvas_120X120㎝_2010
2010거짓소통 Acrylic on canvas_80X100㎝_2010
거짓소통 Acrylic on canvas_130X162㎝_2010

나를 비추는 너, 그를 통해 스스로에게 던지는 메시지

여기 '어느 누구'의 초상이 있다. 남을 훔쳐보는 묘한 기분으로 이 초상들을 살핀다. 그들 역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인물들은 낯설면서도 익숙하다. 이 모습들은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겉모습인 동시에, 나 자신의 내면일 수도 있다.

관객은, 익명의 누군가의 모습을 엿보러 왔다가 그곳이 곧 자기 자신을 비추는 곳임을 깨닫는다. 이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인물들 앞에서의 짧은 머무름은, 이 초상이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고 인간관계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

소통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

서로를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뒤에 씁쓸함을 느낀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함께'라는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공감들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여겼지만, 혼자가 된 시간에 그 대화를 곱씹으며 우리가 나눈 대화가 '소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듯 얕은 관계뿐 아니라 친한 친구들, 가장 가깝다 믿었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까지도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엔 혼자라는 말이 있듯, 무수한 타인들과 부대끼며 관계를 맺어도 각자의 환경과 가치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고 이해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상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는 '나'이기에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께 나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기력 인간 Mixed media_70X90X130cm_2009

학력

인천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인천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개인전

2010 거짓소통, 두루아트스페이스, 서울
거짓소통, 갤러리 현, 서울
2009 날(널)보러와요-개인주의展, 스페이스빔, 인천

그룹전

2011 울트라센스展, 갤러리 스카이연, 서울
보이지 않는, 삼청갤러리, 서울
Draw-in 展, kring, 서울
2010 체험특별전 '인천아~ 놀자!', 인천시립박물관, 인천
POP-CON展, 송도 팝콘시티 갤러리, 인천
2009 Hello, stranger!, 갤러리 도어, 서울
192-6번지 展, 갤러리 더 케이, 서울
discourse 展, 두루아트스페이스, 서울
부평 YOUNG ARTIST展 "BOUNDARY – 채움과 비움", 부평역사박물관, 인천
2008 인천-터키 현대미술 국제교류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국제 아트북 메이킹 페스티벌, 정독갤러리, 서울
무지개다리展, 갤러리 쉬필라움, 인천
생선(生線)展, 혜원갤러리, 인천
2007 집들이642-7展, 폐공장, 인천
지성의 펼침展, 단원전시관, 안산
신진작가 초대전 '어디서든 anywhere', 스페이스빔, 인천

나는 '가짜소통'을 반복하면서 '진짜소통'을 갈구하고, 때로는 타인과 소통하고 있다 믿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 역시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텅 빈 관계를 수없이 맺고, 그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기에 스스로에게 소통의 진정성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던진다. 이 물음은 과연 '진짜소통'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라는 의문으로 번지게 되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 확답할 수 없을 것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가식과 거짓소통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제시하려는 생각은 더더욱 없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나는 단지 이를 응시하고, 느끼고, 관찰하면서 지금의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시대 대부분의 작가들이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겠지만, 특히 젊은 작가들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살아가기 바빠 서로간의 교류가 많지 않음이 사실이다. 이는 앞서 말한 나의 작업의도와 상통한다. 작가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꺼내어놓지만, 동 시대에 작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지역적인 공통분모가 더해져서 젊은 작가들의 고민과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획전이 되었으면 한다.

오종은 OH Jong Eun

in my dream charcoal,acryic on canvas_216x130cm_2009

music of the sea mixed media_111.7X162.3cm_2011

live and tell mixed media_162X111.7cm_2011

본다는 것. 무의식과 꿈을 통해 현실을 보다..
꿈: 내면의 시선을 따라간 일상과 꿈의 기억을 통한 부조리한 현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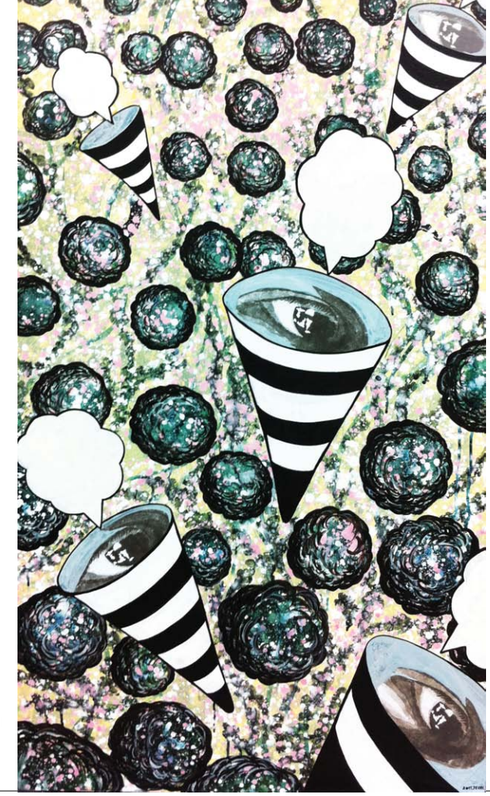
1 나의 작업의 한가운데는 늘 '인간'이다. 그들의 내면과 소통방식, 관계성에 대한 성찰이다.
그것들은 욕망과 결핍의 관계와 더불어 끊임없이 확인해야하는 인간의 이중성. 본다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삶의 모호성과 갈등에서 시작한다. 진실과 거짓의 간극. 모든 사회가 주는 경계안에서의 부조리함을 발견하고 그것은 꿈속의 이야기, 기이하고 파열된 시선의 분열을 통한 응시를 통해 나타난다. 그것들은 나의 무의식을 통해 깨어지고 또 열려지면서 깊은 심연속으로 이끈다.

2 본다는 것. 꿈으로 가는 욕망과 결핍의 열차.
보는 것이 아는 것인가. 아는 것이 힘인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이중성. 그 안과 겉의 진실과 거짓, 아픔, 시선의 배신, 무엇을 본다는 것의 회의,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고부터 인간 내면의 모습과 보는 것과는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보기와 보여지기의 응시는 우리가 시야에서 신비로운 우연의 형태로 갑작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경험이다. 응시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욕망하고 욕망은 삶을 영위시키는 동인이다. 그것들은 모두 포획할 수없기에 결핍이 생기고, 그러기에 우리에겐 환상이 필요하다. 본인에게 가장 큰 환상의 공간은 꿈이고 그 꿈을 통해 현실의 결핍과 욕망을 본다. 꿈과 환상은 주체가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다. 꿈은 현실이 주는 무의식의 연장이기도 하다. 꿈은 우리를 숨쉬게 해주는 정신의 탈출구이자 또다른 세계와의 조우이다. 우리는 꿈꿀수 없는 현실을 꿈꾸지만 그것은 현실이 주는 무의식의 연장이기도 하다. 그 이상스럽고 기이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다른 현실을 말해주고 있으니 꿈이야말로 인간의 총체적인 관계와 역사를 말해주는 또다른 세계(ANOTHER WORLD)이다.
결핍과 환상–욕망은 살아 있는 한 충족되지 않는 결핍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환상이 필요하다. 환상은 주체가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며 비록 그것이 허구일지라도 신기루가 없이는 사막을 걷지 못하는 인간은 추구하는 대상이나 목표없이 살아가지 못한다. 바라봄과 보여짐의 교차에서 생겨나는 이미지.주체는 대상의 응시를 인식하지 못해야만 환상을 지닐 수 있다. 환상이란 주체의 시선과 대상의 응시가 교차하는 어느 시점이 생긴 이미지이다. 그러나 주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미지를 실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욕망의 본질이요, 실재계의 난 구멍이요, 삶의 근원적인 허무이다.

3 미란 언제나 기이한 것이다.(le beau est toujours bizarre) –보들레르–
보들레르가 말한 현대성에 대해 알아보면, 일시성, 순간성, 우연성이다. 일시적이고 변하기 쉬운, 그야말로 변덕스러운 미의 표현들, 여기에서 그가 말한 현대의 미(美)의 정의를 나타낸다. 아름다움이란 얼마나 변덕스럽고 변화가 많은가? 우연히 만들어진 약간의 기이함, 천진하고 비의도적이며 무의식적인 기이함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보들레르의 bizarre는 다양하고 변화가 심한 아름다움으로 순수한 예술을 추구하는 정신성의 요소이다. 보들레르의 이 이론은 본인의 작업에 큰 영감과 공감을 주었다.

요즘 작업들은 꿈 속의 자연의 모습을 많이 그린다. 등산을 하면서 자연에 감사함과 경외의 마음을 배웠다. 나무의 껍질색, 잎새의 모양, 물방울, 꽃,여러 동식물들이 모두 날 매혹시킨다. 그것들은 부드럽게 유영하고 흩어지듯 사라지고, 어느새 우리들 곁에 있다. 그것들은 희고도 검고도 푸르고도 붉은 물결로 다가온다.

우리가 꿈꾸는 욕망은 모두 현실의 부재, 결핍에서 나온다.
환상은 욕망에 고유한 쾌락을 제공한다. –자크 라캉–



don't trust her mixed media on canvas_150x90cm_2011

학력
1973 서울 출생
2008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디자인과 수료
1999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1997 서울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1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참여 개인전 Alone Together,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인천
2010 몽실몽실한 꿈展, 기획초대 개인전,(갤러리인),서울
1999 제 2회 개인전, 관훈 갤러리, 서울
1998 제 1회 개인전, 뉴폼 97 '기획초대전, 윤갤러리,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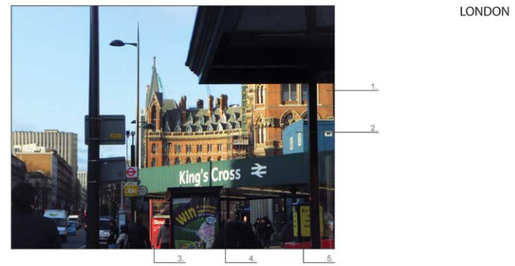
주요 단체전
2011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인천지역미술인 오픈스튜디오, OCI창작스튜디오, 인천 1004 ART전, 불우이웃돕기자선전시, 신사밝은세상안과, 서울
2010 2010 AW공모 당선자전시, AW컨벤션센터, 부암동, 서울
'나눔+선물' 展 N–PAR 레지던시작가 자선소품전, 갤러리인, 평창동, 서울
'우리가 미래다' N–PAR레지던스 1기 보고전시, LVS갤러리, 서울
2009 [Rubato] 展_ 서울여대동문기획전, 갤러리인데코, 서울
The part of me, 스페이스 함, 서울
세계기아축소를 위한 세계난민구재 자선전시,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 서울
2008 JUNA&CO, WINE&ARTS기획전–오종은&곽소영주얼리전, JUNA&CO갤러리

수상 및 레지던시
2011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 인천
2009 Neo–prime artist residence 1기 작가, 서울
2008 서울메트로전국미술대전공모 서양화입선, 서울

2011년 4월 OCI미술관에서 하는 인천의 창작스튜디오에 1기 작가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천에 내려와 새로운 환경에서 작업하게 되니 처음엔 신기할 뿐이였습니다. 바다에 인접해있는 인천의 자연뿐만 아니라 차이나타운, 엄청나게 거대한 공장단지들을 처음 접하고 그 굴뚝의 흰 연기들을 보며 인천의 역동성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다에 인접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고 있고 반면에 새로운 신도시 송도가 저멀리 보이며, 수많은 공장들에서 뿜어오는 굴뚝의 연기들은 무척 인상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작업들은 꿈과 무의식, 인간의 내면의 작업들은 인천의 자연경관과 공장등의 모습들에 크게 영향을 받을 듯 합니다.

옥경래 OAK Kyung-lae

London UV ink on aluminium_60x100cm_2011



LONDON

1. C _ 27 M _ 55 Y _ 77 K _ 9
2. C _ 61 M _ 31 Y _ 27 K _ 0
3. C _ 5 M _ 95 Y _ 78 K _ 0
4. C _ 62 M _ 25 Y _ 60 K _ 4
5. C _ 58 M _ 49 Y _ 100 K _ 38

OXFORD

1. C _ 46 M _ 60 Y _ 72 K _ 35
2. C _ 54 M _ 40 Y _ 40 K _ 7
3. C _ 15 M _ 9 Y _ 23 K _ 0
4. C _ 46 M _ 34 Y _ 40 K _ 1
5. C _ 55 M _ 50 Y _ 67 K _ 30

OXFORD

1. C _ 65 M _ 45 Y _ 42 K _ 11
2. C _ 55 M _ 49 Y _ 52 K _ 17
3. C _ 80 M _ 67 Y _ 53 K _ 48
4. C _ 12 M _ 9 Y _ 13 K _ 0
5. C _ 28 M _ 68 Y _ 71 K _ 14

CAMBRIDGE

1. C _ 41 M _ 31 Y _ 35 K _ 0
2. C _ 56 M _ 49 Y _ 41 K _ 10
3. C _ 59 M _ 47 Y _ 37 K _ 8
4. C _ 66 M _ 59 Y _ 56 K _ 37

Color charts

상반된 가치의 대립으로 표현되는 작가의 문제의식은 영국에서의 생활, 경험에서도 작품 창작의 기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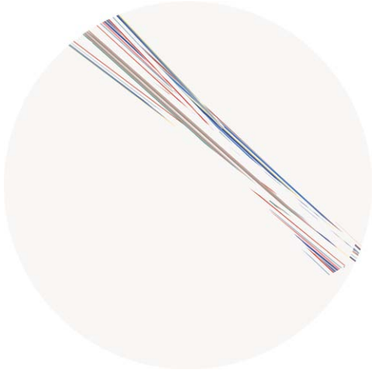
19세기 프랑스 파리에서 나타난 초기의 근대화이래로, 도시는 예술가들의 주제가 되어왔다. 호기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불안을 던지는 도시의 복잡함과 거대함은 많은 예술적 작업의 기초가 되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도시는 점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거대해지며, 기술의 발전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더욱 더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도시에서 성장한 많은 젊은이처럼, 옥경래는 옛것과 새것 사이의 긴장감을 느꼈다. 사회적 관습은 변화하고, 경제성은 변화를 의미하며, 건축물은 우리의 이동양식과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엄청난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다. 개인들은 옛것이면서 새것이고, 촉각적이면서 시각적이고, 개인적이면서 집단적인 사회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사회는 획일적인 소비자를 만들며 순응할 것을 요구하지만, 개인은 또한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기쁨을 드러낼 필요도 있다.

2010년 옥경래는 한국의 생활 그리고 서울과 인천의 생활에서 벗어남으로써, 현대인의 삶에 대하여 또 이전에 가졌던 근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이전의 작업을 출발점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느낌을 체화하는 여러겹의 다양한 절편들을 창작하며 복잡하고도 미묘한 추상의 형태를 발전시켰다. 영국의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하며 옥경래는 이방인으로 도시를 관찰하고, 또 매우 현대적인 형태의 경험으로 '흘려지나가는 (passing through)'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옥경래는 각 지역의 보도, 벽돌, 도로장식, 버스 등의 색채를 통해 지역적 특징을 추출하며, 사진을 통해 각 도시의 고유한 색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색채는 알루미늄 판 위에서 선으로 표현되었다. 판은 원의 형태로 구성되는데, 원에는 중심이있고 또 가장자리에는 소수의 소외되는 시각적 모습이 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치열한 것이다. 작업은 변동, 도시의 '웅성거림 (hum)'을 표현하고, 또 색채의 미묘한 관계로 가득차고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작업은 비인격적인 인쇄기법을 사용하여 손의 흔적 없이 만들어진다. 결국 개인들은 자신의 복잡한 경험, 강렬한 감정, 그리고 이 모든 대립과 난해한 세계 속에서 개인의 통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인은 집합적인 대중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Graham Chorlton (영국 코벤트리대학교 교수)



Song-do UV ink on aluminium_120㎝_2011
Albany Rd UV ink on aluminium_60x100cm_2011
Oxford UV ink on aluminium_50x50cm_2011

도시는 그 안에서 자연적 입지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생활방식과 다양한 문화가 생산된다. 또한 오늘날의 도시에서 옛 것에서 드러나는 색채미와 공업화를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색채가 존재한다. 산업화 이후 생겨난 새로운 가치관과 이전의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상을 색채에 투영시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의 소비사회는 도시의 문화생산의 가속화를 가지고 왔고, 인간의 감성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시 안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진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을 기록한 사진들 속에서 인공적인 색채를 객관화시켜 색상표로 정리하고 여기서 얻어진 다양한 색상들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 작업을 진행한다. 이는 도시의 색채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찾음으로써 삭막한 도시공간 속에서도 분명 존재하는 삶의 흔적과 조화를 느끼고자 함에 있다.

인천의 경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배다리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송도가 서로 대립하며, 공존하고 있다. –작가노트 중

인천은 개항과 더불어 외래문물 수입의 전초기지였다. 이로 인해 국제무역과 상업이 번성했으나, 서울으로 가는 관문도시가 되며 그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문화적인 기능 또한 축소되었다고 생각된다. '인천의 젊은 작가'란 인천에서 거주해오고 인천의 문제의식으로 작업하는 작가를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된다.

나는 1987년부터 인천에 거주하였다. 송림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엔 동인천역의 인천백화점 부근이 상권의 중심 지역이었고, 이후 1990년대 무렵부터는 부평 부근이 상권의 중심이었다 생각된다. 2000년 이후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엔 1997년에 생긴 인천신세계백화점을 중심으로 예술회관 인근이 상권의 중심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자본주의와 도시 발전의 과정 속에서 인천의 변화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아직 발전중인 송도신도시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짧은 시간동안 상권의 이동으로 인해 중심부가 뒤바뀌어버린 현상을 보게 되었는데, 수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오던 지역이 어느 순간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과거에 호황을 누렸던 곳으로만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는 현상을 보았다. 이는 잠재의식 속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작품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서로 다른 가치의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는 호황을 누렸던 지역의 이동과 그 이동을 통해 다시 생성되는 새로운 지역이 서로 공존하는 현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내가 인천이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었기에 가능하게 된 작업이라 생각된다.

물론 인천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손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인천은 한국의 중심도시인 서울이 급격하게 발전하며 그 인근에서 공업화의 과정을 보다 뚜렷하게 겪었을 것이다. 또 인천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도권내에서 과거 한국 관문으로서의 명성을 찾기 위해 발전의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상반된 가치의 대립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치열한 문제의식은 인천의 작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학력

1984 서울출생
2003 인천예술고등학교 졸업
2009 국민대학교 회화과 졸업
2012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회화전공 졸업예정

개인전

2011 Ambivalence, 갤러리 DOS, 서울

주요 단체전

2011 Love Kookmin65, 국민아트갤러리, 서울
Revo Korea, 두산아트스퀘어, 서울
D'ATE PARTY, Caffe D'ate, 서울
CRMGYKB(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전), 국민아트갤러리, 서울
Modern Times, 인천 신세계백화점 내 윈도우 갤러리, 인천
2010 ILhyun Travel Grant, 일현미술관, 양양
Ambivalence, 국민아트갤러리, 서울
2009 ASYAFF(We meet the future), 구 기무사, 서울
2008 ASYAFF(When we first meet), 구 서울역사, 서울
Marathoner's High(개인전 프로젝트), 국민아트갤러리, 서울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졸업전시회(Dusty Answer), 국민대학교 예술관, 서울
2007 Link II, 국민대학교 예술관, 서울

수상

D'ATEPARTY 2011, D'ATE 상
2011 인천문화재단 정기공모 2차 기금

작품소장 국민대학교(서울), 알펜시아 리조트(평창)

웁쓰양 Woopsyang

신생아 유기한 20대 부모 검거 oil on canvas_175X150cm_2011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한가?
내 작업은 그런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산후 우울증 앓던 주부(32세) 이모씨, 아파트 옥상에서 아이 떨어뜨려 oil on canvas_60.5x91cm_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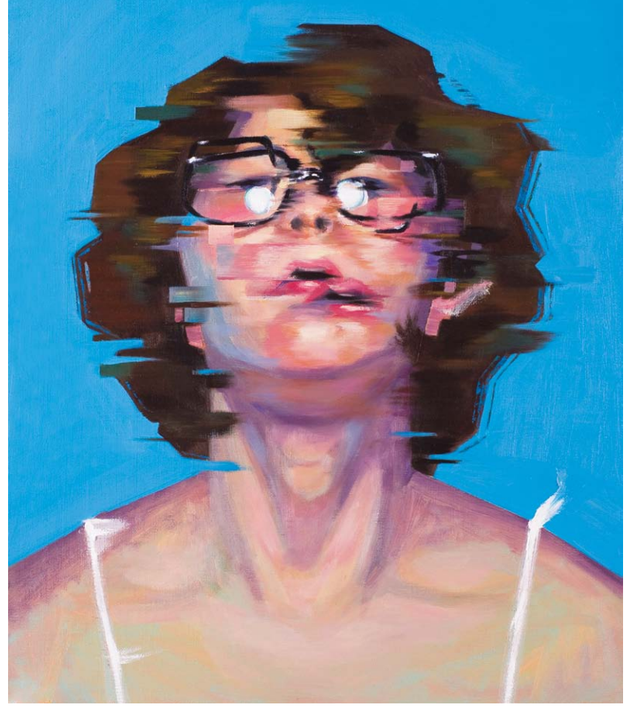
welcome to my world oil on canvas_90.9x72.7cm_2008

welcome to my world oil on canvas_90.9x72.7cm_2008

오랜 직장생활 속에서 방황하던 20대에 오로지 가슴에 흔들리지 않고 품고있던 꿈하나. 그곳에 닿기위해 발버둥치며 서툴고 거칠었던 시간을 보낸 그 날들은 결국 다시 작가의 꿈에 들어선 내게 견고한 자양분이 되었다.

2007년도 FLAH시리즈들은 개인적인 치유와 돌아봄의 연작들이다. 얼굴에 강하게 쏘아지는 불빛들은 피할 수 없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현실과 같다. 그리고 그 빛에 눈을 감거나 혹은 노려보는 행위는 각각 도피와 맞대응이다.

Evolution II acrylic on canvas_115x95cm_2009



신인류 oil on canvas_40x50cm_2011

학력

1997 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
1994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개인전

2009 EVOLUTION, 비주얼 아트센터 보다, 서울

주요 단체전

2011 검소의 미학_아페르토(aperto), 가일미술관, 경기
2009 서교난장, KT&G상상마당, 서울
서교육십, KT&G상상마당, 서울
영아티스트 발굴전, 갤러리각, 서울
2008 I WANT,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NEW WAVE, 갤러리 요기가, 서울
2007 꿈의 기록, 카페 VW, 서울
오늘도 안녕, 카페 무대륙, 서울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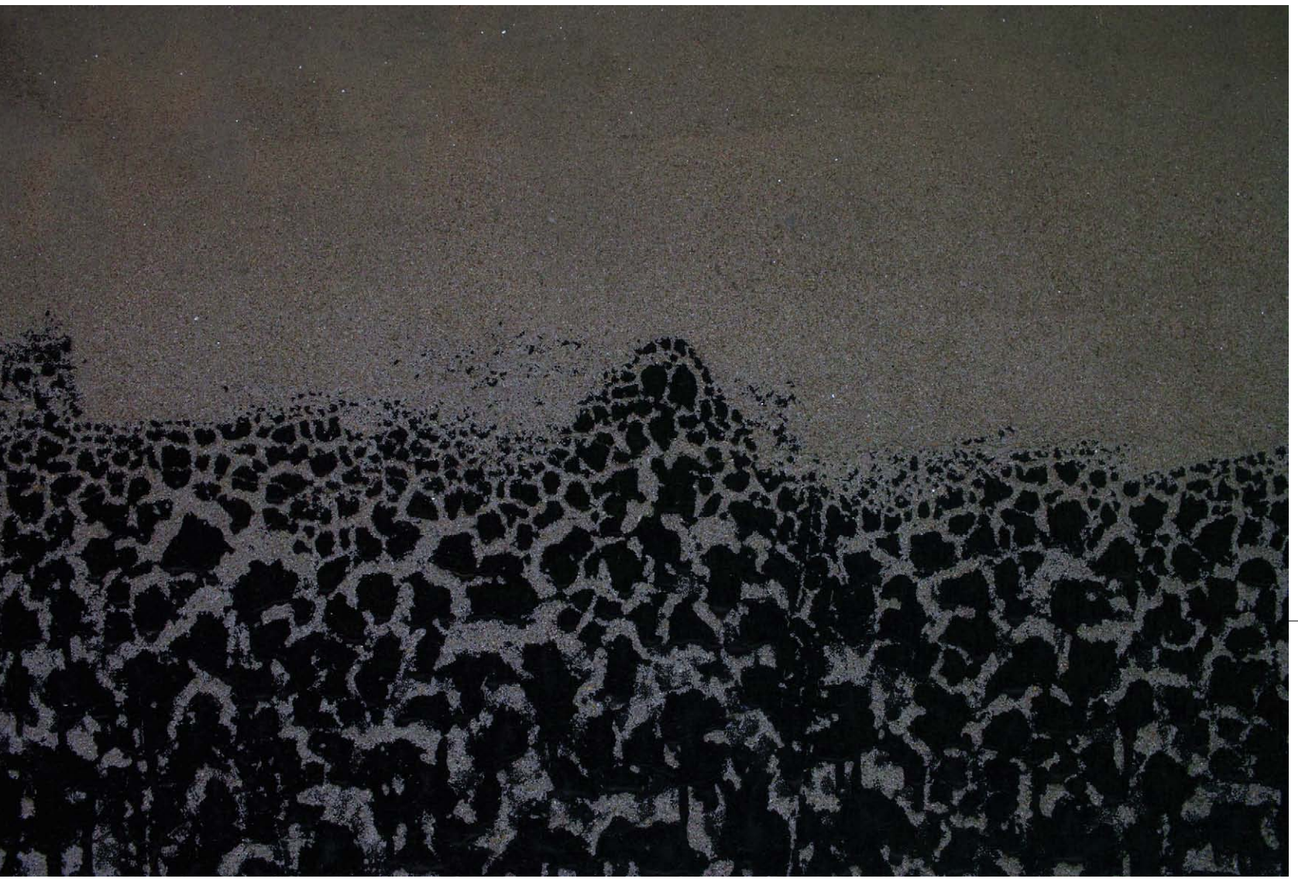
2010 옵쓰양, 거리노점 영화관 습격사건, ATU 닷라인, KT&G상상마당 시네마, 서울
고등어를 사려다 그림을 사다, 재래시장 노점 퍼포먼스, 인천 부평 재래시장 내
"환장" 그림노점, 재래시장 노점 퍼포먼스, 인천 부평 재래시장 내
2007 지구도 숨쉬게 해주세요, 환경 퍼포먼스, 부평 역 일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내 회화에 대한 갈증이 있던 나는 틈틈히 드로잉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며 시간을 보냈었다. 그렇게 꿈을 키우던 중, 2005년 한겨레 SI 일러스트레이션 스쿨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페인팅을 접하게 되었다. 다소 늦은 나이였지만 꿈을 찾아나섰고, 몇년 뒤 KT&G상상마당의 서교육십展–한명의 평론가가 1명의 작가를 추천하는 기획전–에 '반이정 미술평론가가 주목하는 작가'로서 참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오면서 점차 나의 목소리와 색깔을 찾아가는 중이다.
페인팅 이 외에 몇몇의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 해왔다. 그 중 〈고등어를 사려다 그림을 사다〉라는 프로젝트는 대도시 여타 지역에 비해 갤러리 수가 부족한 인천에서, 더 많은 대중이 예술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작업이었다. 인천 부평재래시장에서 펼쳤던 이 재래시장 노점 퍼포먼스를 통해 갤러리의 벽이 높게 느껴지는 대중들에 미술작품이 더 가깝고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고싶었다. 이후 상상마당 시네마(ATU 닷라인 주최)에서 노점 재현 퍼포먼스를 통해 새로운 관심을 끌어내 좋은 평을 받았다. 비록 제도권 밖이었지만, 꾸준히 대중과의 커뮤니티를 실천해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인천을 중심으로 기타 지역에까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유광식 YOO Gwang Sig

십정(十井) 마을 archival pigment print_31.5×47.5cm_2010

place_face(인천항) archival pigment print_20.4×29.1cm_2011



place_face(북성동) archival pigment print_20.4×29.1cm_2011

십정(十井) 마을 나와 삶의 공간을 좁히려 했다. 이로부터 시작된 인터뷰 작업은 지난 2007~9년 '마음의 지도'에서 진행한 인터뷰 경험을 빌어 2010년 인천 부평(십정동)을 시작으로 채록을 지속하고 있다.

place_face(인천항) 2011년, 인천아트플렛폼을 기반으로 중구지역을 산책하고 있다. 긴 매립의 역사와 더불어 인천항 주변은 여러 이야기가 산재해 있는데 매일의 산책으로 채집을 한다. 변화와 그 변화에 앞선 역사, 나, 앞으로의 상상이 가로와 세로로 엮여 인천의 다양성을 새롭게 짠다. 누구든 이주의 삶을 버릴 수 없듯 그 흐름의 역동을 알고 이해, 행위하는 부분이야말로 생활을 전제로 하는 작품의식, 태도로 정돈하고 있다.

place_face(북성동) 개항 이후 '인천'을 켜켜히 쌓은 정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시선은 문제로 다가오고 지나면서 마주한 '단면'이 인터뷰 시리즈와 더불어 일정 정도 답으로 이해되고 있다. 작품은 대략 갈라짐, 벗겨짐, 파식, 흘러내림, 뜯김, 덧칠, 변형, 물배임, 이끼, 온도차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오랜 삶의 구조형상이다. 아직 짠물이 빠지지 않은 부평 십정동, 중구, 동구, 남구 지역에 관심을 두며 산책을 지속한다.

〈오른쪽 방향으로〉

place-face(이작도, 계남분교), place-face(숭의동), place-face(해안동), place-face(선린동) Digital Inkjet Print_33.5x50.3 cm_2011

학력

1977 전북 완주 출생
2003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2011 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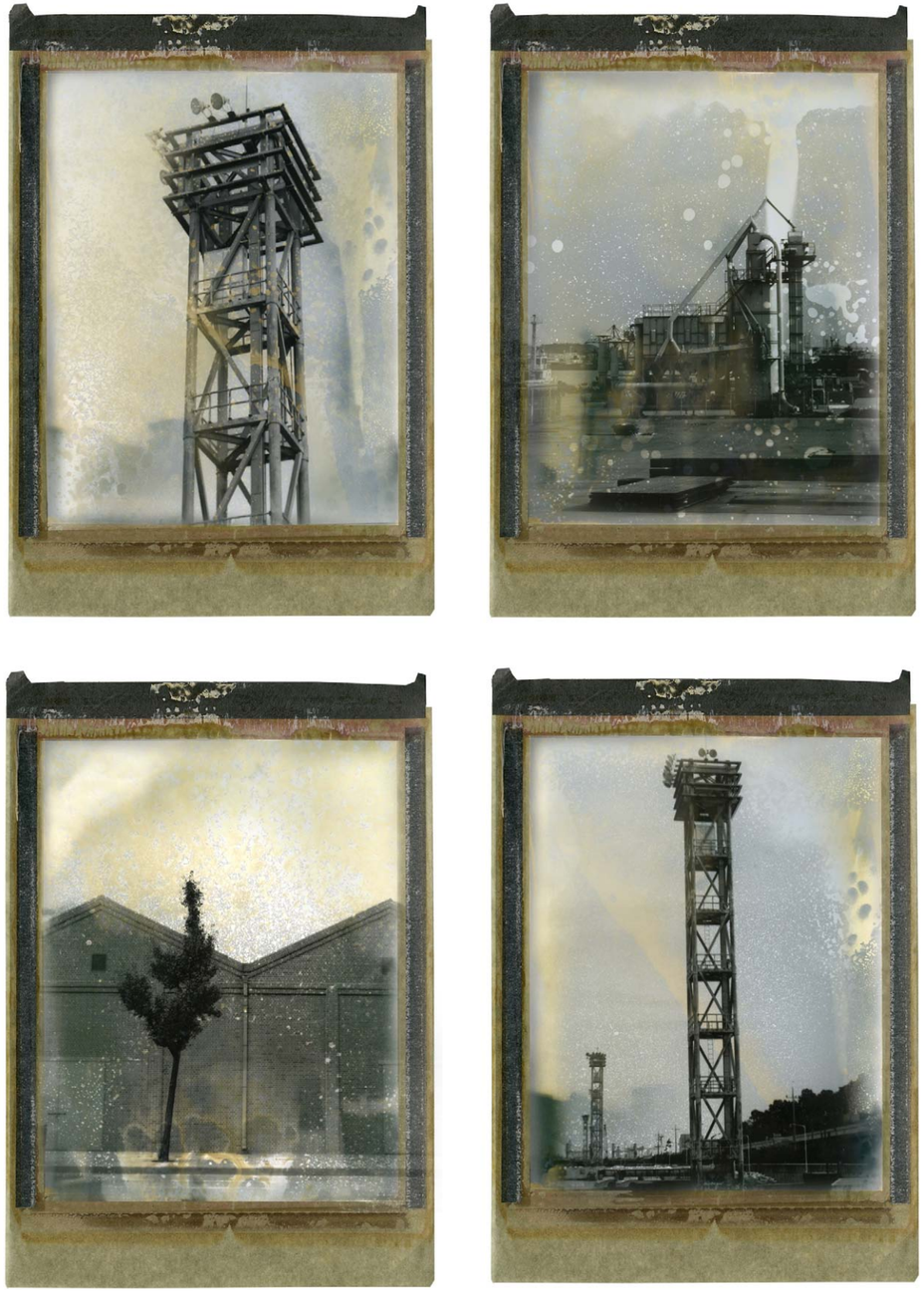
주요 전시 및 프로젝트

2011 플랫폼페스티벌,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 일상의 연필 Ⅰ, 갤러리FOX, 인천
5·18민중항쟁 30주년, 금호갤러리, 광주
2009~11 열우물 프로젝트, 십정1동, 인천
2009~10 황해미술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2009~10 노동미술굿, 인천
2007~09 마음의 지도 프로젝트, 서울/인천/제주/전주
2007 인권찾기미술행동 프로젝트, Happy&Nice, 인천

임의 규정한 '젊다'는 의미로서도 그렇지만 창작의 고민과 표현을 우선순위로 세웠던 처음의 '젊음'이 있습니다. 그 젊음을 이고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이 이주 위치한 인천! 지금이야 내 삶을 보듬어 주는 주요한 이미지(IMAGE)입니다.
으레 기분이 드는 '부유'의 슬프고도 화려한 흐름은 다각적인 영역으로 분배되어 어느 한 길을 찾는 모험을 만드는데, 호흡이 주는 의식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을 이유로 인천 곳곳을 헤매이는 도시산책을 하며 '지금여기'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역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 두고 산책하는 터 중심의 소란스런 일상일지언데 비록 돋보이진 않지만 의식을 깨우는 능동적 산책행위를 통해 현재 내가 당도하는 삶터의 모양을 증계, 도큐멘트화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슬프지만 뜬 구름 같은 가벼움마저 친구가 되는 가까이가 '인천'인가 싶습니다.

유목연 YOO Mok-yon

55type 55type polaroid_125X173cm_2011



Re-mode 1

게스트하우스, 페이퍼 마운트

실제와 사실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 그건 아마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실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나 사건을 사실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사진은 '실제'에 관한 것이다. 나는 항상 '사실'을 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카메라라는 기계자체는 실제를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지닌 정교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한다. 사진은 말보다 정직하고 글보다 직접적이라고 생각해왔다. 사진은 판단을 유보한 채 기록할 뿐이다. 내가 작업을 할 때 집착하는 것이 하나 있다. 미리 정해진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사를 담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는 포트레이트, 정물, 다큐멘터리, 풍경 그리고 추상적인 것까지 다양한 사진을 배치하여 어떠한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고 관람자로 하여금 에필로그를 이끌어내는 것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업이다. 전혀 관계가 없는 듯 한 사진들이 병렬처럼 흘뿌려져 있는 모습을 보며 멍해지기도 하겠지만 결국 수많은 궁금증을 안고 관람자 개개인이 느꼈던 데자뷰를 이끌어 내기도하는 것이 내 관심이고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다. 나 자신은 애초부터 대답할 생각은 없다. 작위적인 해석이나 의미의 부여도 경계 대상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간에 결국 관람자가 보고 생각하고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그 순간만큼은 각양각색의 사진들의 매직아이처럼 보이고 공통점을 찾는 순간도 생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직 한사람 보는 사람에게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론은 당신들이 생각해보라. 사진이 '사실'을 제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실'로 믿고 싶은 것만을 기억하는 것인가?

학력

1978 서울 출생
1997 안양예술고등학교 사진과 졸
2011 아르코 전문가성장 프로그램 수료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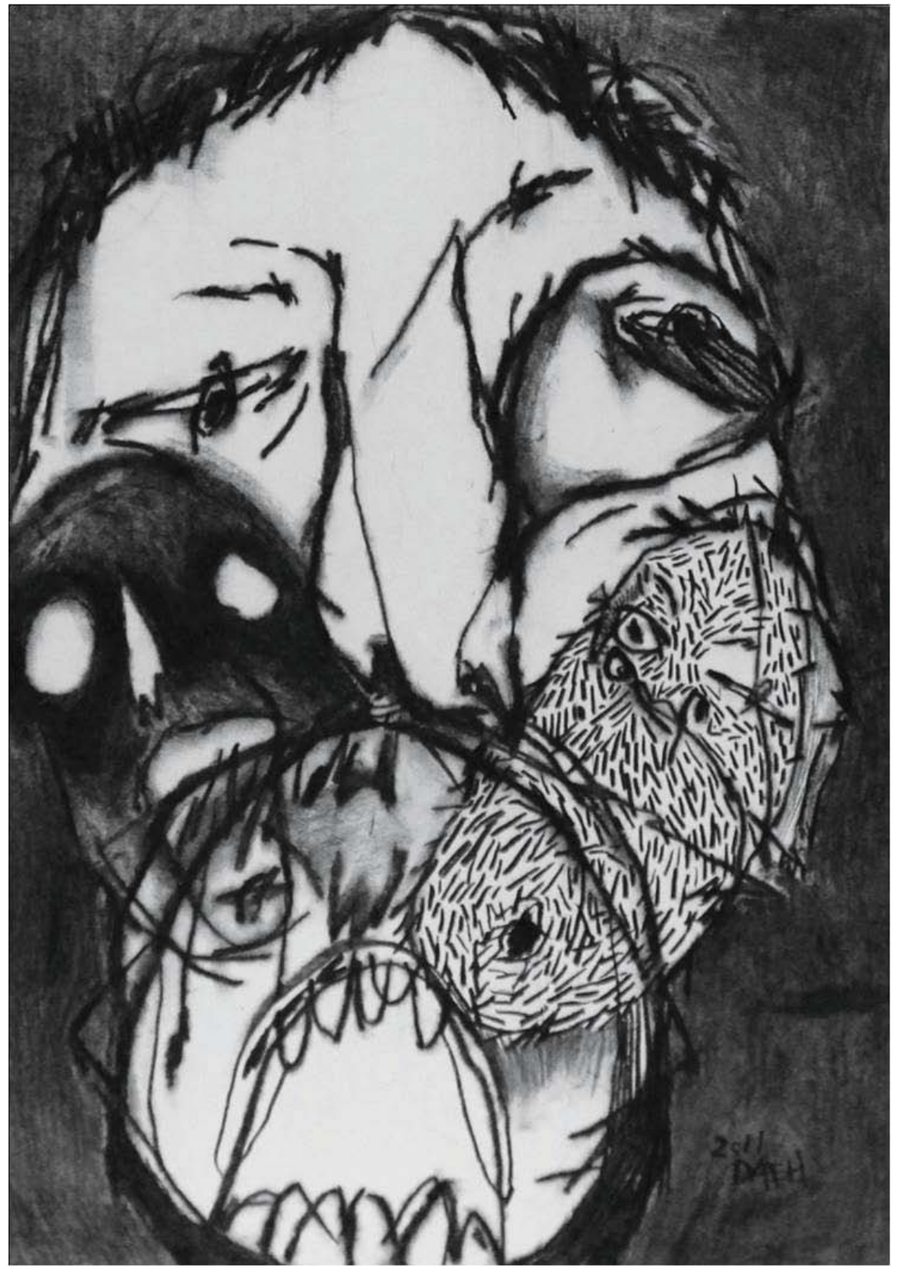
2011 overture2-photography, PKM갤러리 가회동, 서울
군산창작 여인숙 오픈전 창작 여인숙, 군산, 전남
About_books 독립출판물 전시, 상상마당 갤러리, 서울, 서교동
2009 wake-up, 스톤앤 워터, 경기 안양
통과의례09,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여집합 가이드, 스페이스 빔, 경기, 인천
39조(2)항, 선재아트센터, 서울
2008 듀얼 게임 프로젝트, 리트머스, 안산

나 자신을 불안정한 방랑자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나는 도시출신이다. 어렸을 때 도시 외곽에서 살았는데, 이런 경험은 나에게 깊은 영향을 기친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런 목격자도 없는 비밀의 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했다. 도시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변했다고 생각했다. 이 사실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도시와 외곽의 경계에서 언제나 갈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도시 외곽을 아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다.

안양에 위치한 예술 고등학교에서 사진교육을 받았다. 일반 고등학교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좋은 환경에서 자유로이 공부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각자의 개성, 소질을 잘살려주는 교육으로 기억된다. 사진 교육을 받으며 사진이라는 매체는 내가 채집한 이미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나에게 사진은 새로운 것을, 그리고 만들지 않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채집하는데 접합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윤대희 YOON Dae Hee

숨길 수 없는 것 conte, charcoal on paper_145.5X112.1cm_2011



할 수 있는 말 conte, charcoal on paper_90.9X72.7cm_2011

HACTUS conte, charcoal_100.9x39.4(x3)cm_2010

숨길 수 없는 것 72.7x60.6cm_conte, charcoal on paper_2011

나의 작업은 인간의 얼굴을 표현한다. 선으로 빠르게 그어 드로잉으로 표현을 하기도하고, 유화의 두께감과 뭉클함을 이해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된 얼굴은 뚜렷하게 무엇을 가리키지 않는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어떤 인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 느끼는 감정들로 표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초상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얼굴 또한 언어의 한 종류이다. 사람의 인상만 보고도 어떠한 것을 상상하게 된다. 말 대신 전달력을 가진 또 다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말하는 양면성이라는 것도 겉으로 보이는 두 가지 언어가 동시에 보여 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불안한 결과를 생각하거나 있지도 않을 법한 상황을 생각한다. 완전한 것을 꿈꾸지만 불완전한 것들을 상상하기에 더 더욱 불완전한 존재가 된다. 본래의 느낀 모습과 느끼지 못한 모습들.. 나는 처음 느꼈던 이외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들을 얼굴로 표현한다. 어찌보면 이것은 망상에 불과한 그림일 뿐이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에 대한 일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남이 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남이 하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나의 작업들은 이런 의미에서 각자에게 오늘은 어떤 얼굴이었는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초기 작업은 나와 사람들, 한 사람과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심리인 양면성에 대해 표현해왔다. 'HACTUS'는 손(hand)과 선인장(cactus)의 합성어로 인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손이라고 봤을때 선물의 의미를 가진 선인장과 섞어 작품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작업해 왔다.

작업은 주로 종이 위에 콘테, 목탄을 사용해 드로잉 위주의 작업을 하고 있다. 종이는 캔트지, 판화지, 장지등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사용해 작업하고 있다.

들여다보다 展 헤원갤러리 전시 전경

학력

1985 서울 출생

2012 시립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서양화과 졸업예정

활동경력

2011 낙타4막 전, 대안공간 낙타사막, 인천

2010 들여다보다 전, 헤원갤러리, 인천

저는 현재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서양화과에 재학중입니다. 2012년에 졸업 예정이고, 졸업 후 동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될 시기에 이번 '인천 아트플랫폼 – 유어인천' 프로젝트는 저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 또한 좋은 기회를 얻어 전시를 하게 되고 작품에 대해 많은 고민과 조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작품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인간관계에서 느끼던 호기심들을 얼굴로 대신해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작품의 주요 소재가 얼굴인 만큼 작품이 관람자와 만나는 지점 또는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이 되도록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윤종필 YOON Jong Pil

신기루를 찾아서 1 단채널 비디오 영상 및 아카이브 설치_ 5분 7초 _2011

신기루를 찾아서 2 단채널 비디오 영상 및 아카이브 설치_15분 48초 _2011

이 작업은 '실체와 비실체 그리고 욕망'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다. 원래 없었던 땅, 실체가 없었던 장소, 인천이 아니었던 그 곳,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실체가 생기고 급기야 인천의 지명을 획득한 그 곳이 바로 송도국제신도시이다. 신도시로 불리지만 아직은 도시로써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보이지 않는 인간의 욕망들이 아지랑이처럼 강하게 꿈틀댄다. 아직까지 도시가 제 기능을 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욕망들이 송도국제신도시를 지탱하고 추동하는지도 모른다. 곳곳에 육중한 빌딩들이 들어서서 빌딩숲을 이루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이 풍경은 마치 뿌연 안개에 가려진 신기루같다.

〈신기루를 찾아서〉는 두 개의 단채널 비디오 영상 작업과 아카이브로 구성된다. 〈신기루를 찾아서 1〉은 현재 한창 개발 중인 풍경들을 촬영하고, 이를 빠른 점프 컷 편집으로 몽타주(montage)하는 방식이다. 이미 실체를 드러낸 것들과 실제 하는 듯 하지만 아직은 실체가 없는(소문만 무성한) 것들에 대한 추적으로 실체와 비실체 사이 허위적인 간극을 보여준다. 〈신기루를 찾아서 2〉는 마지막 개발지인 갯벌 송도 11공구에 대한 인터뷰다. 송도 11공구는 매립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아 환경 보존 이슈에만 간혹 등장할 뿐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오히려 주변(고잔, 소래, 오이도) 주민들의 시니컬한 인터뷰에서 정책에 대한 비판과 신도시 개발 그리고 보상을 둘러싼 욕망을 확인한다. 아카이브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수집한 자료들로, 갯벌의 매립으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과 약정서, 채취활동을 위한 갯벌 출입증 등이다.

본인은 1976년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인천에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마치며 성장하였다. 대학교육은 계원디자인예술대학(前 계원조형예술대학)에서 전문학사과정을 졸업하였고, 프랑스 그르노블예술대학과 떼티엔느 예술대학에서 국가 조형예술학위(학사)와 국가 최고표현예술학위(석사)과정을 마쳤다.

2005년에 귀국하여 현장(로컬리티)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아트와 소통으로서의 미디어아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로서의 활동과 문화예술교육 강의 및 대학 강의를 현재까지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예술에 대한 필요성으로부터 공공미술 및 다원예술 기획, 다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에도 전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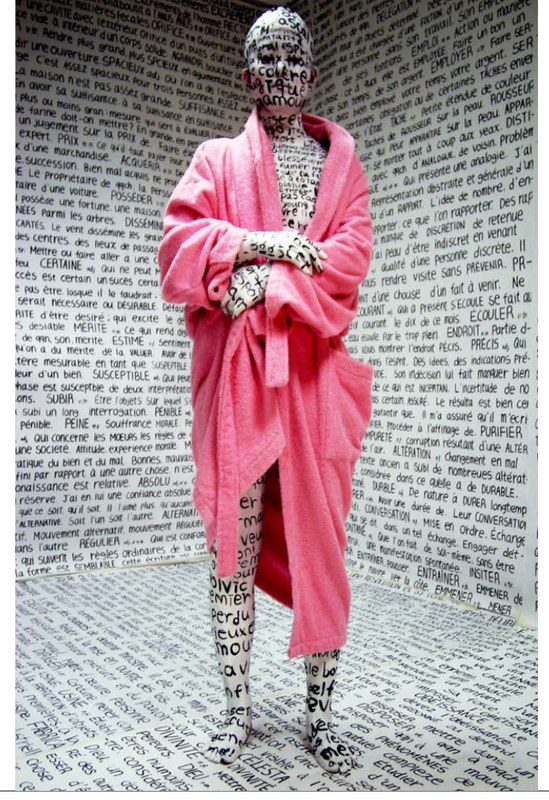
1995학년도부터 98학년도까지 한국에서 공부할 당시 회화와 사진, 판화 등 평면작업에 집중하였다. 당시는 이미 모더니즘계열의 예술과 민중미술 등 정치적으로 예술적으로 혼돈스러운 전환기적 상황은 지나가고 다양한 발상기법 그리고 시각적 표현의 자유로움과 새로운 시각 언어를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공부와 경험으로 인해 자신만의 언어를 찾고 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느끼던 중 프랑스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프랑스 유학을 하면서 틈틈이 다닌 유럽 각국의 여행을 통해 다양한 동시대의 문화예술을 보고 접하고 느끼며 공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한 문화충격은 결국 닫힌 자아와 예술에 대한 해체 욕구로 이어져 작업실 안에서의 작업을 고집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 유학 당시, 여럿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형 작업을 시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8년에 걸친 프랑스 유학에서 나는, 예술에 관한 고정관념들을 버림과 아울러 일상과 삶, 나아가서는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예술을 창발(emerging)시킬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예술로 조직화하는지를 탁월한 예술가들과 교육시스템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었다.

프랑스 그르노블예술대학 교육과정과 쌩떼티엔느예술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구분이 아닌 문화의 발생과 해석에 대한 태도들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생활인으로서 만난 프랑스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 기저에 형성된 합리적 세계관, 그들의 똘레랑스의 소중함을 우선하는 가치관과 자유로움, 공동체 의식 등은 새로운 예술관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2005년 귀국 당시 마침 한국에는 공공미술프로젝트와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석수시장프로젝트(안양), 갖고싶은프로젝트(안양 인덕원), 퍼블릭 스튜디오(인천), 홍예문공공미술프로젝트(인천), 인덕원프로젝트(안양 인덕원), 조동모서 프로젝트(경기 화성), Nacl 프로젝트(인천), 마을미술프로젝트 "Art+Dream+Space 부평", 동네예술가프로젝트, 오방색 옴니버스 프로젝트 등 여러 공공미술프로젝트 및 다원예술프로젝트에 참여 및 기획하였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에 참여하였다. 이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에서 진행하였던 프로젝트형 작업들과 연장된 개념을 갖는다. 작가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삶과 예술, 작품과 물체, 현존과 부재, 존재와 가치, 사유와 기억과 같은 근대주의 이분법적 사유의 해체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은 작품의 존재론적 의미나 저자의 권위가 사라지는 대신 작품의 과정성에 주목하는 작업들이다. 즉 예술은 더 이상 작가가 완성하는 고유한 표상물이라기보다는 삶의 장애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예술의 단선적인 재역사화를 획책하는 음모들을 해체하는 비표상적, 비물질적 활동이어야 한다는 신념의 소산일 것이다. 나의 작업과정을 보면 예술작업은 미적 감각을 재생산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그것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하나의 기획이라는 생각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가 예술행위와 소통에 관한 것이다. 귀국 후의 예술과 교육활동들은 예술적 소내(疎內)를 통하여 그 빈자리에 지역 주민이나 학생과 같은 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즉 예술생산자와 소비자의 벽을 완화시킴으로써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프로젝트들 이다. 그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예술과 교육의 일치를 통하여 소비자를 생산자 차원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한 지역의 예술문화가 예술가의 전유물이기보다 지역 공동체의 생산물임을 인식시키는 첫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안양 스톤앤워터 교육예술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과 경기문화재단지원의 예술강사 연수사업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코디네이터하면서 위와 같은 예술에 대한 신념을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실천하면서 소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실무경험을 통해 안산의 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정책 사업인 '이주민 온누리안 문화체험' 사업(2007)을 총괄 기획 운영하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문화예술적 접근방법론을 통한 다문화콘텐츠 기획연구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연고지인 인천에 컬렉티브 커뮤니티 스튜디오525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문화예술활동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문화의 생성 과정, 지역문화라는 주제로 공공예술 및 다원예술에 작가로서의 활동과 문화예술교육 및 다문화콘텐츠 그리고 지역기반 공공문화예술 기획 및 수행 등 사회적 예술을 실현해 가는 사회적 예술가로써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직업으로 본 나는, 직관적인 예술가로서의 성향과 이성적인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는 예술 혹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과 연구에 적합하다고 한다. 실제로 전시기획과 교육기획, 연구를 하면서 작업실에서의 개인작업보다는 팀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공동체적 일에 성취감을 느낀다. 또한 새롭거나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새롭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행하는 데서도 큰 기쁨을 느낀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일종의 비규정적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터득한 것은 빛나는 재능보다는 일관성 있는 신념과 그 신념을 꾸준히 실천하는 수행적 태도의 중요성이다. 앞으로도 예술에 대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예술문화발전을 위한 받침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이다.



Taxpace 시리즈 Photography_2005

학력

1976 서울 출생
1997 계원디자인예술대학(KSAD, 前 계원조형예술대학) 매체예술과 졸업
2002 L'Ecole Supérieure d'Art de Grenoble (ESAG) [그르노블, 프랑스]
취득학위 : 국가 조형 예술학위 (DNAP) / 학사– Option Art
2005 L'Ecole Régionale des Beaux Arts de Saint–Etienne [쌩떼티엔느, 프랑스]
취득학위 : 국가 최고 표현 예술학위 (DNSEP) / 석사– Option Art

개인전 및 2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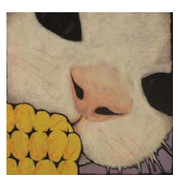
2001 Pink Art Project – Ne pas toucher, S.V.P., Exhibition, Performance–Fashion Show & Slide Show, ESAG Art Gallery, 프랑스
2002 iM Art Project, ESAG, 프랑스
2009 지구촌갤러리 초대전–김성수&윤종필 2인전_ensemble, 지구촌갤러리, 서울
동네문화를 재생하는 예술가_동네예술가프로젝트, 인천 부평구 십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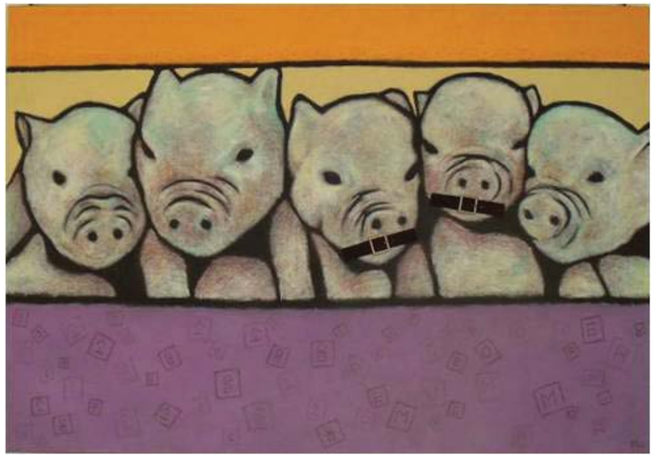
주요 단체전

2011 그 곳에 내가 있었다, 부평아트센터, 인천
2010 부평아트센터 개관전시_나의 살던 동네,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인천
유령 the invisible, platform slowrush,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시민주체 2010 문화의달 – A4展, 아트 스페이스 알렙, 목포
2009 City–Ray 도시의 속살, 스페이스 빔, 인천
로띠 위에 한국식 카레밥; 리트머스 국제 레지던스 결과보고전, 리트머스, 안산
2008 서로 읽기, 양산 배내골 마을박물관/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리트머스 테라피–자가회복(自家回復), 리트머스, 안산
2007 문지문화원 '사이' 개관 공연/전시–사이 '굿', 문지문화원 사이
Art in City 경기 안양_인덕원 프로젝트, 문화관광부/공공미술추진위원회/AEC비빗펌
2006 석수시장프로젝트_가가호호,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석수시장, 안양
都市遊牧–Good 'buy Incheon', 인천종합예술회관, 인천
CID 2006 설치작업전_의.사.소.통, 대학로 우리극장, 서울
남성미술비웃날레–게릴라 퍼포먼스, 스페이스 빔, 인천
[AFI 2006]Public Moment–Public Studio, 스페이스 빔, AFI 조직위원회
갖고 싶은 프로젝트_Chez Elaine Collection DDM Fashion Show기획/진행, 인덕원

이미현 LEE Mihyeon

2011년–나의 이야기
캔버스 위에 아크릴, 혼합재료
116.8x91cm, 116.8x91cm, 90.9x72.7cm
2011





소음 캔버스 위에 아크릴, 편화_100x80cm _2010

2011년은 저에게 너무도 괴롭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2010년 11월. 3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회에 발을 디디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짧다고 생각했던 유학생활이 긴 시간이 지남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나와 같이 공부를 마친 친구들이나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 사람들 역시 그 같은 시간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의 기억들. 2011년이 지나가는 이 시기에 젊은 작가의 한 사람으로써 사회의 '발디딤'을 그려보려 했습니다.

제목은 '나의 이야기'이지만 누구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꼭 예술계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써의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 한국에 오기 전 들뜨면서도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던 순간의 기억입니다. 일은 어떻게 구하지, 뭐부터 해야 할까 등등 구체적인 방향도 잡아보고 걱정은 됐지만 딱히 고민도 아닌, 기대감에 차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순진한 얼굴의 고양이는 숨어는 있지만 마치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아래의 고양이가 바라보는 세계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풍선에 날아가는 생선인지, 풍선 위에 떠다니는 다른 고양이인지, 아니면 풍선 자체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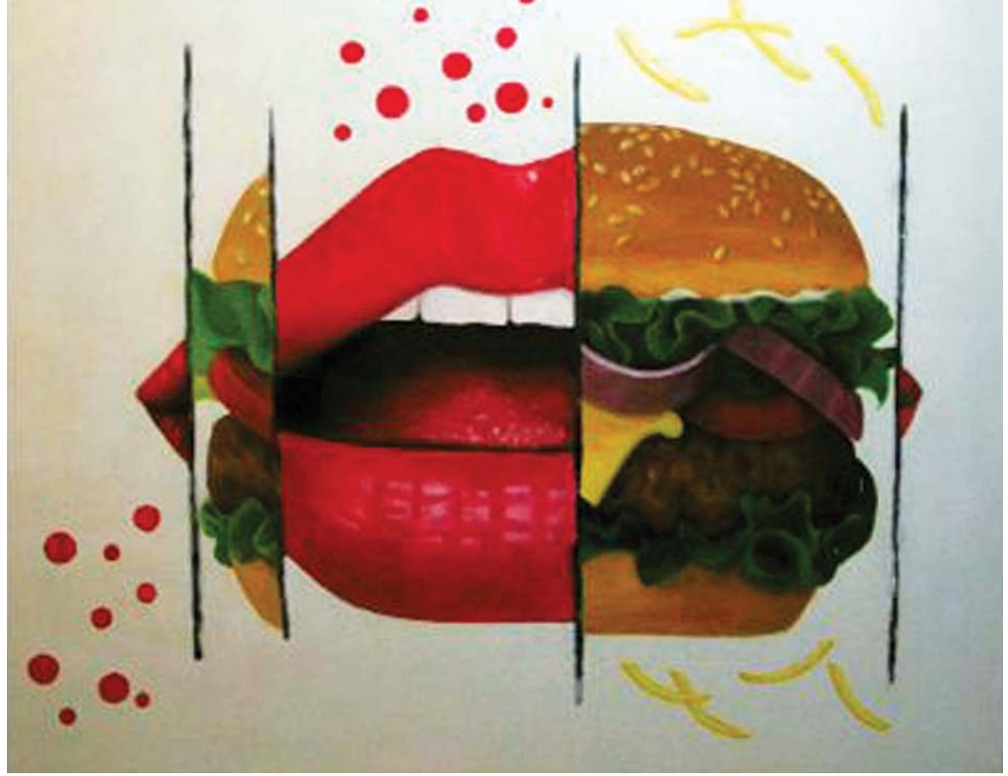
– 기대감에 차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놀란 나머지 주저 앉아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얼굴이지만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전에 있던 고양이의 도도함이라곤 사라지고 펑퍼짐한 몸매의 잡종개가 되어갑니다.

; 그 고양이 위로 비가 오지 않는데도 우산을 펼친 고양이도 있고, 비가 오는데도 그냥 맞고 있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일까. 이리 치리고 저리 치여서 기댈 곳이 없습니다.

– 고급스럽고 도도한 고양이는 어디 가고 한 마리의 잡종개가 앉아 있습니다. 무척 겁을 먹어 웅크리며 상대방을 주시합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물러서려 하는 건지 다가가려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 아래의 강아지들은 이불을 뒤집어 써 버립니다. 아무 것도 보지 않는 편이 훨씬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야 완벽한 성과물이 탄생하진 않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공감하고 싶었고, 이 관계의 반복을 거쳐 무서울 것 없이 나아가는 뒷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씩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나 또한 그런 시기를 거쳤다. 작가로 가는 길이 어려운 건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그래도 도전하고픈 꿈 많은 나를 향해 자기들만의 방식을 밀어붙이려 했다. 그 길이 아니라며 다른 길을 알려주었다. 나에겐 그 모든 것이 소음으로만 들렸다. 모든 것이 소음으로 들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돼지의 울음소리일 뿐인 것이다. 내 작업의 대부분이 그렇듯 이 작품 역시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전화통화를 할 때, 또는 불법으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면 가끔은 입에 지퍼를 채워버리고픈 상상을 해봤을 것이다. 그런 사소한 모든 것이 대입 가능한 작업을 하고 싶었고, 실제로 보는 이의 관점에서 작품의 해석은 달라지게 된다.



먹는 것과 습득하는 것 캔버스에 유채_100x80cm_2007

김춘수의 꽃 캔버스에 유채, 혼합재료_50x50cm_2007

무제 캔버스에 아크릴_50x60cm_2009

초기 작품활동 한국에서의 작품 활동이 이탈리아에서도 이어져 처음 회화에 관심이 생겼을 당시처럼 강하고 화려한 그림을 그려 나아갔습니다.
주로 입술을 이용하여 말하고, 먹고, 사랑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의 작품을 많이 그려왔고, 캔버스를 꿰매거나 잘라서 불에 그슬려 보는 등 실험적인 작품을 진행했습니다.

유학 중 작품활동 실험적 작업을 많이 진행하여, 2008년부터 자신만의 회화를 그리고자 했지만 늘 거부해왔던 일러스트적인 성향이 나타나 괴로워 하는 시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해 누드와 일러스트를 겸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작품활동 2009년 밀라노 아트 페어에서 속이 울렁거릴 정도의 잔혹한 그림을 보고 왜 점점 예술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색이 강할수록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나에 대해 고민을 하며, 저 스스로도 색이 강한 그림를 그리기 위해 억눌러 놓았던 일러스트적인 감성을 완벽히 되살려 귀엽게 세상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안에서의 동물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감추어왔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누구나가 개입 가능하고 보는 이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즉, 주제는 던져주되 이야기의 마무리는 관객들이 하게 되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학력

1984 인천 출생
2010 이탈리아 피렌체 국립미술원 서양화과 졸업
2010 이탈리아 피렌체 국립미술원 서양화 석사과정 입학 후 휴학

주요 전시

2011 미술로 보는 게임의 역사, 대구엑스포, 대구
Christmas art sistem, 교보문고, 서울
2010 제 1회 피렌체 국립미술원 동문전, 이탈리아 로마 한국 대사관, 로마, 이탈리아
libreria martelli 개인전, 피렌체, 이탈리아
2004 서울산업디자인 전람회 입선

지금까지 왜 예술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색이 강할수록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나에 대해 고민을 하며 서양화를 그리기 위해 억눌러 놓았던 일러스트적인 감성을 되살려 귀엽게 세상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안에서의 동물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감추어왔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누구나가 개입 가능하고 보는 이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즉, 주제는 던져주되 이야기의 마무리는 관객들이 하게 되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분야의 구분은 없다고, 제가 새로이 만들면 될 뿐이라고 생각하고, 명화가 상업화의 대표가 되듯이 저 또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기에 더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다는 약육강식의 예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일반 사람들에게 친근하고도 직설적이게 제 작품이 다가갈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예술의 사기다, 거짓이다 말하지만 작가 자신의 마인드 자체가 거짓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으며, 그 진실 또한 전해질 것이리라 믿기에 작업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제 작업 방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부드러움 속의 강함으로 이끌어 내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금까지보다 더 예술의 한쪽 구석에서 중심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상아 LEE Sang A

곳 장지에 먹, 아크릴_91x117cm_2009

곳 장지에 먹, 아크릴_91x144cm_2009

곳 장지에 먹, 아크릴_73x91cm_2009
곳 장지에 먹, 아크릴_73x91cm_2009

과거의 여러 기억을 떠올리면 그곳만의 특유의 분위기와 향, 그리고 색감들이 머릿속을 지나간다. 사소한 일상의 시시콜콜한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분위기는 각기 다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과거의 그곳을 추억하더라도 그곳의 분위기와 향, 그리고 색감은 언제나 제자리였다. 나의 과거의 기억이 깃들어있는 그곳을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느끼고 싶다.
'곳'은 이러한 나의 추억들이 깃들어있는 현재와 과거의 기억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다.

학력

1987 인천 출생
2006 인천예술고등학교 한국화과 졸업
2011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한국화과 졸업
현재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재학

활동경력

2010 작은 시작 큰 기쁨, 갤러리 각, 서울
유망신진작가展, 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 서울
2009 첫술, 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 서울
한국화 젊은 발언과 모색 展, 신세계갤러리, 인천

눈치를 본다. 어디서든 다른 이의 시선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어려서부터 '착한아이의 표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늘 행동거지가 바라아하고 누군가의 모범이 되기를 바랐다. 좋은 표본을 보이면 언제든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뽐내는 과정들에 기쁨을 느꼈다.
이것들은 분명 살아가는데 있어서 나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공존하고 있기에 생겨난 버릇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이제 나의 성격뿐만이 아닌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그들의 생각을 살피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스스로 에게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무엇을 시작하기에 앞서 생겨나는 막연함에 대한 두려움인줄로만 알았지만 이것들 또한 결국에는 다른 이들의 입맛에 내가 얼마나 맞을지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이다.

이상휘 LEE Sang Hwi

이번 2011년에 학부를 졸업한 이상휘는 자신의 길을 위한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는다. 이제 그는 대졸자들 대부분이 처한 현실을 대면해야 한다. 생계에 대한 나름의 계획을 세워가며 작업을 병행하고자하는 그의 복안들은 젊음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는 진취성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완전성을 즐기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여기서 보다 중요하게는 현실을 대하는 그의 태도일 텐데, 분명 그는 현실에서 받아들이는 일상적인 사회 안에서의 체제들을 자신의 체계로 재구성하여 풀어나가려는 의지를 보인다. “작가란 누구이며 작업이란 무엇인가’ 란 질문으로 오랜 세월을 고민한 작자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의지는 위의 질문에 대한 일례로 들수 있겠다.

그는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섭취하며 살아내는 듯하면서도 순간순간 예민한 촉수로 자신의 기준에서 자극적인 요소들의 샘플들을 채 취해 조형적 언어로 재구성한다. 그의 수집된 샘플들은 TV에서 정규방송 엔딩으로 방영되는 애국가의 다소 진부한 정형적 이미지들이나 명령을 주입하듯 반복하는 신호등, 창, 손 등과 같은 익숙한 - 너무나도 익숙해 그 존재 자체가 간과될 수 있는 - 것들이다. 그는 이 포획물들을 재발견하고 부각시켜 자신의 모티브로 삼는 과정을 ‘사냥’ 이라 표현한다. 어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게 하는 작가만의 노하우인 듯하다. 사실 익숙한 것들이 작가에게 완전히 외계의 것, 또는 정체를 모르는 집중관찰 대상으로 다가오는 순간은 작가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가진 자신이여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는 “ 사회체계나 규약들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싶다” 고 한다. 그 것을 위해 당연히 작가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작가가 만약 이 엄연한 자기모순을 발 빠르게 순응하여 좀 더 편한 심적 상태로 살아가려 했다면, 나는 그를 위해 이글을 쓸 만큼의 의욕을 갖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는 말한다. “그러나 의식으로 가능한”

작가는 자신의 관찰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환경을 설정하였다. ‘원시인의 눈으로 보기’ 가 그것이다. 원시인이 갑자기 현대에 출현해 경험하게 되는 세상은 분명 충격적이며 긴장되는 완전히 낯선 세계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대상을 다루는 방식도 마치 원시인이 사냥감을 다루는 방식과 흡사한데, 포커징 된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 포획하고 분해하며 분류하는 등…….

작가는 자신이 설정한 새로운 환경에서 신중한 고고학자가 표본을 조사하듯 포획물의 각 부위를 세밀하게 자신의 방식으로 기록한다.

아직은 그 과정이 완숙된 일관성으로 뚜렷하고 명확한 하나의 체계로 드러나기 보단, 오히려 좌충우돌하는 모험으로 보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더욱 거친 원시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원시인일지라도 능숙한 사냥꾼들은 자신만의 노하우로 독자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숙련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유한 체계는 발전되어야하는 필연성을 갖기에 그가 앞으로도 작업을 해야만 하는 타당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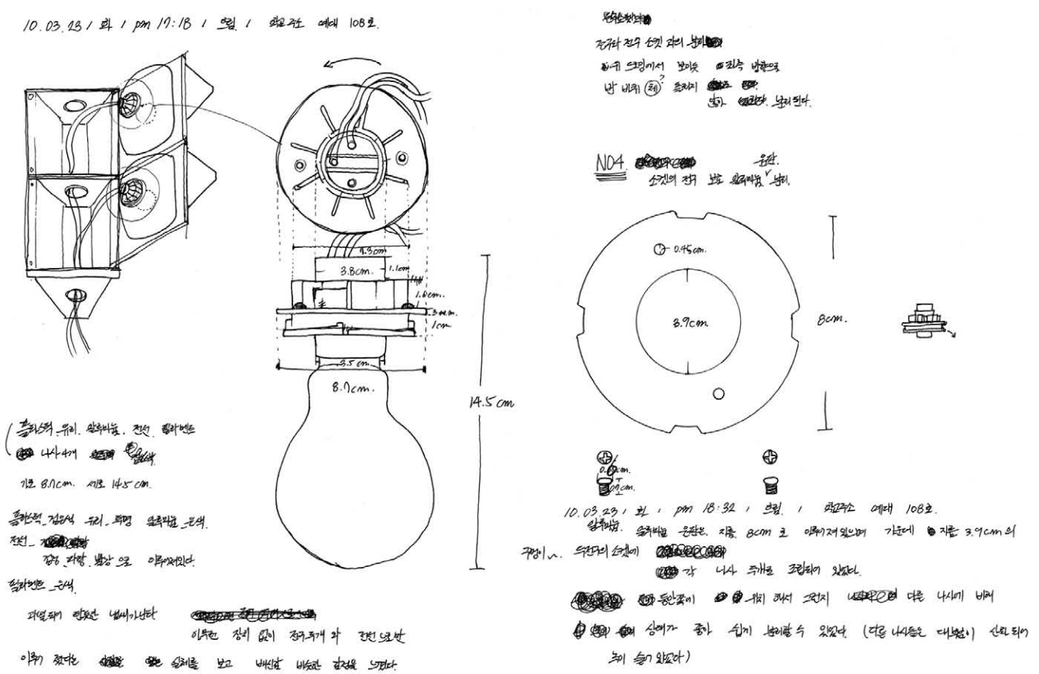
한편으로 그는 대상에게 침잠하면서도 대상이 자신에게 주는 영향까지를 고민하여 전달하고자 하는데, 신호등의 예와 같이 모두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회적 규약들과 애국가 영상에서 보이는 성공에 대한 메시지를 의미하는 행가래 등의 전형화된 이미지들을 그는 현사회가 개체에게 주는 일종에 신호로서 파악하고 그것들이 일방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원래의도 이면의 메커니즘들을 고민하고 분석하여 재구성한다.

이것은 결국 자신도 그 영향권(사회적 제도/제약/규범)에 속해 있음에 대한 자성의 반증으로, 큰 단위에 속해있는 한 개체로서 겪게 되는 모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이며, 하나의 제안인 “누구나 자신의 환경에 대해 능동적인 사냥꾼이 될수 있음” 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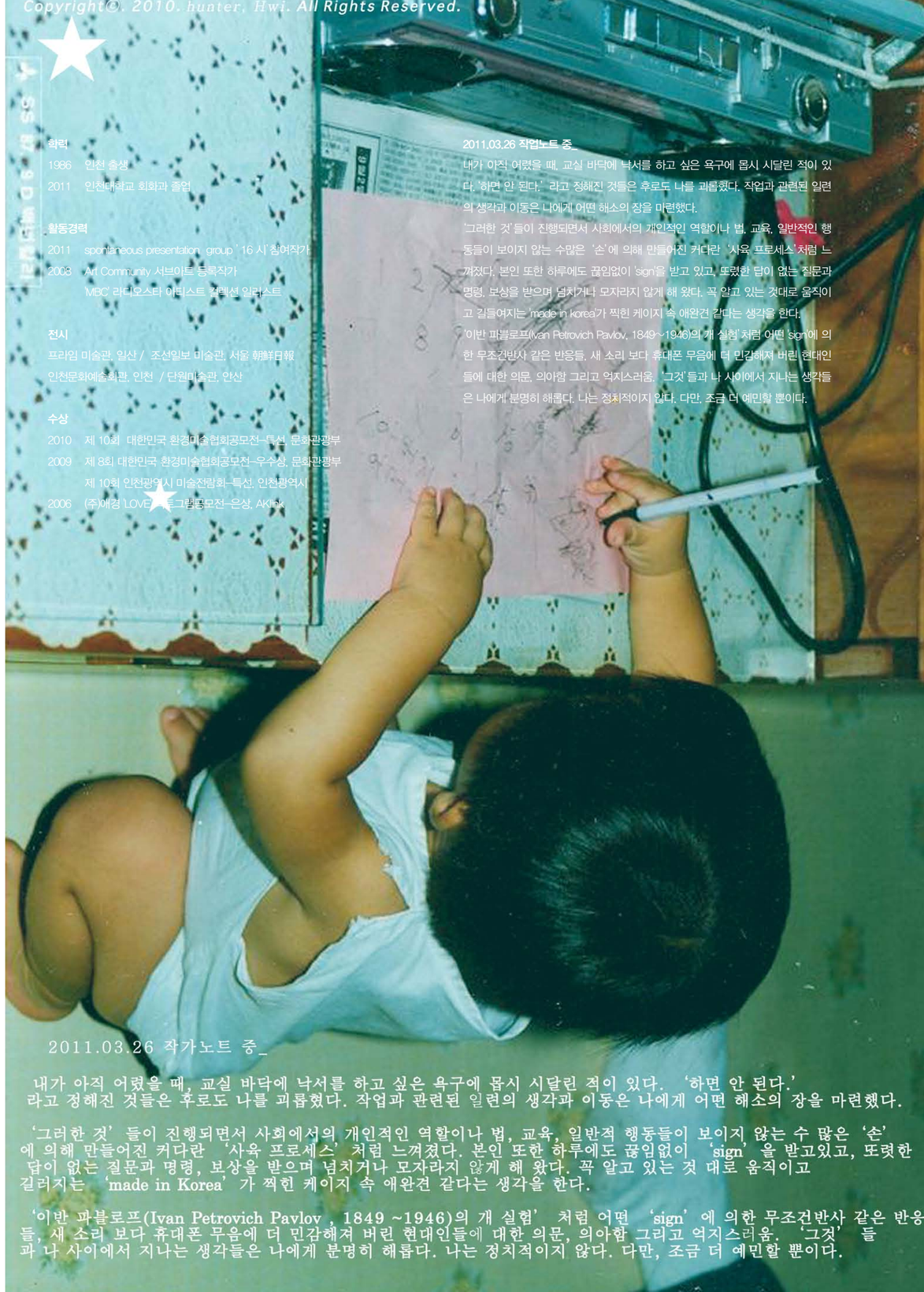
전달방식에서 그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독자적 방식이기에 타 분야와의 차별성에서 그의 시도들을 신뢰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위험할수도 있는 합법이나 적법성의 부분까지를 작업영역에 포함시키려는 작가의 의지는 관객입장으로 보기에 그 모험이 흥미롭고 때론 작가의 도전을 응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젊은 날에 있을 수 있는 한때의 치기로 드러날지는 앞으로의 작업의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그의 행보를 지켜보게 만드는 작가의 강점을 언급하고 싶다. 그가 졸업 전 한 학기 동안 나에게 보여준 흔치 않는 결과들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으며, 자신의 작업들에 대해 당당하게 주장하는 논점들은 명료하여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작가 스스로가 작업하는 행위를 진지하지만 즐겁게 임하고, 자신의 프로세스를 항상 점검하기를 반복하여 어떤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이것은 분명 능숙한 사냥꾼들이 갖는 확신과도 닮아 있다. 이런 전문가들에게 신뢰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2011.09.30 김태진

Hunting _No.001, 2010, traffic light, text, 35x70x50 cm



Copyright©. 2010. hunter, Hwi. All Rights Reserved.



학력

1986 인천 출생

2011 인천대학교 회화과 졸업

활동경력

2011 spontaneous presentation group '16 시' 참여작가

2008 Art Community 서브아트 등록작가

'MBC' 라디오스타 아티스트 컬렉션 일러스트

전시

프라임 미술관, 일산 /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朝鮮日報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 / 단원미술관, 안산

수상

2010 제 10회 대한민국 환경미술협회공모전-특선, 문화관광부

2009 제 8회 대한민국 환경미술협회공모전-우수상, 문화관광부

제 10회 인천광역시 미술전람회-특선, 인천광역시

2006 (주)애경 'LOVE' 스토그램공모전-은상, AKlink

2011.03.26 작업노트 중_

내가 아직 어렸을 때, 교실 바닥에 낙서를 하고 싶은 욕구에 몹시 시달린 적이 있다. '하면 안 된다.' 라고 정해진 것들은 후로도 나를 괴롭혔다. 작업과 관련된 일련의 생각과 이동은 나에게 어떤 해소의 장을 마련했다.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면서 사회에서의 개인적인 역할이나 법, 교육, 일반적인 행동들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에 의해 만들어진 커다란 '사육 프로세스'처럼 느껴졌다. 본인 또한 하루에도 끊임없이 'sign'을 받고 있고, 또렷한 답이 없는 질문과 명령, 보상을 받으며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해 왔다. 꼭 알고 있는 것대로 움직이고 길들여지는 'made in korea'가 찍힌 케이지 속 애완견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반 파블로프(Ivan Petrovich Pavlov, 1849~1946)의 개 실험'처럼 어떤 'sign'에 의한 무조건반사 같은 반응들, 새 소리 보다 휴대폰 무음에 더 민감해져 버린 현대인들에 대한 의문, 의아함 그리고 억지스러움. '그것'들과 나 사이에서 지나는 생각들은 나에게 분명히 해롭다. 나는 정치적이지 않다. 다만, 조금 더 예민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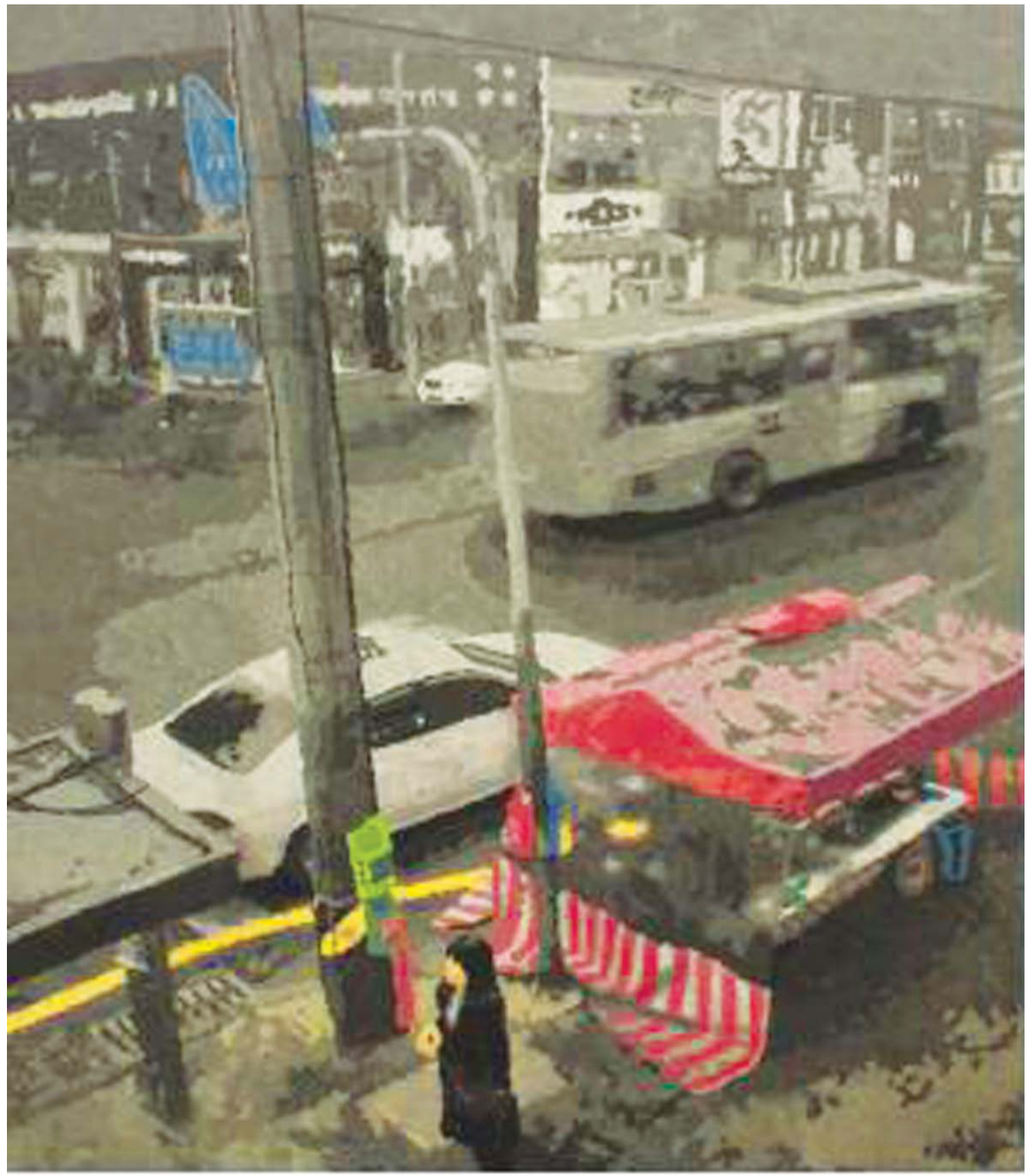
2011.03.26 작가노트 중_

내가 아직 어렸을 때, 교실 바닥에 낙서를 하고 싶은 욕구에 몹시 시달린 적이 있다. '하면 안 된다.' 라고 정해진 것들은 후로도 나를 괴롭혔다. 작업과 관련된 일련의 생각과 이동은 나에게 어떤 해소의 장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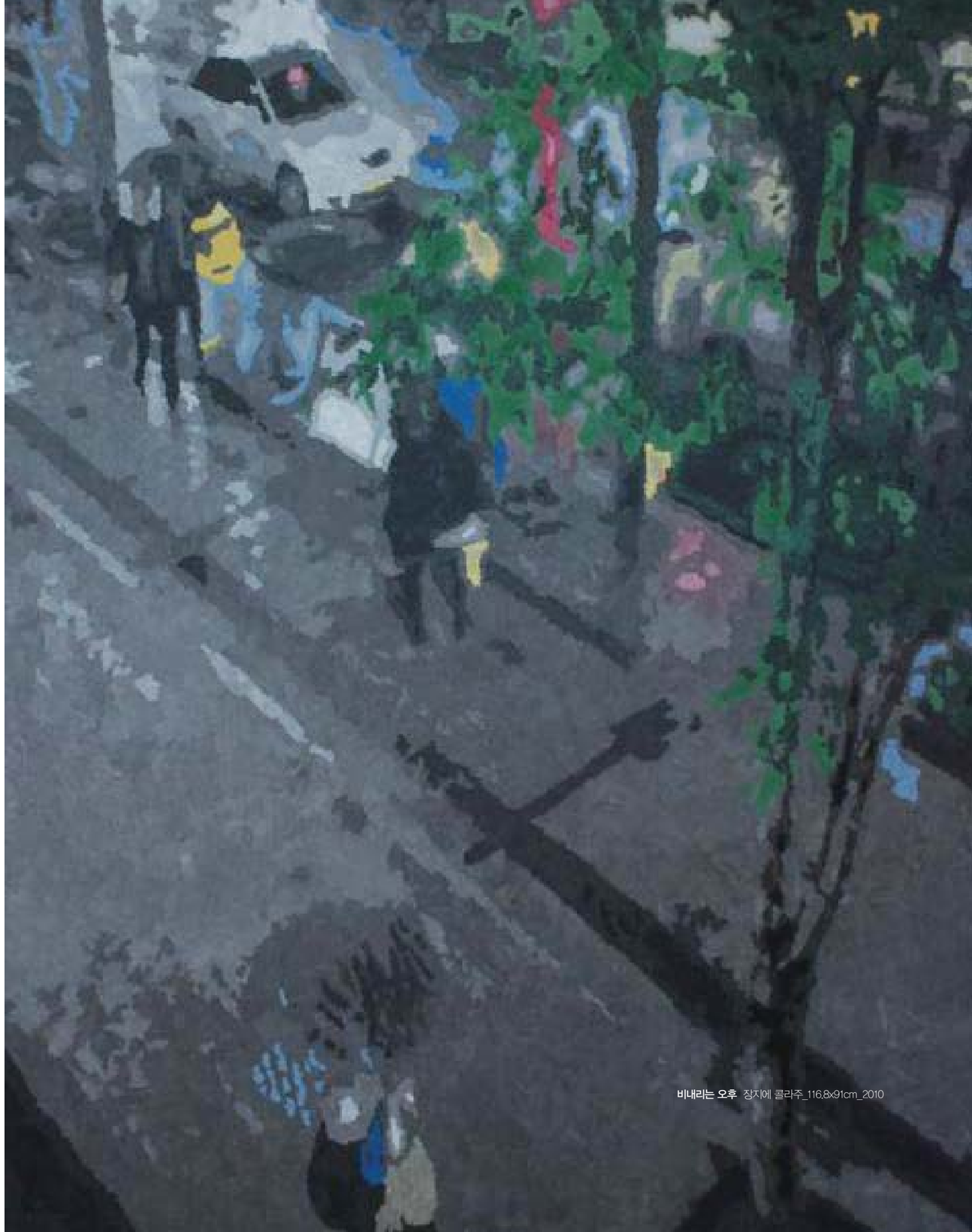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면서 사회에서의 개인적인 역할이나 법, 교육, 일반적 행동들이 보이지 않는 수 많은 '손'에 의해 만들어진 커다란 '사육 프로세스'처럼 느껴졌다. 본인 또한 하루에도 끊임없이 'sign'을 받고있고, 또렷한 답이 없는 질문과 명령, 보상을 받으며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해 왔다. 꼭 알고 있는 것 대로 움직이고 길러지는 'made in Korea'가 찍힌 케이지 속 애완견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반 파블로프(Ivan Petrovich Pavlov , 1849 ~1946)의 개 실험' 처럼 어떤 'sign'에 의한 무조건반사 같은 반응들, 새 소리 보다 휴대폰 무음에 더 민감해져 버린 현대인들에 대한 의문, 의아함 그리고 억지스러움. '그것' 들과 나 사이에서 지나는 생각들은 나에게 분명히 해롭다. 나는 정치적이지 않다. 다만, 조금 더 예민할 뿐이다.

이선미 LEE Sun Mi



거리에서 장지에 콜라주_145.5x112_2011



비내리는 오후 장지에 콜라주_116.8x91cm_2010

거리에서 장지에 꼴라주_73x91cm_2011

도시 공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생성, 발전, 쇠퇴, 소멸하는 순환 과정을 겪으면서 발전되어 왔다.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풍요롭게 했지만, 역설적으로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간소외 현상의 심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도시 공간의 사람들이 겪는 혼란과 갈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자 한다.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그가 속해 있는 시대를 대변해 왔으며 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자연관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왔다. 예술 그 자체는 외적인 이미지에 대한 내적 감정의 표출로 예술작품이 창작되며 시대적 사회성과 하나의 연결된 구조를 형성한다. 나 역시 현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으로서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을 반영하여 삭막한도시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복잡한 도시의 거리와 소외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작업의 소재로 삼고 잃어가는 정체성을 찾아보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과학 기술과 산업의 발달은 인류에게 생활의 편리함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고도로 기계화된 산업 사회 체제는 많은 문제를 안겨다 주었다. 과학 기술에 의한 인간 지배,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생명 경시 풍조 등 다양한 문제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산업 사회 속에서 인간이 자아를 상실하고 점점 파편화되며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상황은 인간의 삶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인간 소외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우선 사회조직의 거대화와 관료화를 들 수 있다. 산업사회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거대하고 치밀한 조직을 요구한다. 현대인은 거대한 조직 속에서 부속품에 불과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개성이나 인격, 개인적인 희망은 무시되어 자아 상실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대중 사회의 출현으로 현대인은 서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속에 묻혀 살고 있는데, 익명적 대중 속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고립된 인간이 된다. 공동체의 붕괴와 가족의 해체 위기 등이 이와 관련된다. 이러한 도시화에 따른 인간의 소외현상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인간의 가치와 소통에 대한 깊은 사색이 요구되는 때이다.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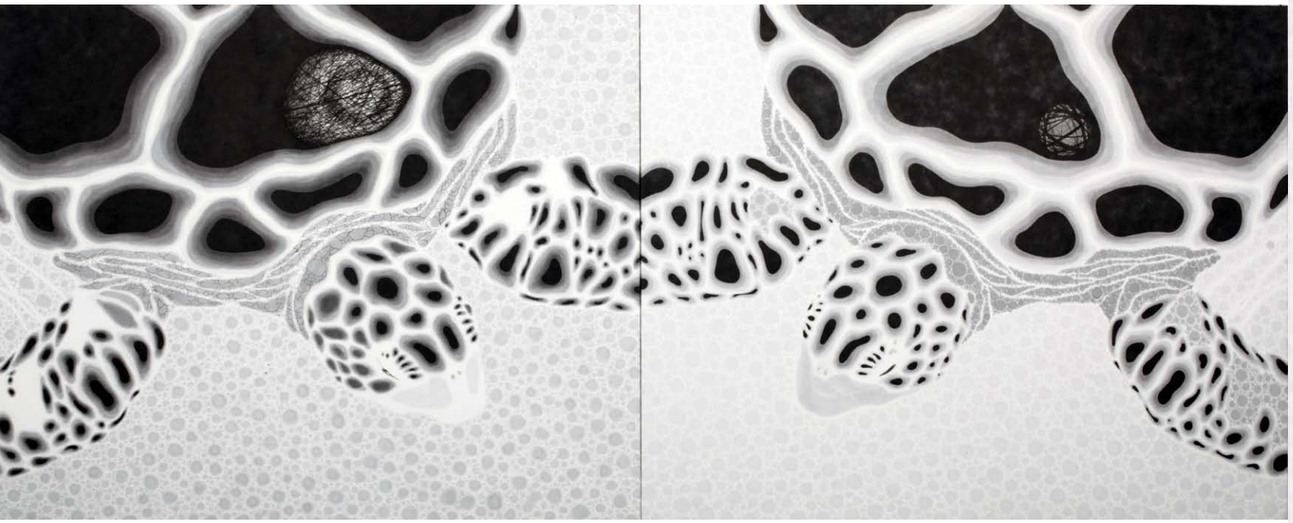
1985 인천 출생
2010 인천대학교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졸업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부 재학중

주요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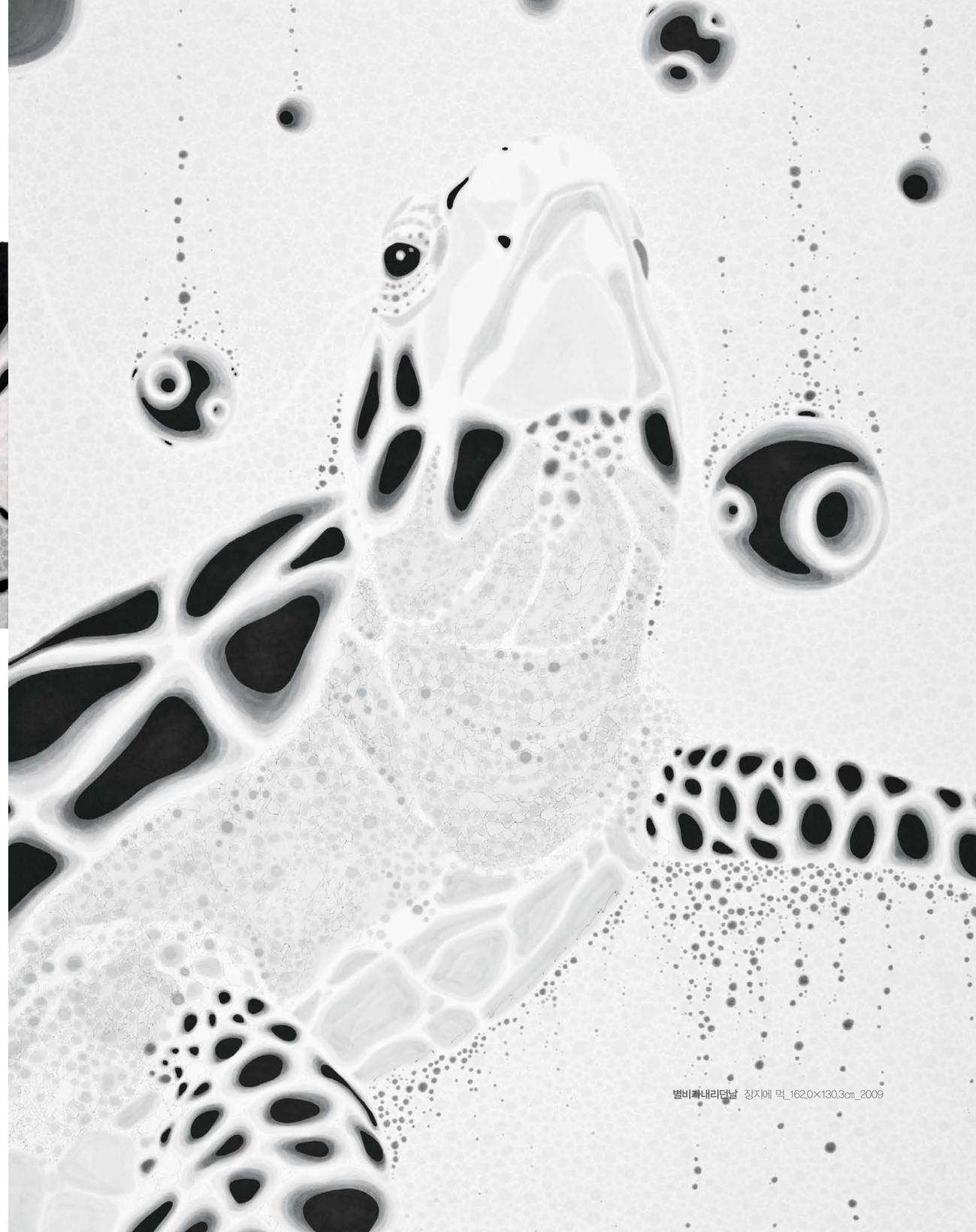
2011 학산구곡 展, 부평아트센터, 인천
한국화 대제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한국화, 새로운 모색 청년작가 초대전, 라메르갤러리, 서울
Artcon구상신진작가선정 초대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신진작가 ART FASTIVAL 32인전, 공평갤러리, 서울
Draw-in, 복합문화공간 크링, 서울
'꿈틀' 전, 공평갤러리, 서울
2010 POP-CON展, pop-con city ,인천
2009 대한민국 청년작가 초대전, 한전프라자 갤러리, 서울
인천아트페어 IAF 작가부스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새형상 세대의 전망展, 영아트 갤러리, 서울
Discourse 展, 두루아트 스페이스, 서울
New Schoo l展, 갤러리 영, 서울
인천신진작가초대전, 대안공간 해시, 인천
2008 경계를 넘어서展, 화봉갤러리, 서울
만남展, 갤러리 하루, 제주
전통회화의 맥과 힘展, 신세계갤러리, 인천

인천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금은 학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나의 작업은 꼴라주 중에서 빠삐에 꼴레기법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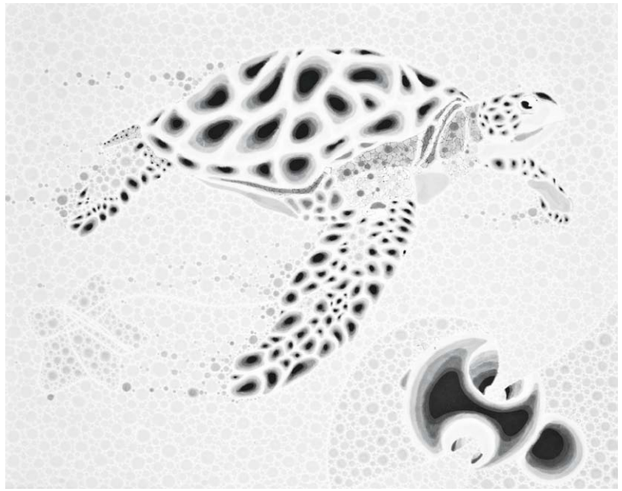
이정우 LEE Jung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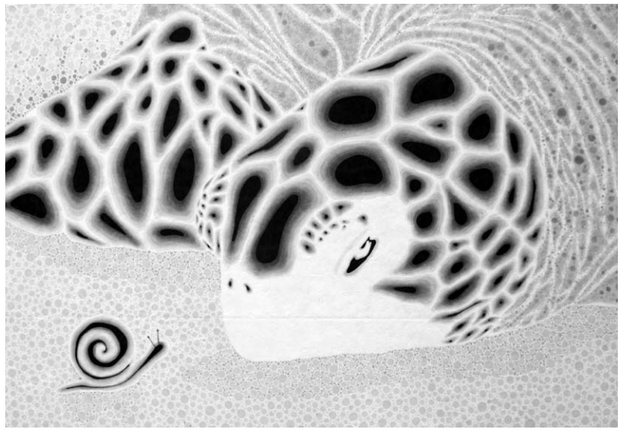
소통 장지에 먹_72.7×181.8㎝, 2piece_2011



별비쏴내리던날 장지에 먹_162.0×130.3㎝_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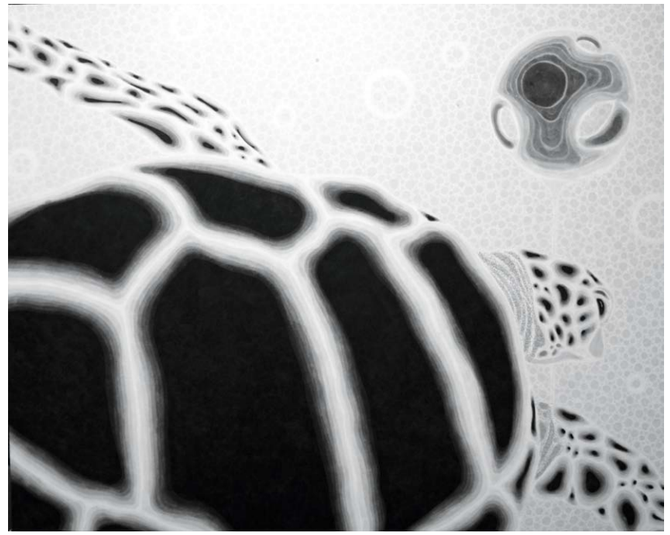
소통의 경계 장지에 먹_72.7×90.9㎝ _2009



오래된 조우 장지에먹_112.1×162㎝_2009

심적 안정감을 중점으로 한 작품세계

오늘날 인간이 창조한 건축물과 인공적이고 원색이 가득한 자극적인 공간에서 화려한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만 기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여유롭고 편안한 동양인의 사고방식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메마른 감성의 갈증으로 외롭고 지친 우리들 내면의 휴식을 찾기 위해 심적 안정감을 중점으로 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Going Home 장지에 먹_130.3×162.cm_2011

학력

1983 인천 출생
2008 한남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2010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09 1회 개인전–석사학위청구전, 롯데화랑,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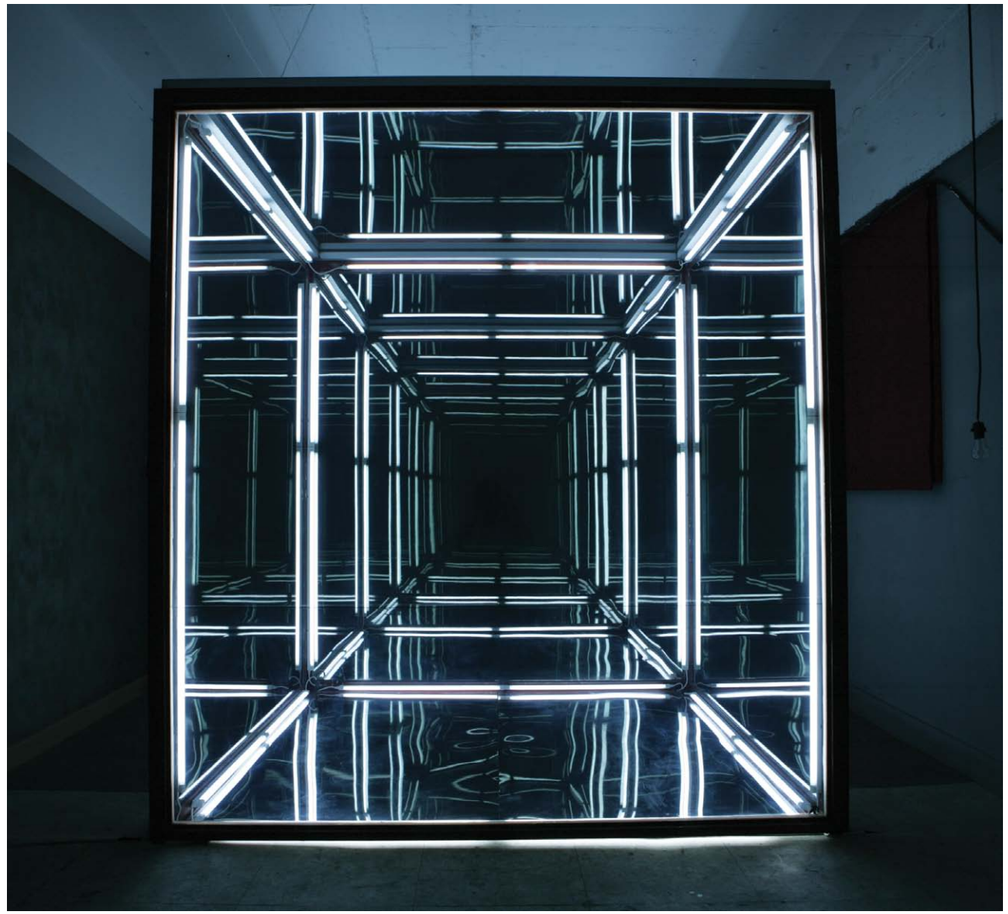
주요 단체전

2011 인천 한국화대제전 '思故치다' 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2010 청림전, 타임월드갤러리, 대전
전통의 뿌리와 새싹의 태동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인천
2009 다양성과 시대정신 전, 대청문화전시관, 대전
아트대구, 코엑스, 대구
2008 묵동인전, 갤러리 알트, 대전
ASYAAF전–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구서울역, 서울
청림전, 타임월드갤러리, 대전
2007 13 young artist 성갤러리 그룹 초대전, 성갤러리, 대전
한 · 러 · 일 미술대학 교류전, 현대갤러리, 대전

바다거북을 먹으로 표현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바로 외로움이다. 이러한 외로움은 아련한 추억으로부터 오기도 한다.
인천은 고향이자 유년시절의 기억이다. 군대와 대학으로 인하여 떨어져버린 인천집의 추억은 재개발 이름아래 물질적 흔적이 없는 기억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내 기억 속의 인천은 흐릿한 기억으로 색을 잃어버린 무채색의 빛깔로 선명하고 화려한 시각적 기억이 아닌 포근한 느낌의 감성적인 회색빛 기억으로 다가온다.
타지에서 방황하며 아련한 고향을 떠올리며 우주를 배회하는 바다거북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추억과 나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종규 LEE Jong-kyu

아카이빙 설치전경



Cube 잉크젯 프린트_125×83.83×125.90×116cm_2009

큐브 일명 거울방은 바라보는 공간에 따른 인식에 대한 차이로 인해 큐브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는 작업이다. 밖이 보이지 않는 안에서의 공간은 사방이 거울의 형식으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 안에서는 밖의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 밖에서는 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큐브방의 입장을 위한 지침전(2009)에서 작업한 사진 작품으로 고등학생,축구선수,이발사,경찰관,인디밴드등이 참여하였다.

학력

1980 경기 태생
2008 인하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조소 전공 졸업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재학 중

기획 단체전

2010 천하대전–현대미술과 리얼리티의 단층들–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인천
2009 반 展–The kaleidoscope of life–만화경 입장을 위한 지침展 총 기획 및 작가참여 –두레아트센터, 인천
2009 '개교 55주년 기념 / 학교발전기금 조성 전시회' 참여작가. 정석학술정보관(인하대학교), 인천
제45회 전국공모 인천미술대전–인천종합예술회관,인천
2009부평 YOUNG ARTISTS전 –부평역사 박물관 ,인천
오디세이아. 컨템포러리 크라프트&드로잉 展 – 치우금속공예관 , 서울
2008 인하조각회 정기전 – 인천광역시 평생 학습관 , 인천
젊은 기수전 –부평 역사 박물관 , 인천
아시아프2008 – 구(舊) 서울 역사 ,서울
고성 야외 조각전 ,강원도
신진조각가전 – 김종영 미술관 ,서울
2007 아스팔트 미술관(인천문화재단 다원 예술공모) 기획 및 작가참여 –인하대, 부평역, 인천종합예술회관 ,인천

수상 2009 제45회 전국공모 인천미술대전 조각부분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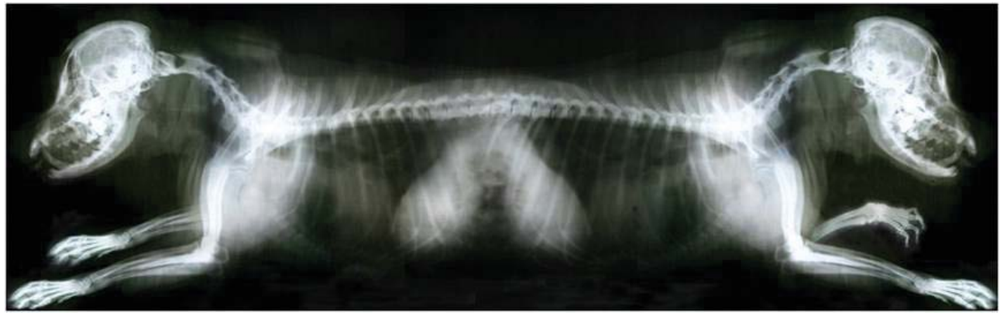
인하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조소전공을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조형예술학과에서 재학중이다. 사진과 조각,설치 미술을 하고 있으며 자신을 포함한 사람을 주제로 사회, 시간, 공간 안의 모습을 면밀하고 꾸준히 관찰하여 삶과 정체성의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주르륵 프로젝트와 정면바라보기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보다'를 관찰로서 작가 자신의 정체성의 대한 물음을과 스스로의 시각적 발전과 발견의 변화를 이야기함과 목표한 작업이며 큐브(거울방)의 경우는 개인에서 타인으로 범위를 넓혀 자신이 자신을 보는 공간 시점과 자신이 타인을 바라보는 시점 자신은 타인을 볼 수 없는 시점의 공간을 만들어 보는것과 인식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였다.

이지선 LEE Ji 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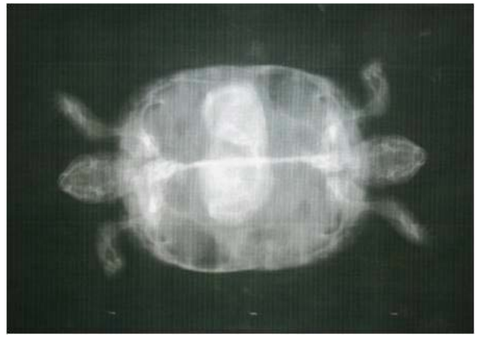
Hurt 장지에 먹 채색_131x163cm_2009

내복약-식후30분 Mixed medium_45X105X15cm_2011

共生 가변설치, 캡슐_2011



Real X-ray I 라이트패널에 디지털프린트_40×100cm_2010



real x-ray II 라이트패널에 디지털프린트_21×30cm_2010

내복약-식후30분 / 共生 한 작품 안에 비슷하지만 반대의 성격을 지닌 사물들과 자연물들이 서로 공존되어 존재 하게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의 어두운 측면 보다 밝은 측면을 지향하며 살아간다. 캄캄한 밤이 지나야 밝은 아침이 오듯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밝은 부분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는 이 둘을 동등하게 바라보며 상반되는 두 측면을 모두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긴다. 앞과 뒤, 해와 비, 행복과 슬픔, 내면과 외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로서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한 쌍인 듯이 붙어 다닌다. 현대인들은 고속 성장으로 인해 생겨난 고독, 불안, 소외 등의 사회적인 질병으로 삶에 어두운 측면의 경험들로 상처를 받고 있다. 나는 이러한 관람자들에게 치유의 의미로 캡슐 약을 사용하여 어느 것에 치우쳐지지 않는 공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작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엑스레이 촬영은 우리 몸에 X선을 투과시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신체 내부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상처나 고통까지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과 신체의 상태를 함께 볼 수 있는 엑스레이를 만들고자 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신체 내부의 아픔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듯이 정신적인 아픔 또한 쉽게 알기 위해서이다.
Real X-ray는 하나의 좌우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인간의 내면과 외면이 서로 동등한 관계이며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row out 우수작가 선발 2인展 **전시전경**

학력

2010 인천대학교 한국화전공 졸업
2011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 전공 재학

주요 전시

2011 Medical Gallery Artists 공모전 수상작가 전시, 갤러리 위, 서울
학산구곡展, 부평아트센터, 인천
제10회인천한국화대제전 "思故치다"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Draw-in展, kring, 서울
2010 Grow out 우수작가 선발 2인전, 갤러리 더케이, 서울
놀이터展, POP-CON Art gallery, 인천
젊은날의 초상展, 영아트 갤러리, 서울
세상밖으로展, 영아트 갤러리, 서울
Grow out展, 갤러리 더케이, 서울
2009 첫술展, 공평갤러리, 서울

인천대학교 한국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회화를 전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가벼운 상처나 일시적인 통증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쉽게 휩싸여 병원을 찾는다. 이러한 행동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익숙한 시대가 되었다. 첨단장비의 발전과 의학기술로 신체는 건강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자살률과 낮은 행복지수에 대한 모순에 대해 고민하며, 나는 이 문제가 가까운 곳에 방치 되어져 있는 현대사회에 커다란 질병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인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사회의 괴리 속에서 점차 녹슬어 가듯 스며드는 불안감을 새로운 질병으로 인식하고, 나 자신과 타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것을 타인과 공감하고자 한다.

이해룡 LEE Hae Ryong

reinterpretation f.r.p_60×50×80cm_2011

take off II 250x250x40cm_f.r.p_2009

take off (2) f.r.p._250x250x40cm_2009
desirer f.r.p. 오브제_30x70x80cm_2009

생성과 소멸 130x50x150cm_꽃, 스피커_2008

학력

1985 인천 출생
2003 안양예술고등학교 미술과 졸업
2009 원광대학교 조소과 졸업
현재 성신여대 조형대학원 재학 중

활동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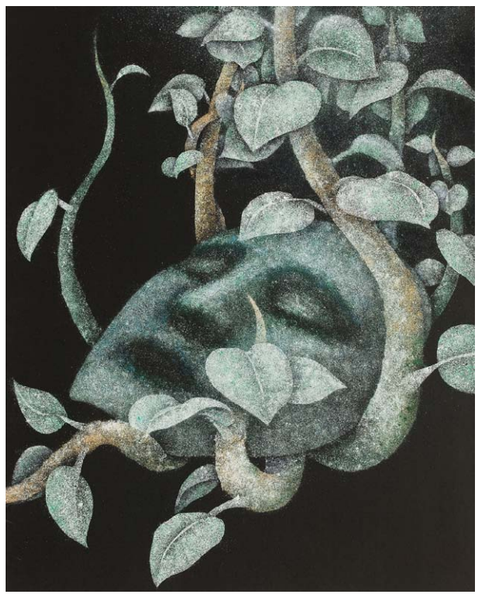
2011 야생동물전, 포천아트밸리, 경기
2010 파주청년조각전, 교하아트센터, 경기
인천조형작가전, 부평아트센터, 인천
조각기획초대전, 한중문화관, 인천
텔레비전, 성신여대, 서울
라디오전, S101, 서울
2009 start 2009 exhibition, 큐브스페이스, 서울

1985년 인천에서 태어나 지금도 현재 인천에 살고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미술에 흥미와 재능이 있어 보였는지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미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도에 안양예술고등학교 미술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때 전공선택을 조소분야로 선택하였고 이후 조소를 전공하게되어
2003년 원광대학교 환경조각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매우 좋아하여 동물, 자연과 연관된 작품을 주로 하였고 지금도 동물, 자연과 관련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대학교 졸업을하며 일년간의 고심 끝에 좀 더 작품을 이어가고자
2010년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 재학중입니다.

이향경 LEE Hyang-kyung

서쪽 숲 장지에 분채_220x300cm_2010

서쪽 숲-고무나무 요정 장지에 분채_230x150cm_2011



서쪽 숲-쭉정이의 꿈 장지에 분채_91x73cm_2011

몸은 현실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언제나 현재에 속해 있지 못했다. 나는 현재와 점점 멀어져가는 마음을 구해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화해와 치유의 목적으로 '서쪽 숲'을 그리게 되었다.
원래 '서쪽 숲'은 싱어송라이터인 이적의 노래 〈서쪽 숲〉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적이 노래를 통해 '갈 수 없는 세계'라는 의미로 '서쪽 숲'을 그려냈다면, 나는 '내 마음의 숲'을 '서쪽 숲'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처음에는 나를 포함한 관객들이 자신의 '마음의 숲' 속에서 고요를 느끼고, 자신의 숲의 방향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 기간의 작업은 각각의 숲의 소재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숲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더 강하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숲 자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숲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숲을 그리는 동안, '마음의 숲'을 넘어선 진짜 '자연의 숲'의 생명과 무한함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자연을 대하는 시각의 변화는 나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작업의 소재는 단순한 인면나무에서, 인간과 나무가 혼합된 복합적인 생명체로 서서히 바뀌게 된다.

서쪽 숲 작업을 진행하면서, 나의 마음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의식의 문턱(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서 나를 통제하는 어떤 불분명한 이미지를 찾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개념을 넘어서 '의식의 문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지만, 현실에 가려 보이지 않는 문턱을 '작업이라는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합리적인 이성에 치우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불안과 불만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의식의 문턱 너머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작업을 통해 관객들이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마음의 문턱으로 가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서쪽 숲-다프네 장지에 분채_200x100cm_2011

'다프네'란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이 사랑한 여인의 이름이다. 다프네와 아폴론 사이에는 짧지 않은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하고, 내가 신화에서 유심히 본 부분은 다프네가 아폴론에게 도망치기 위해 월계수나무가 되는 장면이다. 나는 이 장면이 역설적으로 해석한다면 '화해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나무'로 변화하는 과정은 단순한 '퇴화'일까. 나는 이런 변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의 순화'를 의미한다고 느껴졌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감정의 순화는 '화해'로 이어진다. '다프네'의 이야기는 내가 갖고 있던 주관적인 고민을 보편적으로 확대해주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완성한 후, 나는 혼란에 시달렸다. 작업하는 동안 스스로 그리스 신화에 갇혀 있었는지, 작품이 대리석 조각처럼 딱딱해졌다. 이것은 그리스신화의 다프네이지 나의 다프네는 분명히 아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나의 다프네를 창조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할 〈다프네의 숲〉은 인간과 나무의 혼합으로 돌아간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태아'와 '나무'의 혼합이다. 나무와 가장 닮은 인간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창조한 새로운 생명체로 자신과 외부에 대한 화해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학력

1987 부천 출생
2011 서울 상명대학교 한국화전공 졸업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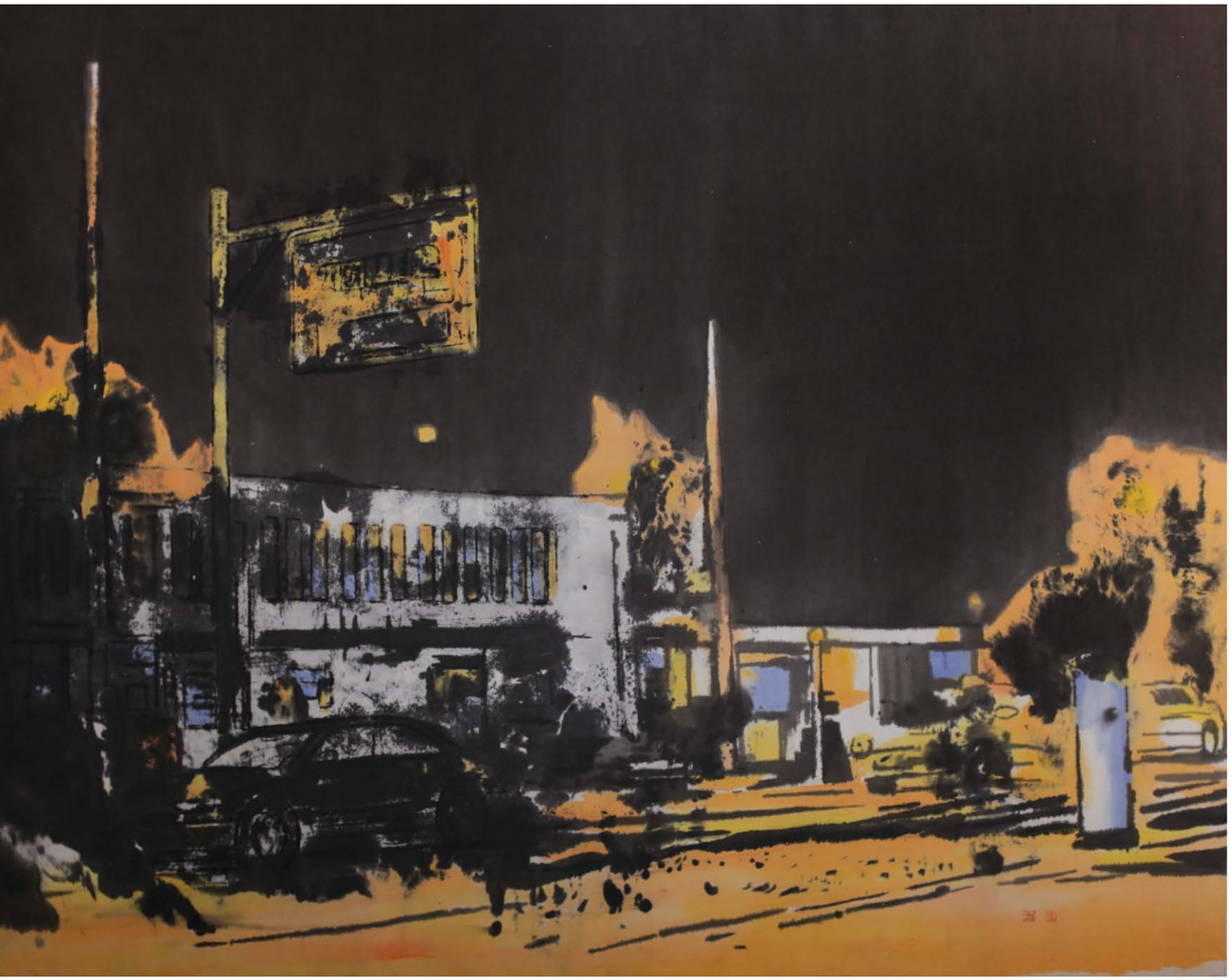
2011 west forest, 다원예술공간 도어, 서울

단체전

2011 Summer Art Festival, 갤러리 쉐자아르, 서울

세 살 때 인천으로 이사 온 이후로, 벌써 스물두 해가 흘렀다. 아이들의 기억이 세네 살 무렵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내 최초의 기억도 인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 나에게 인천은 '기억의 고향'이다.
나는 '기억의 고향'에서 '기억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며 기억의 통로를 발견하고, 의식의 문턱에서 나를 통제하는 어떤 모호한 장치들과 지속적으로 대면한다. '지속적인 대면'은 인간을 구속하는 불분명한 이미지에 대한 숙고와 화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표현하는 이미지 또한 마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상상력은 외부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나도 마음의 공간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그 소재로 무의식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공간을 차용한다.
그렇기에 인천은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나의 작업은 계속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나조차도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 곳에 속해있는 이상, 끊임없이 서로 소통 하게 된다는 점이다.

장경애 JANG Kyoung-ae



여우야 한지에 수묵채색_130x160cm_2011

余.雨.夜2010-50-6 한지에 수묵채색_122×80cm_2010

밤은 어둠 속에 퍼져있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는 대부분 이 때 의식의 자유로운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본인의 눈은 관조적인 어둠의 경계를 넘어 공상으로 빠져들어 도시는 각기 다른 색을 드러낸 채, 크고 작은 건물의 형상들을 단순화 되거나 알 수 없는 덩어리들로 존재한다. 평면회화의 실험을 통하여 한국적 이미지와 도시의 상징성을 나의 눈에 비친 형상으로 현대도시를 재해석 한다.

도시의 각박한 사회 속에서 번잡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오는 밤거리에 나타나는 도시 풍경을 통하여 인간적인 도시의 이면을 바라본다. 먹물의 농담과 번짐 등에 의해 형성되는 수묵화의 미감은 조형적으로 함축한다.

대상의 재현과 도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사람의 심상을 표현하고자 하나의 단순한 먹의 번짐 속에 여러 가지 형상을 보는 것도 어떤 대상을 설명 하려는 것 보다 그것에서 일상의 모습을 보려고 시도 하고자 한다.

우리들에게 비춰진 도시는 삭막하고 각박한 어두운 모습들이지만 삶에 있어 따뜻함이 베여 있기도 하기 때문에 도시 풍경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학력

1982 인천 출생
2010 인천대학교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졸업
2007 인천대학교 미술학부 학사졸업

개인전

2011 余.雨.夜, 부평아트센터, 인천
2009 余.雨.夜, 갤러리갈라, 서울, 余.雨.夜, 혜원갤러리, 인천
2007 余.雨.夜, 해태제과 기획초대전

Art Fair

2009 상하이 아트 엑스포 개인부스, 중국, 상해
2008 인천아트페어 개인부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2007 뉴서울 아트페어, 쎄텍, 서울
인천아트페어 차세대 유망작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단체전

2011 꿈틀展, 공평아트센터, 서울
한국화 옛 뜰에 서다, 한가람미술관, 서울
사랑을 품다, 금천예술공장, 금천
思故치다展,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
2010 전통의 뿌리와 새싹의 태동,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
2009 판단, 중지, 부평구청, 인천
인천 한국화 대제전, 문화예술회관, 인천
192-6, 갤러리 더 케이, 서울
채움과 비움, 부평역사박물관, 인천
2008 대한민국 신진작가 발언전-우수작가선정,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The 3rd View Finder of YAP, 갤러리 정, 서울
2007 제12회 대한민국 신진작가 발언전 ,이형아트센터, 서울

작업에 있어 지금까지의 생각을 담기 위해 출발은 당연히 내 자신이 되어야 했고, 나는 기억 속 편린을 모아 현대인이 갖게 되는 괴리감을 비 오는 도시의 네온사인과 무수한 불빛들이라는 이미지로 번역하고자 했다. 그리고 나 또한 흘어지고 뿌옇게 된 단초들의 도움으로 현실 속 '도시'의 이면을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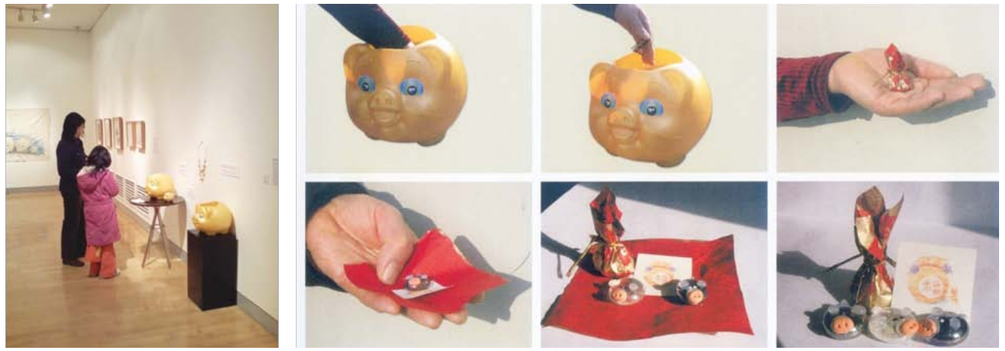
인천 도시 곳곳의 야경을 소재로 한 작품은 인천의 의미와 조형적 특성에 일상적인 소재를 관념적인 표현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서정적 추상 표현과 매체의 활용으로 또 하나의 조형성을 표현해 내고자 한다.

나는 '기억의 고향'에서 '기억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며 기억의 통로를 발견하고, 의식의 문턱에서 나를 통제하는 어떤 모호한 장치들과 지속적으로 대면한다. '지속적인 대면'은 인간을 구속하는 불분명한 이미지에 대한 숙고와 화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표현하는 이미지 또한 마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상상력은 외부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나도 마음의 공간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그 소재로 무의식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공간을 차용한다.

그렇기에 인천은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나의 작업은 계속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나조차도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 곳에 속해있는 이상, 끊임없이 서로 소통 하게 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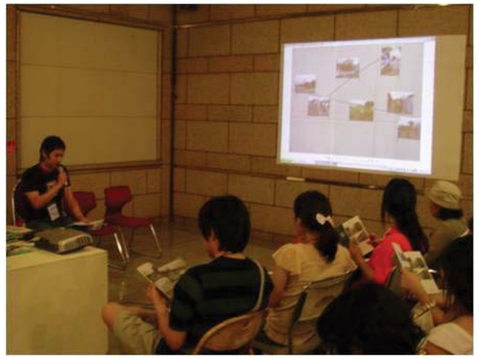
전승용 JEON Seung Yong

아카이빙 설치전경



해몽 돼지꿈 작품 설치 및 관람객 참여 이미지(우)와 작업 참여 방법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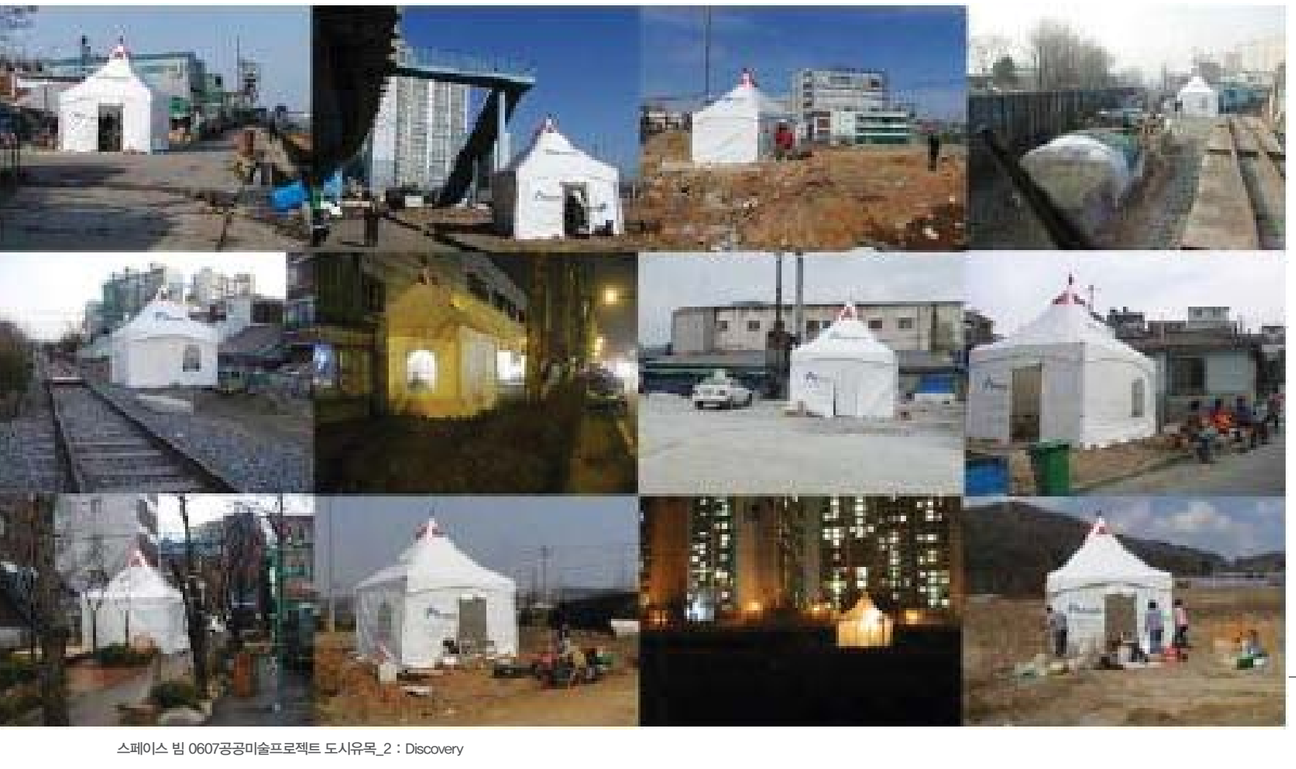
2005년 개인전부터 전시를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을 적극적으로 작업에 참여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돼지꿈 전에서는 작가의 직접 만든 돼지를 가져가는 대신 관람객은 자신의 소원지를 작가에게 남긴다. 또한 작가의 점괘가 마음에 들면 복채를 돼지저금통에 넣는다.



도시유목–Good buy Incheon 전 2006

인천에 살고 있으면서 인천을 소재로 작업을 할 기회가 없던 내게 도시유목 전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돌아 볼 수 있게 한 전시였다. 수인선 철로를 따라 걷다 보니 높다란 아파트와 빌딩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인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오래된 철로를 따라 걸으면서 그 공간이 기억하고 있는 그리움을 담아 보았다.

도시유목 출품작 '그리움의 기억을 찾아' 중 한 컷



스페이스 빔 0607공공미술프로젝트 도시유목_2 : Discovery

도시유목2 탐사후기

도시유목 사고와 시각을 전환 시키다.

도시유목2는 처음에 무모한 도전에 비유될 만큼 커다란 텐트를 갖고 특정 장소에 들어가 머무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곳 실행되어졌고 불가능이 아닌 가능한 것이 되었다.

공공미술을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본인은 도시유목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기존의 보아 왔던 공공미술은 특정 공간에 개입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최종 목적인 반면, 도시유목은 흔적을 남기는 것 보다는 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탐사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고민과 작가로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사실 문화경영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면서 나 역시 '인천을 명품도시로 새롭게 브렌딩' 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유목기간 중 작가로서 인천을 바라보는 것과 연구원으로서 인천을 바라보는 것에서 분명 그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도시유목에 참여하기 전까지 '명품도시 인천'을 외치던 나는 탐사를 하면서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만 했다. 즉 한입으로 두 말 하는 놈이 되어버린 것이다. 비록 탐사기간 동안 내 두 가지 견해 사이에서 헷갈려 하며 참여했지만, 탐사가 끝나고 내 자신이 인천의 내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시각과 사고의 전환은 큰 수확으로 생각한다.

특정 공간에 개입하여 그 공간을 재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내 스스로가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나 자신 또한 새롭게 발견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도시유목의 매력이었던 것 같다. 비록 짧은 탐사기간 동안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관심과 반응을 일을 킬 수 있을지 예측하거나 기대할 수는 없지만, 도시유목을 통해서 예술과 나, 더 나아가 예술과 사회에 대한 것까지 재발견 할 수 있는 작은 소망을 꿈꾼다.

비평활동

학력

1977 인천 출생
2003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2005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2011 현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경영학과 박사수료
인천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사, 인하대학교 출강

개인전

2005 제1회 개인전, 시선갤러리, 서울

주요 전시

2010 천하대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인천
2009 개교55주년 인하대학교 발전기금 전시회, 인하대 정석학술도서관, 인천
2007 해몽전, 신세계갤러리/인천 공공미술프로젝트 "도시유목2" 결과전시회, 스페이스 빔, 인천
2006 제9회 황해미술제– '궁민고육한장' 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2006 월드컵기념 특별기획전 오필승코리아 in Germany–서울전, 프라갤러리, 서울)
제2회 V-hive7906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BEFORE&AFTER전, 이형아트센터, 서울
都市遊牧–Good 'Buy Incheon'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남성미술비웃날레(Anti pre–국제여성비엔날레)전, 스페이스 빔, 인천
경인청년작가초대 '청년의 힘 만남' 전, 안산 단원전시관 1관, 2관, 안산
공공미술프로젝트 "도시유목2", 스페이스 빔, 인천

연구프로젝트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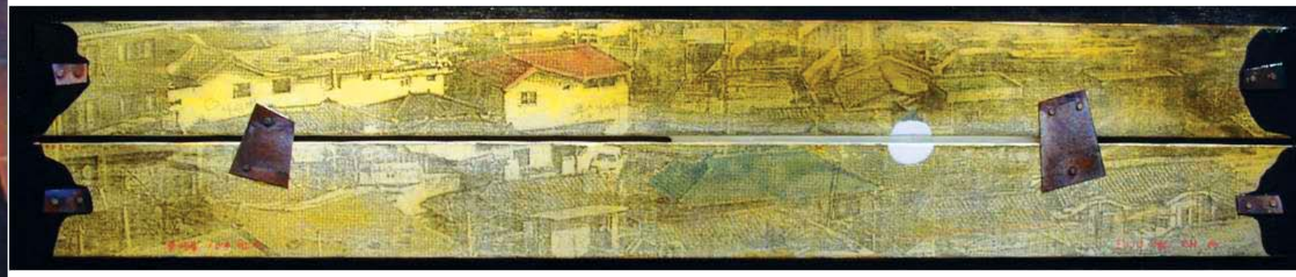
2007 2007 유네스코 워크숍 참가 WAT Ganghwa 2007
개항시대인천 향구문화 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소재 개발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8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웹진개발 및 DB 사업 / 웹진개발 PM 역임(웹진 창간호 기획)

비평활동

2005 김선생님의 초상 전 비평, 황해미술 제20호,
하반기, 각기 다른 위치에서 본 전시 셋, 인천문화비평 제 18호
2006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이룬 것과 남긴 것, 인천문화비평 제 20호
2010 부평아트센터 개관 기념 기획전시 '나의 살던 동네' 전 비평/시각 2010 5/6월(통권 52호)
제13회 황해미술제 비평 / 시각 2010. 9/10월(통권 54호)
인천박물관축제 리뷰 / 시각 2010. 11/12(통권 55호)
인터_뷰 전 리뷰 / 인천문화비평 제 28호

전태수 JUN Tae-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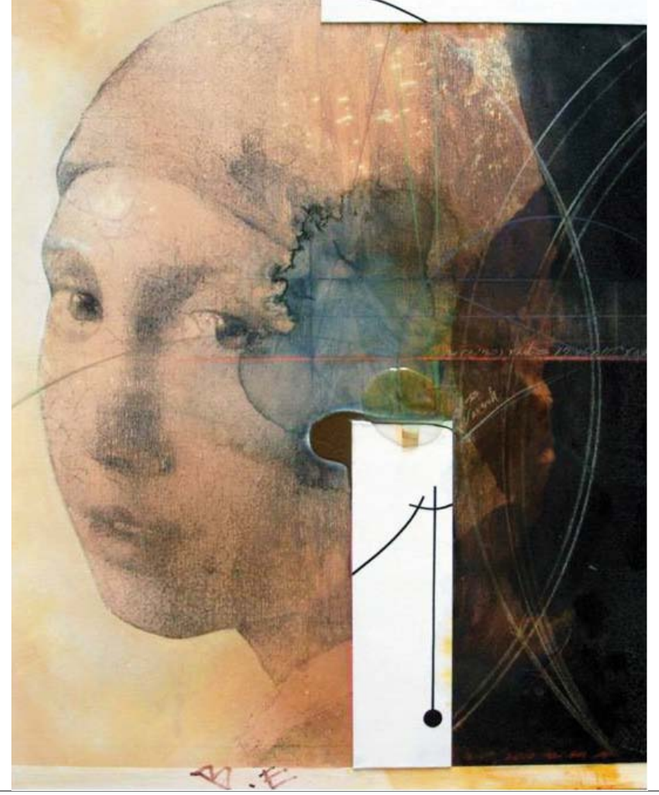
Great smile Mixed media_117cm×91cm_2010



숭의동109번지(작업실풍경) Mixed media_153cmx37cm_2010

화면에서 보여 지는 아래쪽 녹색 지붕이 본인이 살고 있는 작업실이다. 아주 산동네 같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이 30초만 걸어 내려가면 왕복6차선 도로인 숭의깡 시장이 나온다. 몇 년 전부터 재개발 붐이 있어 금방이라도 공사에 들어갈 듯 말듯 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작업해온 공간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작업이다. 잊혀지기 전에 · · · · · ·.

My childhood hero Mixed media_117cm×91cm_2010



Beautiful Earring 9 Mixed media_0.9×72.7cm_2010

학력

1975 서울 출생
2003 인천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학사졸업
2009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졸업
2010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출강
현재 인천대학교 출강 / 신세계아카데미 출강
사)한국미술협회 회원 / 사)국제미술진흥협회 회원

개인전

2008 1회 개인전, 갤러리 그라우, 서울
2010 2회 개인전, 혜원 갤러리, 인천

주요 단체전

2010 천하대전(川荷大展)–현대미술과 리얼리티의 단층들, 가온갤러리, 인천
2009 Fund Raising Show for "Bigger Inha University, 인하대학교, 인천
서울–이스탄블(From Far East to West)_BUY KOREA, 터키–이스탄블
2008 젊은 기수_욕망의 모호한 대상, 부평역사 박물관, 인천
생선(生線), 혜원갤러리, 인천
2007 한국터키수교 50주년 기념_195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단면, 이스탄
불 아트센터, 터키/ 당림 미술관, 한국
신진작가 발언전, 갤러리 라메르, 서울
2004 우수청년작가전_다양함 과 정체성, 갤러리가이아, 서울

어린 시절, 송도유원지의 짠물, 고깃배, 갈매기, 공장 철 구조물, 공장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 염전창고 등 인천에 대한 첫 기억을 떠올리면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취학 전에 인천으로와 초, 중, 고 대학교 및 대학원을 인천에서 마쳤으며 "도회적 서정성"이란 타이틀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아무래도 산업도시인 인천에서 자라오면서 나타난 본인의 작업은 회색빛 콘크리트와 철구조물에서 느끼는 또 다른 서정성에 대한 본인스스로의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후 전시에서 보여주는 작업방식은 수년 동안 시도해왔던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모호한 추상이미지에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미지(Beautiful Earring, Great smile, My childhood hero) 의 전환을 통해 도시적 서정성에서 보편적 서정성으로의 접근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윤희 JUNG Yunhee

대단한 걸– 하찮은 종이 쪼가리 하나로 구경에 저항할 수 있을꺼라 생각했니? 비디오 도큐먼트, 가변크기, 2010

Rohman.. Digital print_594X840mm_2009

작가(나)는 오랜 시간 이주자를 만나오면서 이주자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재단하는 일상적인 시선들에 대해 조금씩 불편함을 느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주자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沒理解)에서 비롯된 오해와 편견이라는 단순한 진단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시선에서 작가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2004년 월경(越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월경'은 '이주(移住)'라는 주제를 표상화한 프로젝트이지만 여기에서의 '월경'은 보다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름에 고정되어 있는 이주자를 욕망하는 개인으로 바라보고, 욕망이 구축된 지점과 인간적인 욕망을 구조적으로 좌절시키는 경계를 드러내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가진 작업이었다. 이를 통해 이주자에 덧씌워진 한국사회의 시선을 되짚어보고 그 시선의 경계를 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주자를 욕망하는 개인으로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근대적 인간으로서의 그들의 좌절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었다. '월경'이라는 프로젝트에서도 내재되어 있는 작가와 이주자 사이의 형성되어 있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작가(우리)와 이주자 사이에 오롯이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는 이미 내재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권력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선험적이라 느껴질 만큼 부지불식간에 내재화된 이러한 권력구조가 배태된 지점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작가는 서구의 시선에서 '오리엔탈'로 규정되었던 한국사회와 그 구성원이 '동남아시아'라 지칭되는 아시아(Asia)에 서구의 시선을 동일하게 관철시키고 있으며, 이주자들 또한 그러한 시선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혐의에 경도되었다.

대단한 걸– 하찮은 종이 쪼가리 하나로 구경에 저항할 수 있을꺼라 생각했니? 비디오 도큐먼트_가변크기_2010

대단한걸– 하찮은 종이 쪼가리 하나로 국경에 저항할 수 있을꺼라 생각했니?

전 세계를 종횡 하는 자본은 이미 이동의 속도가 이익의 창출의 관건이 되어버렸으나, 사람의 이동은 더욱더 정교하게 통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경을 넘는 일은 허가를 요청하는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이러한 허가에는 또한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는 1등 국가의 국민과 허가가 거부되는 2등, 3등 국가의 국민으로 나뉘어진다. 통제에 따르는 고통은 2등, 3등 국가의 국민들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연간 500만 명에 달하는 이주자가 발생하는 지역인 아시아는 대부분 자유로운 이주가 좌절되는 2등, 3등 국가의 지역이다.

이 작업은 아시아인 갈등의 지점 중 하나인 '월경(越警)'을 주제로 서류 한 장으로 실체적인 인간의 이동을 거부하는 자본의 권력과 국경에 저항하는 반어적인 퍼포먼스 이다.

이에 작가는 2010년 개인 프로젝트 〈 Package Asia 2010〉로 아시아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으며,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익숙한 답을 한국사회와 아시아에 대입하여 낯설게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시아와 이주자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의 지평을 넓히고, 작가 개인적으로는 내면에 구축된 시선의 경계를 넘어 예술 활동의 지향과 감수성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기를 바랐다. 물론 작가(나)는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프로젝트 작업 중 '이주', '가족', '꿈', '욕망' 등의 키워드를 추출해 현지어로 번역한 후에 키워드가 적힌 카드를 매개로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을 시도하려 계획했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소통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 사회 안에서 구성된 작가의 정체성, 사회적 위치, 가치판단과 사고가 아시아의 현실에 대한 괴리감으로 드러난 것이다. 여전히 작가에게 남은 과제는 녹록치 않게 느껴진다. 어쩌면 지금 작가(나)는 현실에서 예술영역의 언저리를 방황하고 있을 지도 모르며, 이후에 경계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예술 작업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자괴감에서 빠질 지도 모른다.

프로젝트 Package Asia 2010 일부 Installation_가변크기_2010

개인전

2008 월경(越境),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내 '인권카페', 인천
2010 2nd 개인전 package Asia 2010 , 스페이스 빔 ,인천

주요 기획전(단체)

2010 도시수리센터 '엎어~컷' uppercut, 스페이스 빔 ,인천
Bibliotheque 展 , KT&G 상상마당 gallery, 서울
제13회 황해미술제 인정 투쟁 '당신의 no.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오월–그 부름에 答하며…, 금호갤러리 , 광주
2009 끝나지 않은 전시, 평화공간 space . peace , 국회의사당, Rea , 용산, 서울
용산철거민 참사 미술 행동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전북etc
City–ray 도시의 속살 , 스페이스빔 , 인천
우리는 일하고 싶다. 부산민주공원민주항쟁기념관, 부산
서교육십–인정게임 , KT&G 상상마당, 서울
서교난장 ' '젊은 예술, 난장의 축제' , KT&G 상상마당, 서울
Free Tibet , 평화공간 space,peace , 문화공간 강 , 마음등불,서울, 부산,파주

전시 및 프로젝트 기획

2010 제13회 황해미술제 인정 투쟁 '당신의 no.1' 총기획,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이주노동展 인천마음에 새기다' 기획, 스페이스빔, 인천
'인정프로젝트–상쾌한 외출' 기획(인천문화재단 지원)
2009 용산철거민 참사 미술행동, 용산철거현장, 서울
'인정프로젝트–생활의 발견' 기획 (문화관광부 지원)
2008 인천이주민 문화축제 ' 아시아 노점을 걷다' 총 기획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기륭전자 파업노동자와 함께 하는 1000일 미술행동 '구로동 기륭 천막미술관' ,서울
티벳의 평화를 위한 performance 중국대사관 앞, 서울
2007 이주노동자료展2 'Ticket for the dream' 기획, 한국 이주노동자인권센터內 '인권카페'
'명품도시 인천 展' ,기획 스페이스 빔
2006 이주노동자료展1 '이주, 다른세 상을 꿈꾸다' 기획 , 스페이스 빔, 인천
노동미술굿 '네가지 이야기' 책임 기획

수상

2010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일반공모 (시각예술)선정'
2008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일반공모(시각예술)선정'
2007 인천문화재단 공공미술 지원사업 선정 '인권 찾기 미술 행동'

정지혜 JUNG Ji Hye

인천, 2011-1 색상지, 포스터물감, 색 테이프 등_53x39cm_2011

IKEA man 모눈종이에 색상지_53.3x39.5cm_2011

7월, 밤, 소녀 색상지_53x39.5cm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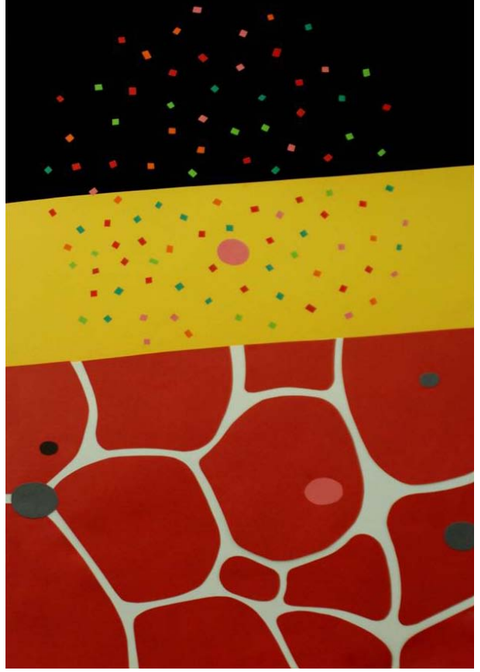
Instant prayer 목판에 색상지_30x21cm_2011

IKEA man '이케아 남자(IKEA man)'는 색의 배치에 의해 제목이 정해졌다. 사실 나는 이케아 매장에 가본 적이 없다. 작업과정을 고백하자면, 버스에서 하얀 머리의 할아버지를 보고 영감을 받아 이 이 작품의 구상을 시작했다.
후에 그 순간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재구성되어 나온 결과를 보니 배경 색의 구성이 스웨덴의 대표 가구 회사 이케아(IKEA)의 상표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목으로 응용하게 되었다.

'7월, 밤, 소녀_' 는 밤에 본 불빛에 비친 어떤 여성을 본 후 그 순간적인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만들었다.
빛과 색, 형태의 단순한 구성에 주목하였으며, 동시에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느꼈던 느낌을 이미지로 창조하려 했던 작품이다.

'즉석 기도자(Instant prayer)'는 평소 나 자신이 하는 행위와 주변의 공간에서 발상이 떠오른 것 중 하나로 종교적 발상을 통해 떠오른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관찰되어지는 교회라는 공간과 기도의 형태가 마치 인스턴트 제품처럼 흔하고 즉각적인 형식으로 느껴져,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Iaco, 6월 색상지_53x39.5cm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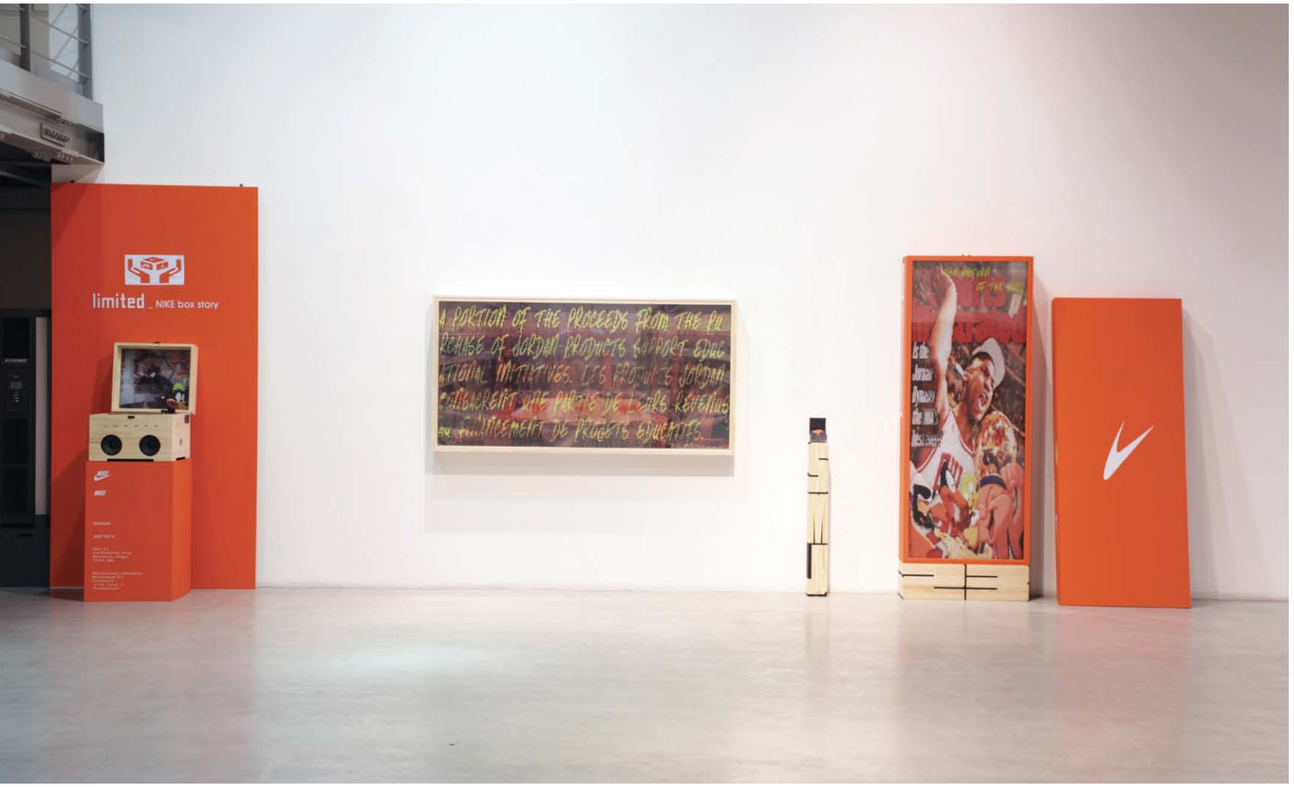
Cycle, road 색상지_56x39.2cm_2011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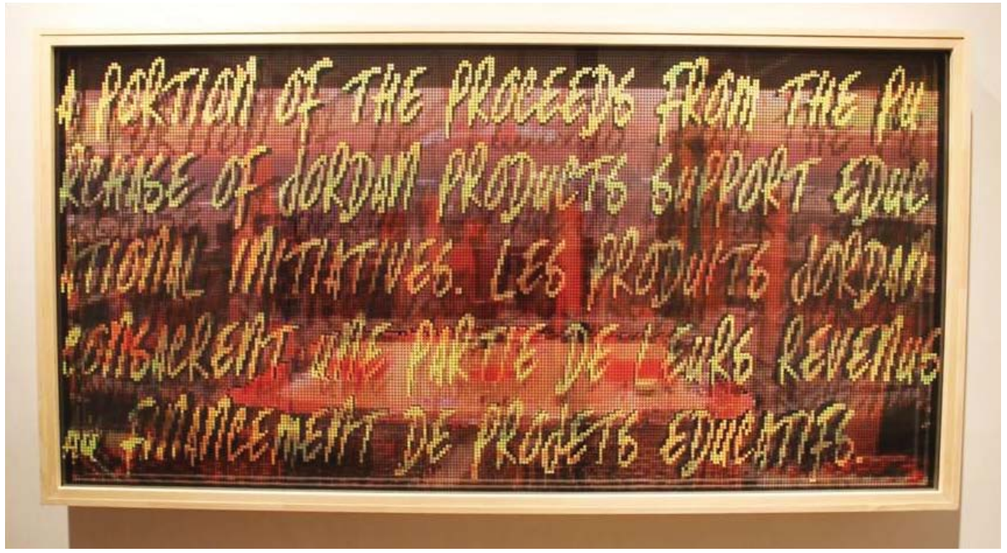
1985 인천 출생
2009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나는 작업을 할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환경, 트렌드, 뉴스와 이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각적(visible)이고 표면적(surface)인 이미지를 통해 영감을 받곤 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나는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그려서 창조해 나아감에 있어 몇 가지의 단순하고 특정적인 단어들이 내 머리 속에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이를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보면 앞 단락의 동어 반복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지금', '사람', '공간', '순간', '빛' 이다.
나는 2011년 현재, 지금의 순간적이고 특정한 사람 혹은 공간의 실제적 이미지를 관찰하고 기억한 후, 나의 작업에서 다시 재현하거나 혹은 재구성하여 만들고, 그리고, 오려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드로잉 혹은 입체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나 이미지로 표현함에 있어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러면서 현실적이고 친숙한 '느낌' 이나 '감정'을 담은 것을 창조해 낼 것' 이라는 나의 창작관념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물이다.

조대희 CHO Dae Hee



전시장 설치전경



Aquarius mixed media_185x95cm_2011

OREH NO.23 mixed media_10x10x8cm_2011

The return of the king mixed media_185x75x25cm_2011

나의 작품들은 현시대를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의 이미지와 연상이 되는 만화나 영화 속 영웅들을 합성해서 패러디방식으로 연출한 시리즈 중의 하나로 그 중 가장 먼저 마이클 조던과 슈퍼맨을 연관 지어 화면 안에 재구성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작품 속의 스포츠 스타는 영웅화되어 등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형체가 아닌 모두 점으로 구성된 꾸며낸 허상들이며, 이는 어린 시절의 나 역시도 그와 비슷한 영웅들의 존재성에 대해 상상하며 동경해 왔지만 어디까지나 상징화된 허구 속 인물로의 재연출일 뿐 실제와는 다름을 의미한다.

HIP,HIP,HURRAH!! mixed media_97.5x48.5x16.5cm_2010

학력

인천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과 졸업
일반대학원 서양화전공 수료

개인전

2011 limited_nike box story, 더 케이 갤러리, 서울
OREH No.23, 갤러리 골목, 서울

주요 단체전

2011 사랑을 품다, 금천예술공장, 서울
Draw-in, 크링갤러리, 서울
ART FESTIVAL '꿈틀', 공평아트센터, 서울
2010 세상을 Drawing하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인천아~ 놀자!, 인천시립박물관, 인천
2009 EPOCH 판단중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사 전관, 인천
'ASYAAF', 옛 국군기무사 건물, 서울
2008 디지로그 시대의 오감 찾기전, 한전아트센터, 서울
젊은 기수전, 부평역사 박물관, 인천
아트울산2008, 울산MBC 컨벤션홀, 울산
국제 아트북 메이킹 페스티발, 정독갤러리, 서울
2007 지성의 펼침전, 단원전시관, 안산
한국터키수교 50주년 기념전, 이스탄불 아트센터, 터키

수상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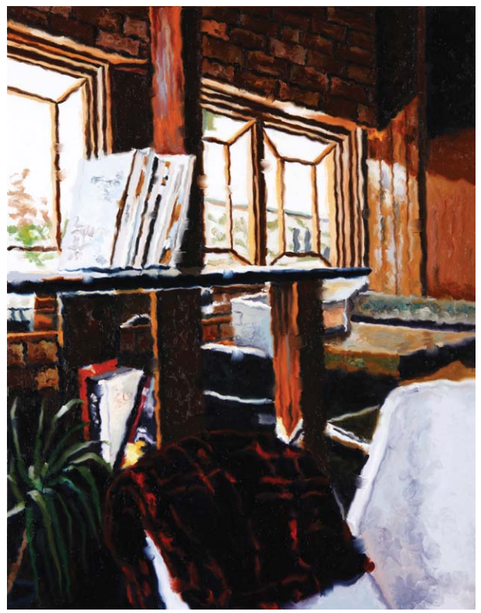
2007 IAF 인천 아트페어 차세대 신진작가 공모전 우수작가 선정

주은희 JOO Eun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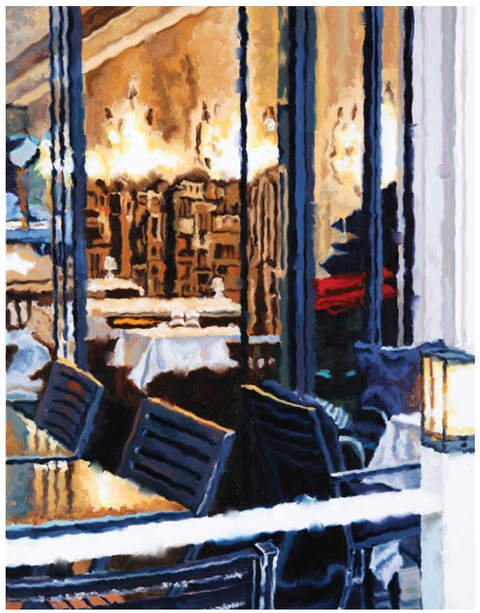
Tranquility_1 Oil on canvas_116.7x80.3cm_2011

Tranquility_3 Oil on canvas_90.9x65cm_2011

Ordinary Space_11 Oil on canvas_65.1x50cm_2011



Tranquility_4 Oil on canvas_65x45,5cm_2011



Tranquility_8 Oil on canvas_116,7x80,3cm_2011

소소한 일상들 속의 모든 공간이 나의 작업의 소재가 된다. 특히, 반복적이고 익숙한 것들 속에서 느껴지는 나만의 낯선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을 표현하기 위해 나는 붓 대신 손으로 문지르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 표현방법은 사물들의 외곽선이 마치 초점이 흐린 사진처럼 흔들리면서 익숙한 공간이지만 낯설고 몽환적으로 느껴지게 한다.
이 작품은 작업실을 가는 길목에 무심코 지나쳐가던 한 카페이다. 오른쪽의 밝은 빛이 드리워지는 큰 창과 책, 자유롭게 놓여진 의자와 탁자들은 오후의 나른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 반복적이고 바쁜 일상 속의 여유로움을 작업으로 표현해 보았다.

나에게 있어 일상은 작업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소재를 가지고 있다. 일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모아두었다가 화면에 옮긴다.
개개인이 겪는 평범한 하루의 한 풍경 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나만이 겪은 사건의 서술적 표현이기도 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설레기도 하는 일이다. 그 동안 소원했던 친구들이나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나갔던 장소들이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를 들으면서 주변을 계속 관찰하는 버릇이 있다. 간혹 얘기보다 주변의 사물들을 관찰하고 기억하는 놀이에 더 치중하게 될 때도 있는데, 이러한 버릇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한다. 작품〈평온한_4(Tranquility_4)〉,〈 평온한_8(Tranquility_8)〉은 이렇게 주변을 관찰하다가 담게된 이미지들이다.

두 작품 모두 빛과 어둠이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문지르는 표현방법은 이렇게 분리된 느낌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타냄과 동시에 흐릿하고 뿌연 느낌을 들게 한다. 이는 배경과 사물의 경계가 무너짐으로서 각자의 외각선이 서로 섞여져 모호하고 몽환적으로 표현되어 지기 때문이다. 나는 화면에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 변화되는 형상과 색의 조화에 대해 연구하면서 일상적인 사물이나 공간에서 느껴지는 적막한 낯선 느낌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주은희 작가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을 초점을 흐리게 표현해 몽환적인 화면을 만들어 낸다. 인위적인 도구를 쓰는 것이 아닌 사람 본연의 것으로 만든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린다…
매경이코노미 창간 32주년 기념 CEO 소장품 전시회 기사 中

일상의 이미지 재현에 있어 작가의 생활과 경험은 배재 할 수 없는 소재일 것이다.
작업실의 풍경을 담아낸 작품〈평온한_8(Tranquility_8)〉은 제목 그대로 고요한 느낌의 평온한 공간을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오른쪽의 의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오브제가 되고 있다.
일상적 의자의 표현은 17세기 이후의 회화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당시의 의자는 권위나 신성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안락함이나 감각적 유희 그리고 성적인 은유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예술 작품들에 등장하는 소재로서 의자는 생활적 편리도구라는 단순한 해석만 떠난다면 고도의 상징적 도구로 문명사회에서 자본과 소유가 주는 욕구의 산물로 표현 될 수도 있다. 이 작품 속에서 의자는 편안한 안식처이며 기다림과 희망 등을 상징함과 동시에 인간 자신으로 표현되어 지고 있다.

Tranquility_8 Oil on canvas_116,7x80,3cm_2011

학력

2007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서양화과 졸업
2002 동덕여자대학교 미술학부 회화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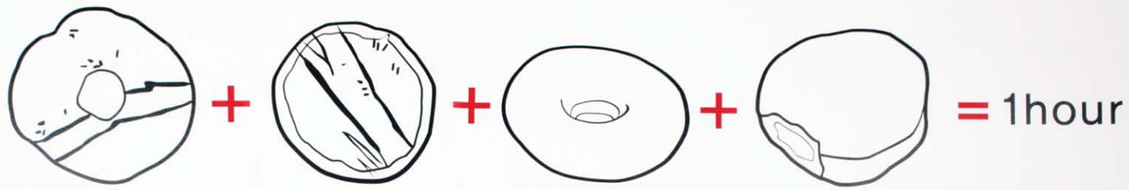
개인전

2009 제4회 신진작가 초대 개인전 (갤러리 도올)
2008 제3회 선발 신진작가 개인전(갤러리 쿤스트라움)
2007 제2회 갤러리 숲 초대개인전 '낯설게 하기' (갤러리 숲)
제1회 '낯설게 하기' (동덕아트 갤러리)

단체전

2011 작은것의 미학전(갤러리 아트유저)
서울옥션 갤린더전(호림아트센터)
매일경제 Show me the M전 (더페이지 갤러리)
Freshness of Vision전 (갤러리 아트힐)
Spring Story 기획전 (박영덕 화랑)
New Wave Artist 기획 공모전 (갤러리 두루)
KCAF 공모 당선전(박영덕화랑주최),(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2010 신진 작가 공모 2인전 (사비니 갤러리)
신진작가 공모전 '새로운 도약전(청작 화랑)
세가지 색 이야기'(갤러리 엑스포)
2009 개관기념 신진작가 초대전(갤러리장)
동원전(서울 보증보험)
2008 이웃 사촌전(KIST Gallery)
Korea Young Women's Contemporary Art(중국,Raab gallery)
항주중국미술학원 교류전(중국, 항주미술학원)
Hello Sapporo-일본 교류전(일본,삿포로 Continental gallery)
2007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인천학생문화센터)
러시아,한국미술 HUBART전 (러시아, 상트뻬테르부르크, 레핀예술대 미술관)
선발 신진작가 그룹전 (갤러리 쿤스트라움)
대한민국 남부현대 미술제 초대전(울산문화예술회관)
'인사동 사람들' 전 (라메르갤러리)
중국 교류 초대전 (북경, 공화랑)
2006 경향미술대전 입선 (경향갤러리)
관악미술대전 특선 (안양예술회관)
21C ART Festival 초대전 (단원예술회관)
대한민국 청년 미술제 (세종문화 회관)
KOREA CONTEMPORARY ART (네덜란드, Covalenco gallery)
대한민국 청년 작가 조망전 (세종문화 회관)

주희란 JU Heeran



DUNK IN SOCIETY DUNK IN LIFE Mixed media_가변크기_2011

DUNK IN SOCIETY DUNK IN LIFE Mixed media_250x70cm_2009

Capitalistic Enjoymen Digital print_600X100㎝_2010

Capitalistic Enjoyment Mixed Media_Changeable Installation_2011

나는 미술대학 졸업 이후, 생계와 예술을 동시에 고민하며 살고 있는 청년 작가이다.
나의 작업의 키워드는 지역, 세대, 예술이다.
예술을 향한 열정만큼 현실의 장벽은 높고 크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예술가들의 것만은 아닌 듯한데, 최근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청년 세대의 실업률은 극을 달리고 청년들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좋은 직장을 원한다. 거기서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예술을 지속하며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다가 나는 던킨 도너츠에 알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던킨 도너츠에서 내가 일했던 한 달 간 나는 시간당 3500원의 최저 임금(2008년 당시)을 지급받았다. 이 임금으로 생활한다면 어떤 삶이 가능할까 생각한 나는 생각 끝에 이 알바 프로젝트를 예술로 발전 시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다국적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학습과 자기실현, 예술적 노동을 실현하며 사회연구를 하는 프로젝트인 DUNKIN SOCIETY DUNKIN LIFE (사회에 나아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던킨 도너츠에서 나는 가장 먼저 업무 매뉴얼을 숙지해야 했고 매뉴얼들은 정교하게 짜인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결과물이었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상품과 광고 카피들은 먹어보지 않고도 맛을 알 수 있도록 고안된 오감 마케팅의 전략을 구사한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자본주의 상품미학/ 디지안과 판매 전략에 대한 연구는 동시대 예술가들이 사회를 연구하고 비판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미술관/ 경기창작센터 + 팔레드 도쿄 / 르 파비용 교류 프로젝트 〈아웃도어 프로젝트, 우리시대 다문화〉 전경

아즈바이 춤 한 번 당기실라요? Digital print_500X500㎝_2010

아즈바이 춤 한 번 당기실라요? Neon_30X120㎝_2010

4년간 원곡동에서의 경험과 고민은 〈아즈바이, 춤 한 번 당기실라요?, 2010〉의 기획 진행으로 이어졌다. 〈중략〉 원곡동의 중국동포노인연합회의 공동체 춤은 노인으로 한국에 이주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화활동이다. 노인들의 여가와 문화 예술활동은 경기문화재단이 제시한 '실버 문화 예술활동지원 사업'등의 노력을 통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처한 현실을 해소하기에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즈바이, 춤 한 번 당기실라요?〉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그들 스스로 일구어가는 생활문화 공동체는 사뭇 새로워 보였다. 예술가로써 나의 개입은 물론 이들의 행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명기기와 바닥에 로고를 부착하는 등의 시각적인 최소한의 개입은 일상적인 그들의 활동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플래시 몹 형태의 페스티발을 연출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촉매 역할은 그들로 하여금 집에 묵혀 놓고 있었던 의상들을 꺼내 들고 나오게 하는 등의 자발적 참여행위를 불러 일으켰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예술과 삶이 그리고 사회와 예술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의 방식이 고민되어야 할 것 같다.

Shall We Dane? 아즈바이, 춤 한 번 당기실라요? 2010, 안산

학력

1981 인천 출생
2006 수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11 자본주의적 향유 Capitalistic Enjoyment, SAPA 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11 소셜뮤지엄, 스페이스 빔, 인천
2010 따수(따끈따끈하고 수상적은)한 초대,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경기도미술관/ 경기창작센터 + 팔레드 도쿄 / 르 파비용 교류 프로젝트 〈아웃도어 프로젝트, 우리시대 다문화〉, 원곡동 제3어린이 공원, 안산
2009 로띠위의 한국식 커리밥,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City Ray, 스페이스 빔, 인천
투잡스,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2008 Nacl 자연과 예술이 순환하는 풍경, 소래포구, 인천
2007 배다리의 꿈_숙성, 스페이스 빔, 인천
2006 파란문다이어리 기획전 'Melancholy', 단원전시관, 안산
아트인시티 마석프로젝트〈이주노동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작가, 마석
'움직이는 테이블' 참여 작가, 대안공간 풀, 서울

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

2010 아즈바이, 춤 한번 당기실라요? 원곡동 제3어린이공원, 안산, 기획 및 진행
2009 국경없는마을 클럽데이 실무팀장, 원곡동, 주관 : 리트머스,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무지개청소년센타 송년축제 포토존 〈포토월드 김치치즈 스마일〉 기획 및 설치
국립현대미술관의 찾아가는 활동 〈보육시설 미술친화 공간화〉 코디네이터
(사)국경없는마을 다문화 관련기관 매개인력 양성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인천동구 배다리문화축전 코디네이터/디자인

레지던시

2006 제 4회 하대리 미술제 열린 작업실, 횡성
2007 AFI 기억의 지속, 스페이스 빔 퍼블릭 스튜디오2, 인천
2009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국제레지던시, 한국 – 인도네시아

수상

2009 – 2010 아르코 영아트 프론티어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시니어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획 선정 (경기문화재단)

주희란은 1981년 인천에서 태어남. 현재 인천에서 살고 있다. 안산의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에서 이사로 있으며 다문화 관련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2006 Art in City : 마석프로젝트〉(마석, 2006)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참여작가, 〈2007 Aartist Forum International : 퍼블릭 스튜디오 2〉 (인천 스페이스 빔, 2007)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하였고 그 밖에 다수의 그룹전을 가졌다. 2011년 2월 첫 개인전 〈Capitalistic Enjoyment〉 (서울, 2011)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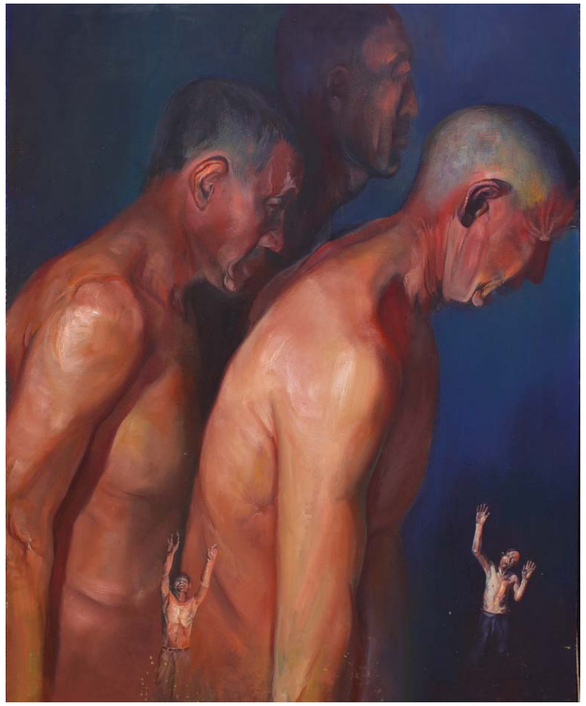
최경운 CHOI Kyung-woon

시선 oil on canvas_54X162.1㎝_2011

"I shout weakly crouching with closing my ears caused by persons who talk
behind someone's back like whispering in my ears, covering my mouth and e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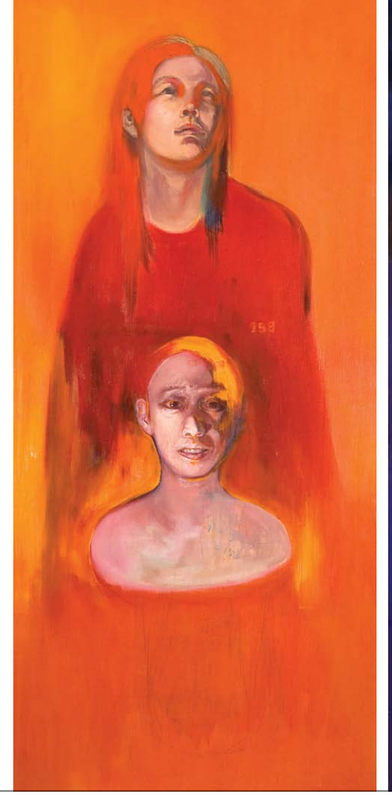
Why III oil on canvas_120X80㎝_2010

Why oil on canvas_80X60cm_2009



Why II oil on canvas_120X80cm_2009

'너는 안돼'라는 부정적인 말들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 남을 처절히 밟고 억압하는 현실 속에서 나는 좌절하고 쓰러진다. 그럴 때 마다 나는 내 작은 방에 들어가 조용히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평온해지며 고된 여행을 다녀와 조금 피곤한 상태가 된다. 죽을 것 같던 고통도 결국은 지나간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나약하지만 반짝이는 희망을 마주하게 된다. 나는 희망을 그리고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마주하는 모든 현실들, 덧없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격분하기도 하고, 패배감이 들기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을 수 없는 희망을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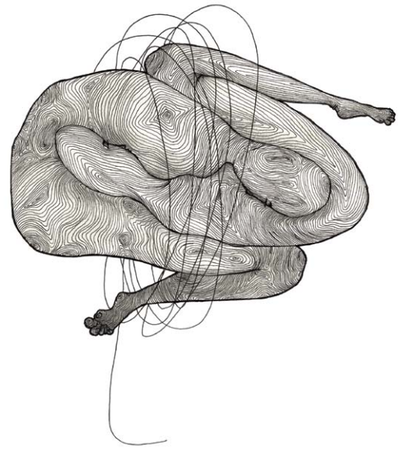
153 oil on panel_133X60cm_2011
bluebird oil on panel_133X60cm_2011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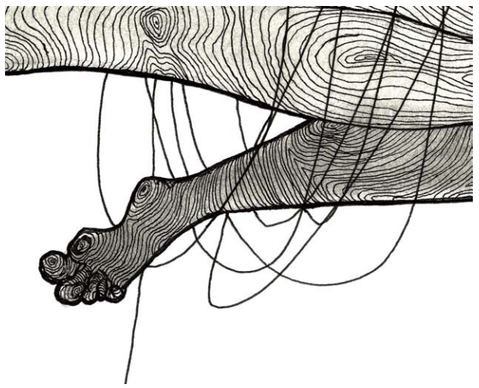
1983 인천 출생
2007 루쉰미술대학 유화과 제2작업실 학사 (油畵系 第二工作室 学士)
2010 루쉰미술대학 (Luxun Academy of Fine Arts) 미술학-유화연구 석사 (美術學-油

현용안 HYUN Yon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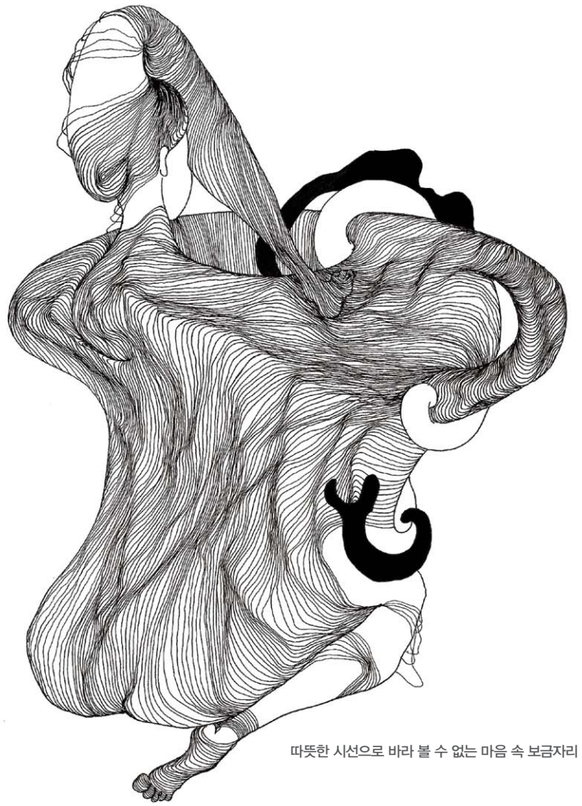
탈출계획 크래프트지에 오일스틱_110x79cm_2010



애틋한 만남으로 허전함 없는 뒤엉킴 ink on paper C-print_80cmx110cm_2010



부분 확대
결국 애틋하게 짝을 만나도 외로움을 채울 수 없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가끔 함께 있다는 사실을 상기 할 때 만큼은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 볼 수 없는 마음 속 보금자리 ink on paper, Cprint_100x70cm_2011

부분 확대

따뜻한 커피를 마셔도 훈훈해지지 않는 서늘한 느낌. 안착할 곳 없이 배회하는 떠돌이 마냥 불안하기만 하다. 마음 속 보금자리는 있으나 마음 밖은 아직도 제 자리가 없어 마음과 마주 할 수 없다. 따뜻하게 채워 줄 수 있는 포근한 찻잔을 찾아서 다시 한 목음 넘긴다..

마음속으로 들어가도 모르는 사실 ink onpaper, Cprint_50x70cm_2011

학력

1977 대한민국 출생

2004 인하대 미술교육과 졸업

주요 전시

2011 제3회 평화미술제, 3.15아트센터
제1회 개인전 'False Line', 부평아트센터
You're Incheon, 아트플랫폼
친애하는 동식물에게展, 인천문화예술회관
제 4회 사랑의 열매 아트페어, 인천문화예술회관

2010 천하대展, 가온갤러리
인정프로젝트展, 인천문화예술회관
제 3회 사랑의 열매 아트페어, 인천시청역

2009 판단중지展, 부평구청미술관
변형된 인간展, 해시갤러리
12회 황해미술제, 인천문화예술회관
월세방 프로젝트, 해시갤러리

2008 V-Hive展,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설화展, 부평역사박물관

2008 11회 황해미술제, 스페이스빔

2007 교육희망展, 가온갤러리
10회 황해미술제, 인천문화예술회관
신진작가 초대展, 연수구청 미술관

2006 남성비웃날레, 스페이스 빔

반복된 선들은 스스로의 무념무상의 과정이자 수행과 같은 행위이다. 일그러진 형체는 그 순간의 상황, 상태, 감정에 의한 직관적 이미지 일뿐이다. 한 작품을 표현함에 있어 생각에서 또 생각을 억지로 짜내어 각각의 미술사조, 이념, 사상, 철학, 이미 누군가가 해 놓은 이론, 심지어 신화나 옛이야기 거리 따위에 작업이 휘둘려 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헛다리짚는 경우가 많다. 뒤샹 이후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다면 작은 강 안에서 헤엄치고 있을 뿐이다. 거대하게 확장된 현대미술 속에서 다시 한 개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사생활 적이고 마이크로적인 시각으로 한 숨 돌려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고민에서 부 터 시작 되었다. '나'라는 한 개인을 통하여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당시 상황을 느껴 보기 바란다.

홍화선 HONG Hwasun

새12 천에 먹_116.8X91cm_2011

새8 천에 먹_60.6X72.7cm_2011

아주 높게 멀리 날고 싶으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시도는 하지만 아주 조금뿐.. 겁을 내고 있는
무언가 허망한 진짜 새가 아닌 나의 새들
언젠가의 비행을 꿈꾸는 나의 소중한 가짜 새들
나 역시 비상을 꿈꾸고 이제야 날개짓을 하려 한다.

새7 천에 먹_60.6X72.7cm_2011

학력

1984 전라남도 나주시 출생
2004 인천대학교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학사졸업
2008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졸업

개인전

2006 제1회 개인전, 혜원갤러리,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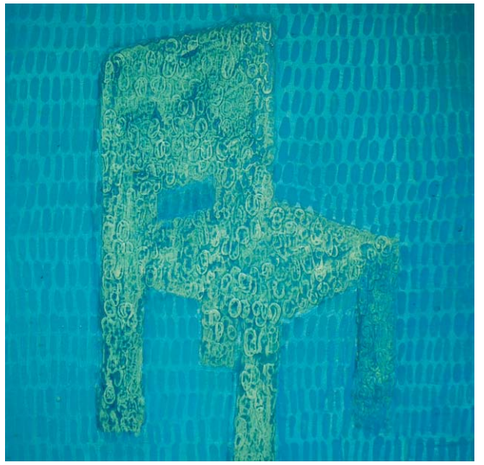
단체전

2011 학산구곡전, 부평아트센터, 인천
사랑을 품다전, 금천예술공장, 금천
한벽동인전, 한벽원미술관, 서울
제1회 신진작가 ART FESTIVAL '꿈틀'전, 공평아트센터, 서울
2010 천하대전, 가온갤러리, 인천
2009 인천아트페어–신진작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2008 인천아트페어–신진작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2007 한국 · 터키수교50주년기념–한국 · 터키현대미술의단면전, 이스탄불시립아트센터, 터키/ 당림미술관, 충남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인천미술인전, 혜원갤러리, 인천
인천아트페어–신진작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한국화 감성의 표현전, 이형갤러리, 서울
제9회 지성의 펼침전–우수대학원생 초대전, 단원전시관, 안산
제12회 대한민국신진작가발언전, 이형갤러리, 서울
2006 중간지대 미술과 그 동향전, 향암미술관, 울진
도시 속의 자연, 자연 속의 도시전, 문화일보 갤러리, 서울
생선전, 혜원갤러리, 인천
제7회 지성의 펼침전–우수대학원생 초대전, 단원전시관, 안산
한국화 신세대의 힘–신 · 동전, 공평아트센터, 서울

작업을 접하는데 있어 나는 오로지 나만의 즐거움을 찾고 있었다.
나의 호기심에서 영감을 얻으며, 나의 눈 안에서 소재를 고르고, 나의 몸 안의 어떠한 것이 뻗어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만족하며 즐거움을 갖는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즐거움꺼리를 찾아 헤매었고, 내 작업에 대해 글 하나 쓰는 것조차 부끄럽고 쓸데없는 짓이라 여겨왔다. 하지만 매년 인간에게 매겨지는 숫자의 앞자리가 달라지고, 배운다는 것에 대한 욕심이 늘어나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서 다른 변화를 찾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어떤 즐거움을 찾고 있는지, 글을 쓰면서 몰랐던 어떠한 것에 대해 조금은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의 새시리즈 작업은 철새 혹은 주변의 새가 모티브이다. 인천이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12년 동안 새로운 고향에 정착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인 고향이다. 방황하고 즐겁고 슬펐던 순간순간 하늘 보는 것을 즐겼으며, 학업을 하는데 있어 자연을 소재로 하는 옛 작품들을 많이 접하였다.
어떠한 주제를 갖더라도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소소한 것들이 창작품으로 변신하였고, 그중 새가 주인공인 작업이 많았다.

홍효숙 HONG Hyo-sook

The inner garden_Mixed media_53.5×53.5cm_2011



6–being or nothingness

7–being or nothing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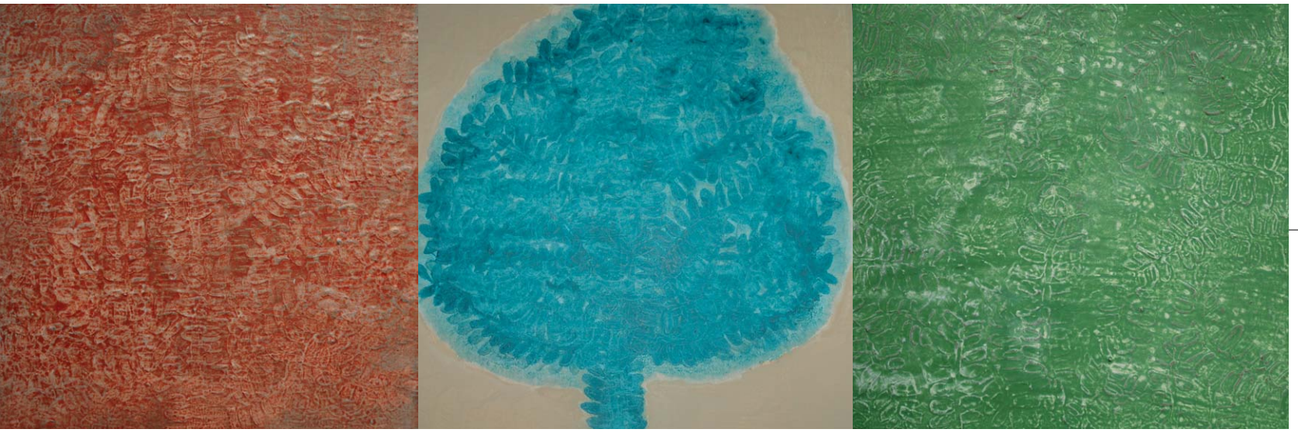
과거의 작업은 중첩된 점을 이용한 작업을 하였다. 중첩이 여러 번 이루어질수록 캔버스라는 평면의 공간은 흐릿한 흔적과 선명한 자국 사이에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이라는 깊이가 생긴다. 근래에는 'The inner garden'이란 테마로 작업을 하고 있다.

'정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새순이 돋는가 싶으면 어느새 꽃이 피고 초록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하다. 가을이 되면 정원은 도 다른 색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나뭇잎 사이로 바람소리와 탐스런 열매를 선물한다.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와 회갈색으로 마른 1년생 풀들이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정원'에는 생성과 소멸이 끝없이 순환하며 성장한다.

'The inner garden'는 내 안에 존재하는 정원을 의미한다.

'The inner garden'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사물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본인이 지각하는 관계에 대한 반영이다. 이들과의 관계 속에도 생명과 소멸이 끝없이 순환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한다.



The inner garden

The inner garden

학력

1973 인천 출생
2001 대진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200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졸업

활동경력

2011 개인전, 현 갤러리, 인천
개인전, 가비양 갤러리, 분당
2010 버티컬 갤러리 개관전 부스 초대전, 버티컬 갤러리, 안양
memory storage #1전, 구올담 갤러리 ,인천
2007 개인전, 홍익대학교 미술전시관, 서울
2002 유연한 움직임 '숨'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Space beam 개관기념전, Space beam ,인천
2001 인천 포스트 전, 인천종합예술회관
New age new image전, 인천종합예술회관

나는 미완의, 불확실한 작가이다 **오석근**

I am an Incomplete, Uncertain Artist **Oh, Suk-Kunn**

전시운영위원, 작가 |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Artist

젊은 작가는 미완의 작가다. 나 또한 그렇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작가란 정말 긴 시간동안을 자신의 색과 철학에 대해 깊고 진하게 보여주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작가라는 칭호는 아직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작가라는 말을 '미완의, 가능성이 넘치는, 불확실한' 이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예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가치는 달라질 것이다.
또 우리는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근본적인 예술이란 시대/패러다임/대중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힘이 있는 작품과 행위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사실 예술이라 불릴 수 있는 작품들이 작가라고 불리는 사람의 수에 비례하게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엄격한 기준이지만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없는 시대에서 가장 적합한 예술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와 정의 아래 우리는 이 척박한 한국 땅에서 어떻게 작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험난한 길이다. 우리는 우리 앞의 수많은 것을 극복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에 다가 설 수 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할 공식은 없다. 결국 스스로 깨달아 가며 나아가야 한다. 그러하기에 나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되며, 많은 것을 고민하는 젊은 청년 작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적어 볼까 한다. 예술계에서의 길지 않은 활동과 허접한 식견으로 얻어낸 것들이지만 말이다.

자생/실천/소통/공존하고 기다리자.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며, 스스로의 선택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면죄부를 요구하지도 말아야한다. 누구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많은 난관을 뚫고 나아가야한다. 이를 위해선 우리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야 한다. 자생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중의 취향의 폭이 좁고 예술의 가치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 한국에서 젊은 작가가 전업 작가로 활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결국 우리가 기대는 것이 공모/기금/상금이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특히 이 조차 받을 능력이 없는 신진 작가들은 더더욱 기댈 곳이 없다. 결국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한계는 명확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자생하지 못하면 우린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스스로 독립할 때 스스로의 방법을 찾을 때 비로소 안정적이고 성공적이고 작가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가족에게 나의 예술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한다. 그것은 진정 잔인한 일이다.

우리는 한국의 환경에 대해, 미술에 대해 불만만을 이야기 하

A young artist is an incomplete artist. And so am I. This is why my future is uncertain. But this doesn't scare me.

An artist should refer to a person that can deeply and thickly express his or her own color and philosophy for a very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title as an artist is not yet fit for us. This is why we need to think of the terminology of a young artist as an 'incomplete, yet with great potential, but uncertain' being. By admitting and accepting this, our views and values toward art will change.

We also need to be able to answer the fundamental question of art. I believe that fundamental art means the work and act that has the strength to trigger change in time, paradigms and the public. This is why I think that, in a given year, the number of work worthy of being called art is not being produced in the right proportions, given the number of people called artists. I know this is a rather strict standard, but in an age where anything may be art and anything may not be art, I personally think that this is the most reasonable standard we can take.

How can we survive as artists in Korea under such attitude and definition? It is no doubt a rocky road. We need to overcome all the obstacles in front of us to get closer to our goals. But there are no easy ways for survival. The only solution is to realize the way on your own and push forward. As such, I am writing this essay to help the young artists who have just begun in the quest and have so much to worry about. I write this, though my advices are from my short experience in the world of art and based on narrow insight.

Live on your own, act, communicate, co-exist and wait.

Living as an artist is not a privilege but by our own choice. Therefore we should never ask anyone for indulgence. We should not depend on anybody and overcome difficulties on our own. For this, we need to be economically independent. You need to be able to live on your own.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 young artist to work as a full-time artist in Korea where the public's taste is limited and there is no immediate need for art. We eventually turn to prize contests, funds or prize money but such support is not continuous. For new artists who cannot even dream of such support, reality is even more dreadful. The limitations of reality are so clear. Therefore if we cannot live by ourselves, we cannot help but turn into mere instruments. I believe that the only way towards becoming a stable and successful artist is by gaining independence and finding the way on your own. You should never ask your family to sacrifice for your art. That is truly a cruel thing to ask for.

지 말아야 한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단절과 압축으로 많은 것을 놓친 우리의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한 부분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에 대한 분노를 중화시키고 그 이후에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날카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과 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 실천해야한다. 진정 실천하지 않고 불평만 한다면 현실은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지금 많은 작가들의 개인주의는 오히려 예술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이는 한명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하고 발언하며, 실천해야한다. 그리고 예술은 혼자 즐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에 대중들과 적극 소통하며 예술의 힘을 보여주고 예술과 삶의 필연성과 필요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가 소통을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틀을 보여줄 때 비로써 환경의 근본이 바뀔 수 있다. 예술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성급하다. 젊음은 성급함을 항상 동반한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해 그 성급함은 날려버려야 한다. 또한 작가의 세계는 로또가 아니다. 한 번의 성공이 모든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 한번 반짝하고 사라진 수많은 젊은 작가들을 생각해보자. 그들이 사라져 버린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으로 사고하고, 자만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작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하나하나가 쌓여 거대한 세계를 만들었을 때 자신은 물론 타자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당장 공모나 전시 등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린다고 좌절하지 말아야한다. 또한 좋은 일이 생겼다고 성급한 환희에 젖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넓고 길게 바라봐야한다.

한 가지 더. 우리는 전시가 없다는 성급함에 아무 전시에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력은 작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공모에 지원하거나 전시 제안이 들어올 때 그 전시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과 나의 작품이 어떠한 화학작용을 하게 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진행해야한다. 전시가 없다고 성급하게 진행하게 되면 작가의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의 피를 뽑고 살을 잘라 파는 일이다.
또한 작가 스스로 전시비용을 지불하길 원하거나 지원이 아주 안 좋은 전시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력은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꼬리표이며, 더 크게는 작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미술계의 분위기를 개선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보다 나은 작업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작가는 동료작가가 필요하다. 작가들은 서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대와 예술을 논하고 함께 아파하고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뜻이 모이고 때가 되면 실천을 해야 한다. 또한 작가의 작품을 사랑해 주는 기획자, 큐레이터, 평론가들과 생각과 뜻을 나누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 우리는 그들을 믿고 꾸준히 소통하며 항상 감사해야한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는 서로 목표로 하는 것을 그들과 성취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과 우리는 모두 한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꼭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진실의 탈을 쓰고 작가의 피를 빠는 흡혈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술계 역시 사회와 같이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사람들이 존재한 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자신이 자본과 권력에 관심이 없거나 거부한다 해도 이미 현실에서 당신의 가치와 노력은 자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현대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본인은 현실적으로 문서와 돈이 오고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모든 걸 진행하라고 말하고 싶다. 순간적인 착각과 순진함으로 인해 당신의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것을 적어 보았다.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차후 전시를 통해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풀어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사회의 특성과 매력이다.
우리 주변에는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며 우리를 억압하기까지 하는 가치와 편견이 가득하다. 하지만 우리가 망각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은 많은 곳과 많은 것이 비어있다는 것이다.
자의적이지 못하고 압축적으로 진행된 근대화와 서구화의 과정을 거친 한국에는 아직 들어차지 않은 공간과 가치들이 많기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새로 발견하고 채워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갖은 시도를 통해 발견한 우리의 목소리로 채운다면 한국사회가 가진 학습력과 역동성으로 인해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사회의 여러 변화를 이끌어 내는 힘을 지속적으로 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작가로서 한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매력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이곳은 항상 다양한 일들이 빠르게 발생하여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담론을 생산해 낸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관찰하면 놀라운 이야기와 영감들이 홍수처럼 밀려 올 것이다. 그러하기에 한국은 예술작가에게는 축복의 땅이다. 그 어떤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주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또한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인천은 그 한국 근.현대사의 거울이며 분단을 마주하는 곳이기에 더욱 매력적인 곳이 아닐 수 없다.

We should not complain about Korea's environment or about art. Before blaming anybody, we need to face all that has been lost in our own history of rupture and compression. Our problem is not a simple one. It is a problem of the historical and fundamental parts of our society. We need to neutralize our anger and try to grow a keen eye towards today's many issues. Based on sharp perception, we need to find a way to change reality and fundamentals and act upon them. Who would be able to change reality by just complaining? The current trend of individualism among many artists is actually jeopardizing the chance for change. It is not something an individual can change and therefore needs to be spoken and acted upon by reliable colleagues. Since art is not for the pleasure of oneself, we need to aggressively communicate with the public, show them the strength of art, and the inevitability and necessity of art and life. The fundamentals of our environment will change when we can show the public various ways toward change through communication. Art is not the only thing we should be doing.

We are impatient. Being young always means being impatient. But we need to get rid of such impatience to develop a continuous, long-term ability to discern art. Living as an artist is not a lottery ticket. A one-time success does not promise everything. Think of all the artists that disappeared after a short period of fame. There may be many reasons to their disappearance, but the main reason is because they were short-sighted and self-conceited. An artist needs to be continuous and with long-term insight. You will be able to earn the recognition of others when little efforts here and there eventually mount up to something huge. Do not be discouraged by frustrations in prize contests and exhibitions. Do not be over-excited about good luck. Always bear in mind that everything in life has a time for it and necessary steps to be taken. That is why we need to maintain a wide, long-term vision.

One more advice. Do not participate in any exhibition because there are no exhibitions at hand. History is what shows who the artist is. Proceed with the contests or exhibitions after clearly diagnosing what the exhibition aims at, and how it will chemically react with my own work. If you rush into an exhibition because there are none at hand, the identity of the artist will turn vague. In the long run, that is like selling your own flesh and blood.

You should also be able to decisively refuse participating in exhibitions where artists are asked to put in his or her own money or where the support provided is not satisfactory. Your career history will follow you forever, and in the big picture, we artists also have the responsibility to improve the current practice of the art industry that pressures us to sacrifice ourselves.

In order to raise our voice, to live through, and to make a better working environment, we need to stand together. Therefore an artist obviously needs a colleague. Artists need to share important information, discuss age and art with one another and share tears and laughter. And artists need to act when the time is right. Artists also need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the planners, curators, and critics that are fond of our work. We need to trust them, continuously communicate with them and always be thankful. In that way we will all be able to accomplish what we want in the future, because we are all walking towards the same direction.

There is one thing that we must be cautious of. There are vampires under fake masks of truth, wanting the blood of artists. You must keep in mind that as with the society, the art industry is also comprised of certain political and strategic people. Even if you think you are ignorant to capital and power, in reality your value and efforts are already in the boundaries of capital. It can only turn out this way today. I want to advise you to be as objective as possible when coming to issues of documentations and money. Always bear in mind that all your efforts can go to the drain by a moment's misunderstanding and naivety.

I have written down a few points worth considering. I know that there is still much to be discussed. I hope that the rest can be resolved when we meet and exchange opinions in exhibitions. And I have one more thing I want to mention.

That is the characteristic and attractiveness of the Korean society.

We are surrounded by values and prejudices that pressure us and might as well never change. But we often forget that Korea is empty in many places and in many objects. Korea was forced through modernization and westernization in a compressed manner. This is why there are so many blank spaces and values that we may be able to discover and fill in. If such empty spaces are filled with the voices we so vigorously tried to discover, we will be able to see how the society changes, based on the fast-learning, dynamic power of Korean society. This will continuously provide us with strength to change many aspects of the society that was once thought unchangeable. We need to be aware of this point.

I also want to mention that as an artist, there is no other place like Korea that holds so much attractiveness. In here, various things happen in a fast pace, stirring up a number of discussions. If we pay attention to such issues, we will be flooded with surprising stories and inspirations. This is why Korea is a blessed land to artists. Unlike in any other country, we are surrounded by realistic and historical topics.

This Incheon, the place that I am working at, is the reflection

우리는 비록 현실에서 넘어야할 많은 것이 있지만 스스로 원하고 변하며 새로운 시도를 진행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 줄 수 있는 곳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다.

to Korea's recent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is the area in which we can closely observe division. It is therefore an even more attractive place to work as an artist.

Although there are a number of obstacles to overcome in reality, if we sincerely want it, and if we continuously change while attempting to challenge new ideas, the Korea that we live in can be a place that will show us a new world.

산술(算術)하다 **유광식**

On Incheon **Yoo, Gwang Sig**

전시운영위원, 작가 |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Artist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의 느릿느릿함은 현대의 상품이 되어 걷는 일조차 특별함이 되어 있다. 중동의 정치변화는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장기 집권세력이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작전 세력에 의해 제거되는 상황을 내 방 귀퉁이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켜보았다. 인터넷 환경은 이런 일을 적나라히 가능케 하여 지구 반 바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던져 준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에서조차 이를 통제하기는 어렵다. 팝스타 마이클잭슨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오바마의 당선과 후세인의 몰락을 나는 내 작은 12인치 LCD화면을 통해 숙지하였다.

나는 현재 서울을 거쳐 인천에 자리잡고 있다. 돌이켜 보면 삶의 1/3을 조용한 촌락아이로 1/3은 서울에서 국민교육을 나머지 1/3은 사회생활로의 인천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경박한 구분이 나름 재미있다. 내 작업의 모티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저 삶의 방향에서 뒤안길에 팽개쳐 있던 유년 생활 전반에서 얻어지고 있다. 도시산책이 유년의 여정을 현재로 잇는 과정임을 여실히 증명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권에서 교육 되었다. 교육된 내막과 현실을 통해 격변의 모양은 폐쇄회로라 함이 적당했고 나는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다. 약자의 개념이 머리를 감싸 안았고 지켜낼 수 없는 절망의 사무침은 큰 울분을 자아냈던 거 같다. 그저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뚜렷함이라는 출구를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젊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의식의 문제를 야기했다. 의식은 불편하다. 그 불편을 피함이 어떻게 보면 '도모'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현재 '도피'로서의 경우가 많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회(死回)라고까지 믿고 싶었던 적도 있다. 이후 사회(社會)에 디딛고 나섰지만 자상함은 실종되고 허우적거림은 재차 고민이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은 둘째요 기대고자 하는 이웃 '관계'의 문제가 컸었다. 같은 모습 다른 사고의 화합은 너무도 어려운 뜨개질이어서 글로벌 세계를 표방하는 '하나'의 개념이 도달할 수 없는 상징적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온기가 부족하다.

인천은 끊임없는 흐름과 그 운율을 토대로 탄성이 깃들어 있다. 그 속에 문화와 경제가 있고 정치가 모양지고 삶이 존재한다. 조금은 슬픔이지만 도시가 가지는 본연의 의미일 수 있음으로 간직하는데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시각은 사람보다 풍경적 이미지나 텍스트가 많은게 사실이다.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해 사람으로 귀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의 핑계가 없지 않다고 보여지며 사실의 모습을 스스로가 부각할 수 있는 재량으로 유인하는 자세는 내게도 그리고 네게도 당부하고 싶은 일이다. 이전에는 많은 방황과 슬픔, 격정의 기쁨을 안겨준 시대의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그 지점의 진솔한 표현이 절실해지기 시작했다. 광주사태가 왜 중요한 사실인지 무상급식

We are living in a time of great change. The slowness of the past has become a certain commodity of today and has rendered even a simple walk as something special. The political change in the Middle-East is no longer surprising. I watched the long term ruling party being taken down by the opposition through tactics only to be seen in games from the corner of my room whilst sipping coffee. The internet makes such things plainly possible and throws at us real-time information of what is happening halfway around the world. Even the US, the world's greatest economic power, finds it difficult to control such matters. I observed the death of the pop star, Michael Jackson, and was briefed of president Obama's election and the fall of Hussein through my small 12-inch LCD screen.

I have settled in Incheon after wandering through Seoul. Looking back, I have spent 1/3 of my life as a quiet village kid, 1/3 receiving national education in Seoul, and the remaining 1/3 on community life in Incheon. This is a rather facetious classification. The motif for my work came from my overall childhood that was scattered among the unexpected backwaters of life's directions. A trip to the city became a definite bridge between my childhood journeys and the present. I was educated in Seoul, the heart of the Republic of Korea. I despaired at what I was taught with reality. The rapid (social) changes took form in the shape of a closed circuit. I was powerless. The thought of weakness and despair over powerless hopelessness, lead me to immense rage. I longed after the outside world while unable to seek clarity in finding a way out. As such, youth brought on the problem of consciousness. Consciousness is unsettling. Avoiding the discomfort may be a 'plan' in some sense, but it is undeniably an 'escape' from reality in most cases. At times, I even wanted to believe it a 'resurrection'. Later, I managed to resurface in society but kindness was gone missing and I found myself still struggling. 'What' I aimed to do was the second on my list, whereas the 'relationship' with neighbors was the bigger problem. Knitting together same appearances with different thoughts was such a difficult fit, that it seemed like nothing more than a symbolic meaning that could never arrive at a 'single' concept of globalization. It lacked warmth.

Incheon embraces endless flow, the rhythm of the flow, and the exclamation of the rhythm. Within it lays culture and economy, politics and life. There may be a hint of sorrow, but this simply originates from the meaning of the city itself, perhaps because at its center exists people. It is true that our vision mostly consists of scenery or texts rather than people. Of course it may begin there and end with people. However this seems rather like an excuse. I want to ask not only myself, but also you, to use at your discretionary means to portray and emphasize the truth. If the past was an era of processing

이 왜 필요한지 투표행위가 무언지 등에 현재의 젊음 안에 각별한 시선이 있어야 하겠다. 작품과의 관계가 없다고 할게 아니라 작품을 소화하는 시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에 하는 말이다. 소설가 이외수는 지하철에서 겪은 비뚤어진 현실 상황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면 그리고 고쳐줄 수는 없어도 걱정은 하고 살아야 함을 주장한다. 최근 100만 팔로워를 넘긴 그가 말하는 '걱정'이라 함은 누군가 감히 조종할 수 없는 자의식을 강조한 말이렷다. 나아가 한 개인이야말로 주체로서 위대하지만 다른 한 명의 주체가 가로세로로 엮여 따뜻한 스웨터가 되었을적에는 위대한 탄생일 것이다.

뼈를 묻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인천은 나의 한 터이다. 과거의 이적을 바탕으로 현재의 의미를 알고 새로히 지평을 넓히는 것이야말로 내게도 그리고 터의 호흡이라고 믿는다. 그 터를 열심히 디딛고 보며 관계 짓는 작업이야말로 사회 움직임의 활동 에너지로 충전된다. 너무도 개인화 되어버린 상황은 작업의 경계가 발생되고 관계의 파편화로 인해 결국은 홍수라지만 가뭄일 수 밖에 없다는 표현이 된다. 인천의 젊은 작가라는 의미는 현재의 의미다. 그 현재를 직시하며 가는 삶이야말로 살아가며 웃어야 하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비치고 질문을 던지고 자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상황(전시적 성격)이 그래서 소중한 사건이다. 인천을 넘어 세계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가 되고 작가적 태도로 견지해 나가야 함이 아무 이상할 것 없다. 젊은 작가도 중요하고 작가의 젊음도 중요하다.

나는 현재 제주 해군기지건설로 인한 구럼비 해안의 파괴에 대해 매일 전달되는 메일에 마음이 꼬여 DNA 구조처럼 복잡스럽다. 이전 4.3평화기념관 내 제주 모형도 앞에 버튼 하나가 있었다. 그 버튼 아래 이런 문구가 써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제주가 초토화 됩니다' 눌렀더니 빨갛게 제주 지형이 물드는 것이다. 우리는 그 뜻이 무언지 알 것이다. 구럼비가 되살아 난 버튼이 아닐까? 이런 추정만이라도 충분히 위태롭다. 인천! 매립된 대지 아래 버튼이 있지 않을까? 인천이 초토화 되든지 예술이 초토화 되든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다.

much wandering and sadness, of intense happiness, now is when expressions of sincerity are most urgent. Among today's youth, we need a keen eye that understands why the Gwangju Uprising is important, why free lunches at schools are necessary and what the act of voting means. It is not irrelevant with the work, and I say thi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escape the relationship with the era in which such work is placed. Novelist Lee, Oisoo wrote of the twisted reality in the subway and of how if one couldn't intervene or fix the situation today, one certainly still needed to worry about it. Lee, who now has more than 1 million Twitter followers, speaks of 'worries' in the context that emphasizes the self-identity that nobody can manipulate. Furthermore, an individual is undeniably mighty as a single identity, but if that individual is knitted together crisscrossing with other identities into a warm sweater, then that itself would be a great creation.

It is not my intention to die here. Incheon is where I am at. I believe knowing the meaning of today through roots of yesterday and further expanding towards a new horizon is what keeps myself and this land in sync. The very act of passionately standing over the land, seeing it and connecting to it, re-energizes social movement. Too much individualism hauls barriers over the work, and the fragmentation of relationships ultimately depicts a flood that can only be seen as a draught. The meaning of Incheon's young artist is one of current meaning. Life facing the present may be yet another story that we need to live out and smile at. Reflecting each other, questioning another, considerate answers to one another is an event (exhibiting nature) that is most precious. There is nothing strange to the fact that we need to take interest beyond Incheon and towards the world movements while pacing ourselves with an artist's perspective. A young artist is as important as the artist's youthful nature.

My find myself twisted and complicated like DNA structures from the daily mail sent to me on the destruction of the Goorumbee coast due to the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on Jeju Island. Formerly there used to be a button in front of the model map of Jeju within the 4.3 Peace Museum. There ran a phrase beneath the button. 'Jeju Island will turn into ashes with one press of this button.' The Jeju miniature model would then turn red once the button was pushed. We all know what this means. Perhaps it is the button to revive Goorumbee? Such assumption itself is already dangerous. Incheon! There may be a button buried underneath the reclaimed land. Whether Incheon or art turns into ashes, we live in an era in which imagination becomes reality.

윤종필 전시운영위원, 커뮤니티 아티스트
Yoon, Jong-Pil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Community Artist

인천. 흔적을 고스란히 기억하다

- 작가 전승용을 만나다.

윤종필(윤) 안녕하세요. 전승용 작가님

전승용(전) 안녕하세요.

윤 우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잘 아시다시피 인천문화재단에서 시작해온 전시기획사업으로, 제작년에 인천의 살아계신 원로작가들을 중심으로 "인천미술의 초석"전, 그리고 중견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인터_뷰"전 그리고 올해는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인천의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유어인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젊은 작가를 한 분 소개하는 차원에서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윤 자신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인천 중구 신흥동에 거주하고 있고, 인천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에서 예술체육학부 미술전공 수업과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윤 작년 인터_뷰전에는 전시를 준비하는 스태프로 참여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또 이번에는 이렇게 참여작가로 참여하시는 걸 보면 이 기획전시와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일들을 하셨었나요?

전 인터_뷰 전은 2010년 인천문화재단의 기획전 이었습니다. 당시 어시스던트 큐레이터로 참여하면서 선정된 작가분들께 전시에 대한 소개와 참여 여부를 일일이 전화드려서 여쭤 보고, 작가가 모두 선정 된 이후에는 연락 담당을 맡아 전시 일정에 차질 없이 참여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인터_뷰 전에서는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1980년대 90년대 인천미술계의 그룹운동과 대표적인 전시들에 대한 아카이브 전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주요 업무가 아카이브 전에 대한 자료수집과 자료정리였습니다.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인천 미술사에 대한 최초의 아카이브 전을 구성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많이 부족했지만 그 덕분에 인천미술에 대해 많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윤 아 그렇군요. 이번 유어인천 젊은작가 전시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인가요?

Incheon. Remembering its Trace.

-Interview with Writer, Jeon, Seung-Yong

Yoon, Jong-Pil ("Yoon") Hello, writer Jeon, Seung-Yong

Jeon, Seung-Yong ("Jeon") Hello.

"Yoon" First, thank you for agreeing to the interview.

"Yoon" As you know, Incheon Art Platform is taking on the special exhibition business from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with the planning of "You're Incheon" Exhibition by young artists. This exhibition is an extension to the "Cornerstone of Incheon Art" Exhibition by veteran artists residing in Incheon, and the <Inter_View> Exhibition by established artists of Incheon of the previous years. So, I requested this interview to introduce a young writer.

"Yoon" Could I ask you for a brief introduction?

Jeon: I currently reside in Sinheung-dong, Jung-gu, Incheon and I am a Research Fellow of Arts and Science at Incheon Children's Museum. I also lecture at Inha University's Arts and Sports Department majoring in art and cultural studies.

"Yoon" I heard that you also worked as a staff member for last year's <Inter_View> Exhibition. You are now a participating artist for this exhibition. You seem to have quite a connection with special exhibitions. What kind of work did you do then?

"Jeon" The <Inter_View> Exhibition was planned by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in 2010. I was an assistant curator then and my job was to contact the selected artists, to introduce the exhibition, ask for their participation, and to manage their work from thereon to prevent delays in schedule. Also during the <Inter_View> Exhibition, for the first time there was an archive exhibition of the leading works by Incheon artists and group movements of 1980s and 90s. My main responsibility was to collect and organize works for the archive exhibition. Of course I didn't do it on my own and had help from so many great people. We managed to organize the first Incheon archived art exhibition in Incheon history. Although quite lacking,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study about Incheon art.

"Yoon" Yes, of course. What would you say was are your inspiration or motive for participating in the You're Incheon, Young Artist Exhibition?

전 이번 전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기에, 비록 현재 회화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2004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지역의 예술 활동에 참여해 온 개인적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참여했습니다. 또한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저를 통해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 저 역시도 작업실에서 작품을 만들어 낸다기 보다 활동적인 측면이 강한 커뮤니티 아트를 기반으로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전승용 작가의 말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윤 전승용 작가는 현재는 작품제작 활동은 하지 않고 지역에서의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전엔 어떠한 작업들을 했었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까요?

전 학부 때에는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살바도르 달리처럼 고무줄처럼 늘어진 인간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시스(narcissus)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애와 그것을 넘어 우매한 인간의 모습까지 드러내고자 하는 평면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평면 작업이 아닌 작품에 마주한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 작품에 비춰 질 때 완성되는 작품 등 조금이라도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특히 표현주의 작가들이 예술을 통해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것처럼 예술을 통한 사회변화를 이루어 보자! 라는 개인적 신념에서 그 시발점으로, '나'라는 개인에서 출발해서 보는 이와 함께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05년 에듀아트페스티벌에 참여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때 진지한 물음을 담고 있던 제 작품이 관람객들에게는 단순히 유희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작업을 통해 관람객에게 쉽게 다가가고 서로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 했습니다.

2007년 '해몽'전의 작업이 대표적인 예로, 2007년도가 돼지해라 신세계갤러리에서 신년 기획전으로 준비한 전시로, 당시 손수 만든 돼지인형과 행운의 쪽지를 함께 넣어 복주머니를 만들어 관람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람객은 복주머니를 가져가는 대신 자신의 소원을 적은 소원지를 작가에게 주고, 복주머니에서 나온 점 꽤가 마음에 들면 설치된 돼지저금통에 복채를 넣고 가는 방식의 작업을 했습니다. 아직도 전시기간 쓰일 돼지를 밤마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매일 200마리 이상의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런 참여형식의 작업 외에도 2006년 도시유목–Good buy Incheon 전에서는 수인선 철로를 걸어 곳곳의 이미지를 담아냈고, 2006년 겨울에 시작해 2007년 3월에 종료된 공공미술프로젝트 도시유목2–Discovery에서는 인천 구도심에 텐트를 치고 머물며 그 공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전시장에 전시하기 위한 작업에서 벗어나 비평글쓰기, 축제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Jeon: The aim of exhibition is to encourage young artists of various platforms to participate. Although I am currently not working on any art pieces, I have participated in various local art activities since 2004 and I wanted to show my personal progress. I also wanted to show the diverse fields artists can partake through my experiences. Above all, I wanted to arouse artists to think about the various fields to be explored as artists.

"Yoon" I can relate as I too work in community art with strong active tendencies rather than as a studio based artist.

"Yoon" As a writer you are not currently writing but are quite active in various cultural activities. Can you describe what kind of work you did in the past?

"Jeon" During my undergraduate studies, I loved the expressive surrealist techniques. I drew a lot of drooping elastic human figures like Salvator Dali. My inspiration was from the Greek mythology Narcissus. I wanted to depict two dimensional images of narcissism, moreover the ignorant image of humans. However rather than insisting on keeping it two dimensional, I also focused on the reflection of viewer on the piece for full completion. I tried to enlist viewer participation. Just as expressionism artists dream of utopia through their art, I wanted to change society through art. With this thought as a starting point, I began working on a project where it began with 'I' the private person toward a sharing of concern with the viewer.

In 2005, I ha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Edu-art Festival. I was blown away by how my serious question raising work was received by viewers as entertaining. The experience changed my perspective and I converted to an easily approachable work entertaining for both parties.

The 'Reading Dreams (2007)' piece is a good example. 2007 was the year of the pig. The piece was a new year celebratory piece at Shinsegye Gallery. I made a pig doll, wrote a fortune on a note, and placed them in a good luck pouch. It was to handed over to viewers to take. The viewers could take the given pouch or give back the pouch with their own fortune wish note to the author. If they liked the fortune pulled out of the pouch they would pay the a fee for the fortune in the installed piggy bank. I can still remember making over 200 pig dolls with my family every night during the exhibition.
Other works in the form of participation includes, the 2006 City Nomad - Good buy Incheon Exhibition where I walked the Suin Line to capture various images of the railroad. The City Nomad 2 - Discovery project that began in the winter of 2006 to March 2007, required that I stay in tents to capture the story of the space. From then on, I broke free from exhibition based work toward critical writing, festival planning and other various activities.

윤 그런 작업 혹은 활동의 변화과정이 있었군요.

윤 아시다시피 이번 전시 "유어인천"은 인천젊은작가프로젝트라는 서브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전승용 작가는 "젊은 작가"라는 말을 들을 때의 느낌과 생각은 어떤가요..?

전 아..... 일단 젊은 작가라는 범위가 애매하네요. 그러나 제가 젊은 작가라니 기분은 좋습니다. 2004년부터 인천에서 활동한지 7년 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젊은 작가라니 나이 때문 인가요? 아직 30대 중반이니깐? 하지만 젊은 작가라니 무언가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활동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듭니다. 그리고 지역의 젊은 작가 중 한 사람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그렇다면 "젊은 작가"라는 말이 담고 있어야 할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 "젊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사실 이제는 "젊음", "젊다"라는 것은 제가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젊은 작가라고 한다면 아직 자신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또한 다양한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젊은 작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모습! 그것이 젊은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윤 삶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 !! 그것이 젊은 작가의 가치라는 말씀이군요.

윤 전승용 작가는 인천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컨데, 출생이랄지 거주, 교육, 인천을 모티브로 하는 작업 혹은 주요 작업 활동지가 인천이라든지 등...

전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현재의 직장까지 모두 인천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부모님께서는 2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결혼한 동생네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친척들도 모두 인천에 살고

"Yoon" You went through quite a change in your work or activities.

"Yoon" As you know this exhibition "You're Incheon" is attached with the subtitle Incheon's young artist project. What is your impression and thoughts on hearing the title "young artist?"

Jeon: Ah...well the definition of young artist is rather vague. Although it does make me feel good to be considered as a young artist. Since 2004, its been 7 years since I've been active in Incheon. Perhaps its because of my age as I am still in my mid thirties? However I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on being named a young artist. It inspires me to be more active. I'd like to thank the organizers in thinking of me as a young active artist in the region.

"Yoon" So then in your opinion, what does "young artist" mean?

"Jeon" "Young"...the thought of it alone makes you feel good. In fact, "youth," and "being young" sometimes doesn't even feel like something I have anymore. But I think being a young artist means that you are in a period where you still have the opportunity to show yourself in various means. I think young artists should have the attitude to try many things and embrace diversity, and not be insistent on one way. A young artist is one who thinks and questions endlessly, one who passionately seeks answers and challenges themselves. I believe this is what it means to be a young artist.

"Yoon" You believe the value of a young artist is to never settle in life but to continuously think and challenge oneself.

"Yoon" What is your relationship with Incheon? For example, is it your place of birth? A place of residence or education? Does your work include Incheon as your motiff? Or do you work in Incheon or is your main area of activity? etc.

"Jeon" I was born in Incheon, and educated from primary to higher education in here. I currently working in Incheon. Everything has been in the confines of Incheon. I still live in Incheon and my parents operate a small restaurant in the same place for over twenty years. My married sibling also live in the same neighborhood and all my relatives still live here. Incheon is my home.

"Yoon" You are a born bred Incheon native?

"Jeon" Yes, I am a complete Incheon native.
Yoon: Have you ever left Incheon?

"Jeon" You'd think with military service I would have left once but I was a public service worker and other than the 4

있습니다. 저에게 인천은 바로 집 같은 곳이죠.

윤 완전한 인천 토박이군요?

전 네 완전 인천 토박이입니다.

윤 그럼 인천을 떠나 있었던 적은 없나요?

윤 군대 때문이라도 있을 법 한데 아쉽게도 저는 공익근무요원 출신이라 기본훈련 4주간 인천을 떠나 있던 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인천을 떠나 본 적이 없네요.

윤 아하~ 그렇군요 !!

윤 그렇다면, 전승용 작가가 바라보는 혹은 생각하는 “인천”이란 무언가요?

전 현실적인 입장에서 인천이란 제 학위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혹은 이것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일상적 관계에서 인천은 삶의 공간이죠. 아마 인천은 나에게 연인까진 아니더라도 애증의 관계는 될 것 같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떠나도 다시 돌아 올 수밖에 없는 곳. 무엇보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해준 곳이 인천이니까요. 늘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도 인천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다른 곳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인천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늘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곳이 인천입니다.

윤 (하하하) 인천과 애증의 관계라는 표현이 재미있네요.
인천은 서울이 가까워서 그런지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인천은 흐르는 도시여서 사람이건 물류이건 모여서 퇴적된다기보다 흘러 모였다가 우루루 흘러 빠져나간다고들 합니다. 전 작가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 저 역시 처음 전시를 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고, 비록 석사 학위 청구전이지만 첫 개인전을 서울 인사동에서 열고 이후에도 인천과 서울을 오가면 전시하면서, 서울에서 더 많이 전시하고 그곳에서 작가로서 유명해 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을 공부하면서 또한 인천에 점점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때 분명 인천은 유목적 성격이 강한 도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건 문화가 되었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곳이죠. 그렇지만 그 흔적들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인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흔적들에 관심을 갖고 들춰냈을 때 바로 인천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죠. 역사적으로 개항장이라는 문류와 문물이 처음 유입되었던 공간에서 경제개발과 함께 공업도시로서 그리고 어느새 신기루처럼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고 바다

week military training outside of Incheon, I truly have never left Incheon.

"Yoon" Aha~ I see!!

"Yoon" So, in your perspective or mind, what is "Incheon?"
Jeon: From a realistic standpoint, Incheon is the subject of study for my master's thesis. But before that, with no relation to this, Incheon is simply a place of everyday life. I perhaps have not so much a loving relationship with Incheon but more of a love hate relationship. Incheon is a place where I would like to escape from but am unable to, a place where even if I leave, I can't help but come back. Incheon has made me who I am since birth. Incheon, is a place that makes me always think, and is the driving force that moves me. Incheon changes more at a fast pace than any other place, so you can't let your guard down even slightly or you won't see Incheon in its true form. Incheon makes you always stand on guard.

"Yoon" (Laughing) I like your expression of having a love hate relationship with Incheon. Because Incheon is close to Seoul, and probably due to the geopolitical aspects, people commonly refer to Incheon as a flowing city. Be it people or freight, rather than being piled into heaps, it is commonly thought to be flowing together and cleared out in waves. 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Jeon" I too went to Seoul for my first exhibition. Albeit for my masters degree exhibition, I opened my first solo exhibition in Insa-dong Seoul. Afterwards, I went back and forth Seoul and Incheon and thought of exhibiting more in Seoul to become a famous artist there. However studying Incheon and becoming more captivated by this place, Incheon without a doubt was a city of strong nomadic characteristics. Whether is was people or culture, it passed through Incheon fast paced. However, Incheon's characteristic is that it remembers the traces. Once you take interest in the traces and seek it out, you are able to see the true Incheon. Historically, it was the first port to open where foreign products and culture flooded in. It became a pla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 city of industrialization. As if a mirag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as constructed and a city was built in the middle of the ocean. Incheon is a chameleon like city. This itself is Incheon's attraction. Even now many discuss and research Incheon's identity in efforts to define it. I too once studied Incheon's identity but haven't been able to make any conclusions. Incheon is a place of endless changes. If something falls out, another quickly fills its place. I believe that is Incheon.

Incheon Art Platform is a good example. The place where the warehouse stood since opening of port has been transformed into ab exhibitional·cultural space resulting in the changing of Incheon's most prominent commercial district to a leading art district. I believe that it is proof that Incheon's memories

한가운데 도시가 생기는 곳. 마치 인천은 카멜레온 같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천의 매력 아닐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천의 정체성을 논하고 있고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합니다. 저 역시 한때 인천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그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인천이란 변화무쌍한 곳이며 무엇인가 빠져나간 만큼 또 다른 새로운 것이 그 빈자리를 너무 빨리 채워지는 곳이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인천아트플랫폼이 하나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개항이후 줄곧 창고였던 자리가 이제는 전시 ·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하고, 이로 인해서 과거 인천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이 이제는 인천을 대표하는 예술지역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인천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흔적들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네,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해주신 말 중에 “흔적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강하게 남네요. 그리고 “카멜레온 같은 도시”라는 표현도 재밌구요.

윤 “인천” 이라는 “지역성” 혹은 “사람” 혹은 “공간” 혹은 “개념” 등이 전승용 작가가 하는 물질적인 작품의 형태 혹은 비물질적인 작품 활동 등에 투영이 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투영이 되거나 영향이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2005년 석사학위 청구 전은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나에 대한 이야기와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것을 회화작업으로 표현 했습니다. 특히 황해미술제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이슈를 개인적 작업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에듀아트페스티벌, 남성비웃날래, 도시유목, 도시유목2 등의 전시와 공공미술에 참여하면서 단순 평면작업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인천문화재단의 젊은비평그룹으로 활동하면서 인천이라는 곳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당시 문화경영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인천 자체가 연구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단순 회화작업에서 벗어나 글쓰기와 지역 축제 기획(2006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문화예술교육과 전시기획 등 인천이라는 공간자체가 재료가 되고 작업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곳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곳이며, 제가 인천 사람이라는 것 자체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윤 전승용 작가는 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에서 활동을 하는 신진작가 혹은 젊은 작가들이 나올 텐데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전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인맥과 환경 속에서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들도 모두 혼자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발은 모두 혼자 내딛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and traces are exerting its power.

"Yoon" Yes, I couldn't agree more. From your words, the expression "the place where it remembers the traces" leave a particularly strong impression. Also the expression "chameleon like city" is quite amusing.

"Yoon" Is "Incheon" in its "regionality" or "people" or "space" or "meaning" reflected in your material or immaterial form of work, and if so, could you explain how it will it be reflected or what influence it's had on your work.

"Jeon" The 2005 masters degree exhibition was a 'self-portrait' theme piece. It was a painting that depicted my story with personal perspectives on social issues. Since participating in the Yellow Sea Art Festival, I particularly did a lot of work on depicting social issues and resolving them in personal viewpoints. By participating in exhibitions and public art such as Edu-art Festival, the Male Biunnale, City Nomad, City Nomad 2 and so forth, I converted from simple two dimensional work to other forms. From 2006 to 2008, I was part of a young critique group at Incheon Foundation for Art & Culture which lead me to become more interested in Incheon. While studying an academic course in cultural management, Incheon became a subject of study. From then onwards, I broke free of painting methodology toward writing, planning local festivals (2006 Juan Media Culture Festival), studying cultural art studies, and exhibition planning. Incheon itself has become my material and source of inspiration. The fact that I am an Incheon native should be answer in itself.

"Yoon" You are said to be fostering younger academic minds. Is there any advice you'd like to give to future photographers and young artists working in Incheon?

"Jeon" Even those graduating from a good university with great personal network, beginning their artistic life in a good environment, start out alone. Everyone takes their first step alone. No matter how good your situation or condition is, if you don't have the passion for your work it's all useless. Being a young artist is as I've explained earlier, one who thinks endlessly, who passionately seeks answers and challenges oneself. Like the old saying 'never be satisfied on the first spoon' or 'a great journey begins with the first step,' it's the first step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e journey of personal struggle is long but the experiences along the way and the people you meet will make the journey enjoyable. I also have not journeyed far but from my experiences so far, and from all the relationships I've made it has and will continue to drive me toward my journey.

"Yoon" That's good advice. It'll help new artists just starting out.

여건이라도 본인이 열정을 갖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겠죠. 젊은 작가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끊임없는 자기 고민과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그 첫 걸음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을 위한 긴 여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경험하거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여행은 분명 즐거울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역시 여행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 그리고 제 여행에서 맺게 된 많은 인연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고 앞으로도 제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니까요.

윤 좋은 말씀이네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을 보여주시는지 소개해주세요.

전: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개인적인 활동들을 살펴보면 작가에서 활동가로 그리고 연구자, 그리고 교육자까지 인천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여한 전시도록 및 리플릿, 비평글이 게제 된 서적, 연구논문, 영상 등 다양한 결과물을 통해 전승용이라는 작가의 활동과 지금까지의 과정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아카이브 형식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가로서 지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를 유어인천 젊은 작가 전에 참여한 작가들과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윤 마지막으로 유어인천 전시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있으면 해주세요.

전 이번 전시는 인천미술의 초석전, 인터_뷰전 이후 인천의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발굴하고 재조명한다는데 의미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아직도 서양화, 동양화, 조각, 사진 등 장르적 구분을 통해 한정짓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유어인천 전처럼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전시가 앞으로도 많이 기획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젊은 작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전시가 되길 기원합니다.

윤 바쁜 와중에도 오랜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on" Could you introduce your piece in this exhibition?

"Jeon" As I've mentioned before, I've been active in various fields - from a private artist, to writer, to activist, to academic, and to educator. Therefore I am participating in the form of archives showing catalogs and leaflets of private works, books containing my critical writing, research thesis, visual art and various other works to show the activities of Jeon, Seung-Young the artist and the progress so far. Through the exhibition, I hope to raise awareness with other participating artists of You're Incheon - Young Artist Exhibition on the various means of participation on a local level as well as various ways to express oneself's full potential.

"Yoon" Lastly, do you have any comments on the You're Incheon Exhibition?

"Jeon" I think this exhibition is meaningful as it discovers and refocuses on young Incheon artists since the <Cornerstone of Incheon Art> and <Inter_View> exhibitions. There is a certain limit to classifying young artists of diverse fields to genre classifications such as western art, oriental art, sculpting, photography, and so forth. I hope there are more exhibitions like You're Incheon that acknowledge the diverse methods of active artists. Using this exhibition as a starting point, I hope young artists can be proud of their work and be inspired to be active in the various fields of art.

"Yoon" Thank you for taking time from your busy schedule to answer this long interview.

인천미술의 초석展

2009. 10. 5(월) ~ 18(일)
장소 : 인천종합문예회관 전시실
기획위원장 : 손병철
기획위원 : 권경애, 이종구, 최병국, 도지성
책임큐레이터 : 이경모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김창호

인터뷰_인천 미술, 예기치 못한 경계의 경험展

2010. 7.21(수) ~ 8. 29(일)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자문위원 : 이경모, 심상용, 박석태
큐레이터 : 공주형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전승용

인천젊은작가 기획프로젝트 전시진행 개요

2011. 2. 24(목)
제1차 자문회의
1. 참석자(가나다순)
민운기(스페이스빔 디렉터)
박석태(미술평론)ㅋ
윤종필(인천작가 및 기획자)
이종구(인천아트플랫폼 운영위원 겸 작가)
이 탈(인천아트플랫폼 1기 입주작가)
2. 논의사항
전시기간
전시 방향성
전시제목
참여작가 모집 방식

2011. 4. 6(수)
제2차 기획회의
1. 참석자
민운기(스페이스빔 디렉터)
박석태(미술평론)
오석근(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2. 논의사항
전시 방향성
전시형태
전시제목
참여작가 범위
참여작가 모집 방식

2011. 5. 12(목)
제3차 기획회의
1. 참석자
민운기(스페이스빔 디렉터)
박석태(미술평론)
오석근(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윤종필(인천작가 및 기획자)
채은영(전시기획자)
김용진(부평아트센터 큐레이터)
2. 논의사항
전시제목
참여작가군 범위
참여작가 모집 방법
작가 공모안 구성
작가지원 방식
전시공간

2011. 7. 7(목)
참여작가 모집 공고

2011. 7. 14(목) ~ 7. 31(일)
참여작가 지원서 접수

2011. 7. 28(목)
제4차 기획회의
1. 참석자
민운기(스페이스빔 디렉터)
박석태(미술평론)
오석근(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윤종필(인천작가 및 기획자)
2. 논의사항
참여작가 선발 방식
아카이브 구축안
오프닝 관련 행사 및 포럼
오리엔테이션 진행 방식

2011. 8. 8(월)
제5차 기획회의
1. 참석자
민운기(스페이스빔 디렉터)
박석태(미술평론)
오석근(인천아트플랫폼 2기 작가)
윤종필(인천작가 및 기획자)
2. 논의사항
포럼 및 집담회 추진 방향
오프닝 행사 진행 방식
전시 제목

2011. 8. 12(금)
오리엔테이션 개최
1.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C동 다목적실
2. 참석자 : 총 52명
3. 구성 : 전시 취지 설명, 참여작가 집담회 안내,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안내

2011. 8. 12(금)
제6차 기획회의
1. 참석자
민운기(스페이스빔 디렉터)
박석태 (미술평론)
오석근(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유광식(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윤종필(인천작가 및 기획자)
2. 주요안건
전시제목 확정
활성화 방안
전시 온라인카페 운영

2011. 10. 21(금)
제7차 기획회의
1. 참석자
민운기(스페이스빔 디렉터)
박석태 (미술평론)
오석근(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유광식(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윤종필(인천작가 및 기획자)
2. 주요안건
참여작가 명단 공지
공간사용, 작품배치
홍보물 구성 및 원고(리플렛 겸용 포스터, 자료집)
심포지움 진행 방향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안

2011. 11. 8(화)
제8차 기획회의
1. 참석자
박석태(미술사가)
오석근(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유광식(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2. 주요안건
작품배치
참여작가 집담회
오프닝 계획
향후일정 공지

2011. 11. 10(목) ~ 12(토)
출품작품 반입

2011. 11. 13(일) ~ 15(화)
작품 설치 및 전시장 구성

2011. 11. 19(토)
전시 오픈

제1차 자문회의

1. 일시 : 2011년 2월 24일(목) 17:00~20:00
2.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실
3. 참석자(가나다순)
민운기(스페이스빔 디렉터)
박석태 (미술평론)
윤종필(인천작가 및 기획자)
이종구(인천아트플랫폼 운영위원 겸 입주 작가)
이탈(인천아트플랫폼 1기 작가)
이영리(인천아트플랫폼 학예팀장), 김민경(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이종구(이) 당초일정은 촉박합니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리(팀) 전체 사업을 봤을 때 기간 조율한 것입니다.

이 준비 기간이 짧을 경우 준비 미흡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꼭 정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석태(박) 지난해도 준비기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너무 편의적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지난해 사업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윤종필(윤) 세대가 인터뷰 전과는 다릅니다. 이 작가 군들이 범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오늘 만약 주제, 타이틀에 대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할 의사는 있는 건가요?

민운기(민) 시작이 원로작가분에 의해 재단에서 나서서 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음 수정해야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진행을 해서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걸 이어가야 하느냐의 문제부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묻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왕 해야 하면 제대로 합시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은 동시대일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관행에 의지하기보다 이 시대의 달라진 문화지형 속에서 작가들의 의미, 고민들을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1호선이라는 가제가 나오긴 했는데, 이를 그런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철도가 갖는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근대적 서구, 모더니즘과 맞물릴 수도 있습니다.

윤 지금 작가들은 1호선을 타고 서울로 나간 세대로서 굳이 부정적인 의미가 노출될 수 있는 것을 제목으로 택해야 하나요? 그 전 전시처럼 작품들을 있는 것을 갖고 오는지요? 그냥 갖고 오는 것이면 안 맞을 것입니다. 전시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신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럼 전시 제목이 억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 활동으로서 아티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들을 어떻게 엮어내느냐가 중요한 듯합니다.

박 장르 중심적인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예술이나 다양한 매체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주제가 중요합니다. 전시작가 뿐 아니라 비평, 큐레이팅 하는 사람들도 끌어내는 방식, 대안공간 묶어내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민 고민과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탈(탈) 경기도미술관이 한 1번 국도와 흡사합니다. 비슷한 제목이 많아서 새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한 작가가 전시장까지 가는 길에 주워온 돌을 끌어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아트플랫폼에서 있으면서 느낀 건 여기가 조선시대 도화원 같은 분위기이고, 묘하게 스튜디오 내주면서 전시공간을 내주고 하는 게 묘합니다. 아트플랫폼 일원이라는 공간에 개념을 버리고, 인천아트플랫폼 이외의 공간으로 확장하는 노력 필요합니다.

이 우선 날짜가 5,6월로 정해진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간으로는 아무리 해도 실패는 아니라 해도 성공은 못할 것입니다.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안 되는 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1년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들 찾아다니며 조사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졸속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제전은 어렵고 이미 작품있는 거 초대하는 전시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렇게 진행해야 할까요?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미 경기 국도 1호선도 있었고 목포에서도 있었습니다. 수원도 1호선이고 인천을 깎아내리는 제목이고, 소극적입니다. 항구나 세계적인 걸 강조할 수도 있는데 왜 낡은 주제를 택하는 것 입니까?

윤 이거 엄밀히 말하면, 1호선이 아니라 경인선이죠. 1호선은 인천도 가고 수원도 가고 다 가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팀 날짜는 올해 안에서 고려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윤 경기창작센터와 인천아트플랫폼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전시기획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 작품이 실험적이며 전시형태도 실험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묶어서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실상 프로젝트 수행하기엔 물리적 시간 너무 부족합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담론을 담는 전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 부평아트센터와 다른 점은 이런 거 입니다. 거긴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눈높이 맞춰야 하고, 인천아트플랫폼은 그 위상면에서 실험적인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탈 작가들 각각 1인 기획으로 진행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 모색하면 어떨까요? 오늘 오신 분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놓을 분들이 아니고 좀 어려운 분들이고... 오늘은 그렇고 다른 작가들이나 미술인의 실제적인 의견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민 아트플랫폼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예술창작의 주요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전시와 맞물려 지역 작가의 입장이나 생각도 파악해야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 알 것입니다.

윤 작가군의 관심사나 성향이 다르니까 이를 조명할 수 있는 방식 모색하고, 신진작가들은 비평가들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이 이건 문제가 있는 전시고 진행방식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있는 것 가져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아주 편의적으로 가야 합니다. 인천신진작가초대전이 실상 이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럴듯한 제목 정해서 묶어서 가려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제목 1호선이 아니라 명쾌하게 젊은작가전으로 가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초석전 시작부터 잘못 됐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할 이유는 없죠. 이렇게 안이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

민 젊은 작가 다 불러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젊은 작가가 갑갑한 경우도 많죠.

탈 난 그 갑갑함이 자본이라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여러 군데서 작가 추천 받아서 진행하고, 내년에 젊은 작가뿐 아니라 인천작가들을 묶는 전시 형태가 꼭 있었으면 합니다. 올해 생각해서 내년에 만들면 되니까요.

팀 작가 추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큐레이터나 비평가들을 먼저 찾아보고 이들이 추천하는 건 어떤가요?

민 작업은 좋은데 인천에 대해 전혀 관련 없는 작가들을 부를 바엔 차라리 신진작가라도 인천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이들을 받고 이들이 활동 펼치도록 난장을 만드는 게 낫습니다.

탈 졸업전처럼 여러 작가들을 모으는 작업입니다. 데이터 갖는 작업 자체가 소중하죠. 그 사이에 내년에 할 수 있는 작가 수혈해서 준비하면 의미 있는 듯합니다.

민 작가들이 이런 것을 하면 뽑히고 안 뽑히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이 올해 2년차니까 지금 논의됐던 것을 잘 받아들여서 진행하시죠. 급하게 하면 서로 불쾌할 수 있습니다. 아트플랫폼이 새로 출발하는 입장에서 5,6월에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길게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탈 언론 같은 데 공고를 내서 작가 스스로 참여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작가 스스로를 알려야 되니까 포트폴리오 제작할 수 있는 경비 지급하고, 두꺼운 도록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2부 포트폴리오 제작해서 전시하고 아카이빙 하고 그럼 안 될까요?

민 플랫폼 차원에서 지역 젊은 작가들이 도움 될 일인지 생각해 볼 일인 듯합니다.

팀 저희가 입주작가 이외에는 인천작가들을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인천지역에 대한 작가 연구, 아카이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탈 이번 전시는 인천 미술사에서 사실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시가 되어야 할 텐데요.

민 준비기간이 짧습니다. 제대로 취지 살려 준비해서 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윤 내가 신진작가 전시해본 적 있는데 작가들이 따집니다. 전시한다고 젊은작가들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제2차 기획회의

1. 일시 : 2011년 4월 7일(수) 오후 6~8시
2.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실
3. 참석자(가나다순)
   민운기(스페이스빔 디렉터)
   박석태(미술평론)
   오석근(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윤종필(인천작가 및 기획자)
   채은영(전시기획자)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이영리(인천아트플랫폼 학예팀장)
   김민경(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최미리(인천아트플랫폼 인턴)

이영리 팀장(팀) 2009년 〈인천미술의 초석〉전은 인천의 원로작가를 위한 전시였으며 2010년 〈인터뷰〉전은 중진작가 전시였다. 올해는 젊은 예술가와 관련된 전시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1차 회의 때에는 전시를 어떻게 할지, 시기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당초 5월을 계획하였으나 졸속으로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이며 오늘은 구체적으로 전시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대화를 나누어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관장(관) 11월에 하나 내년 1월에 하나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시에 있어 중요한 관건 중 하나는 인천에 있어서 젊은 예술가란 시대별로 나누는 것이 좋은지, 나이로 나누는 것이 좋은지, 80년대 미술과 90년대의 미술이 완전히 다른데 내용으로 나눌 것 인지 입니다.

박석태(박) 동시에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대순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술에 대한 태도로 접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한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관 인천 지역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작가 몇 분을 꼽아 그 분들의 작품을 현재와 과거 30대의 작품을 비교한다는 지, 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전시가 하나 포함이 되고,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풀어내는 방식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의미로든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석태 선생님은 젊음과 중진 이상의 작가와의 비교를 통해 원고, 혹은 전시를 통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민선생님은 작가들을 대안공간에서 현장에서 부딪히셨기 때문에 실증적 경험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윤종필 선생님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든 젊은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2011년 올해에 있어서 어떤 것이 담론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채은영 선생님은 전시의 한 섹션을 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예술가라는 의미는 단지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시대의 담론을 이끌어내고 인천 미술에 대해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기를 해서 전시 자체가 자료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운기(민) 기존 두 차례 전시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적인 자료수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문화재단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작가를 조망하는 것인지 모호했습니다. 새로운 조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가 중심의 차별적이지 않은 전시가 되었습니다. 지역차원의 논의 없이 결정이 된 후, 해야만 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작가들을 위한 창작 활동 공간이라는 플랫폼의 관점을 재정립하고 연장선상에서의 전시 기획이 필요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전시를 준비

해야만 합니다. 주체의 입장에서 문화적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며 장르중심주의보다는 다양한 장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보여주기보다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 만남과 비평이 필요합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경계, 장르 해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하에 지역에 기반 하는 활동이 중요시 되고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전문 예술 활동 주체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 건지, 매개자인지 촉매자인지, 문화도시 혹은 도시 공동체라는 비전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며 개별적인 주체의 활동이 필요한지 등에 관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인천의 젊은 작가 그룹이나 단체 활동은 보이지 않고, 개인 활동, 일부 팀 활동은 느슨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대부분 작가활동, 예술 활동과는 별개의 경제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음.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예술 창작 활동,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 지향과 지역 중심의 작가가 공존, 모더니즘 상황과 탈모더니즘 지향의 작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형태보다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 두 차례와는 달리 현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발굴하고 추천이나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굴해야 하며 작가 수는 다다익선입니다. 특정한 관점에서 선발하는 한계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30대 중심으로, 30대 전후로 인천을 거점으로 활동 경력 5년 전후의 작가 등이 특정한 방식보다는 자유롭게 자기의 고민과 관심사를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아카이브, 텍스트 모두 괜찮으며 작품에 시대와 상황, 최근의 문화 양상, 관심사 등을 드러내고 나눌 수 있도록 하며, 도록도 이런 관점이 느껴지도록 하고 행사를 전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이 존재해야 합니다. 행사 중에는 프리젠테이션, 토론회,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행사 후에는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 취지에 맞는 전시를 해야 하고 주제와 관련해 '어디 계세요?'라는 질문을 작가들에게 던지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질문을 던지도록. 예전에는 모여 있었지만 지금은 흩어져 있는, 그리고 자기 관심사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 앞서 두 전시는 쉽고 안일하게 전시를 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드러난 것을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끼워 넣기란 힘들었을 것인데, 다행히 저희들은 미래지향적인 전시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맡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트플랫폼에서는 저희의 정체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작가들을 많이 찾아내고, 이 전시를 통해 인천에서 작업 할 만 하다고 다른 지역 작가들에게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전후 인천활동경력 5년 이내가 제약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디인가? 이런 것은 인천의 젊은 작가를 찾는다는 광고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만나서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동의 생각이나 소통의 방법을 가지며 작품을 다양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화가들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광고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전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본인이 예술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연락 바란다고 티저광고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채은영(채) 전시 전체의 프레임을 짜는 것인데, 세부추진은 최우선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대안공간이나 독립큐레이터 활동을 주로 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영 아티스트라는 관점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진작가, 젊은 작가라는 기존의 관점과 다른 결을 생각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하고, 다음 전시로 넘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기반을 위한 3회 전시를 마련하고, 나중에 아트플랫폼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엔날레처럼 영, 신진, 젊은이라는 단어보다는 또 다른 언어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핵심적인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작가의 주제는 많은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제가 정해지지 않으면 작가의 참여 방식을 다양하게 하면서 가능이라고 보입니다. 코-큐레이터가 나타난다면 개별적인 소소한 아이디어 측면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을 그린 후에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채 인천 연고 몇 년인지, 작업 몇 년인지 보다는 아트플랫폼의 주제나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 인천작가의 순혈주의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원로, 중진, 신진의 아카이브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아카이브의 의미는 모든 것을 모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 회의 기록을 보면서 생각한 것인데, 단순한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지난 번 라운드 테이블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젊은 작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하는 담론을 제시하고, 좋은 작가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이 전시를 하는 목적이며, 주제를 가진 다양한 기획전은 새롭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 제목에 영 아티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신진작가라는 언어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관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합니다만, 인천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작가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인재들이 넘쳐나야 시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며 이것이 이번 전시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박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많은 작가들이 참여해 많은 것을 보여주자는 의견은 전시 기간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때는 올해 5, 6월을 예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다 오픈하자는 지적이 있어서 촉박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채 저는 자문이라 생각하고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런 논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좋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코-큐레이팅하는 사람에게 많은 조건을 한 후에 넘겨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분들의 백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아트플랫폼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팀 실무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 각자가 이번 전시에 대해 생각하는 상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비평가 매칭에 대한 의견도 피력해주셨는데요.

관 첫 번째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취지였고, 오늘은 전시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다 같이 전시 끝날 때까지 한배를 타고 가야합니다. 전시는 늦어도 11월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장소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트플랫폼에서 하되, 다양한 공간을 개발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천의 다른 예술공간도 개발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페이스 빔 등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를 찾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전시를 벌려놓으면 공간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 올해는 부평아트센터와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부평아트센터와 신세계갤러리가 재개관 하면서 슈필라움, 해시 등등과 함께 11월 신진작가 지원전시 연대 방식을 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곳은 신진, 나오는 작가들을 위한 인천의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신세계갤러리에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천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계에서 네트워크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안 되지만 인천에서는 대안공간 네트워크, 부평아트센터, 신세계갤러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인대로 엮기 위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관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플랫폼과 스페이스 빔은 전체를 포괄해서 보여주는 전시이고, 슈필라움도 함께 보여주고자 합니다.

윤 슈필라움의 리모델링은 100%전시장으로 활용을 할 수 없는 카페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전이나 작은 전시를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 리스트 보면 대략 추정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시기들을 다시 살펴보고 모아서 다양한 장소에서 보여줄 건지, 분산할 건지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위해서 작품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작품이 아닌 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관 송도에 있는 모 갤러리의 전시를 보게 되었는데, 주제가 전시의 적절한 제목이 아니였음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십년간 전시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모습에 공감을 못 느꼈습니다. 작품을 신작을 하든, 구작을 보여주던 간에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도 각자의 역할을 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시 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 의견을 주고 자문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전시 형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으신 게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선생님이 비평을 쓰신다거나, 채선생님이 전시를 직접 구성하는 등의 실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채 섹션이 나누어지면 큐레이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를 조율할 큐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오거나이징은 플랫폼에서 하셔야 하고, 큰 덩어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아트플랫폼에서 하셔야 합니다. 작가에게 신작은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큐레이터가 푸시를 하고, 정보를 제공할 때 더 좋은 작품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작은 다르게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안공간처럼 지원금을 조금 주고 작업을 독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관 거기에는 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없이 지원하고 편의를 봐줄 수는 있겠지만 작가의 일이 작업을 하는 일인데, 우리가 기획전을 하니 작품을 내주세요가 아니라 인천에 있는 작가들의 현상을 모아보고, 그게 시대별이든 나이별이든, 시대적인 입장이라면 과거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고 논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전제가 가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 저는 예술작품이 자꾸 거론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채 프로젝트 리서치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서치베이스를 위한 지원입니다.

민 형태나 지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지만, 보고서 방식으로 출판되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박 아카이브 형식의 전시이니, 채선생님의 말씀도 맞지만, 종착점을 향해가는 전시라면 구작과 신작이 함께 있는 것이 괜찮다고 봅니다.

관 채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렇게 되면 채은영의 기획전이 되지, 인천이라는 아카이브 기능을 하는 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채 아카이브라는 것 자체, 아카이브 전시는 엄청난 양을 뿌려주는 것이 아카이브잖아요, 보여주는 방식에서 아카이브를 원하시는 건지, 아카이브의 전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박 아카이브가 여기에 100%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아카이브적인 전시죠.

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전시인 거죠.

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 정도로는 힘들죠.

채 리서치 베이스를 하던, 작업을 하던 간에 큐레이터가 이론, 정보, 금전적으로 백업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윤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해는 시기가 벌이는 것보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는 게 좋겠다는 등의 개인이 얻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이런 장을 통해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 경제적인 면이 필요하긴 하죠. 신작을 하기 위해서는 번 돈으로 작업을 하고, 언젠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선 언제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작가의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작가적 역량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지원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찍지만 프린트를 해서 걸고 나중에 사겠다는 사람에게 액자를 마련해 주고 싶을 만큼 지원 부분에 대해 작가들에게 주어진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다루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한국과 영국 작가들의 인터뷰를 본 후에 생각한 것이, 현실의 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 작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리라 봅니다.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날것으로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 과거에 생산된 작품은 보여주고, 내게 여건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일종의 작업 계획서를 써보는 것도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이런 건 작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 지원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문화매개자, 평론가, 큐레이터도 이 안에 함께 담고 싶습니다. 각자 작업을 해오셨지만, 작가는 작품으로 남고, 매개자들은 매개한 활동으로 남게 됩니다.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이 젊은 예술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선생님 말씀도 좋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작정하고 작품을 하고 싶은데 2년간 어떻게 살 것인가, 보고서 형식으로 제안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 더블 인터뷰라는 그 전시에서는 책도 함께 출판되었는데, 한국 예술정책이 잡아내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좀 더 현실적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 오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제목이 몇 개 나오는데요? 젊은 작가로 산다는 것 이런 등등.

윤 경제적인 부분이든,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 예술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위기인지 모두 다를 것인데, 그걸 또 풀어나가는 방법도 달라질텐데, 그런 것들을 들춰내 서로의 생각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관 앞으로도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전시의 주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젊은 작가를 누구로 생각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박 인천에서 활동한 작가들로 한정하는 것은 껄끄러운 문제입니다. 아마추어작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천지역 대학 출신이거나, 다른 지역 대학을 졸업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 번의 공모전을 통해 자신을 작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그런 분들이 취미로 화실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30-40대의 주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경향은 선생님을 많이 따라가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색을 찾아가기도 하지만요.

관 어떻게 한 사람이 작가가 되어 가는지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어 문화센터를 다니게 되고 지역 미협의 관계자에게 그림을 배우게 되고, 그분이 문화센터를 몇 년 다니다 새로 들어오는 분들과는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해 사람들을 만나 화실을 열고 강사를 초빙해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받고 작업을 해요. 인사동에서 화랑을 대관해서 전시를 하고 가족이나 남편 친구들이 작품을 사주고, 그 다음에는 인사동 화랑에서 초대전을 열어서 솔드아웃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아트페어에 나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런 분들이 각종 협회에 소속되면서 신진 작가들이 들어갈 틈을 봉쇄시키는 거죠.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다 막아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협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부금을 내게 되죠. 그러나 다행히 여기 30대 전후, 신진작가는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네요.

박 그런 것은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작가 연령의 상한선은 74년생인가요?

관 철도가 지하철과 연결된 게 74년이라서, 74년을 기점으로 인천은 본래의 인천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채 저는 38살까지인 줄 알면서 궁금해 하면서 왔거든요.

박 인터뷰 전에서 가장 어렸던 작가가 39세 정도 되었구요.

채 아카이브전 성격을 가진다면 그 밑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 74년생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될 것 같네요.

팀 이분들이 확정 명단은 아니고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오 그렇다면 신진작가 전시라면 추천도 있고, 오픈된 공모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구분이 모호해 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방바닥에서도 열심히 그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관 저도 그런 친구를 알고 있죠.

윤 여기에서 근거지는 주소를 말하는 건가요?

민 거기에는 물리적인 것도 있고요

윤 재단기준 같은데요.

채 공모가 다양한 작가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조건은 디테일해야 합니다. 추천이나 리서치의 형태로 생각한다면 다양할 수 있지만 공모 형식을 통해 사람을 찾겠다고 하면 세심하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인천의 컨텐츠, 문화가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 그걸 관심 갖고 여기에 모여들 수 있게 하는 여지, 일종의 여지를 갖춘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에 인천에서 할 수 있는 작가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외부에 긴장감을 좀 주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일종의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술을 전공하면 무엇으로 먹고 살고 있는지 직업박람회를 가진 이전의 전시처럼 생각의 전환을 통해 페스티벌 형식을 갖추고, 인간으로 먹고사는 것, 작가로서 먹고 사는 것,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짚어주었으면 합니다.

관 여담인데요, 제가 평소에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가난한 예술가. 가난한 예술가라는 말에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요즘 예술가들은 가난하지 않고, 밥을 안 먹고 작품을 하는 사람도 없고, 공간을 제공한다 해서 전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팀 공모라는 형식은 오히려 껄끄러워하고, 돈 보고 달려드는 작가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 여기에서 예술가를 지원하는 정책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예술가의 실존, 생존문제를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관 공모라는 형식을 생각해본다면, 11월이니까 졸업작품전 할 때입니다. 대학에서 1,2명 추천을 받아서 상징적으로 전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모보다는 원하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 공모가 작가들을 수면위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추천, 리서치, 공모라는 방법을 통해 작가들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딪히는 점이라면 누가 추천을 받고 누구는 발굴하고, 누구는 공모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페스티벌의 성격이라면요.

관 추천, 리서치, 공모의 방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윤 공모 조건을 디테일하게 해야 합니다.

박 겹칠 수도 있겠죠.

채 인터뷰는 어떠세요? 공모는 서류심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 있는 큐레이터를 만나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게 될 수 있는데, 인터뷰를 꼭 해보고 싶어 하세요. 적어도 20-30분 정도 만나서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더군요. 서류를 마련해서 보내기보다는 간단한 사전예약을 통해서 인터뷰를 보고, 추천이나 리서치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너무 더 형식적이거나 행정적으로 작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자료를 받아서 연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 그렇긴 한데 실행하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한 섹션의 영상으로 쏜다면 그것도 작품이 될 수도 있겠죠.

채 추천의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졸업 전시를 다니면서 픽업하는 방식이 좀 더 실제적이긴 하고, 리서치도 한 개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관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민 가이드라인은 정하면 될 것 같고, 공모의 형태로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거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추천식이죠 사실. 그렇게 해서 모아지면 어떻겠느냐. 어떤 잣대로 자격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은 작가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왜 거기 가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런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박 내면 되는 방식은 어떠세요?

관 공모의 형식을 띠되, 위원들이 적극 추천하고 참여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공모는 숨어있는 작가를 찾아내는 방안입니다.

윤 공모 전 단계에서 한번 설명회를 할 수도 있고, 공모 후에는 워크샵을 갖고, 행사 준비기간의 논의 자료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떨어져나가는 작가들도 있을 것이고요.

팀 공모에 내는 자격은요?

윤 지혜롭게 해야죠.

박 껄끄러워도 생년월일로 자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 젊은 모색을 할 때 40대 이하의 작가들을 추천했는데요.

윤 인천을 주된 거점으로 해서, 40대 이하의 작가들을..

오 인천이 가진 개항이라는 역사, 송도라는 신도시,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채 페스티벌의 형식이나 내용을 정해주고, 함께하고 싶은 젊은 작가들의 제한을 두지 않는건 어떠세요?

관 인터뷰 전에서 소외된 작가에서부터 진행하는 건 어떤지.

채 공모에서는 이것과 연관된 세심한 내용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창작매개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 74년 전후로 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관 예를 들면 386세대가 있었죠. 30대 이하면서 90년대 학번이면서 70년대 이후 탄생이라는 397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네요.

팀 308은 어떠세요. 30대, 00학번, 80년대 생 이런 것도 있죠.

채 이런 것도 디테일 하게 정해야 합니다.

관 작품의 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실험성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젊은 작가니까요.

윤 주장하는 것이 모두 다른데 이걸 묶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그래서 분산이 비중있게 나가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 빔에는 설치가 유리할 수도 있고, 전시장에는 캔버스 작업이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컨셉, 성격은 작품의 성격에 맞추어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위원님들이 고생해주셔야죠.

관 인근에 있는 갤러리 카페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나름대로 공간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스페이스 빔은 같이 해도 괜찮은 가요?

민 작가들의 작품과 작품 활동을 어떻게 연계시키는 게 좋은지 등에 대해서 논의 해 봐야겠죠.

관 최대한 작가들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빌 그럴수록 개별적인 차이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슷한 것을 묶어서 분산시키면요.

박 모더니즘과 공공미술을 분산시키는 등의 방법도 있죠.

민 작가들마다 제각기 다른 공간을 찾아나가는 경우도 있고, 전시장이 소개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작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해봐야 합니다. 역할분담.

오 저는 작업을..(일동 웃음)

박 선전선동의 역할은 어때요

관 오픈 날 파티를 해주셔도 좋겠는데요. 워크샵할 때도 파티를 담당해주시면 되겠네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보시구요.

민 그런 부분들도 작가들에게 맡겨보는 건 어떠신지. 유익하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보거든요. 저마다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좋은 분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관 아트플랫폼이 언제나 접근이 가능한 쉬운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 처음 왔을 땐, 저도 좀 놀라웠는데, 너무 깔끔해서요. 작가들마다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을 다양하게 한다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걸 통해서 좋은 공간을 실험적이고 자유롭게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 만화처럼 경계를 가졌던 분들이 경계를 허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민 저도 비슷한 관점인데, 반지하의 이름으로 퍼포먼스를 참여했지만, 스탭으로 참여하는 작가들도 있고, 공동체로 참여하는 작가도 있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완결된 형태이든, 아니든 간에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 일단 다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작가들만 다 취합이 되면, 전시하는 방식은 나중에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큐레이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하는 방식도 우리 큐레이터들에게 새로운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 큐레이터도 역할을 담당하고, 선생님들도 머물러 주변의 작업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박 경계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섹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 정리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 그렇다면 박 선생님은 연구하고 계신 작업을 연장해서 하셔도 되구요.

민 추천만 우선 잘 해서 시작한다면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추천이 가장 중요하겠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요. 공모에서 최대한 열어 놓는 것.

관 공고문을 써서 초안을 잡고, 의견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작가들이 다 모였을 때, 전시공간과 역할을 정했으면 합니다. 다음 번 에는 공모의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공모의 하한선을 정해야 할 텐데.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오히려 많으니까요. 하한선을 정하자면 25세가 대학 졸업한 후 쯤이 되었으면 하는데..남자들과 여자들이 또 다르니까요. 다른 방식으로 대학 졸업하고 3-4년 정도 작업을 했다든지 하는 건,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관 대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민 25세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군대갔다온 남학생, 졸업한지 1,2년 된 여학생들이 대상이 되니까요.

채 작가의 모든 수를 공모에서 뽑는다고 하면, 공모의 틀을 정교하게 짜야 할 것 같아요. 28세인데도 작업의 방향을 못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뽑는다고 한다면 그건 또한 큐레이팅을 하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74년, 신진작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세부터 38세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만드실 때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학부생도 상관없지 않나요?

관 학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신진작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하한선을 자르기가 참 힘드네요.

관 25세 전후는 어떠세요.

채 공고를 전후, 25세, 73, 74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관 70년 이후부터요. 74년은 지난 회의 때 이미 넘어갔습니다.

팀 공모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요, 공모를 하면 늘 똑같은 분이 내고, 공모를 통해서 좋은 작가를 뽑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모보다는 추천이나 리서치를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공모는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민 공모 방식을 보는데, 조건을 보고, 과정을 까다롭게 봅니다. 공모를 참여하는 만큼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팀 주제를 내고, 취지, 방향을 제시하면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작가로 살아가기라는 오석근 선생님 말씀이 많이 와 닿았어요. 작가들을 만나보면 인천과 중앙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인천이 늘 주변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로 살아간다는 게 작가로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일 수도 있고, 인천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민 다양한 조건을 내걸고,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의지가 있는 작가를 뽑아야 하는 거죠.

박 공모의 초안이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겠네요.

채 그렇다면 전체적이 그림이 그때 그려질 것 같은데요

관 우리 도록에 라운드 테이블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에 젊은 작가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가 심각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박 글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젊음이라는 통념,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보적인 것인지, 젊음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 도록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영문화가 되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 한정되는 젊은 작가들로 한정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박 영문표기도 함께 받아야겠네요.

채 아직 출판계획은 없으니까요, 프로그램, 방향, 컨텐츠가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 알게 되겠죠. 그걸 나올 때쯤은 필요한 영문 자료를 취합하고, 번역하고, ISBN을 꼭 달아서 유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출판의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런 출판은 플랫폼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아카이빙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나오면 필요한 만큼 번역을 한다면, 힘들 것 같고요. 기획의 큰 단위를 세우시면서 번역을 하고, 그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가들에게 공모를 받을 때, 우리의 행사 취지를 잘 알려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에 집중하고, 포트폴리오나 페이퍼 쓰는 데에 시달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 주제나 가제가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관 나온 게 몇 개 있는데요. Who is the young Artist? Where are you? 인천의 젊은 작가로 살아가는 것, 인천의 예술과 미래의?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으시죠?

채 가제가 전시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익숙해져버리고요.

민 젊은 작가들이니까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것이 좋겠네요. 어디 있나요? 어디야? 등등도 좋겠네요. 너 어디 갔니? 는 신진작가의 전시 제목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신진작가라는 입장에서요. 어디 가니와 어디 있니는 다른 문제이고요.

박 (인천) 작가로 산다는 것은 좀 무겁고 지루한 느낌이 드네요.

민 Who is young artist?는 young에 집중을 하게 되고 where는 좀 더 지역적인 느낌과 함께 자신의 예술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채 좋은 것 같습니다. where라는 단어가 주는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 공고부터 이렇게 내보내야겠군요.

민 넌 어디 있니? 라는 한글도 좋은 것 같네요.

오 인천의 근대성이라는 무게감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where are you?라는 문장은 아트플랫폼과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문과 병기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요, 작가를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취합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 영문의 개념으로 하되, 한글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죠. 우선 where are you라는 가제로 가도록 하죠.

제3차 기획회의

1. 일시 : 2011. 5. 12 (목) 6시
2.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실
3. 참석자(가나다순)
   민운기(스페이스빔 디렉터)
   박석태(미술평론)
   오석근(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윤종필(인천작가 및 기획자)
   채은영(전시기획자)
   김용진(부평아트센터 큐레이터)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이영리(인천아트플랫폼 학예팀장)
   김민경(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박주희(인천아트플랫폼 인턴)

이영리(이) 이번은 젊은예술가 기획프로젝트 3차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지난 회의 때 얘기되었던 부분들과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지난 1, 2차 회의에서 이번 전시의 방향이나 제목, 작가 모집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작가공모에 대한 부분은 어제 저희가 드린 작가공모안을 참조하시고 보충할 점이나 수정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시제목의 경우 플랫폼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친 바 있으며 전시의 방향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으로 수정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작가공모안을 확정짓고 오늘 참석한 운영위원들의 역할을 분담하여 앞으로의 진행을 구체화화 하고자 합니다.

이 2차 회의가 끝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목은

인천, 젊은, 작가라는 세 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하는 '나는 인천의 젊은 작가다'로 생각해 봤습니다.

김용진(김) 굳이 인천이라는 지역성을 한정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듯합니다.

이승미 관장(관) 이번 전시는 재단에서 3년에 걸친 인천작가에 대한 세 번째 전시로 인천의 젊은 작가를 조망하는 전시입니다. 따라서 인천에 있는 작가가 대상입니다. 인천 태생, 인천 거주, 인천에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참여의 여지를 넓힌 것이다. 인천, 젊다, 작가라는 것은 사실상 작가군을 넓게 열어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작가의 경우 본인을 인천작가라는 이름에 국한짓지 않고 국제적인 작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들 역시 이번 전시에 참여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전시는 젊고 참신한 작가들을 찾아내서 자료를 축적하고 좋은 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은영(채) 현재 공모요강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읽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작가들이 알 수 있도록 텍스트로, 참여기준으로 넣어야 합니다. 인천뿐 아니라 여러 연고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윤종필(윤) 인터뷰 전과 달리 이번 전시는 참여작가의 범위를 풀어버리는 것인가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듯하며, 만약 그렇게 실행했을 때 나중에 전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관 아마추어 작가인가, 일반시민인가, 전문 작가인가를 물어보시는 것인지요?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전문작가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시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은 큐레이터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채 학력, 국적 제한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러 작가를 원한다는 것 아닌가요?

관 미술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작가인지, 미술단체 회원이 아니라고 작가가 아닌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일정하게 선을 긋기가 모호합니다.

이 참여기준에 학력, 국적, 제한 없다라고 되어있는 것에 대한 보완은 심사에서 결정해야 할 일로서, 아마추어의 전시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렇게 가면 됩니다. 제도권의 사람들만 냈으면 그 사람만 전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큐레이팅이 강한 전시가 아니라 페스티벌이면 일단 참여기준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주고 참여 양을 보고 큐레이터와 내부에서 정하면 될 일이고, 이는 심사에서 보완될 것입니다.

관 건강한 아마추어는 많이 있어야 하며 그 중에는 제도권보다 더 중요한 작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뜨리는 심사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숨어있는 많은 젊은 작가들을 모을 수 있는가, 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저희는 전시 출품자가 작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해주길 원하며, 그래서 자기소개서 왜 인천의 작가인지를 정당화하는 일련의 글을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관 기성작가들 중에 미술대학을 안 나왔지만 좋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작업하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심사란 안전장치로서의 심사를 의미합니다.

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큐레이팅 할 것인가의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앞으로 전시의 구성을 생각할 수 있는 의미의 심사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이 공모안에 확실하게 드러나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 그렇다면 지원하는 사람은 다 붙여줘야 하지 않나요?

관 중진작가까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젊은 작가야말로 파악도 안 되어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작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어떤 작가가 자신이 인천작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인천작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작가가 인천 작가인지 모호합니다. 인천에서 얼마나 전시를 해야 하며 작가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인천에서 잠만 자는 작가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작가들까지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 작가, 인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해진 듯하며, 여기서 중요한 건 젊다라는 부분인 듯합니다. 몇 살부터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젊다는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할까요? 생물학적 나이로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정적인 것인지...

관 그게 제일 문제라 생각합니다. 60대 작가도 젊은 작가라 하면 가능할 수도 하지만 이것은 세 개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전시와는 작가군이 달라야 합니다. 45세 내외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을 듯합니다.

박 공모안에서 나이에 대한 단서를 달아줘야 할 듯합니다.

관 인천에 대한 해설, 작가에 대한 해설, 젊다는 것에 대한 해설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일반적으로 20대를 신진으로 보지 않는가요.

이 공모안에서는 숫자적인 것을 빼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채 공모안에서 드러나는 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보를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공모안에서 '나는 인천의 젊은 작가다'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제시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주면 작가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지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자체가 작가를 모아놓고 전시하는 것이라 작가들은 그러한 구체적인 것이 빠져있으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며 장르제한, 제작시기, 형태, 그런 부분도 명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이 안 되어있어도 준비를 해서 프로젝트, 리서치도 가능하다라는 등의 참여방법을 다양하게 열어주는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작품제작비는 없지만 다른 부분이 있음을 자세하게 보여줘야 할 듯합니다. 가령 어떠한 프로젝트 참여의 경우 장비 지원 같은 것이 있는데, 작가가 봤을 때 이런 프로젝트에 작품제작비가 없는 상태로는 전시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 참여방법, 지원방법, 지원사항에 대한 정확하게 명기가 필수적입니다.

관 전시장소는 인천아트플랫폼 외에 여럿 될 것입니다. 오늘 정하는 게 필요한데 스페이스 빔은 어떤지요.

민 이야기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마다 기획에 대해서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간격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리가 안 되서 여러 의견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회의에 참석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를 넘어서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 연장선상에서의 기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적인 전시가 아니라 새롭게 활동하는 주체들을 파악해서 풍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하는 논의 차원에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전시로 갈 것인가 토론의 장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면 잘 해결이 될 듯합니다. 논의 차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스스로 작가가 판단하는 가운데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각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관 그것도 좋지만 전시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민 큰 틀은 그렇고 전시 형태나 기타 참여의 형태는 작가 개인에게 내맡기는 게 어떨까요.

관 기존에 정해진 것과는 다른 방향의 것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젊은 작가가 누구인가라는 담론을 생산하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기존의 한계는 안고 가야할 듯하며, 그렇다면 오히려 젊은 작가가 무엇을 해야 하냐 보다는 그들의 고민을 확인해보는 자리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채 참여작가를 모으는 것에 있어서는, 아트플랫폼이 전시 주관기획이니까 작가의 스펙트럼을 생각해서 6월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도로 하여 6월에 공모안을 내고 부족한 부분은 운영위원들이 추천하도록 합시다.

민 처음부터 명확히 외부로 이번 전시의 취지와 구성을 드러나게 되면 받아들이는 작가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정리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전시와 다르게 다양한 이야기를 끌어내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 조금 더 의도가 구체화되어야할 듯합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젊은 작가 전시를 통해서 인천 예술 문화의 스펙트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느냐, 젊은 인천 작가를 인큐베이팅 해서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할 것이냐 등등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 공모안, 지원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본 전시에 대한 개요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포럼과 논의의 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작가를 일단 모집하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미리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중요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이브 형태가 강하

다면 지원사항에 포트폴리오 제작을 지원한다는 부분을 넣어야 합니다. 나중에 백, 이백 명 자료가 쌓이면 자료가 되니까 지원자들을 관심을 끌만한 자세한 부분이나 지원사항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카이빙은 출판이나 포럼, 워크샵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 다만 일반적인 대규모의 공모전들과의 차이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방식대로 가면 시상만 안 할 뿐이지 중앙미술대전 같은 공모전과 다른 게 없습니다. 작가들이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주목받게 되는 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한정 열어놓았을 경우에 생각보다 지원이 더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작가공모를 통해서 작가들을 세상밖에 드러내고 프로모션하는 가운데 인큐베이팅과 같은 어떤 것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야 의도가 드러나고 작가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 포트폴리오 제작이란 어떤 형식의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채 작가모집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모아야지만 원래 의도했던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린트가 필요하다면 프린팅 비용을 지원해줘야 할 것이며 작가한테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관 작가들에게서 자료를 받으면 스캔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디자인회사에 외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작가들한테 CD로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천작가가 최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민 20-30명 정도로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 민선생님 의도대로라면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민 그래서 추천이나 그런 제도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Where are you를 제안한 것 젊은 친구들이 예술이라는 이름을 빌어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하는 차원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는가를 보자는 의도였습니다. 자신들만의 포트폴리오나 특정한 형식으로 정리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펼쳐놓고 이야기 자리를 만들어 서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들이 담고 있는 생각들, 기성세대 관점 등의 이야기 꺼리를 풍성하게 모아보면 의미있는 행사가 될 듯합니다.

관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다 참여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며, 이를 위해 공개모집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참여작가들이 작품을 구현하는 방식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품은 전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행사라든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때 또 의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 오리엔테이션 등은 계획을 듣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어떤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정리해서 보내도 모양새가 대략 보여질 듯합니다.

관 역할분담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람이 있어야 할 듯하다. 젊다라는 게 아무래도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시 오픈보다는 오프닝 파티같은 형태가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 벌여놓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페스티벌로서, 파티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파티 자체도 예술로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 공개모집을 통해서 많은 작가를 모으고 생각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다시 논의합시다. 작업을 내는 사람들은 전시를 통해 하고 별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주면서, 페스티벌, 파티 어떤 것이든 형태는 작가들의 의견을 반영합시다. 작가들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추천 부탁드립니다.

민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20-30명 정도 추천할 작가가 있습니다.

윤 작가를 공개공모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채우는 부분이 어떨지요.

민 작가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작가들 의견 듣고, 그것을 가지고 대략적 모양새를 구축하는 것이 순서일 듯합니다.

윤 일단 작가들은 공모를 하고 보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추천해서 보완해야 할 듯합니다. 지역작가 데이터베이스가 인천문화재단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 노파심일 수도 있는데 공모개요에 지원사항이 없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열어놓아야 하며 작가들이 봤을 때 취지에 공감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10년이나 2011년 최신작을 요구하면서 장비지원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아카이브 지원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 생각됩니다.

오 공개모집이란 형식은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간다면, 신작인데 지원비도 없고 얻는 것도 명확하지 않아 할까말까 선택의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가들이 지원할 만한 것이 드러나야 하고 최소의 작품이 들어가 있는 일괄적 파일지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 공모의 형식은 다양하게 합시다.

채 모아서 보관하는 디지털형 데이터베이스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므로 아카이브는 좀 더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지털화된 자료를 받는 것과 정리 등이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채 업데이트를 해야할 시 최소지원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 기관의 지원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아카이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은 지원해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해야할 듯합니다. 이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 도록을 만들 때 작가의 자료를 충실히 다루는 형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작지원비는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작지원시 필요하긴 한데 이번 프로젝트는 섣불리 결정해서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는 지원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 전체 비용 중 장비같은 렌탈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점점 작가 지원 비용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렌탈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원비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공개적으로 작품지원비를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 다시 언급하건대 전에 오석근 작가님 말씀처럼 프로젝트가 젊은 작가들에게 매력적일까 물음표가 붙습니다. 젊은 작가를 생각하다보면 사실 현실의 젊은 작가는 세계에 진출하거나 자신을 미술계에 홍보하거나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 이상적인 프로젝트가 과연 작가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여러 작가를 홍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채널이나 방식이 담겨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가들이 공모에 얼마나 메리트를 느낄까 우려스럽습니다.

관 인천아트플랫폼은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작품과 작가의 역량이 보여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 메리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리뷰도 있고, 선정작가를 평론가와 매칭, 잡지사에서 와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것은 작가가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요?

관 해외큐레이터를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젊은 작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공개적으로 인천의 젊은 작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민 작가들이 주체적이면 좋겠습니다. 외부시선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스스로가 주체가 되지 못할까 답답해요. 과감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좋은데, 제자리에서 살 길만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 아쉽지요.

관 프로젝트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끝내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이번 기회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장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스페이스빔도 그렇고 부평아트센터도 그렇고 전시공간도 역할 분담을 해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 가능성은 열어두고 기획안을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관 지금 조금 더 명확한 협의와 확정이 필요합니다. 공모안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하여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며 전시장소가 인천지역내라고만 표기되어 있는데, 장소가 구체적으로 표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 작가추천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이 나오면 각자 운영위원들이 작가들에게 연락해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박 공모와 추천, 그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은 공개모집 먼저 해서 작가를 모집하고 추후에 보강하도록 하지요.

김 공모전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오 작가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미술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놓

치지 말고 가야 합니다.

관 그런 부분은 작가도 불쾌하지만 지원기관도 불쾌하기에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 제목은 확정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참여대상을 좀 더 분명히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관 20세부터 40세 전후, 40세 정도가 어떨지요.

박 40세 전후라 하면 또 불명확해질 것이고 20세도 불명확합니다.

윤 25세부터 만 40세는 어떤가요.

박 추천작가의 경우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 추천의 경우 나이가 좀 많더라도 참여작가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박 그리고 인천의 젊은 작가를 포함하여 인천을 컨텐츠로 하거나 거점으로 삼는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 인천을 주제로 하는 작가들을 의도적으로 끌어올 필요도 있습니다.

민 인천 거주는 어떨지요.

오 거주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길을 열어둡시다.

민 모든 것을 품어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거주하는 작가 입장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박 외부시선으로 보는 인천이 더 다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 내용적으로 인천 방문의 차원은 아니라 생각되는데요.

윤 전시보다 나중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듯합니다. 전시과정을 통해 전시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으로 전시 의미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관 작가 공모부터 하여 큐레이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 제목이 바뀌게 된 경위가 무엇 때문인지요?

관 Where are you같은 경우 우리가 찾아갈게라는 의미라면 바뀐 제목은 스스로 찾아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민 동어반복일 수도 있으므로, 앞에서 정확하게 행사 성격, 범위를 한정 지어주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이것을 확인하려 하는지 주제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난 번 전시제목 Where are you가 영어이고 가벼워보였습니다. 민 선생님 말씀대로 인천작가들이 무엇을 하는지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여주자는 의도였습니다.

민 그렇지만 질문을 해서 끌어내는 것보다는 작가의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할 듯싶습니다.

윤 질문을 함으로써 작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 그들이 과연 동시대성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묻는 타이틀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 예술의 형태, 지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혀놓고 찾아보자라는 것이 핵심일 것인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 기획 자체가 작가들의 생각을 집어내고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전시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제한을 두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 기획의도에 관한 질문에 대답만 하다가 작가가 본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관 젊은 작가가 동시대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고자하는 것이 Where are you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보다 매력적인 제목이 나오면 바꿀 용의가 있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나는 작가다라고만 해도 문제를 제기한다는 취지와 부합할 듯합니다. 앞에 2011년 젊은예술가 프로젝트라는 문구에 이미 취지가 나와 있는데요.

오 유행하는 프로그램 제목처럼 따라가기보다 새로운 제목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 제안 해주세요.

채 일단은 오늘 나온 내용 가지고 공모요강을 수정하시고 보내주시고 생각해봐야 할 듯합니다. 어쨌든 3부작의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포인트를 잡아 제시해주고 내용이나 구성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워크샵이나 기타 작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을 공지문에 넣고 알려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민 스페이스 빔도 전시기간에 공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작가들에게 박하게 자기 검증하듯이 하는 것은 지양하고 최대한 기회를 주어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지고 나오고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윤 그런데, 지원서에 학력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이 아카이브 작업을 하려면 학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채 출판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학력에 관한 문제는 컨텐츠에 맞춰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 기본적인 인적사항 외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최소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지원서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 추가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 도록에 인터뷰를 실었으면 합니다. 전시에 훨씬 부합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인터뷰형식도 좋고 워크샵에서 나오는 말을 넣는다든지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령 정말 인천 토박이 작가를 선정하여 인터뷰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운영위원 선생님들의 글도 부탁드립니다.

오 저는 젊은 작가로서 작가로서의 고민, 미술계 구조의 문제와 현재에 대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 오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많은 이야기가 글로 나올 수 있을 듯합니다.

관 민운기 선생님이 그러한 부분을 써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박석태 선생님은 인천의 젊은 작가에 대한 평문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 인천 토박이 작가뿐 아니라 외부의 작가, 인천을 연결해서 작업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작가군을 포함할 수 있는 프로젝트 섹션이 있으면 좋겠고 저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했으면 합니다. 또 작가 인큐베이팅과 관련된 부분이나 워크샵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 인천 작가가 있다면 인천의 기획자도 있고 관련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 전시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김 저는 부평아트센터가 이 기간에 가능하다면 저희 관장님과 상의하여 이쪽 섹션을 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가 독특한 시도들인데 전시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 관의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윤종필 선생님께서는 해시를 맡고 계신 것은 아니시지만 그쪽에서 프로젝트나 전시 등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 네,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시 부분을 맡는 것도 좋고 작가 인터뷰 부분에 참여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민 예술 양성이란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 아트플랫폼의 주변상황이 현재는 일반 회사원들이 반이고 나머지는 미술 관계자들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작가들과 관계자 수가 많아지고 현재 사무공간이 작가들의 공간으로 확장이 된다면 지금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작가이고, 큐레이터이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예술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인천에 관심있는 작가들을 모아보자라는 맥락입니다.

이 그럼 오늘 3차 회의는 마치고 오늘 의견을 수렴하여 작가공모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감사드립니다.

제4차 기획회의

1. 일시 : 2011. 7. 28 오후 4시
2.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실
3. 참석자
   민운기(스페이스빔 디렉터)
   박석태(미술평론)
   오석근(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윤종필(인천작가 및 기획자)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 관장)
   김민경(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이승미(관) 참여작가들에 대한 명단이 대략 나왔는데요.

윤종필(윤) 명단을 보니까 인천대나 인하대를 나왔다고 될 일도 아니고, 좀 애매하지요.

오석근(오) 거의 다 나와야 될 분은 나온 것 같은데요.

관 인천의 작가들이 인천에서도 작업해도 괜찮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대학에도 연락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운기(민) 열어두고 일단 작가들의 신청을 받고 추천을 한 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번 전시의 주제를 확실히 알려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응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민 단순히 경력 쌓기기 아니라 최소한 인천이라는 지역적인 것으로 자신 활동 근거 정체성 찾을 것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물어야겠지요.

오 그러면 참여작가는 발표가 늦어지나요?

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요.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려요. 젊은작가 기획프로그램에 아카이브 사업이 있었는데 범위나 구축 방식을 말씀해주세요.

오 원로, 중신, 신진이 다 있어야 아카이브가 의미 있을 듯하며 앞으로 관리 차원까지도 논의해야 의미 있을 듯합니다.

관 원로, 중진은 도록이 나와 있으니 이번 작가들만을 통해 젊은 작가들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어떨지요. 자료집은 젊은 작가뿐 아니라 원로 중진도 있어야 합니다.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제가 아카이브를 문화재단에 애초에 제의했었는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였습니다. 종이나 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력 평가하는 비평글까지도 볼 수 있는 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용,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난점이 있지요.

관 지금까지 아카이브의 개념이 불분명했는데 이제 명쾌해졌네요. 이제 작가 자료를 받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각각의 자료를 만들고 추가할 것은 우리에게 자료 보내주면 이번 작가에 대한 아카이브는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진 원로작가는 내년에 한다든가 하는 방식이 가능하겠네요. 연도 혹은 전시 혹은 작가별로 갈지 효율적인 카테고리도 나눠야 할 듯합니다.

박 모든 게 입체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카이브의 포인트입니다.

관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 데이터 분류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올해는 우선 이 작가들만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죠.

박 작가 위주로 갈수밖에 없는 한계를 뛰어넘을 필요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것도 다 아우르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해요. 그런데 예산 부족이 문제죠. 예전 예산 뽑은 것을 보면 미술사나 미학 관련인 데이터 관리인,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자료섭외 및 디지털 자료화하는 인력, 인터뷰 과정 등을 포함하면 수억원 들겠네요. 다른 데서도 한 6억, 7억 들더라구요. 그래도 필요하지요. 인천지역 미술 연구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어서 어렵거든요.

관 현재 자료가 제일 많은 곳은 스페이스 빔인데 그곳 자료를 디지털자료화 할 수 있지요?

민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지요

관 그러면 내년에 민운기 선생님, 박석태 선생님이 이런 일들을 진행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기본 자료 안을 만든 후 보완해나가면서 몇년에 걸쳐 구축할 필요가 있지요.

박 전 그래서 한 3년 사업으로 봤었어요.

관 올해는 젊은 작가에 대한 자료를 디지털화는 것으로 형식을 만들고 내년에 중진, 원로작가들의 자료는 추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2013년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떠실지요.

박 이건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문제이고 복잡하더라고요.

관 이번은 다 자료를 달라고 해서 스캔 받을 것은 받고 데이터 받을 것은 받아서 자료화 하면 되겠지요. 미술사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야죠. 그런데 이것은 플랫폼 또는 재단 사이트에 넣을지 아니면 별도 사이트 만들지요?

오 한국영상자료원처럼 시스템을 빌려와 별도의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방법일 듯해요.

박 자료집도 하시나요?

관 자료집은 아니고 도록이지요.

민 제가 듣기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속하지 않은 부분을 아카이브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관 이번은 아니고요, 이번 사업에 대한 아카이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 신중히 잘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는 필수죠.

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만든 한국화가 500명이 제작되었는데 몇년 뒤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죠

민 이것은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죠.

관 시립미술관이 생기면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요.

민 시립미술관이 이것을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관 이 일은 시립미술관처럼 우리가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충실히 업데이트 하면서 준비하고 이후 미술관 학예사가 고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지요.

윤 앞으로 시립미술관에서는 시각예술에 대한 전문도서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민 시립미술관이 그런 아카이브 작업을 미리 한 다음에 개관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런 것은 포럼이나 그런 것을 열어서 연차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죠.

윤 재단으로도 많은 자료가 들어오지 않나요. 그것은 정리가 되고 있나요?

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 달라지겠죠.

윤 자료 받는 일도 같이 해야겠네요.

관 저희 직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민 그럼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 서류심사라기보다 빠진 사람 체크 후 최종 발표, 참여작가 발표는 8월 8일인데요.

민 최종 발표라기보다 개별적으로 작가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획의도 알리는 방향이 좋을 듯해요.

관 오프닝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2시나 3시부터 할까요?

민 그럼 3시요?

관 사회자는요? 박석태 선생님이요?

박 제가 수업이 있어서.

민 어떤 식으로 할지 일정도 잡아야 할 듯해요.

박 전시 이전에 오리엔테이션하고 이후 아무 행사 없나요?

관 포럼은 어떤 규모로 할까요?

박 일단 참여작가가 확정이 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하는 것이 어떨까요? 주제를 몇 개 가지고 하는 것이요.

관 주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박 인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신진작가에서 본격적 작가로 합류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된 동기? 이번 전시가 작가로서의 시작점에서 어떤 의미 가질 수 있을지 등등입니다.

민 정리되지 않았지만 몇가지 재안을 드리면, 오리엔테이션에서 서로 작가들이 소개하는 자리 있어야 할 듯합니다. 자료집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하고 전시 시작하면 비평가들이 참여작가들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할 텐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상호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몇몇 작가들이라도 발표하고 이에 대해 비평가들이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기회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관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지요.

민 지역적 맥락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다각적으로 자기 정체성 확인하고 새로운 정체성 찾아나가는 것들요.

오 포럼이든 그런 형태를 통해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좋겠네요.

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의 순서나 내용, 일정 정리해서 이메일 보내고 선생님들이 여기에 추가할 부분 알려주세요. 도록, 자료집 같은 것들에 들어갈 내용들을 넣어주세요.

제5차 기획회의

1. 일시 : 2011. 8. 8. 6시
2.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실
3. 참석자(가나다순)
   민운기(스페이스빔 디렉터)
   박석태(미술평론)
   오석근(인천아트플랫폼 2기 작가)
   윤종필(인천작가 및 기획자)
   채은영(전시기획자)
   김용진(부평아트센터 큐레이터)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이영리(인천아트플랫폼 학예팀장)
   김민경(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박주희(인천아트플랫폼 인턴)

이영리(팀) 오늘은 집담회와 포럼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필(윤) 재단의 사람들도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지요.

박석태(박) 제가 제안한 심포지움은 성격이 다릅니다. 인천아트플랫폼과 관련해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성격과 앞으로의 방향과 다른 레지던시는 어떤 방향 추구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민운기(민) 기관이 겹치게 되면 같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미(관) 심포지움은 전시 끝날 즈음 하는 게 좋을 듯하고 집담회는 시작 무렵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작가는 다섯명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 이러한 틀 자체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다면 다섯 작가 선정 방식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요.

박 인천출신, 인천 작업하는 사람. 외부 출신이지만 인천 근거지 둔 사람 등. 보는 시각이 다르니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 작업해온 형태나 방향 따라 나눌 수도 있겠지요.

박 그러면 다섯 이상도 되고 공격적인 토론도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민 다섯 명은 말문을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모인 모든 이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관 그러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 제가 제안한 게 확정된 게 아니니 내용이나 성격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담회와 심포지움은 저와 민운기 선생님이 정교히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 뭔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문제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미리 얘기를 해줘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관 박석태 선생님이 제안하신 포럼은 내용이 국내 사례나 문화적 과제는 좀 무거울 듯합니다.

윤 첫 번째 집담회는 작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두번째는 포럼은 큐레이터나 평론가들이 와서 끌어가는 포럼도 좋을 듯합니다.

박 3년 동안 진행되어 온 전시라는 점에서 지난 3년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관 지난 1,2회 기획했던 분들 오시라 해서 하나의 마무리, 앞으로 발전적 방향에 대한 점검의 자리가 되면 좋을 듯합니다.

박 이 전시에 대한 마무리,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요?

민 어쨌든 이번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 집담회를 하되 전반부는 이번 전시, 후반부는 3년 정리를 나누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민운기 선생님은 지금까지 3년간 나왔던 내용들 말씀하시고, 박석태 선생님은 아카이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네요.

민 자료집 제작할 때 실제 공간에 전시되는 작품과 자료집에 실릴 것들이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집은 작가노트나 지금까지의 작품, 자기 발언 등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석근(오) 자료집과 전시형태가 동일한 것은 아니어도 되겠고요. 작품만 거는 게 아니라 자표집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 용어에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출품작품이라기보다, 출품형태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 자료집은 어떻게 제작을 할지 의견을 주십시오.

민 2~4페이지 내외로 구성하면 어떨지요.

관 이 자료집이 인천의 미술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품반출입은 예산 때문에 운송비로 소요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꼭 필요하다면 해드리지만요.

오 인천지역에 있어서 들고 올 수 있는 작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들고 올 수 있으면 들고 오고, 인천 이외의 지역은 운송을 해줘야 하지 않을런지요.

민 그런데 기준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는 것은 본인이 하시고 우리는 다른 쪽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차리라 전시할 때 경비가 드니까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쨌든 인천의 작가니까 갖고 오시고 지원금을 드리는 게 10만원이라도 낫지 않을까요.

관 글은 누군가가 써야 하는 게 좋을 않을까요. 민운기, 박석태, 오석근 운영위원님들 모두 쓰시는 걸로 하지요.

오 저는 젊은 작가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들어서 좀 망설여집니다.

박 단순한 전시에 참여하는 소회 정도로 해도 좋을 듯한데요.

민 취지를 살린다면, 박석태 선생님은 자료집을 보고 작가에 대한 글을 쓸 수도 있고, 오석근 선생님은 젊은 작가로서 쓸 수 있지요.

민 그럼 자료집 글을 중심으로 집담회를 할 수도 있겠지요.

관 그것은 자료를 따로 만들 수 있겠지요

박 차라리 집단회 형식이 낫다면 채록 형식이 낫지 않을까요.

오 그러니까 나중에 채록한 것을 모아서 자료집을 내는 것으로요?

박 작가 입장에서 부담되지 않나요?

오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하는데 인천이라는 것을 들고 왔을 때 상당히 부담되고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작가가 힘들지요. 물론 인천작가이긴 하지만 발제할 때 한정되는 것이 머뭇거려지게 되는 거지요.

관 언제까지 인천의 지역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 지역을 집합시키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관 그것은 아니고요. 인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을 기반으로 인천에서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지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것에 꽂혀서 방향이 이상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똑똑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요.

민 작가들이 스스로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고 바꿔내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관 예술이 도시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고 인지할 수 있는 기반이 있으니 작가들이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 지역에서 작가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 이전에도 있긴 하지요.

박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생각을 못했던 작가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미술대학에선 전형적인 것만 가르치니까요.

관 이런 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많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관심있는 것은 전시 종료에도 시작할 때처럼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젊음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요.

민 아니면, 그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오 작가들도 빨리 서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작업을 볼 시간도 없었을 텐데 서로 아는 시간이 생긴다면 작업 동료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관 그럼 오픈하는 날 할까요? 보통 개막날 하는데 이번에 공연장에서 행사하고 할 수도 있지요.

오 공연장에서는 놀 수 있고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민 음악하는 친구들이나 타 예술하는 친구들도 올 수 있지요.

오 제가 한번 불러볼 수 있습니다.

박 한마디로 즐기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관 날짜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박 일단 참여도가 중요해요. 다들 바쁘니 개막날 만나는 것이 낫지요.

민 타이틀로 빨리 정해야지요.

관 '나는 인천의 젊은작가다' 라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오는데요.

오 그런데 위험한 게, 요즘에 너무 그런 선언문구가 많아서, 차별성 두기 위해 나는 뭐뭐다 하는 것은 좀 진부할 수도 있지요. 다른 식으로 선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민 고민을 좀 하다보니 프로젝트도 좀 애매한 표현이고, 인천 젊은 작가 포럼해서 그 안에 전시, 포럼, 자료집 들어가는 것은 어떨지. 그러면서 별도의 부제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오 진짜 어렵네요.

관 이번 금요일까지 2~5개 정도 가져오셔서 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 제목은 좀 숙제로 남기고 가야할 듯하네요.

관 요번 12일 오리엔테이션 하니까 금요일 전에 알려줘야하니까 12일 2시에 만납시다.

제6차 기획회의

1. 일시 : 2011. 8. 12
2.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실
3. 참석자(가나다순)
   민운기(스페이스빔 디렉터)
   박석태(미술평론)
   오석근(인천아트플랫폼 2기 작가)
   윤종필(인천작가 및 기획자)
   유광식(인천아트플랫폼 2기 작가)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이영리(인천아트플랫폼 학예팀장)
   김민경(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민운기(민) 오리엔테이션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놀랍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윤종필(윤) 생각지 못했던 젊은 작가들이 많이 와 주어서 의외로 참석인원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민 그렇지만 그 중에 빠진 작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미(관) 빠진 작가들을 말씀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참여 가능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 제가 추천한 몇몇 작가들은 시간이 안 되어 이번 전시에 참여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석태(박) 모든 작가가 참여할 수 없겠고 참여한 작가들로 알차게 전시를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 지난번 전시제목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 딱히 떠오르는 제목이 없는 것 같네요. 이번 전시의 취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이 필요한데요.

민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Where are you?, 인천작가들 어디있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요.

오석근(오) 저도 지난번 Where are you?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박 저는 유어인천이라는 제목을 떠올려봤습니다. 한문으로 쓰면 놀유 자에 어조사 어 그리고 인천 해서 인천에서 놀다라는 의미인데 괜찮지 않나요?

민 그러면 그게 영문으로 유어인천으로 되니까 당신이 인천, 인천 예술가라는 말도 되겠네요. 재미있네요.

오 그 제목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한문, 영문 다 좋은데 한글로 풀어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 한글로 유어인천을 하면 인천에서 놀다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윤 한자에서 놀유 자보다 있을유 자가 낫지 않을까요? 놀다는 의미보다는 인천에서 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인천작가라는 것을 내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 글쎄요. 둘 다 나쁘진 않은데요.

박 저는 그래도 놀 유자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관 그럼 그 유 자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고 결정하기로 하죠.

민 제목도 정해지면 이제 참여작가들의 자료를 받고 진행하는 작업이 남았네요.

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참여작가들간의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프닝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행사는 인천의 젊은 작가들이 서로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큰 의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윤 참여작가들의 카페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오 네, 요즘 블로그나 그런 카페 같은 것들로 작가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형식이 많고 그런 것들이 이번 전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관 그럼 오석근 선생님께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 저 말고 참여작가 중에 괜찮은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 그럼 추천해 주세요.

민 백승기나 그런 작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 그 분은 너무 바쁜 것 같고요.

오 그런 것들은 조용히 작품을 하기보다는 좀 활동적이면서 적극적인 사람이 해야 할 텐데요. 그래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를 들어 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눠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니까요.

민 유광식 작가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박 유광식 작가라면 인천을 잘 알고 또 블로그도 차분히 잘 꾸려나갈 것 같은데요.

관 그럼 지금 유광식 작가를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유광식 작가 합석

관 저희가 이번 전시 카페를 운영할 생각인데 일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유 아,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요?

관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이번 전시와 관련되어 작가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 등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해주실 것 같아 부탁드리는 겁니다.

유 아 블로그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 일반적으로 카페나 블로그 운영하는 것처럼 개설하고 공지사항도 올려주시고 작가들이 서로 활발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글을 업데이트하고 답변도 해주시는 좋을 것 같아요.

유 제가 잘하진 못하지만 이번 전시에 참여도 하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 오픈 파티는 오석근 작가님께서 기획해 주세요.

제7차 기획회의

1. 일시 : 2011년 10월 21일(금) 오전 10시
2.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실
3. 참석자(가나다순)
   민운기(스페이스빔 디렉터)
   박석태(미술평론)
   오석근(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유광식(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윤종필(인천작가 및 기획자)
   이승미(인천아트플랫폼 관장)
   한재섭(인천아트플랫폼 학예팀장)
   김민경(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이승미(관)
현재 접수작가가 50명 정도인데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에 비해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민운기(민)
간곡하게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것으로 달라진 작가들의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만을 고집하는 게 아닌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작가들이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요즈음의 문화지형이 바뀐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 문화지형의 변화이면서도 전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작가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재섭(팀) 젊은 작가들의 문화지형에 대한 변화라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료집 원고에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 저는 지금 참여하기로 한 작가들로도 충분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원고작성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관 전시오픈 뿐 아니라 집담회나 심포지엄 같은 역할분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 2009년 원로작가전인 인천미술의 초석전에는 이경모 선생님이 큐레이터를 하셨고 박석태 선생님이 잡지 〈시각〉에 비평글을 쓰셨습니다. 역시 2010년 중진작가전인 인터뷰전에는 공주형 선생님이 큐레이터를 하셨고 민운기 선생님이 비평글을 〈시각〉에 기고하셨습니다.

박 그럼 앞에 전시의 큐레이터와 비평가분들을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번 2011년 젊은 작가의 큐레이터와 비평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문제이네요

윤 집담회는 참여작가분들 중에서 인천과 자기작업들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유롭고 편하게 말하는 분위기로 만들면 좋겠네요

오 작가들 발언을 할 때 포트폴리오나 작업소개로 가게 되면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도 늘어질 것이구요

윤 그럼 몇 명의 작가들을 선정해서 미리 질문지를 보내고 그날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작가생활을 시작하는 분, 어느 정도 활동영역이 넓어진 분들을 다섭 분 정도 모셔서 발언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관 그럼 오프닝날 집담회는 윤종필 선생님이 진행해주시고, 12월 심포지엄은 박석태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윤 박 그러도록 하고 말씀들 주시면 좋겠네요

오 오프닝 파티때 공연할 수 있는 팀들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작가들 전시이니 공연장에서 인디밴드가 공연하고 밖에서 자연스럽게 케이터링 음식들 나누면서 발랄한 분위기로 가지요. 혹시 참여작가들 중에서도 공연이나 파티에 설 수 있는 분들도 알아보구요

민 그럼 심포지엄은 이경모, 공주형, 박석태, 저도 참여하고 이번 유어인천전은 외부에서 비평가를 데려오는 방식도 한 번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관 외부비평보다는 인천이란 지역을 또는 이번 전시 전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 심포지엄은 민운기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하고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1월 8일의 라운드테이블은 주로 전시 참여작가에 대한 의견교환과 전시장 구성, 개막식 행사, 인쇄물 디자인 검토 등 전시진행을 위한 실무협의가 대부분이라 별도의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속에서 전시운영위원 모두가 작품 디스플레이 등에 참여하게 됨

참여작가 집담회

1. 주제 _인천과 나
2. 일시 _2011. 11. 19(토) 오후 2~4시
3. 장소 _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4. 발표자
   전승용, 주희란, 연미, 오민수, 오석근, 웁쓰양
5. 사회자 : 윤종필
6. 기타 참여자(멘트) : 민운기, 박석태

윤종필(윤) 작가 집담회 시작 알림을 알립니다. 유어인천 전시는 3개년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제작년은 원로작가, 작년에는 중장년층의 작가들, 올해는 인천의 젊은 작가라는 키워드로 전시가 기획되었습니다. 기획위원들의 고민 중엔 인천, 젊음, 작가 세 개의 키워드를 두고 있었습니다. 집담회의 주제는 '인천과 나' 입니다. 다양한 층위의 작가들이 이번전시에 참여하였습니다. 인천에서 작업하는 다양한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집담회로서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몇몇 분에게 질문지를 먼저 주었고, 그 분들의 대답을 먼저 들어봅시다. 첫 번째로 오석근 작가입니다. 기획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하였고 인천아트플랫폼 2기 레지던시 작가이기도 하죠.

오석근(오) 안녕하세요.

윤 인천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오 네. 작업은 유학을 하게되면서 해외에서도 해보았고, 지금은 다시 인천으로 와 있습니다.

윤 아트플랫폼 입주 작가로서는 어떻습니까?
오 살만합니다. 작업하기도 좋고요. 다만 좀 춥습니다.(웃음)

윤 전시를 하시면서 젊은 작가라는 말이 담고 있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 젊은 작가라고 한다면 미완성의 미확실한 작가라고 생각하며, 작업으로서의 젊음입니다. 미완의 작가라고도 할 수 있겠고, 가능성 있는 작가이지 않을까 합니다. 젊은 작가는 굳이 작가로서의 태도를 가질 수 있진 않을 것입니다. 10년 이상이 되었을 때 작가로 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 오석근 작가는 인천에서 태어나 공부도 하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 태어나서부터 봐왔던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처음엔 노멀한 것이었죠. 하지만 다시 돌아온 지금 특이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고, 노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은 저에게 영감의 원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이 많이 축적 되어있고, 역사적인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은 가장 한국적이며, 작가로써 흥미로운 곳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한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윤 인천으로부터 생각되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오 나무색, 거친 나무색, 녹슨 빨강, 짙은 청색입니다.

윤 학습에 대해 인식이 된 것입니까? 60년대에 태어나진 않았는데요?
오 영화로 보거나 역사자체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물건들은 시각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남아 있는 것들로 알 수 있습니다.

윤 신진작가 젊은 작가란 것은 미완된 상태이며, 사회적으로도 초년생으로 부터 시작할 텐데 젊은 작가는 사회적으로 이렇다 할 자리를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오 상관없습니다. 작업을 한다면 현실에 맞닥뜨려야 하고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것들이 어려울 것이고, 작업할 때 컨텐츠,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환경적인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 할 필요보다 극복을 해야 할 것이죠. 스스로가 방법을 찾아서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은 인식을 하되 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라 하면 경제적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른 아르바이트나 교육을 하며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주희란 작가는 이런 부분을 끌어내 던킨 도넛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주희란(주) 비정규직으로 알바를 하며 쓰러지는 88만원 청년 세대를 이야기로 작품을 합니다. 미술대학을 졸업했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래도 예술을 바라보며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 작가를 하면서 알바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실질적인 생산성을 가지기 전까지 상당히 살아가기 힘든데요. 지원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어떤 지원방식이 생겨나면 신진작가들에게 좋을까요?
주 이번 개인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00에서 반년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시를 위한 지원제도 보다는 작가의 역량강화, 워크샵과 같이 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사회나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울 수 있는 경험자들의 강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작공간 같은 지원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활발하게 활동하며 작업하고 있는 작가가 아니라면 관문이 너무 높고, 작업실을 구하기 힘든 작가들에게 지원해 주기보다 네임벨류가 높은 작가들에게 지원을 해주어 어느 레지던시 나온 작가가 다시 다른 곳을 가고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윤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서 오석근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유목은 아닌 거 같고, 창작공간에 대해서는 작가들이 작업공간이 없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공간, 도시, 모든 것을 보고 맥락에 맞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윤 시대적인 변화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모전의 수상 경력이 있었고, 비엔날레 참여여부였다면, 이제는 레지던시라는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어디의 레지던시를 하였다는 한 줄의 이력에 중요성이 미쳐지는 것 같습니다. 주희란 작가는 인천에서 오래 있다 현재 작업은 안산에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작업환경은 괜찮은가요?
주 집값이 더 쌉니다. 단순히 집세, 작업실 지원이 아니라 원곡동이라는 공간을 작업적으로 잘 풀어보고 싶어서 간 것입니다. 작업실 위치가 안산이고 집은 인천입니다.

윤 주희란 작가에게 인천이란?
주 인천을 바라봤을 때 사적으로 깊이 바라보진 않았고, 근현대가 공존하여 흥미롭다 느낀 것은 배다리에서 작업하였을 때 느꼈습니다.

윤 젊은 작가라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주 열정적이고 실험적이되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윤 전승용 작가도 인천 토박이 이시죠?
전승용(전) 인천 토박이이며, 인하대를 나왔고, 직장도 인천입니다.

윤 인천을 떠나고 싶다 생각한 적은 없었나요?
전 인천을 벗어나면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서울에 답사를 가면 뭔가 조급해지고 인천으로 가까워지면 편안해 지고 말이 많아지죠.

윤 미술교육과를 나오셨고 박사는 문화경영입니다.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나요?
전 석사를 하고 난 뒤, 방문미술 지사장에게 꾀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앞가림을 해야 한다 생각했을 때 돈을 벌기위해 했었죠. 나중에 생각하고 기존의 작업방향과 연관 지어 가다가 문화경영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에 참여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작업이 2007년 이후 거의 스톱된 상황이었고(요샌 주로 단편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작가라는 개념이 이젠 좀 더 폭넓게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술 패러다임으로는 활동가들의 영역은 아직은 작가라고 인식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젊은작가들이 바라보고 활동하는 것이 전승용 작가의 말처럼 더욱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윤 논문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전 주제는 인천으로 잡았습니다. 연구자로서의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인천의 것들을 정리 해 줄 수 있는 작업 활동을 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윤 인천이 지형적으로도 머무르는 곳은 아닌데, 서울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일종의 빠져나가는 유목적인 곳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전 빠져나가지만 그 빈자리가 굉장히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에서 그런 것 들이 다 기억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특징은 그런 것들이 층층히 싸여져 있는 것에 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도 얼마 전엔 창고 건물이었죠. 모든 것이 있다가 사라졌지만 현재는 다시 문화공간으로 채워져 있죠.

윤 연미 작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연미(연) 인천대를 다녔고, 첫 개인전도 인천에서 하였습니다.

오 인천과의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연 학교와 첫 개인전 입니다.

오 연미작가가 보는 인천은 어떻습니까?
연 월세방같은 느낌입니다. 전세금 마련되면 좋은 곳으로 가는 듯 말입니다. 월세방은 집 자체를 잘 안 꾸미 듯 인천의 도로도 비어있고요.

윤 전승용 작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인천 되게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연 요즘엔 좀 다릅니다. 예전에 느꼈던 것하고 다르게 요즘은 있는 곳에서 재미있게 살 궁리를 하는데 인천에서도 요즘 무엇인가를 재미있게 해보자는 느낌들을 받습니다.

윤 인천이 작업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연 인천에서 학교를 오가며 여기가 주변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런 인식이 살아가며 강하게 듭니다. 주변이라는 인식이 정확히 들게 된 것은 인천을 오가며 내가 주변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내가 중심부를 가겠다하는 것이 내 주변 자리를 더 각인시키는 것 인데, 각자 자기가 선 위치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 경제적인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 아이들을 가르치고, 명함도 만들고, 인테리어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윤 인천에서 무엇이 발견되기를 원하느냐고 하였을 때, 바다를 발견하게 해 달하고 하셨는데 바다가 잘 안보이나요?
연 인천이 항구도시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잘 안보이고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윤 학교를 여기서 나왔는데 인천에 대한 애틋한 기억은 없나요?
연 기억이 있기야 하지만 현재로써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윤 웁쓰양 소개 부탁드립니다.
웁쓰양(웁) 인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뒤늦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 동경해왔던 작가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율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잘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미친 듯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계속 작업을 하는 작가 보다는 단지 결과물을 만드는 작가가 아니더라도 에너지들을 작가로써 나눌 수 있는 다른 면에서 행동을 남길 수 있는 작업을 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윤 직장을 그만두고 작업해야겠다는 것과 일치하는가요?
율 일치하지 않습니다. 작업을 하며 현실을 알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율 우연히 일러스트레이션 과정에 1년을 참여하였습니다. 그림책보다는 순수 회화가 나을 것 같아 그 이후 혼자 작업을 해왔습니다.

윤 자신이 젊은 작가인데, 젊은 작가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율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그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입니다. 젊은 작가라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윤 작가로써 지금의 삶이 처음 입문했었을 때의 기대만큼 행복을 주나요?
율 작가라는 것을 꿈꿔왔던 사람으로서 그것을 이뤘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다른 (금전적이거나 사회적인) 부분은 자기가 맞닥뜨리고 극복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합니까?
율 작년까지는 작업실에서 실력을 키웠고, 올해부터는 원서를 넣고 떨어지고 합니다.

윤 어떤 지원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율 작업실 문제는 둘째 치고, 다른 작가들과의 교류라던가, 자신 혼자서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을 다각도에서 작가가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윤 왜 웁쓰양입니까?
율 인터넷 초기 아이디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윤 본명을 왜 쓰지 않습니까?
율 너무 흔합니다. 작가들도 많이 있고요.

윤 나이가 들어서도 양 인가요?
율 70, 80살이 되어도 웁쓰양 양입니다.

윤 오민수 작가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민수(오민) 인천대학을 다녔으며, 인천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 동양화는 한국화가 돌파해야할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민 동양화라는 언어나 한국화라는 언어는 필요에 의해 다르게 만들어 졌다고 생각되고, 동양화가 가지고 있는 한국화가 가지고 있는 맥락들이 다른 파트와 같이 부딪혀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여를 안 시켜준다면 그 작가들이 모여서 진행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수묵화, 동양화를 쓰는데 매체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민 학창시절엔 수묵을 가지고 다른 표현을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뒤, 산수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재료가 줄 수 있는 것을 좀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윤 수묵 말고 다른 매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오민 네.

윤 작품을 제작하게 되면 미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연관되어서 팔리는 것도 콜렉터들에게 팔립니까?
오민 조금씩 유통이 되었는데 요즘은 힘이 듭니다. 그림이 처음 팔렸을 때 작품이라는 것이 가격으로 환산이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맘에 든다 라고 생각했던 작품이 실제로 팔리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욱 만족스럽게 작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였고, 내가 정말 맘에 드는 작품이 팔리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윤 작업을 하실 때 판매를 염두 하십니까?
오민 판매를 두고 작업을 하진 않고 작품을 그리다가 이것은 팔리지 않을까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윤 젊은 작가들의 작품은 대부분 소수의 보여주기 위한 콜렉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판매되기보다 사회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두고 젊은 작가들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윤 오민수 작가가 바라보는 인천이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민 좋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전시를 하는 현상, 관심도가 적고 서울로만 가려하는 현상들이 예전엔 더 심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아지며 조금씩 확장되고 있습니다. 재단이 생기고 처음에 젊은 작가 지원프로그램에 지원했던 작가들이 20명도 안됐었습니다. 그만큼 활동 참여나 부분에서도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재도적인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개선되어야 신직작가들에게 좀 더 용이하다고 할까요?
오민 신진작가뿐 만 아니라 현재 많은 기획전들을 하려고 하는데 창작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항목이 없습니다. 그런 지원이 없는데 작가들에게 인천에 관한 작품을 내라 한다고 한다면 작가들은 기존의 작품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런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젊은 작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나가고 인천에 대한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 지원제도에만 의존하는 딜레마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민 안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만의 지원으로만 느껴지는데, 끝나고 나면 항상 내년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한 작업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정책적인 부분만이 강조되어 몇 월에 지원이 되고 몇 월에 어떠한 실적이나 결과가 이뤄져야 하는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록을 만든다 라던가 공간에 대한 지원쪽으로만 간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윤 실질적으로 작가의 창작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인거 같네요. 미술계의 선배로서 젊은 작가들의 말은 어떻게 들렸으며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민운기(민)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러 왔습니다. 집담회를 기획하면서 대표성을 가진 작가들 6분 정도를 모셨는데, 들으셨겠지만 점을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공통되는 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다양한 입장에서 좀 더 풍부하게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석태(박) 젊은 작가들의 어려움이나 의견들이 활발하게 이야기 되었으면 합니다.

윤 작가들에게 질문하시죠?

민 주희란 작가에게 질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작가가 아니더라도 실험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주류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주류를 떠나서 전형적인 것을 떠나서 어디서 많이 보았던 비주얼이라던가 그런 것을 떠나서 어딘가 다른 그런 것들이 실험적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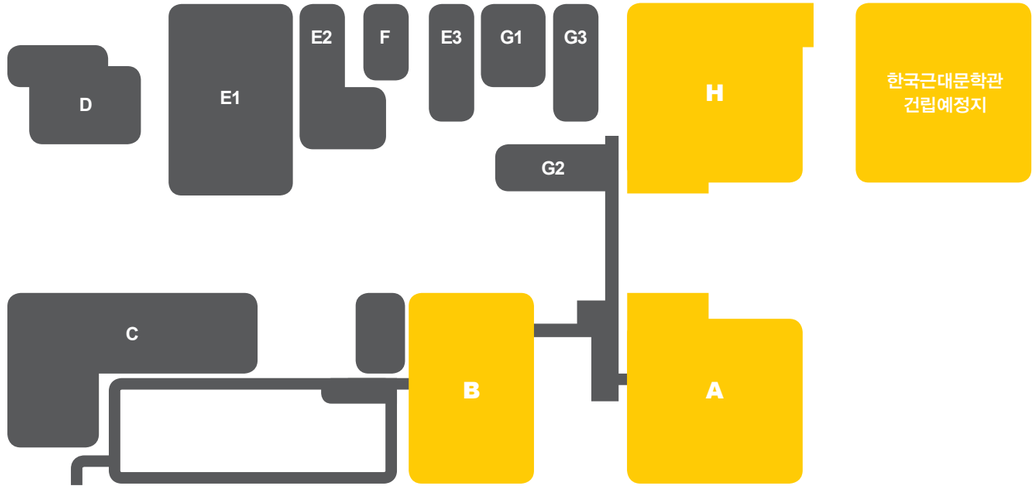
민 젊음이란 개념, 작가라는 개념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 태도 또한 중요한 논의거리로 생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뒤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분 정도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길다래 저는 많이 지쳐있고 작업이 힘들며, 요새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라는 것도 집단 활동이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깔려있는 것인데, 주변사람들의 인식이 저를 많이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 도전하고 그런 것이 맞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많이 지쳤습니다. 이번 전시도 작가라기보다 한 명의 사람으로써 참여했다는게 맞을 것입니다. 작가라기보다 또는 작가를 떠나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돈을 벌면서 일부분을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인천에 다양한 개성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가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작가라는 좁은 그런 틀에서 벗어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윤 그럼 집담회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 오프닝 행사장으로 갑시다.

작품 배치도



A동 크리스탈 큐브
고병선 곽지영 나광호 노소영 랑 문창화
백인태 유목연 이종규 이향경 이해룡
전승용 전태수

B동 전시장 1층
강혁 곽이브 김기민 김문선 김진기
류성환 민병권 서건원 손승범 안우동
오민수 오은미 윤대희 이상아 이정우
조대희 주은희 최경운 현용안

B동 전시장 2층
김아리따 김윤아 김진석 문상원 박우철
박진영 백다하미 백승기 서재현 연미
오상석 옥경래 옵쓰양 윤종필 이미현
이선미 이지선 정지혜 장경애 주희란
홍화선

C동 다목적실
구본아 방혜린 백승섭 오종은 홍효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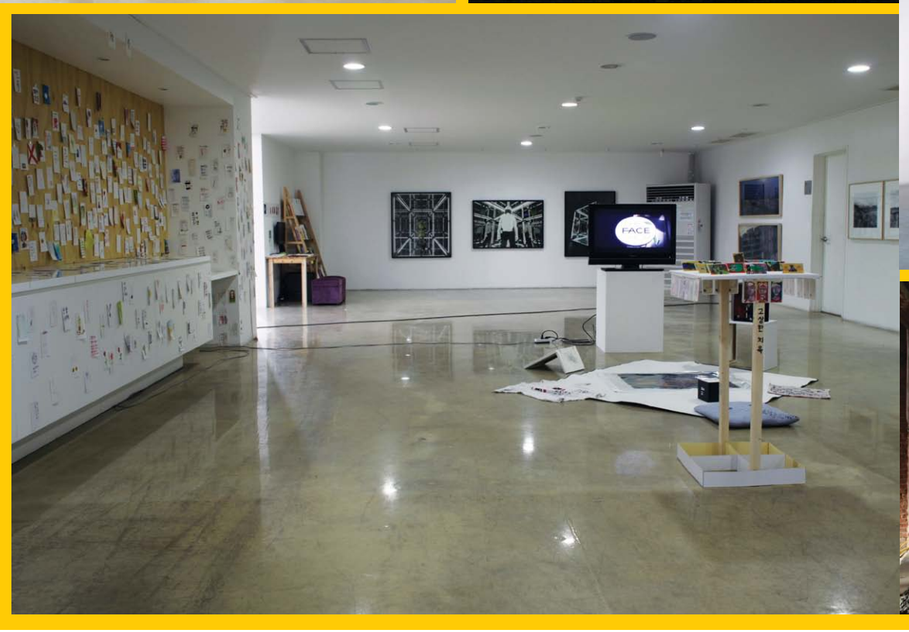
C동 테라스
길다래

D동 아카이브관
유광식

H동 프로젝트룸
오석근

한국근대문학관 건립 예정지
김수환 박정현 이상휘 정윤희

2011 1119 – 1218
2011 인천젊은작가 기획프로젝트
유어 인천
遊於仁川
YOU'RE INCHEON
인천에서 노닐다


FACE

Roland

진영

Roland